국립국어원 2013-01-23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68-01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연구 책임자

정 호 정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연구 책임자: 정 호 정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

연구 기관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

연구 책임자 정호정

공동 연구원 이상원

연구 보조원 조상은, 임순정, 왕기맹, 박현주, 임현경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공공 서비스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역’, 곧 ‘공공번역’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3년에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본 연구는 한국통역번역학회(전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가 수주하여 동 학회 회장인 정호정 박사를 필두로 한국통역번역학회 연구진 6명이 심도 있게 진행하였고, 연구 기간은 2013년 5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다.

본 연구에 앞서 유사한 목적의 연구가 이미 한국외국어대학교(2002년)와 한국문학번역원(2007년)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연구는 공공번역의 개념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불과하였고, 공공번역의 개념 확산 및 이 분야 필요성 및 수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연구 방법 면에서도 전체 번역 수급 과정 가운데 공공번역을 실제로 발주하는 관리자로서의 기관 담당자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그쳤다.

이런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는 우선 연구 대상으로 공공번역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제 수급과정을 담당하고 조절하는 실무자는 물론, 이들 기관에서 번역을 수주하여 실제 공공번역을 담당하는 전문번역사들까지로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 또한 번역결과물연구에서 기존의 영어-한국어 번역 중심에서 탈피하여 영어 이외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확대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번역 수요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는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구는 물론, 이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가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번역의 상황이 해외 그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고 인식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공번역은 모국어인 한국어가 소수어 혹은 변방언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국제화 세계화 정책에 따라 외국어로의 번역, 곧 아웃바운드 번역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콘텐츠의 해외 붐, 곧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문화콘텐츠의 아웃바운드 번역 수요는 매우 크다. 우리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자원,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로표지판 및 고궁이나 문화재 안내표지판,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 메뉴의 표기방식 및 설명 등 실제 번역 수요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대한 실제 번역 공급은 민간의 일반적인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번역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직·간접적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 곧 ‘공공번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공번역의 토대 구축 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제각각 공공번역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별로

번역을 위한 지침이나 표기 원칙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번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번역이 필요한 분야의 공공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특정 분야 번역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수 번역이 일관성 없이 표류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번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번역결과물 평가 및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을 조사하였다. 번역결과물 평가 분석은 표기 기준 및 용어 용례, 그리고 공공기관 외국어 홈페이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기 기준 및 용여 용례는 2012년 이후에 나온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서울시, 국토해양부 자료를 사용하였고 외국어 홈페이지는 청와대, 법무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등 총 22개 기관을 선정해 연구진이 설정한 10개 항목의 오류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 조사는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 담당자와 공공 기관 번역 수주 번역사 양측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였다.

공공기관의 번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일관성 결여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기관 간은 물론이고 동일기관 내에서조차 동일한 용어를 서로 다르게 표기, 번역하는 예를 무수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기초적인 문법적 오류가 많이 줄어든 영어와 달리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문법, 철자, 발음표기법 등 기초적 차원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다. 공공기관의 번역 과정 분석 결과는 일관성 결여 문제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업무 담당자의 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 번역 발주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 번역 참고 자료가 정리되어 번역사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 등의 문제를 업무 담당자와 수주 번역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외 기관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해외 기관은 유럽 연합의 세 기구, 곧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번역총국, 유럽연합번역센터, 유럽연합이사회 일반사무국 언어서비스 기구 이외에, 캐나다 연방정부 번역국, 호주 NAATI, 중국 민족어문번역국과 국가과학기술용어위원회, 일본 문부과학성이었다. 효율적 번역 업무를 위한 조직과 전체적 업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유럽 연합 기구들이었다. 캐나다 번역국과 중국 공공기관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문용어 수집과 번역 관리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호주 NAATI는 자격 있는 번역사를 선별해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공공번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은 표준화이다.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어 번역 결과물의 표준화, 번역 처리 과정의 표준화, 수준 관리의 표준화, 번역사 관리의 표준화 등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공략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정부 내 공공번역을 전담하는 단일전문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체계화된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를 맡겨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 조직개편 등 단기간에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

제이므로, 중단기적으로는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표기 기준 및 용어 용례의 표준화를 제안한다. 우선 공공번역의 수요 관리를 모두 통합적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할 수 있는 일원화된 ‘클라이언트 포털’을 운영함으로써 번역 수급 관리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번역을 위한 용어 통일 및 표준화, 그리고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번역 및 표기 지침의 표준화를 위해 주무기관을 지정하고 여기에서 인터넷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산재해있는 번역 기준 및 용어 용례를 우선 취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번역 및 표기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번역 용어 및 용례 표준화의 근거를 시급하게 확정해야 한다. 이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지침들을 검토하여 3개 언어별 번역 지침(안)도 마련하였다. 이 지침(안)을 중심으로 기존 지침들을 검토하고 확대 보완하게 되면 향후 표준화된 지침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공공번역, 표준화, 공공기관, 외국어로의 번역, 번역 지침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imed at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sector translation -- translation conducted by public organizations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in Korea -- identifying structural issues of current public sector translation and presenting effective and well-thought measures to help solve these issues. This study was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an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over a six-month period from May 7th to November 3rd, 2013 by a group of six researchers from the Korean Society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cluding the project leader, Dr. Cheong Ho-Jeong who is currently chairing the KSCI.

Two previous studies conducted with similar objectives; *Translation Practice of Korean Public Organizations* (Lee, Seung-jae et al.,2002) and *Preliminary Study to Establish a National Translation System-Focused on Public Sector Translation* (Park, Kyunghee et al., 2007). The former was conducted by a group of researchers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the latter was commissioned by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However, these two studies only touched upon the need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 sector translation', but failed to diffuse the concept itself or reach a social consensus on the need or demand for public sector translation.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hese two studies were confined to analyze the opinions of those in charge of sourcing translation service and managing the translation sourcing process at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researchers of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differentiate this study from the previous ones by not only surveying staff in charge of translation sourcing and management at public organizations with regular translation demands, but also interviewing professional in-house and outsourced translators of these public organizations who carry out the actual translation work. The present study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expanded the scope of analysis to include target text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While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analyzing only Korean-English language combination, this study included Korean-Japanese, Korean-Chinese and Korean French source- and target-text pairs as well. This study also departs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as it took a step further to present policy options

required for effectively handling translation demands in the public sector by benchmarking foreign best practices, not being satisfied with simply pointing out issues with the current translation sourcing system of the Korean public organization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however, is the basic understanding that public sector translation in Korea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or regions. While the Korean language still remains in the position of a minor or peripheral langua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ctive globalization drive of Korean society has made outbound translation demands—translation from Korean to foreign languages—grow exponentially. Increasing overseas demands for Korean culture or Korean content and the ever-growing *Hallryu* (Korean Wave) boom have all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and diversifying demands for outbound translation. However, such translation demands as translation of roadsigns, information on old palaces or cultural heritages, or Korean' *Hansik*' menu cannot be simply met by the economic 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These translations whose prime purpose i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lassified and handled as 'public sector translation' that is sponsored by indirect or indirect budget support from public organizations and offered to the public for free use.

However, the public sector translation in Korea has some major issues. Since there have not been systematic efforts to build necessary infrastructure for public sector translation, there is no standardized or orchestrated translation sourcing and management process, leaving respective organizations to serve their translation needs on their own. Thus, different ministries or public institutions use different translation guidelines developed on their own, often resulting in inconsistent expressions and overlapping translation work. This has also led to an imbalance in translation; in some fields, redundant translations are produced while other fields suffer from lack of translations required for serving the public interest. What is more worrisome is that if not managed systematically, these inconsistent translations will hinder the effective spread of Korean culture and content.

By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se issues, researchers of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translation sourcing process as well as the translation outpu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sector translation in Korea from a more comprehensive angle. For

analyzing translation output, the research team reviewed translation guidelines, terminology archives, and foreign language websites of some selective public institutions. The translation guidelines and terminology archives analyzed are the recent ones published since 2012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the Cultural Heritage Organizat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In addition, texts from foreign language (i.e.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French) websites of a total of 30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Cheong Wa Da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re also analyzed. The foreign language terminologies and website contents are analyzed using ten erro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framework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For the analysis of translation process, both survey and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in-house and outsourced professional translators as well as with staff in charge of translation sourcing and management from public organiz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lack of consistency is the most apparent issue in public sector translation. Both at inter- and intra-organizational levels, examples of inconsistent translations or expressions are frequently detected. Unlike the English texts containing far less basic grammatical or orthographical errors compared with the previous studies, Chinese, Japanese, and French texts turned out to include many basic errors in grammar, spelling and phonetic transcription. The analysis of the translation process of public organizations, in fact, offers the very answer to this question of why inconsistency is so frequent and obvious in public sector translation. The relatively short working term of staff in charge of translation sourcing and management, non-standardized translation sourcing and management process, and lack of standardized translation guidelines for translators are commonly pointed out by two groups: staff in charge of translation sourcing and management, and professional translators.

To present improvement ideas for these issues, the present study reviewed foreign benchmarking cases including three European translation service organizations, DGT (European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CdT (European Center for Translation), and Language Service of General Secretariat of European Commission, Canadian Translation Bureau, Australian NAATI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Chinese Central Compilation and Translation Bureau (CCTB), China National Committee for Terms in Sciences and Technologies (CNCTST), and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Among these benchmarking cases, those who show the best practic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work process are the European organizations. The Canadian Translation Bureau, two Chinese organizations and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present interesting implications in terms of terminology collection and management and translation process management. The NAATI of Australia, an effective supplier of qualified translators to the market, presents a possibility of translation quality management through translator certification system.

A key direction the present study recommends to solve all the above-mentioned issues of Korea's public sector translation is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has various different aspects; i) standardization of translation output, ii) standardization of translation process, iii) standardization of translation quality management, and iv) standardization of translator management. Since standardization in all of these aspects cannot be achieved at a time, it is necessary to take a phased approach. As the first step,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standardization of translation guidelines and terminologies. One of the feasible options will be to open an integrated website containing standardized terminologies by coordinating and standardizing different translation and orthographic guidelines and terminologies of respective public organizations. Without incurring too much financial or operational burden, this option of compiling and integrating the exiting guidelines and terminologies will serve a good starting point for the long journey of standardization. To help this integration process, the research team presents alternative translation guidelines for four language,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French, based on the review of several existing translation guidelines currently adopted by major Korean public institutes. These revised guidelines will ultimately lead to standardized translation guidelines,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public sector translation.

Key words: public sector translation, standardization, public organizations, translation guidelines and terminology archives

‘공공번역 표준화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공공번역’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
□ 공공번역 표준화를 구현하기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방향 제안

2. 연구 목표

□ 공공번역의 개념화 및 범주 설정
□ 공공번역 결과물 및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 조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번역 지침(안) 마련
□ 해외 공공번역 성공사례 조사
□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

3. 연구 실행 개요

□ 연구기간: 2013년 5월 - 10월
□ 연구발주처: 국립국어원
□ 연구진: 한국통역번역학회 (학회장 정호정 이하 연구진 5명)

4. 연구 내용

□ 공공번역 개념화 및 범주 설정을 위한 이론적 논의
□ 공공기관의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비교 분석
□ 주요 기관 웹사이트 번역결과물 분석을 통한 공공번역 현황 파악
  ◦ 국립국어원,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서울시, 국토해양부의 총 6개 번역지침 분석 및 비교
  ◦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정부운영기관, 문화예술단체 등 22개 공공기관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웹사이트 분석
□ 공공기관 번역 업무 담당자 및 수주 번역사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한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 파악

◦ 14개 공공기관 16명의 번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담당자 특성,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 애로사항 등을 파악
◦ 공공기관 번역을 담당해온 프리랜서 번역사 3인, 인-하우스 상근번역사 2인을 대상으로 번역사 특성, 번역 수주 방식 및 번역환경, 번역수준관리방식, 발주자와의 관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번역 표준화 시사점 도출
◦ 유럽의 EU이사회 번역총국(DGT), EU 번역센터(CdT) 및 유럽연합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의 3개 공공번역 기관,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의 캐나다 번역국, 민간부문에서 번역사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호주 NAATI, 중국의 민족어문번역국 및 국가과학기술용어위원회, 일본의 문부과학성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 및 방문조사
◦ 공공번역의 수급 관리 및 수준 관리를 위한 운영 방식, 특징, 조직도 및 업무 흐름 파악

□ 우리 실정에 맞는 공공번역 표준화의 방법론 제안

5. 연구 결과

□ 공공번역을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으로 개념화하였음

□ 공공번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 정부차원의 공문서로서 안전행정부 분류상 헌법, 대통령 연설문, 국가 간 조약과 같이 ‘상징적 문건’에 해당하는 문서
◦ 정부차원의 공문서로서 안전행정부 분류상 ‘실제업무수행을 위한 공문서’에 해당하는 문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홍보 인쇄물과 같은 공공기관 정보
◦ 다양한 지역과 지방자치기관의 관광 안내 정보
◦ 주요 유· 무형 문화재나 주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현판 등과 같은 문화유산 정보
◦ 도로 표지판 및 관광지 교통안내 등과 같은 생활 정보
◦ 한국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념 용어 및 인물 정보
◦ 한식이나 한국식 생활관습에 대한 정보
◦ ‘한류’ 또는 ‘K-POP'으로 대표되는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

□ 공공기관의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비교분석 결과 이들 간의 불일치 및 표준화 결여가 번역불일치의 근원적 원인으로 지적됨

◦ 서로 다른 번역지침 간, 번역지침과 웹사이트 간, 동일 웹사이트 내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번역 혹은 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 통일된 번역 지침 마련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번역 지침(안)을 마련, 제시하였음.

□ 웹사이트 번역결과물 분석 결과 번역 간 일관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의 아웃바운드 번역의 결과물 수준이 본 연구 이전에 실시된 비슷한 연구취지의 연구 때보다 비교적 향상됨.

◦ 그러나 도착어의 관용적 표현에 위배되는 잘못된 어휘들이 한데 섞여 사용되거나, 도착어 독자들이 어색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성의 문제들이 여전히 제기됨.

◦ 외국어로의 아웃바운드 번역의 경우 언어별로 번역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음. 일본어와 중국어의 경우는 해당 도착어에 맞는 한자어 사용이 문제가 되고, 프랑스어 번역에서는 우리 문화콘텐츠나 한식명 번역에서 프랑스어의 발음체계상 의도하는 발음이 전달되지 않은 '음차 표기'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

◦ 중국어와 프랑스어 번역의 경우 중역(重譯)이라는 번역전략을 의도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부자연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문장을 낳고 있음.

◦ 일부 외국어 웹사이트의 관리 소홀로 중국어 웹사이트임에도 일본어 내용이 채워져 충격적이었음.

□ 공공기관 번역 업무 담당자 및 수주 번역사 심층 면접 조사 결과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용어 및 자료 관리의 비체계성이 드러났음

◦ 공공기관 번역 업무 담당자와 수주 번역사들의 응답은 대체로 일치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번역 번역 과정의 업무 비효율성, 비체계성을 교차 확인하였음.

◦ 공공기관에서 번역 업무 의사결정권을 지닌 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업무 지속기간이 짧아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 공공기관 번역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자질 있는 번역사를 찾기 어렵다는 점, 표기와 용어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공공기관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사들은 애로사항으로 번역 지침 부재, 참고자료 부재, 공공기관의 원문 중심 사고를 지적하였음.

□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유럽연합은 전체 번역 과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면에서 가장 많은 시사점을 주었음.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의 기관들은 용어 관리 혹은 번역사 관리라는 단일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유럽연합의 DGT, CdT 및 유럽연합이사회 총사무국 언어서비스부는 20개 이상의 공식언어 번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행,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번역물의 중요도 선별, 수준 감수, 번역사 수준 관리, 용어 및 DB 관리 면에서 이상적 모델로서 참고 가능함.

◦ 캐나다는 두 개 공식 언어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국을 두고 국가 문서를 처리하고 있음. 온라인 용어집 구축 작업의 성과가 두드러짐.

◦ 호주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통번역 수요가 많이 발생함. 이에 대처하여 50여개 언어에 대해 정부가 번역사 혹은 언어 전문가 자격을 인증하고 그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번역 수준을 제고하고 있음 .

◦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학술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용어 표준화 작업을 오래 이어오고 있음.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1] 공공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성
[2] 공공번역 전담기관의 설립을 통한 체계적 업무관리 및 번역수준 향상
[3] 공공번역 전문 수급체계를 통한 전문성 제고
[4] 일원화된 인터페이스 및 정부차원의 웹기반 공공번역 네트워크 운영
[5] 번역수준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
[6]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인력 도입
[7] 표준화된 기준에 근거한 번역사 채용 및 자격인증
[8] 번역메모리,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등 번역 관련 기술의 활용
[9] 공공번역 지원시스템의 일반에의 제공 및 서비스 강화

□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제안하였음

◦ 단기적으로는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의 표준화,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시급함. 이를 위해 기존 지침들을 종합하고 전문가 팀의 연구 검토를 거쳐 단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공공번역을 종합 관리할 기관 설립이 필요함. 이 기관의 공공번역 표준화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검토가 요구됨. 공공번역 수요처리, 수요 공급 연결, 품질 관리, 용어 관리 등 다양한 업무들을 우리 현실에 맞춰 취사선택, 조화시킴으로써 효율성 최적화를 꾀해야 함.

목 차

우리말 초록
영문 초록
요약보고서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진의 구성
1.3 연구 일정
1.4 연구 목표
1.5 연구의 의의
1.5.1 번역결과물 평가·분석 대상 언어를 4개 언어로 확대
1.5.2 번역결과물 평가·분석 대상을 공공기관 지침까지 확대
1.5.3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 조사 대상을 번역사까지 확대
1.5.4 향후 방향제시를 위한 구체적 대안 모색
1.5.5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대상을 모델 별로 다양하게 선정
1.6 연구 범위

II. 공공번역 정의와 범위

2.1 공공번역 개념화의 필요성
2.2 공공번역의 정의
2.3 공공번역의 특징
2.4 공공번역 체계화 및 표준화의 사회적 필요성
2.5 공공번역의 범위

Ⅲ. 연구 설계 및 진행

3.1 공공기관 분야별 번역지침의 비교 연구
3.1.1 개요
3.1.2 영어 자료 분석
3.1.2.1 분석 대상
3.1.2.2 전반적 검토 결과

3.1.2.3 항목별 표기 기준 검토 결과
3.1.3 일본어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의 비교 분석 결과
3.1.3.1 분석 대상
3.1.3.2 기관별 일문 번역 및 표기 지침 소개 및 평가
3.1.3.3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청의 표기안 비교
3.2 새로운 언어별 번역 지침(안)
3.2.1 영어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안)
3.2.1.1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제정을 위한 고려 사항
3.2.1.2 영어 표기 기준(안)
3.2.2 일본어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안)
3.2.2.1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제정을 위한 고려 사항
3.2.2.2 일본어 표기 기준(안)
3.2.3 중국어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안)
3.2.3.1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제정을 위한 고려 사항
3.2.3.2 기존 중국어 표기 원칙과의 조율
3.2.3.3 중국어 표기 기준(안)
3.2.3.4 중국어 번역 세부지침
3.3 공공기관 번역결과물 현황 및 수준 분석
3.3.1 분석 목적
3.3.2 분석 방법 및 분석틀
3.3.3 분석 대상
3.3.4 언어별 번역결과물 평가 · 분석 결과
3.3.4.1 영어 번역결과물 분석
3.3.4.1.1 일관성 결여
3.3.4.1.2 정보성 결여/오역
3.3.4.1.3 어휘 차원의 의미 손실 · 추가
3.3.4.1.4 정보의 불필요한 생략 또는 추가
3.3.4.1.5 도착어에서의 관용성 위배
3.3.4.1.6 도착어 수용성 부족
3.3.4.1.7 문법 오류
3.3.4.1.8 철자법 및 구두점 사용 오류
3.3.4.1.9 발음 표기법 오류
3.3.4.1.10 편집과 체계의 문제
3.3.4.1.11 영어 공공번역결과물분석의 소결
3.3.4.2 중국어 번역결과물 분석
3.3.4.2.1 웹페이지 편집 오류
3.3.4.2.2 정보성 결여/오역

3.3.4.2.3 부적절한 번역
3.3.4.2.4 일관성 결여
3.3.4.2.5 도착어에서의 관용성 위배
3.3.4.2.6 도착어 수용성 부족
3.3.4.2.7 어휘 차원의 의미 손실 또는 추가
3.3.4.2.8 정보의 불필요한 생략 또는 추가
3.3.4.2.9 문법 오류
3.3.4.2.10 철자법 및 문장부호 오류
3.3.4.2.11 중국어 공공번역결과물분석의 소결
3.3.4.3 일본어 번역결과물 분석
3.3.4.3.1 정보성 결여/오역
3.3.4.3.2 부적절한 번역
3.3.4.3.3 어휘 차원의 의미 손실 또는 추가
3.3.4.3.4 정보의 불필요한 생략 또는 추가
3.3.4.3.5 일관성 결여
3.3.4.3.6 도착어에서의 관용성 위배
3.3.4.3.7 도착어 수용성 부족
3.3.4.3.8 문법 오류
3.3.4.3.9 철자 및 문장부호 오류
3.3.4.3.10 발음 표기법 오류
3.3.4.3.11 일본어 공공번역결과물분석의 소결
3.3.4.4 프랑스어 번역결과물 분석
3.3.4.4.1 정보성 결여/오역
3.3.4.4.2 표기상의 일관성 결여
3.3.4.4.3 정보성의 등가가 무시된 번역
3.3.4.4.4 정보의 불필요한 생략 또는 추가
3.3.4.4.5 도착어 관용성 또는 수용성 위배
3.3.4.4.6 문법 오류
3.3.4.4.7 철자법 및 문장부호 오류
3.3.4.4.8 프랑스어 공공번역결과물분석의 소결
3.3.5 분석결과 종합과 소결
3.4 공공번역 관련 기관·기구의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연구
3.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4.2 연구 설계
3.4.2.1 조사 목적
3.4.2.2 조사 방법
3.4.2.3 조사 대상

3.4.3 연구 결과
3.4.3.1 번역 업무담당자의 특징
3.4.3.2 번역의 발주와 진행 과정 파악
3.4.3.3 번역물 수준 관리 현황 파악
3.4.3.4 업무담당자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 의식
3.4.4 연구 결과의 시사점
3.5 공공기관 번역 수주 번역사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3.5.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5.2 연구 설계
3.5.2.1 조사 목적
3.5.2.2 조사 방법
3.5.2.3 조사 대상
3.5.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IV.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선진사례 연구

4.1 연구 배경 및 범위
4.1.1 연구의 목적
4.1.2 대상기관 선정 근거
4.1.3 대상기관 목록
4.2 개별 기관별 연구 보고 I: EU
4.2.1 EU에서의 공공번역 수요 및 위상
4.2.1.1 EU의 탄생
4.2.1.2 EU의 공식어 및 언어적 수요
4.2.1.3 공공번역의 필요성 및 수요
4.2.1.4 EU 내 공공번역 담당 기구
4.2.2 EU집행위원회 번역총국(DGT)
4.2.2.1 기구 연혁
4.2.2.2 조직도
4.2.2.3 업무 흐름
4.2.2.4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4.2.3 EU 번역센터(CdT)
4.2.3.1 기구 연혁
4.2.3.2 조직도
4.2.3.3 업무 흐름
4.2.3.4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4.2.4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

4.2.4.1 기구 연혁
4.2.4.2 조직도
4.2.4.3 업무 흐름
4.2.4.4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4.2.4.5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노력
4.2.5 EU의 번역사 채용 기준 및 자격 요건
4.2.5.1 내주 번역사의 채용방식 및 기준
4.2.5.2 공개채용 절차 및 선발과정
4.2.5.3 번역사 고용형태 및 직급 분류
4.2.5.4 번역사 자격요건
4.2.6 외주 번역사 의뢰 시스템
4.2.6.1 선정방식 및 기준
4.2.6.2 기본계약 vs. 특약
4.2.7 입찰유형 및 진행 방식
4.2.8 EU의 공공번역 수준 관리 현황 개괄
4.2.8.1 번역대상 문서 유형 분류 및 유형별 발주 방식 정립
4.2.8.2 출발텍스트교정 서비스 및 문서작성 지침 제공
4.2.8.3 번역메모리의 활용
4.2.8.4 웹 콘텐츠 관리
4.3 개별 기관별 연구 보고 II: 캐나다 번역국
4.3.1 캐나다에서의 공공번역의 수요 및 관련 정책
4.3.2 기구 연혁 및 구조
4.3.2.1 인력풀
4.3.3 조직 및 부서별 업무
4.3.3.1 전문용어 표준화부
4.3.3.2 통역 및 의회 번역부
4.3.3.3 고객 서비스부
4.3.3.4 전문 서비스부
4.3.3.5 통합 서비스부
4.3.4 주요 업무
4.3.4.1 캐나다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 번역 서비스
4.3.4.2 의회 번역 서비스
4.3.4.3 다국어 서비스
4.3.5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4.3.6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노력
4.3.6.1 TERMIUM Plus®
4.3.6.2 『문서작성도우미』(Outils d'aide à la rédaction)

4.3.7 기타 참고 사항
4.4 개별 기관별 연구 보고 III: 호주 NAATI
4.4.1 호주 내에서의 공공번역의 수요 및 관련 정책
4.4.1.1 통번역사의 선발과 인증 관리를 통한 번역 수준 관리
4.4.1.2 공공번역 전담 국가기구 대신 NAATI 활용하게 된 배경
4.4.2 기구 연혁
4.4.3 조직도
4.4.3.1 자격평가자문위원회
4.4.3.2 전문가 자문 그룹
4.4.3.3 지역 자문 위원회
4.4.4 업무 흐름
4.4.4.1 NAATI 자격인증시험
4.4.4.2 NAATI 자격인증의 채널
4.4.4.3 NAATI 인증 번역사 인명록의 활용
4.4.5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4.4.6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노력
4.5 개별 기관별 연구 보고 IV: 중화인민공화국
4.5.1 중국에서의 공공번역 수요 변화 및 관련 정책
4.5.2 중국민족어문번역국
4.5.2.1. 기구 연혁
4.5.2.2 조직
4.5.2.3 부서별 업무
4.5.2.4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4.5.2.5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노력
4.5.3 중국 국가과학기술용어위원회
4.5.3.1 기구 연혁
4.5.3.2 기구의 구성
4.5.3.3 주요 업무
4.5.3.4 전문용어 표준화 노력 및 서비스
4.6. 개별 기관별 연구 보고 V: 일본
4.6.1 일본에서의 공공번역의 수요 및 위상
4.6.2 전문용어 표준화 노력
4.6.2.1 문부과학성 학술용어집
4.6.2.2 표준화 필요성의 인식 및 대처
4.7 해외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관리 현황 연구의 시사점
4.7.1 해외 선진 모델 별 평가 및 시사점
4.7.1.1 중국 모델

4.7.1.2 캐나다 모델
4.7.1.3 오스트레일리아 모델
4.7.1.4 유럽연합의 복합 모델
4.7.2 제 모델의 공통적 시사점
4.7.2.1 공공번역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
4.7.2.2 공공번역 전문 수급체계를 통한 전문성 제고
4.7.2.3 일원화된 인터페이스 및 웹기반 공공번역 네트워크 운영
4.7.2.4 번역수준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
4.7.2.5 전문용어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인력 도입
4.7.2.6 표준화된 기준에 근거한 번역사 채용 및 자격인증
4.7.2.7 공공번역 지원시스템 개발 및 일반 공개

V. 연구 성과 평가 및 향후 연구 방향

5.1 연구 취지 및 설계에 대한 평가
5.2 8대 세부과업 영역별 연구 성과 평가
5.2.1 세부목표 1. 공공번역의 정의 및 대상/범위 규정
5.2.2 세부목표 2. 공공기관 번역 표기기준 및 웹페이지 번역실태 조사 및 분석
5.2.3 세부목표 3.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관리 과정 파악을 위한 면접 조사
5.2.4 세부목표 4. 공공번역 표준화 필요성 확인
5.2.5 세부목표 5. 해외 공공번역 현황 벤치마킹
5.2.6 세부목표 6.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공공번역 표준화 요건 파악
5.2.7 세부목표 7. 주요 언어별 번역 기준 제시
5.2.8 세부목표 8. 중국어, 일본어 대상 한자 사용 원칙 정립
5.3 향후 연구 방향

VI. 결론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

6.1 공공번역의 개념과 범위
6.2 기관별 번역 지침 분석과 그 대안
6.3 공공번역물의 평가 결과
6.4 공공번역 종사자의 인식 조사 결과
6.5 공공번역 선진 사례 조사 결과
6.6 종합

6.7 제언
6.7.1 공공번역 표준화 정착을 위한 단기 과제
6.7.2 공공번역 표준화 정착을 위한 방안
6.7.3 공공번역 표준화 전문 기구 설치·운영
6.7.4 제안: 공공번역 표준화 수행 방안

<부록 1> 공공번역 업무 처리 기관 및 근거 법제화 안
<부록 2> 공공번역표준화 연구 설문-면접지
<부록 3> 공공기관 번역결과물분석

I.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우리 공공기관의 번역은 한마디로 '시스템의 총체적 부재(不在)'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번역의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가 없어 동일한 내용의 번역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발주되고 있다. 또 정부 내 다양한 기관·기구에서 통일된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주기관별, 부서별로 업무담당자가 각자의 재량에 따라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번역수요를 해결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선실무를 담당하는 이들 업무담당자들이 번역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나 이해, 혹은 번역에 대한 개인적 관심에 따라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소위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업무를 배정받고 비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소한의 번역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번역결과물을 수급하기 위한 표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납품이 이루어진 번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후 수준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평가 및 관리 소홀 문제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위한 번역의 경우 더더욱 두드러진다. 공공기관 번역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웹페이지를 기반으로도 제공되고 해외에서 우리 사회 및 문화를 접하는 첫 번째 채널이 웹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웹페이지에 탑재된 이후에는 번역콘텐츠에 대한 사후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최근 해외에서 크게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우리 문화콘텐츠의 해외확산에 공공번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동일한 우리말 용어나 개념을 번역하면서 번역수행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서로 다른 지침을 사용하고 있어 복수의 일관성 없는 번역결과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번역의 혼재 및 혼용 때문에 한국학 학자들이나 우리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해당 용어나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비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번역을 담당하는 기관별로 용어 번역의 일관된 원칙이나 표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공공번역을 둘러싼 구조적 체계적인 문제이다. 동일한 번역의 기준이 음가(音價)만을 제공하는 '음차번역'에서부터 뜻풀이까지 함께 제공하는 '의미중심 번역'까지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음차번역이라 해도 어휘경계나 음절경계 구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심지어 해당 도착어별로 우리말에서 의도하는 음가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음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번역을 관장하는 일원화된 전담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외교,

통상 등 중요 정부업무에서부터 문화예술, 관광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번역결과물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 번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번역결과물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번역 수급 절차와 번역결과물 평가 및 관리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표준화 연구를 위해 다음 4가지 층위를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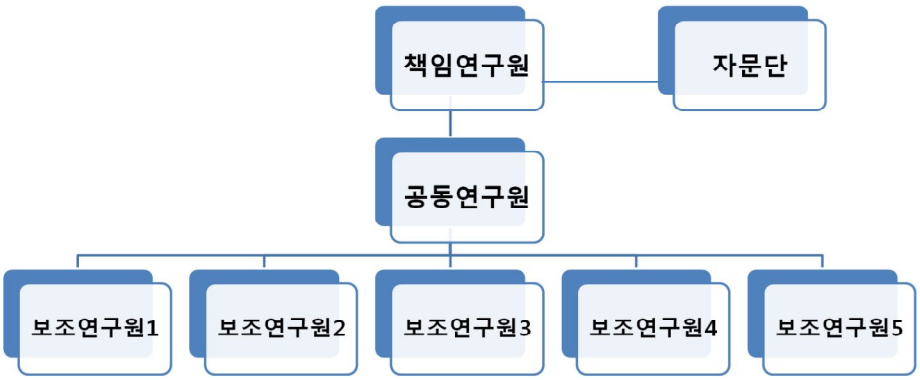
[1] 번역 수급 프로세스의 표준화
[2] 번역결과물 수준 평가 및 감수 기준의 표준화
[3] 번역결과물로서의 콘텐츠의 표준화
[4] 번역결과물 사후 관리의 표준화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공번역 표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방향과 범위, 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진의 구성

본 연구의 수행기관은 한국통역번역학회(구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이다. 한국통역번역학회는 2005년에 창립된 최초의 통번역 학회로서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는 회원들이 꾸준한 학술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구진의 구성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책임연구원 1명, 공동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5명의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연구진의 구성

직급	**성명, 학력, 전공언어**
책임연구원	정호정 (박사, 영어)
공동연구원	이상원 (박사, 영어, 러시아어)
연구보조원	임순정 (박사, 프랑스어) 조상은 (박사, 일본어) 왕기맹 (박사수료, 중국어) 박현주 (박사수료, 영어) 임현경 (박사과정, 영어)

구성원의 학력을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 5명, 박사과정 수료자 2명이다. 전공언어별 분포는 영어 3명, 중국어 1명, 일본어 1명, 프랑스어 1명, 러시아어(영어 복수전공) 1명이다. 특히 중국어 전공 연구자는 중국인 원어민으로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현재 국내 공공번역의 아웃바운드 번역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1.3 연구 일정

본 연구의 진행 및 수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3년 5월 7일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계약

⇩

2013년 5월 16일
착수 보고회

⇩

2013년 9월 5일
중간 보고회

⇩

2013년 11월 1일
연구 종료 및 보고서 제출

⇩

2013년 11월 평가 및 최종보고회

1.4 연구 목표

공공기관 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이라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세부 목표 1. 공공번역의 정의 및 대상·범위 규정
[2] 세부 목표 2. 공공기관 번역 및 표기 기준 비교 및 웹페이지 번역 실태 조사
[3] 세부 목표 3. 공공번역 실태 조사를 위한 면접조사
[4] 세부 목표 4. 공공번역 표준화 필요성 확인
[5] 세부 목표 5. 해외 공공번역 실태 벤치마킹
[6] 세부 목표 6.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공공번역 표준화 요건 파악
[7] 세부 목표 7. 주요 언어별 번역 기준 제시
[8] 세부 목표 8. 중국어, 일본어 대상 한자 사용 원칙 정립

본 연구는 '공공번역'이라는 개념을 설정, 정리하여 연구에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개념을 정의하고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목표가 된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연구 목표는 공공번역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번역결과물 측면과 번역 수급과정 측면으로 나누어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번역결과물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제작, 공개한 번역 및 표기 기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외국어로 구축해놓은 용어 용례 및 외국어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다. 번역 수급과정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번역 관련 업무를 맡은 담당자 면접 조사,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번역을 수주하는 번역사 면접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이렇듯 조사 대상을 다양화함으로써 공공번역의 실태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할 것이다. 또한 한쪽 측면에서 드러난 현상이 다른 측면에서 확인하게 될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해주거나 보완하는 효과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목표는 이상의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번역 표준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목표는 이상의 연구조사과정을 통해 파악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관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 공공번역 실태 조사에서 향후 우리 사회의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공공번역 표준화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공공번역 표

준화 요건을 정리하는 것이 여섯 번째 목표이다.

마지막으로는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망라하는 본 연구진의 장점을 살려, 우수한 공공번역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언어별 번역 기준과 원칙을 정립할 것이다.

1.5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 앞서 공공기관의 번역을 대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연구로 『국내공공기관의 번역 현황』(이승재 외, 2001)과 『국가 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분야 번역을 중심으로』(박경희 외, 2007)가 있다. 전자는 한국외대 BK21 사업단에서 수행한 연구이고, 후자는 한국문학번역원 발주로 본 연구 책임연구원인 정호정 교수팀이 수행한 프로젝트 연구이다.

『국내공공기관의 번역 현황』은 최초로 이루어진 공공기관 번역 실태 조사라는 의미가 크다. 전국의 2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번역 업무담당자들의 인식, 번역 수요 해결 방식, 만족도와 문제점, 해외 기관 교류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이루어진 『국가 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분야 번역을 중심으로』는 국가적 번역시스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국내 번역환경을 조사하고 공공분야 번역결과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공공기관 번역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두 연구의 공공기관 현황 조사를 다시금 확인, 점검하는 한편 두 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범위를 확대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2001년의 최초 조사에 이어 2007년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3년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한편, 다음 4가지 차원에서 연구범위를 확대한다.

1.5.1 번역결과물 평가·분석 대상을 4개 언어로 확대

본 연구의 번역결과물 분석은 영어에 편중되어 이루어진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이루어진 번역결과물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공공번역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어, 일본어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영어 외 외국어로 이루어진 공공기관 번역결과물 현황 분석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5.2 번역결과물 평가·분석 대상을 공공기관 지침까지 확대

본 연구의 번역결과물 분석 대상에는 2010년 이후 본격 등장한 공공기관의 표기지침 및 용어 용례가 포함되어 있다. 웹사이트나 인쇄물 번역 분석에 치우친 기존 분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갖는 이 분야 연구는 번역 일관성 확보

의 중요성을 인식한 공공기관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개발한 표기 지침 및 용어 용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보다 통일성 있고 나은 표준화된 번역지침을 발전시키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1.5.3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 조사 대상을 번역사까지 확대

본 연구는 공공번역 수급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뿐 아니라 수주 번역사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와 번역사는 번역물 발주와 수주의 주체로 번역 과정의 중요한 두 주체이다. 업무담당자 조사에 그친 기존 연구에 비해 번역사까지 포함한 본 연구 조사 결과는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1.5.4 향후 방향제시를 위한 구체적 대안 모색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사한 연구들이 국내 공공번역의 실태 파악에만 그친 반면, 본 연구는 국내 공공번역의 실태 파악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렇게 파악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해외 선진사례의 연구조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럽통합이후 폭발적인 번역수요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 사례에서는 각각의 특화된 번역수급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EU집행위원회 번역총국(DGT), EU 번역센터(CdT), EU 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부의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공식언어로 채택하여 사회구조적 통합을 위한 번역수요가 많은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번역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다민족 다언어 사회라는 점 때문에 영어 등 소수의 주요언어를 중심으로만 번역수준을 관리할 수 없는 호주가 채택하고 있는 번역사인증제를 살펴보기 위해 인증전담기관인 NAATI의 운영을 살펴보았으며, 우리와 가까운 중국 및 일본의 솔루션도 각각 다루었다.

또한 국내 공공번역 실태 분석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안들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1.5.5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대상을 모델 별로 다양하게 선정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기관 뿐 아니라 해외 기관까지도 분석한다. 해외 기관은 공공기관 번역을 직접 담당하거나 번역 관련 업무에 특화된 경우로 선정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해외선진사례를 모델별로 살펴보는 것은 선진사례 조사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사회가 채택할 모델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6 연구 범위

이상의 연구 목적과 목표,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번역의 정의 제시

[2] 번역의 개념 정립 및 사회적 인식 제고

공공번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여 연구 대상의 특징을 포착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한다.

[3] 공공번역을 담당하는 기관별 번역 및 표기 지침 분석

[4] 공공기관 번역결과물 분석

공공기관에서 내놓은 표기기준 및 용어 용례, 그리고 공공기관 외국어 웹페이지를 분석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번역결과물 현황을 짚고자 한다.

[5] 공공기관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 분석

공공기관에서 번역 업무를 맡는 담당자들 및 공공기관 번역을 수주하여 실제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사들을 면접 조사함으로써 번역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6] 해외 공공기관 벤치마킹

EU,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의 공공번역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공공번역 표준화 과정에 참고하고자 한다.

[7] 정책 대안의 제시

II. 공공번역의 정의와 범위

2.1 공공번역 개념화의 필요성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공기관 통번역'(이승재 외, 2001), '공공기관 번역'과 '공공분야 번역'(박혜주 외, 2007)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근거는 '번역수행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번역', '공공분야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이라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현상에 접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주체와 영역만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공공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들 분야의 번역이 갖는 공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목표, 번역결과물의 역할, 번역의 수용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이라 해도 그것이 몇몇 공무원의 개인적 정보 수집을 위한 작업이라면 공공성을 언급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지닌 번역이 별도로 개념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필요성을 들자면 이러한 번역은 민간분야 번역과는 다른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 전달과 소통으로 충분한 민간 번역과 달리 공공성을 띤 번역은 정보 전달의 요구 수준이 더욱 높으며, 더 나아가 민간분야 번역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번역결과물의 영향이 일반 민간분야 번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될 만큼 중요하며 파장도 크다. 외교문서나 법률 등의 번역은 중요한 국제관계를 좌우할 수도 있고, 국가수반 등 주요 인물이나 기관장의 국제기구 연설문 번역이나 우리 문화콘텐츠의 번역 수준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떠나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어사용의 효과 면에서도 '공공기관 통번역' '공공기관 번역' '공공분야 번역'은 모두 2개 이상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개념은 단일어휘로 불릴 때 확산이 더 쉽다. 또 '번역'은 번역학적으로 '통역'과 '번역'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어로, 굳이 '통번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 두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어휘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번역'이라는 개념의 사용을 제안한다.

2.2 공공번역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공번역'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번역 수요가 아닌, 사회의 공공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가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으로 번역이 발주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인이나 민간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번역이라면 공공성이 항상 담보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전시켜 공공번역을 좀 더 폭넓게 정의하면 '시장 원리에 의해 번역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혹은 '상업번역에서 소외되는 분야 혹은 언어권 번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번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공공번역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실현되는 번역인 것이다.

2.3 공공번역의 특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번역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번역은 국가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번역이다.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공공번역과 민간번역을 구별 짓는 큰 특징 중 하나이다.
[2] 공공번역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적 용도의 번역이라면 설사 국가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공공번역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
[3] 공공번역은 익명의 광범위한 대중에 의해 사용되는 번역이다. 번역 사용자의 범위는 공공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공공번역은 시장원리에 따른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번역이다. 바꿔 말해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뒤떨어지는 번역이다.

2.4 공공번역 체계화 및 표준화의 사회적 필요성

공공번역의 체계화 및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와 효율 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비슷비슷한 공공번역 관련 프로젝트나 연구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중복 발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어휘나 한식을 비롯한 우리 문화콘텐츠를 외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용어 사전 구축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립국어원 다국어사전 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둘 다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에서도「통번역 분야의 실용적 활용 토대 마련을 위한 <한국문화 번역 용례집> 구축」연구사업을 토대연구로 진행하고 있다.

이 3가지 프로젝트는 발주기관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 우리 언어 및 문화콘텐츠의 번역을 위한 용어 표준화와 그 결과물의 서비스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각 지원되는 예산규모도 프로젝트 별로 연간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들이 각각 독립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가 반복

적으로 번역되고 심지어 서로 다른 번역어를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용어 표준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점이다. 또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단일주체가 통합적인 예산과 기획을 갖고 집중적으로 집행할 때 시너지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할 것이다.

또 실제 번역 과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표준화를 위해 번역 및 표기 지침도 속속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서로 다른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발해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지침 및 기준을 상호 통합 조정하지 않은 채 각각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르거나 상충되는 번역을 양산하고 있다. 공공번역 표준화를 담당하는 단일주체가 보다 폭넓은 전문가 팀을 운영하여 통합적으로 지침을 개발했다면 별도의 표준화 작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우리 사회에 공공번역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공의 논의를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은 효과적인 예산 및 인력 활용, 그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 면에서 시의 적절하다 하겠다.

2.5 공공번역의 범위

공공번역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용어'와 '공공문서'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번역의 우선적인 대상이 '공공문서'이고, '공공문서'를 번역하는 과정이나 결과물에 필연적으로 '공공용어'가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용어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법령.행정 용어, 국토.교통 용어, 자연.관광 용어, 역사.문화 용어를 망라한다. 반면 공공문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문서로서, 그 중요성에 따라 다시 여러 층위의 공문서로 나뉠 수 있다. <표 2>에 열거된 공공문서의 분류는 우리나라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인데, 참고로 유럽연합의 공공번역 영역에서는 공공문서를 중요도에 따라 제1유형 문서, 제2유형 문서, 제3유형 문서 및 제4유형 문서로 나누고 있다[1].

안전행정부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제1범주의 '상징적 문건'에는 국제 관계를 위한 공문서 등이 속하고, 제2범주의 '실제업무수행을 위한 공문서'에는 서한, 연설문, 국제기구 발송 문서, 기관 홍보자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두 범주에 속하는 문건만이 공공번역의 대상은 아니다. 앞서의 공공번역 정의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잠재적 번역수요'를 갖지만 민간분야 번역 시장의 시장원리에 의해 실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번역으로서,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번역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일반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에 해당하는 번역도 공공번역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1) 이 부분은 4.2.2.3의 'EU 집행위원회 번역총국 업무흐름' 부분 참조

<표 2> 공공용어와 공공문서의 범위

공공용어	▲법령·행정 용어(관공서명, 부서명, 직책명 등) ▲자연지형 용어(산, 강, 바다 등) ▲국토, 교통 용어(도로, 항만, 교차로 등) ▲관광지명(온천, 휴양림, 민속촌 등) ▲역사 용어(왕조, 사건, 제도 등)▲문화 용어(복식, 음식, 문화재 등)▲민간 공공단체명(정부기관, 은행, 민간기구 등)▲기타 한국학 용어, 전문용어 등
공공문서	정부 차원의 공문서 **(제1범주)** 헌법, 대통령 연설문, 국가 간 조약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상징적 문건 **(제2범주)** 장·차관(급) 공식서한, 연설문, 외국정부/국제기구에 발송하는 공식문서, 기관 홍보자료

이렇게 볼 때 문서의 종류, 번역의 발주자, 번역 목적, 번역결과물의 역할, 번역 수용자 등 면에서 앞서 설정한 공공번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공공번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정부차원의 공문서로서 안전행정부 분류상 '제1범주의 상징적 문건'에 해당하는 문서
[2] 정부차원의 공문서로서 안전행정부 분류상 '제2범주의 실제업무수행을 위한 공문서'에 해당하는 문서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홍보 인쇄물과 같은 공공기관 정보
[4] 다양한 지역과 지방자치기관의 관광 안내 정보
[5] 주요 유· 무형 문화재나 주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현판 등과 같은 문화유산 정보
[6] 도로 표지판 및 관광지 교통안내 등과 같은 생활 정보
[7] 한국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념 용어 및 인물 정보
[8] 한식이나 한국식 생활관습에 대한 정보
[9] '한류' 또는 'K-POP'으로 대표되는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

이상의 문서가 공공번역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표 2>에 예시된 '공공용어'는 공공번역 과정에 활용되고 또한 번역결과물의 수준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용어 통일 및 표준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공공번역의 주요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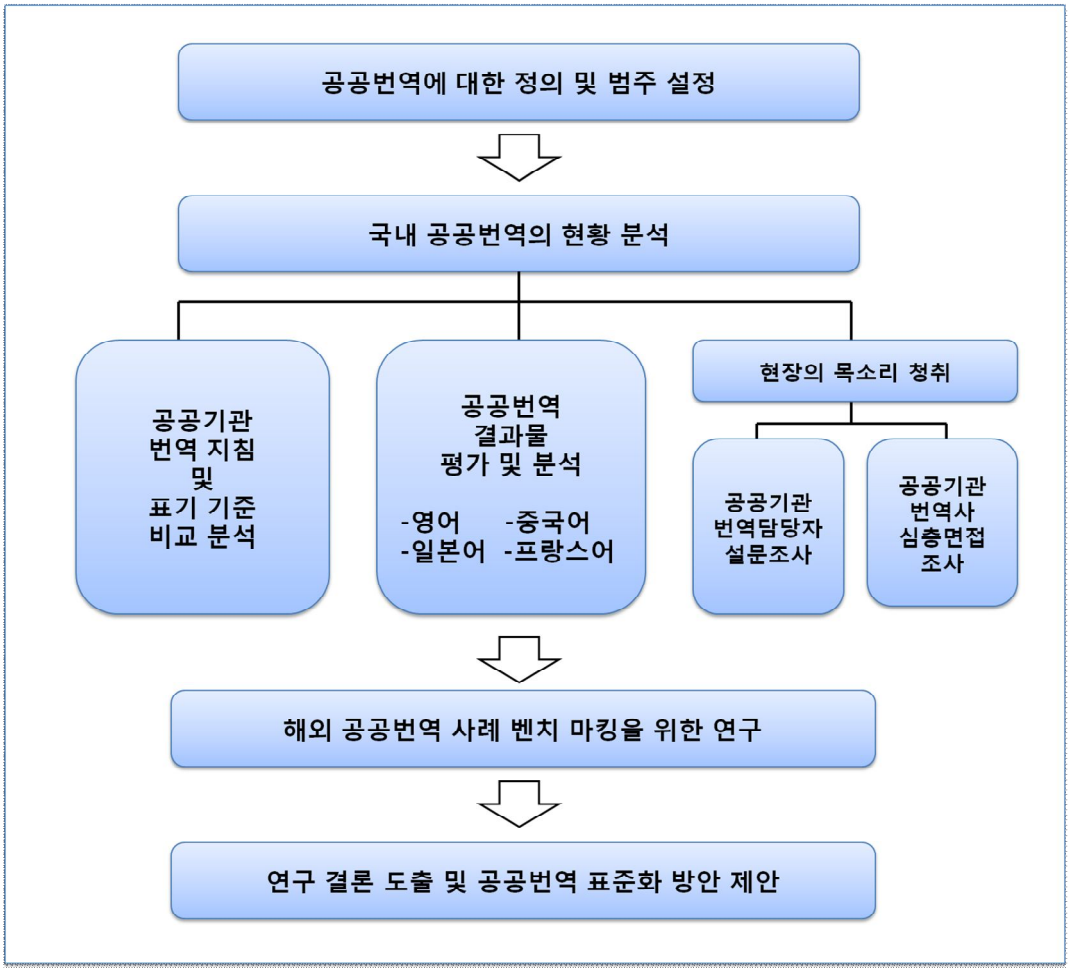
이러한 공공번역은 '정보 전달'을 일차적 목표로 하되 실제로 그 전달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세련되게, 혹은 번역 사용자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추어 하는가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 공공번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

를 얻고 이용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문화전통에 대해 갖게 되는 종합적인 이미지나 호감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마디로 국가의 기본적 이미지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공공번역은 한국어로의 번역, 곧 인바운드 번역(inbound translation)과 한국어로부터의 번역, 곧 아웃바운드 번역(outbound translation)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구의 편의상 본 연구 대상은 한국어로부터 외국어로의 번역, 곧 아웃바운드 번역으로 한정한다.

Ⅲ. 연구 설계 및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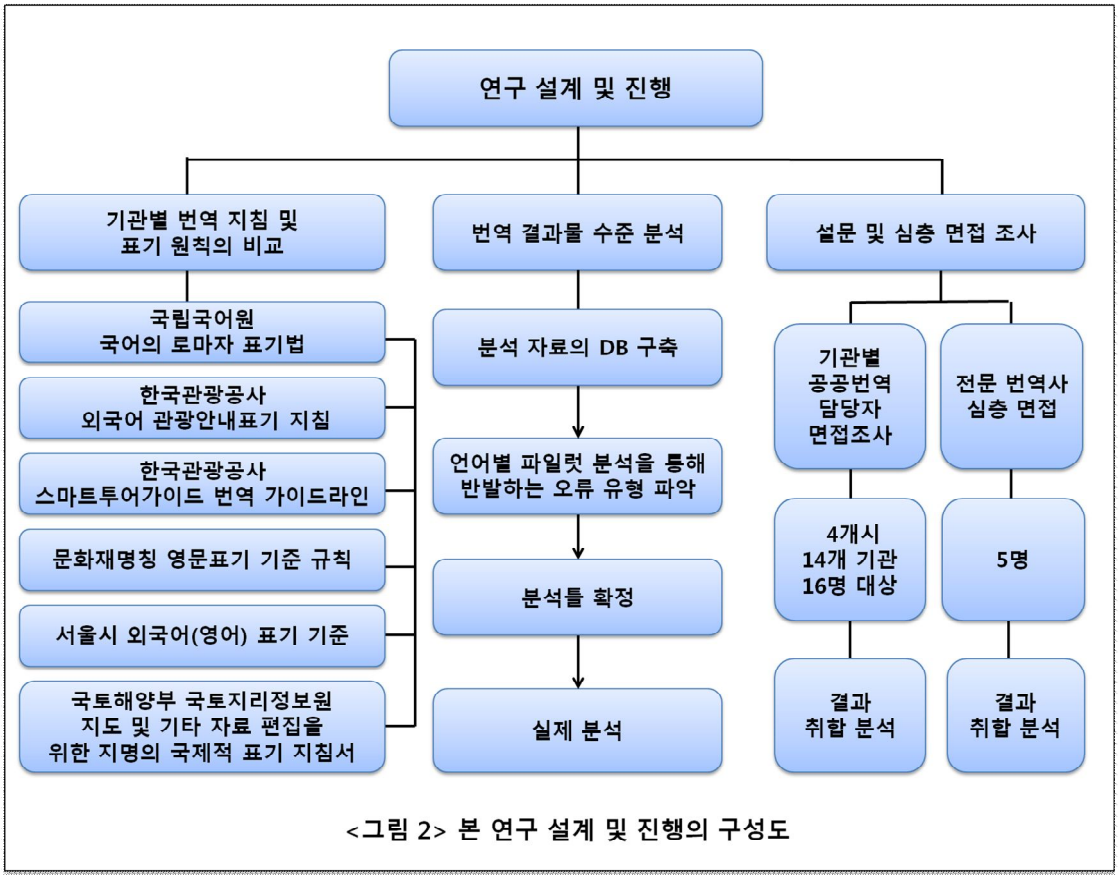
본 연구는 크게 (1) 공공번역에 대한 정의 및 범주 설정, (2) 이를 토대로 한 국내 공공번역 현황 연구, 그리고 (3) 향후 우리 사회 공공번역 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가능성 타진의 세 개의 모듈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이 아래 <그림 1>이다.



<그림 1> 전체 연구 설계

국내 공공번역 현황 파악을 위한 국내 연구는 다시 크게 세 개의 하위모듈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다. 이를 각 모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듈은 공공번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의 번역지침 및 표기 원칙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별로 구축해놓았거나 구축과정에 있는 번역지침 및 표기 원칙이 있는지 파악한 후, 실제로 구축해놓은 결과물로서의 지침이나 원칙이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공공번역의 영역에 속하는



<그림 2> 본 연구 설계 및 진행의 구성도

번역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통일된 지침 혹은 원칙에 따라 번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들 지침이나 원칙 간에 기관별로 상충하는 점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번역결과물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일차적으로는 공공번역의 원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번역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또는 수립하여 놓은 번역 지침 및 표기 원칙들을 취합하였다. 이는 이들 지침이나 원칙들이 적절히 수립되어 공유되고 있는지, 상충되는 점 때문에 일관성 있는 번역이나 표기를 기대하기 어렵지는 않은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모듈은 번역결과물 수준 분석을 통한 번역 현황 파악 작업으로, 이는 다시 다음의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 첫 번째 과정은 공공번역 결과물의 자료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이 단계에서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및 일본어를 각각 담당하는 언어별 전문 연구원들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22개 기관의 웹페이지 콘텐츠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사이트의 소위 '대문페이지'라고 하는 첫 화면을 중심으로 이와 연결되는 콘텐츠들을 취합한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2] 두 번째 과정은 분석을 위한 분석틀 수립을 위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우선

언어별 연구원이 해당 언어별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파일럿 분석을 실시하여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오류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 각 언어별로 파악된 오류유형 자료를 갖고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자리에서 언어특수성 때문에 한 언어에만 나타나는 오류가 아니라, 4개 연구대상 언어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선정하여 번역결과물 분석 과정에 사용할 분석틀을 최종확정하였다

[3] 세 번째 과정은 실제 분석작업으로, 앞서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들을 실제로 분석한 다음,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모듈은 번역수급과정에 관여하는 번역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공번역 현장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였다.

이 모듈은 다시 다음의 두 개의 하위모듈로 나누어졌다.

[1] 첫 번째로 다양한 기관에서 공공번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번역을 발주하는 한편, 수합된 번역결과물에 대한 평가나 감수, 문제제기 등을 직접 담당하는 번역담당창구역들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2]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공공번역을 수행하는 공급자로서 공공번역의 수급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는 전문번역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이다.

이 세 번째 모듈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문제들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담당자들과의 예비접촉을 통해 파악하는 한편, 수차례의 반복적 회의를 통해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그런 다음 공공번역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번역지침 및 표기 원칙 등의 수립 작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여 실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면접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4개 도시에 소재한 14곳으로, 실제 방문면접을 위해 10일에 걸쳐 5명의 연구원이 현장방문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 전문번역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위해서는 전공언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인 전문번역사 5인을 대상으로 앞서와 동일한 설문지를 토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설문지의 질문을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발판으로만 사용하고 가능한 한 오픈 엔드 방식으로 진행하여 자유롭게 심층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번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번역결과물과 번역 수급 과정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번역결과물 분석은 공공기관에서 마련하여 공개한 표기 용례 및 용어 용례집, 그리고 공공기관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진

이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다. 번역 수급과정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담당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번역을 수주하는 번역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번역의 발주 주체와 수주 주체 양쪽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번역 과정의 전체 모습을 포괄적으로 잡아냈다는 의미가 있다.

3.1 공공기관 분야별 번역지침의 비교 연구

3.1.1 개요

공공번역 결과물의 수준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번역 및 표기의 일관성 부족이다.

<표 3> 번역 일관성 결여 사례

음식 종류	한국관광공사	한식세계화재단	민간출판사(한림) "The Beauty of Korean Food"
비빔밥	bibimbap/ Bibimbap (Rice Mixed with Vegetables and Beef)	bibimbap/ 별도의 영어 번역 없음	Bibimbap/ Rice mixed with Vegetables, Beef and Fried Red Pepper Paste
	韩国拌饭/韓國拌飯 (*간체/번체순)	韩国拌饭 (拌饭)	항목 없음
된장찌개	doenjang jjigae/ Soybean Paste Stew	로마자표기 없음/ Soybean Paste Stew	Doenjang-jjigae/ Soybean Paste Stew
	大酱汤/大醬砂鍋	大酱汤	항목 없음
불고기 (쌈/쌈밥)	bulgogi (ssambap) / Bulgogi with Leaf Wraps	Bulgogi/ Bulgogi with Lettuce Wraps	Bulgogi/ Korean Barbecue
	韩国烤肉/韓國烤肉	烤肉饭团	항목 없음
김밥	Gimbap/ Dried Seaweed Rolls (Korean Rolls)	로마자표기 없음/ Dried Seaweed Rolls	Gimbap/ Rice Rolled in Laver
	紫菜卷饭/紫菜卷飯	紫菜饭卷	항목 없음

<표 4> 번역 지침 일관성 결여 사례

기관 (기준)	서울특별시 “주요 기관명과 지형지물 등에 대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표기 기준안”	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중(문화재청 공고 제2012-311호)
괄호 사용	산, 강, 섬, 도로, 사찰, 교량, 문화재* 등의 경우 (중략) 괄호를 사용한다. 예)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남한산성 Namhansanseong (Fortress)	자연지물 또는 인공축조물 (중략) 분류어의 의미역 표기를 (중략) 괄호 없이 덧붙인다. 예)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남한산성 Namhansanseong Fortress
문장 부호	영문 약자의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약자만을 사용토록 하고 반드시 apostrophe(') 또는 period(.)를 병기한다. 예) 빌딩 Bldg. / 산 Mt.	(중략)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붙임표(-)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산’을 ‘Mt.’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번역어	- ‘섬’을 Islet으로 번역 예) 밤섬 Bamseom (Islet)	- ‘섬’을 Island로 번역 예) 밤섬 Bamseom Island

구체적으로는 위 <표 3>을 보면 동일한 한식명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김밥’이 한국관광공사, 한식세계화재단, 그리고 우리문화콘텐츠의 해외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출판사별로 각각 다르게 번역 표기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공공번역을 담당한 번역사의 개별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이 공공번역을 발주하는 기관별로 다르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표 4>이다. 이런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향후 ‘공공번역 표준화’라는 지향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번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외국어 표기 기준 및 지침 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반영한 실제 번역용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공공번역 표준화의 기본단계라 할 수 있는 이들 기준 및 지침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고 표준화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3.1.2 영어 자료 분석

3.1.2.1 분석대상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의 외국어(영문) 표기 기준을 검토 비교 분석하였다.

	발행기관	자료 명	발행연도
가	국립국어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000년
나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2012년
다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2012년
라	문화재청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2013년
마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	2013년
바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및 기타 자료 편집를 위한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서	2012년

이상의 자료 가운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관련되는 지침이나 표기 기준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는데, 중국어의 경우 지침이나 표기 기준 간에 크게 상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영어와 일본어의 경우 지침이나 표기 기준 간의 상이점으로 인해 일관성이 떨어지는 번역결과물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영어 및 일본어에 대하여 비교 검토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3.1.2.2 전반적 검토 결과

[1]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기준 원칙으로 삼음

모든 검토 대상 표기 기준 및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법 이외에도 도료표지판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새주소 도로명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새주소(도로명주소) 업무편람', 문화재명의 경우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의미역 병기 원칙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하지만, 각 표기 기준 혹은 지침의 공통 원칙이나 일반 사항 부분을 살펴보면 의미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2장, 4조의 표기원칙에서는 '우리 문화재의 효과적인 의미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고 밝힘으로써 의미역 표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역시 '기본적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여 고유명사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뒤에 외국어 설명어를 붙여 준다. 단 설명문의 경우, 동일한 한글 명칭이 앞에서 이미 언급되어 반복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설명어를 빼고 고유명사 부분만을 로

마자 표기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의미역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배포한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에서도 '영어 번역어가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들은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어 번역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용어는 간략한 설명과 로마자 표기를 함께 제시한다. 내용 중 동일한 용어가 반복되는 경우 처음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로마자만을 전사한다'고 적고 있다. 반면,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에서는 '영문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의미번역을 병기한다'고 적고 있어 의미역보다는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 원칙에 보다 충실한 입장이다.

즉 문화재청은 로마자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표기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 의미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좀 더 의미역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관광공사는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설명)을 동시에 제공하되 반복되는 경우는 의미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중간 입장이며, 서울시는 의미역보다는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법을 원칙으로 하여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의미역을 추가한다는 입장으로 서울시의 외국어 표기 기준에서는 다른 기관들보다 의미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3]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이상에서 언급한 의미역 병기 문제는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단일 구성 명칭의 경우, 대개 명칭 전체를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로마자 표기를 하되, 의미단위로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를 하거나 복수의 로마자 표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례 1
삼국유사: Samn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출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사례 2
동해안별신굿: Donghaean Byeolsingut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출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위의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우선 <사례 1>에서는 삼국유사 전체를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로마자 표기를 하되, '삼국'과 '유사'를 두 개의 의미 단위로 파악, 띄어쓰기하고 있다. <사례 2>에서는 '동해안'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만 '동해안별신굿'을 두 개

의 개별 고유명사가 합해진 형태로 이해하여 표기 방식을 달리 하고 있다. 곧 하나의 개별 고유명사로 간주된 '동해안'을 대문자로 시작하는 'Donghaean'으로 표기하고, '별신굿'을 또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역시 대문자로 시작하는 'Byeolsingut'으로 별도로 로마자 표기를 한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예 중 삼국유사의 경우는 전체를 고유명사로 간주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지만, 동해안별신굿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할 것인지, 문화재청이 제시한 것처럼 두 개의 고유명사가 합해진 형태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동해안은 의미역으로 풀어주고 별신굿만을 고유명사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에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한글 표기에서 붙여 쓰는 용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한다. 따라서 용어 전체를 로마자 표기한 후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대한 영어 설명어를 붙여준다. 로마자 표기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한글표기에서 띄어 쓰는 표제어는 고유명사 부분만 로마자 표기하고 보통명사 부분에 대해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영어 설명어를 붙여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례 3
해미읍성: Haemieupseong Fortress
(출처: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사례 4
남목마성: Nammok Horse Ranch Wall
(출처: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해미읍성 전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 로마자 표기하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성'을 뜻하는 영어 설명어인 Fortress를 붙여주었다. 그러나 동일한 지침에서 고유명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와 다른 경우도 발견된다. 다음의 예처럼 한글 표기에서 붙여 쓰는 용어임에도 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지 않고, 일부를 로마자 표기한 후 의미역과 병기하여 표기하고 있다. '남목마성'은 한글 표기에서 붙여쓰기한 하나의 단일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남목마성'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남목' 부분만을 고유명사로 간주 'Nammok'으로 로마자 표기를 하고 '마성'은 의미역으로 표기하였다.

이처럼 한 기관의 지침 내에서도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3 항목별 표기 기준 검토 결과

이상에서 여러 다양한 외국어 표기 기준 및 지침을 개략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면 다음에서는 각 항목별 표기 기준 및 지침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실 앞서 언급한 모든 검토 대상 표기 기준 및 지침에서는 공통으로 로마자 표기의 경우,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이 총론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고 적고 있으나 지침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이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1] 인명 표기

국립국어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4항에서는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명 표기 방식을 보기로 제시한다. 제3장 7항에서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라는 예외 인정 조항을 두고 있다.

사례 5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도 허용)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도 허용)
(출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사례 6
최치원: Choe Chi-won
(출처: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한편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에서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7항의 규정을 따랐다'라고 명시하면서 기존의 표준화되지 않은 표기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에서는 '인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의 음절 사이에는 하이폰(-)을 사용한다. 국제적으로 관용화된 표기가 있거나 공식적으로 정해진 표기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두 가지 지침 사이에서도 인명 표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발견된다.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이 기존의 표기 방식을 수용하는 유연한 입장인 반면,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은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되, 붙임표(-)를 넣는 방식을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정해진 표기는 기존 표기 방식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인명 표기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중략)... 단, 인명의 로마자 표기는 그 동안 써

오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쓸 수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에서는 '인명, 회사명, 단체명, 기관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과 같이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지침이 기존 표기 방식을 존중하고는 있지만, 인명 표기의 경우 붙임표(-)가 들어가는 방식은 영어식 인명 표기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는 인명의 경우에는 붙임표가 들어간 기존 방식을 인정하되, 새롭게 인명을 표기할 때는 문화재청의 지침에서 적시하듯이 붙임표를 생략하고 이름을 하나의 단어처럼 붙여 쓰는 방식을 표준안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국가 · 왕조명 표기

국가명 표기에 대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에만 등장하고 있으며 다른 기준이나 지침에서는 국가명 표기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에서 적시하는 국가명 표기는 다른 유사 외국어 표기 지침이나 기준에서도 한국 역사, 문화 관련 텍스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대명, 국가명, 왕조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기본 표기 지침의 국가명 표기 항목에서는 '국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고 한 단어로 쓴다. 단 가야연맹에 속하는 나라들의 경우 '가야'를 구분해서 쓰기 위해 두 단어로 나눠서 쓴다. 시대명이나 왕조를 나타내기 위해 Dynasty를 붙여 쓸 경우, 고유명사이지만 관습적으로 정관사 the를 붙인다'라고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사례 7
금관가야: Geumgwan Gaya
대가야: Dae Gaya
(출처: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사례 8
대가야왕릉전시관: Daegaya Royal Tomb Pavillion
(출처: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하지만 동일한 문서의 기관/단체명 표기 항목에서는 '기관/단체명은 해당 기관에서 표기한 방식을 존중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공식명칭이 없으면 관광전자지도 외국어표기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따른다'라고 적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즉 '대가야'의 영문 표기는 국가명인 경우 'Dae Gaya'로 표기하지만 '대가야왕릉전시관'처럼 기관명에 'Daegaya'로 표기된 기존 방식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면서 표기방식이 이처럼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표기 방식을 존중하되 표기 원칙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잘못된 표기 방식을 새로운 원칙에 따라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기관/단체명 표기

앞서 인명 표기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법 7항에서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역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7항의 규정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본 지침에서는 이어 '명동(성당), 정동(극장) 등은 행정 구역 단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유명사화 된 표현으로 보고 붙임표(-)를 넣지 않는다'고 적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사례 9
명동성당: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
정동극장: Cheongdong Theater
(출처: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사례 10
하나은행 본점: Hana Bank (HQ)
신한은행 답십리지점: Shinhan Bank (Dapsimni Branch)
(출처: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에서도 '기관, 단체 명칭은 해당 기관 단체에서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존중하되, 별도의 표기 관행이 없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에서는 '회사명, 단체명, 기관명 등의 경우 관련 기관의 자체 영문 표기를 따르되, 가. 본점은 괄호 안에 HQ를 병기하고, 나. 지점, 지소는 별도의 지점, 지소 표기를 하지 않되, 지점명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00 Branch'로 표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인명 표기와 마찬가지로 기관/단체명의 경우 기존 표기 방식을 존중하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각 기관/단체가 표준화된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기관명이나 단체명을 표기하다보니 영문 명칭 표기만 보아서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나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표기 방식이 등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기관/단체명 역시도 표준화된 표기 방식을 제안함으로

써, 기존의 잘못된 표기 방식의 수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4] 지명 표기

국가적 수준에서 행정 지명의 관리 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자연지명의 관리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이고, 인공지명은 개별 인공 시설 관련 기관에서 관리한다.

(1) 행정지명

국토지리정보원 표기 지침서에 따르면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의 행정 구역 단위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dong, ri로 표기하고 앞에 있는 고유지명과의 사이에 붙임표(-)를 넣는다. 이 때 붙임표 앞뒤에서 발생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시, 군, 읍 행정 단위의 -si, -gun, -eup은 생략할 수 있다. 지명에 포함된 아라비아 숫자는 그대로 표기하고 그 음성을 괄호 안에 적을 수 있다. 7개의 광역시(1개의 특별시 포함)는 행정 구역 단위 없이 표기한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의 경우, 번역된 형태로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와 Special Self-Governing City로 표기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역시 5항에서 국토지리정보원 표기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에서는 도로표지판의 영문표기는 국토해양부의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을 새주소 도로명판의 영문표기는 행정안전부의 '새주소(도로명주소) 업무 편람'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항목별 원칙에서 공공기관, 학교, 기타 시설물 등을 표기할 때 한글 표제어에 행정 구역 단위가 포함되는 경우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표기 지침을 따르고 있다.

사례 11
종로구청: Jongno-gu Office
목동 청소년수련관: Mok-dong Youth Center
자양1동 경로당: Jayang 1-dong Hall for the Elderly
(출처: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

또한 주소 표기와 관련해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작은 단위->큰 단위 순으로 표기,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명)은 주소의 간결화를 위해 표기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필요할 경우 맨 앞(상세주소 앞)에 괄호로 표기'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에서는 행정지명만을 독립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3절 20조와 21조에서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문화재명칭 표기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20조에 따르면 국문 문화재명칭이 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경우, 고유한 명

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행정구역명은 이름에 포함된 형태로 표기하고 (예: 화천수력발전소: Hwacheon Hydropower Plant)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이 부가된 경우는 '문화재명+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표기한다(예: 화천 꺼먹다리: Kkeomeokdari Bridge in Hwacheon, 서울 숭례문: Sungnyemun Gate in Seoul). 21조에서는 상.하 행정구역명이 있는 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재명+하위 행정구역명+상위 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표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예: 대전 회덕 동춘당: Dongchundang House in Hoedeok, Daejeon,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Ginko Tree of Yogwang-ri, Geumsan)

(2) 자연지명

자연지명의 영문 표기와 관련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 표기 지침에서는 '자연지명은 그 속성지명을 로마자로 바꾸어 앞의 고유지명과 붙임표 없이 표기한다. 이러한 자연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산(山) san, 산맥(山脈) sanmaek, 령(嶺) ryeong, 봉(峰) bong, 강(江) gang, 천(川) cheon, 호(湖) ho, 도(島) do 또는 섬 seom, 열도(列島) yeoldo, 군도(群島) gundo, 또는 제도(諸島) jedo. 해양 지명으로서 만(灣)은 속성 지명을 로마자로 바꾸어 (man) 붙임표 없이 표기하는 반면, 해와 해협은 Sea와 Strait로 번역하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2

남산	Namsan	태백산맥	Taebaeksanmaek
대관령	Daegwallyeong	인수봉	Insubong
호남평야	Hanampyeongya	한강	Hangang
미호천	Mihocheon	충주호	Chungjuho
거제도	Geojedo	연화열도	Yoenhwayeoldo
순천만	Suncheonman	동해	East Sea
제주해협	Jeju Strait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3장, 6항은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라고 명시하면서 국토지리정보원 표기 지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3장, 1절, 7조에서 '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요소가 포함된 자연지물 또는 인공축조물 등의 고유명사는 고유의 문화재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덧붙인다. 다만 도로표지판 등 표시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의 영문 표기와 같이 문화재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목적 및 사용 환경에서는 제①항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아 사용상의 불편이 있는 경우 후부요소의 의미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

으며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자연자원 관련 항목에서는 '자연지명(산, 강, 계곡) 등의 경우 그 명칭 전부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대한 영어 설명어를 붙여준다. 특히 지형지물(연못, 절벽, 샘, 바위) 등의 경우에는 한국어 명칭만으로는 검색어를 파악할 수 없는 항목들이 많으므로 그 성격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에서는 '산, 강, 섬, 교량 등의 경우 그 명칭 전부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속성을 병기한다'고 적고 있어, 자연지명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의미역 없이 로마자 표기만을 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을 병기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를 '남산'의 영문 표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가 되게 되어 자연지명 표기 방식의 표준화가 절실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관광공사의 설명처럼 한국어 명칭만으로는 외국인들이 자연지명을 잘 이해할 수 없으므로 로마자 표기와 더불어 영어 설명어를 추가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 역시도 공공번역 표준화라는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사례 13. 자연지명 '남산'의 기관별로 상이한 표기 방식

국립국어원	Namsan
한국관광공사	Namsan Mountain
문화재청	-Namsan Mountain -Namsan (도로표지판 등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
서울시	Namsan (Mountain)
국토지리정보원	Namsan

(3) 문화재 및 인공지명

자연지명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및 인공지명 표기에 있어서도 기관별로 상이한 표기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문화재 및 인공지명을 총칭하여 인공지명이라고 지칭하면서 '문화유산과 인공지형은 속성지명을 로마자로 바꾸어 앞의 고유지명과 붙임표 없이 표기한다: 사(사) sa, 궁(궁) gung, 서원(서원) seowon, 산성(산성) sanseong, 항(항) hang. (중략)... 교통시설, 명소, 관광지, 기타 인공지형은 번역하여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국제) 공항 (International)Airport, 고속철도 High Speed Railway, 고속국도 Expressway, 선(철도) Line, 대교 Bridge, 터널 Tunnel, 국립공원 National Park, 해수욕장 Beach, 왕릉 Royal Tomb, 온천 Spa, 동굴 Cave, 폭포 Falls, 저수지 Reservoir, 하구언 Estuary Dam, 방조제 Tide Embankment, 등대 Lighthouse'라고 명시하면서 다음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사례 14

불국사 Bulguksa	경복궁 Gyeongbokgung
도산서원 Dosanseowon	남한산성 Namhansanseong
묵호항 Mukhohang	인천국제공항 Incheon International (or Int'l) Airport
경부고속철도 Gyeongbu High Speed Railway	남해고속국도 Namhae Expressway
중앙선 Jungang Line	서해대교 Seohae Bridge
장성터널 Jangseong Tunnel	설악산국립공원 Seoraksan National Park
해운대해수욕장 Haeundae Beach	무령왕릉 Muryeong Royal Tomb
온양온천 Onyang Spa	고수동굴 Gosu Cave
박연폭포 Bagyeon Falls	주남저수지 Junam Reservoir
낙동강하구언 Nakdonggang Estuary Dam	시화방조제 Sihwa Tide Embankment
오륙도등대 Oryukdo Lighthouse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인공지명 관련 지침 및 표기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인공지명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도 의미역을 병기하지 않고 로마자만 표기하는 경우와 의미역을 함께 병기하는 경우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예를 들면 같은 문화유산 명칭인데도 '불국사'는 'Bulguksa'로 로마자 표기만 하는 반면 '무령왕릉'은 'Muryeong Royal Tomb'이라고 의미역을 병기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명으로 분류해 놓은 표제어 중 온양온천, 박연폭포, 고수동굴 등은 인공지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3장, 6항은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문화재 및 인공지명 표기에 있어서도 자연 지명과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은 국토지리정보원 표기 지침과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인공지명에 대해

서는 의미역 병기를 명시하고 있어 일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에서는 문화재 및 인공지명을 문화자원(21개 세부 항목), 사회자원(21개 세부 항목), 산업자원(4개 세부 항목)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각 세부 항목별로 표기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자원의 경우는 '우리말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고유명사의 뜻을 풀이하여 표기한다. 일반 명사는 번역하고, 불교 문헌, 산의 명칭, 불교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설명어를 붙인다. 지명이 포함된 유적이나 유물의 경우, 그 지명을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지명이 중복되는 경우, 하위지명을 우선 표기한다. 역사상 널리 알려진 인물의 경우, 자신이 정한 로마자 표기 방식을 쓴다. 과학기기, 악기 등을 포함한 유물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괄호 속에 간단한 설명을 넣는다'고 명시하면서 문화자원 표기 방식은 2013년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참고하여 활용에 유의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회자원의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 해당 기관, 단체 등의 공식 영문 명칭을 사용하되 공식 명칭을 검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명사 부분이 한글로 된 경우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외래어로 된 경우는 해당 언어 표기를 따르고 영어 설명어를 붙여준다'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 대개 사회자원의 경우 '소재지명+시설명'이 결합된 형태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소지재명은 로마자 표기를 하고 시설명은 영어 설명어를 붙여주는 형태로 표기하고 있다. 다만 다리를 의미하는 '~대교' 혹은 '~교'의 경우에는 전체를 고유명사로 간주 로마자 표기하고 끝에 다리를 의미하는 'Bridge'를 붙인다. 다만 다리 명칭에서 로마자로 표기해야 하는 부분이 4음절 이상일 경우, '교'의 로마자 표기는 생략한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 15
마산여객선터미널: Masan Passenger Terminal
신정호관광지: Sinjeongho Tourist Site
남해대교: Namhaedaegyo Bridge
(출처: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한편 산업자원의 경우는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환인된 영문 명칭을 표기한다. 공식명칭을 검색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명사 부분이 한글로 된 경우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외래어로 된 경우는 해당 언어 표기를 따른다. 행정구역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영문 명칭이 20자가 넘으면 National, Local 등 자세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자원의 경우 역시 사회자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재지명+시설명'이 결합된 형태가 많아, 소지재명은 로마자 표기를 하고 시설명은 영어 설명어를 붙여주는 형태로 표기하고 있다.

반면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에서는 사회자원이나 산업자원 등의 인공 지명이나 시설물 지명보다는 문화재 명칭에 포커스를 두어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기준에서 ‘지명’은 유적지, 출토지 및 행정 구역 명칭을 주로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한편 문화재청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하듯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에서는 문화재 명칭을 구성하는 개개의 낱말인 ‘명명요소’의 수에 따라 단일 구성 명칭과 복합 구성 명칭으로 크게 나누고, 단일 구성 명칭 내에서는 1) 건조물, 유적 및 명승문화재, 2) 서적 및 회화문화재, 3) 무형문화재, 4) 동물 및 식물 문화재, 복합 구성 명칭 내에서는 6) 도자문화재, 7) 석조, 목조, 금속, 나전 등의 문화재, 8) 전적류 문화재로 다시 세분하여 표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명이 포함된 문화재명칭과 인명이 포함되는 문화재명칭 표기 기준도 추가로 제시하는 등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은 비교적 체계적인 문화재 분류 방식을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에서는 문화재명의 영문표기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하면서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재명 관련 내용은 생략하고 대신 공공시설물 명칭과 관련해서는 표기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에서는 2013년 10월 현재 495개의 영어 문화재명칭 항목만이 검색되고 있다.

(4) 대소문자 및 이탤릭체 표기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 3항에서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에서는 ‘대소문자의 표기는 영문 표기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전치사와 관사는 소문자로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를 한국어 의미에 따라 띄어쓰기하는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례 16
삼국유사: Samguk yusa

(출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문화재청은 삼국유사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한국어 의미를 ‘삼국’과 ‘유사’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띄어쓰기를 하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에서는 ‘영문 단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관사나 전치사는 첫 문자도 소문자로 표기하되, 첫 단어가 관사나 전치사일 경우에는 그 관사나 전치사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에서는 대소문자 및 이탤릭 표기 관련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며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에서는 ‘시대명, 국가명, 지명, 자연지물, 인공축조물, 인명은 로마자로 표기할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각각 대문자로 쓰며 정체로 표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탤릭체 표기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에서는 '도서명 등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는 분야(학술 논문, 언론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다'고 이탤릭체 표기 범위를 비교적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에서는 '서명이나 문서의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할 경우, 첫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단 명칭을 번역한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를 로마자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문자 이탤릭체로 표기한다'고 적시함으로써 이탤릭체 표기 범위를 좀 더 넓게 상정하고 있다.

사례 17
조선왕조실록: *Joseon wangjo sillok* 또는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징비록: *Jingbirok* 또는 *The Book of Corrections*
풍수: *fung shui*
운판: *unpan*

(출처: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5) 영문 약어 표기

영문 약어 표기 관련 내용을 가장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으로 '영문 약어의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약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반드시 아포스트로피(') 또는 마침표(.)를 병기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례 18
Department Store -> Dept. Store
University -> Univ.
International -> Int'l
National -> Nat'l

(출처: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

사례 19
최영장군묘: Tomb of General Choe Yeong -> Tomb of Gen. Choe Yeong
걸매생태공원: Geolmae Ecological Park -> Geolmae Eco Park

(출처: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사례 20. 공식 지도에 사용되는 약어

약어	영어	한국어
IC	interchange	나들목
JCT	junction	분기점
Is.	islands	군도, 열도, 제도
Int'l	international	국제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에서는 기본 지침의 기타 항목에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영어 표기가 여러 개일 경우 축약된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다음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지침에서는 공식 지도에 사용되는 약어를 상기와 같이 정리, 소개하고 있다.

(6) 부호 표기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 2항에서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에서는 '로마자 표기법에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률적으로 음절 경계에 붙임표를 넣지 않고 쓰되, 실제 적용시에는 필요한 경우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입장이며,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5조 2항에서는 '괄호, 붙임표(-),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각각의 지정된 용도에만 표기하며,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붙임표(-)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이름의 음절 구분을 위한 경우와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국어원과 한국관광공사가 부호 표기 특히 음절 구분을 위한 목적으로 붙임표(-)를 사용하는 데 보다 관대한 반면, 문화재청은 이름의 음절 구분 및 행정구역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의미역 표기를 중요시하고 있어 의미 전달을 위한 설명어를 괄호를 이용해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괄호 사용에는 관대한 편이다.

(7) 띄어쓰기

검토 대상 기준 및 지침 중 띄어쓰기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하나였다. 본 기준에 따르면 '띄어쓰기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도서, 회화 등 작품의 고유한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단위로 띄어 쓸 수 있음.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준 및 지침에서 띄어쓰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영문 표기의 경우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 전달이 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는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띄어쓰기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1.3 일본어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의 비교 분석 결과

3.1.3.1 분석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 공공기관들의 외국어(일본어) 표기 기준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용어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해당 기관이 발행한 용례집을 분석하였다.

[1] 검토 대상 표기 기준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 일본어	2012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2012
문화재청	문화재명칭 일문표기 기준 규칙	2013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명 일본어 표기 기준	2010
한식재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안 제작과정	2012

[2] 분석 대상 용어 용례집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	2012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용례집	2012
문화재청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	2010
한식재단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	2012

3.1.3.2 기관별 일문 번역 및 표기 지침 소개 및 평가

[1]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1) 대상은 중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을 가진 일반인으로 상정한다.
(2) 녹음용으로 사용되는 원고에 맞게 평이한 구어체로 번역한다.
(3) 출발텍스트에 충실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직역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의역을 선택한다. 필요한 경우, 출발텍스트의 순서를 바꾸거나 부연설명을 추가한다.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용어의 사용을 지양한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그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대상이 불분명하다. '평이한'이나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의 대상범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직역', '의역'이라는 상대적이고도 모호한 개념으로 번역 방법을 설명한 것은 분석 자체의 기준이 선명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용례집

(1) 정식명칭: 관광지명은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확인된 일문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기 방식이 음역이듯, 의미역이든 또는 양쪽을 혼합한 것이든 상관없이 관련기관에서 쓰는 공식명칭을 사용한다.

(2) 가타카나: 모든 관광지명은 번역 후에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에 따라 가타카나로 음역하여 병기한다. 단, 관광지명이든 음식명이든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를 구분하거나 항목명이 긴 복합명사의 경우 가운뎃점을 찍어 구분한다.

일반사항에 대한 지침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지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관련기관'에서 '확인한' 명칭이라는 의미 또한 불분명하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관련기관이 하나 이상의 기관일 경우, 기관 선정의 기준이 있는지, '공식명칭'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기존의 명칭을 한데 모아 재정리한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3] 문화재청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 (일본어 표기 기준)

(1) 지정문화재 고유의 한자를 일본식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과

(2) 단어의 뜻을 일본어로 옮기는 방식(의미역)

(3) 국어의 표준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해당 음을 일본어로 옮기는 방식(가타카나 표기)을 모두 적용한다.

이상의 3가지 방식이 번역 시 함께 적용되는 것인지, 어느 상황에서 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일본식 한자 표기, 의미번역, 가타카나 음차번역이 늘 함께 이루어진다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화재청의 외국어 표기기준에서는 기존의 여러 표기 기준들을 상세히 비교 분석한 노력이 돋보인다. 기존 표기 기준들이 일본에서 더 많이 통용되는 한자가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분황사址 혹은 분황사跡), 문화재 명칭의 의미가 부가 설명되는가의 여부(鄕校 혹은 鄕校(儒敎敎育機關)), 본래 한자어가 아닌 일본식 표현으로 바뀌어 번역

되었는가의 여부(世宗大王胎室址 혹은 世宗大王さい帯室跡)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분석하고 표기 기준에 적극 반영하였던 것이다.

[4] 한식재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안

(1) 한글 음식명의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들의 편리한 발음을 위해 맞춤법 통일안과 다를 수 있다.
(2) 음식의 분류를 쉽게 하기 위해 범주에 해당하는 말은 띄어 썼고, 이는 필요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3) 외국어 표기 방법
(4) 표준화 내용: 한식당 메뉴판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한글명, 로마자 표기, 메뉴설명 등에 대해 표준화 작업
(5) 표준화 방법
- 메뉴명은 한글표기와 로마자 표기를 병행하고 각국 언어로 표기
- 메뉴 설정은 한글 표기를 바탕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베트남어로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징 있게 설명
- 외국어 표기 작업 시에 현지인에 의한 번역 및 감수

한국 음식의 명칭뿐 아니라 재료 및 조리법도 상세히 번역되어 있어 정보의 가치가 높다. 문제는 이미 일본인들 사이에 보급되어 익숙해져 있는 음식명 표기와 다른 기준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한식재단은 '돌솥비빔밥'을 トルソッピビムパッ 라고 표기했지만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은 비빔밥을 'ビビンバ'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일본 포털사이트(www.yahoo.co.jp)에도 '비빔밥'은 'ビビンバ'로 소개되어 있다[2].

한식재단이 새로운 표기기준에 맞춰 표기하여 집대성한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일본인들에게 이미 익숙해져버린 기존 일본어 명칭을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새로운 용어집이 추가된 것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식재단의 음식명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보급방법 등에 대해 생각하여야 한다.

3.1.3.3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청의 표기안 비교

앞서 소개한 네 가지 지침 중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이나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용례집은 동일 기관이 제작하여 내용이 일맥상통하다. 이

2) 일본 사이트를 통해 한국음식명을 조사해보면 받침으로 인한 표기 혼란이 눈에 띈다. 즉, 비빔밥의 경우에는 'ビビンバ'이 거의 정착되었지만, 국밥이나 김밥은 'ぐッバ', 'ギンバブ', 삼겹살은 'サムギョッサル' 또는 'サムギョプサル' 등으로 표기되어 혼란스럽다. 받침이 포함된 음식명의 표기 기준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지침을 한국관광공사 안으로 묶고 문화재청 외국어 표기 기준과 비교하고자 한다. 한식 재단 외국어 표기안은 음식명에 치중되어 나머지 두 지침과 다루는 영역이 다르므로 비교하지 않았다.

[1] 고유명사 표기

두 지침 모두 고유 명사 표기에 있어서는 한자 명칭을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는 것이 공통된 대원칙이다. 그리하여 증평군은 曾坪郡이 아닌, 曽坪郡으로 표기하여야 맞다. 한자어가 없이 순 우리말로 된 고유명사의 경우 두 지침 모두 가타카나 음역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

인명의 표기 지침은 한국관광공사 지침에만 나와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한자를 그대로 쓰되 일본식 한자로 변환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다.

사례 21
채만식(蔡萬植) 蔡万植
김수온(金守溫) 金守溫 (ギム・スオン)

그런데 한국관광공사 외국어관광안내 표기 용례집에서 인명 '김(金)'의 가타카나 표기를 'ギム'로,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에서 '박(朴')의 표기를 'バク'로 싣고 있다. 이들의 일본어 표기는 각각 'キム、パク'로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인명, 특히 성(姓)의 표기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또한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표기 규칙 중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발음 그대로 가타카나 표기를 원칙으로 하나, 일본식 발음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혹은 일본에도 존재하는 것일 경우에는 일본식 표기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성씨 표기는 한국어 발음만 따랐을 뿐 일본에 널리 알려진 표기와 다른 것이어서 규칙에 맞지 않는다.

[2] 보통명사 표기

보통명사 표기에서는 한자어가 없는 순 우리말 보통명사의 표기가 문제가 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 기준을 보면 해당 명칭의 특징과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한다고 되어 있다.

사례 22
나루　渡し場
옛길　旧街道

반면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에서는 한자 확인 안 되거나 순 우

리말 명칭의 경우 가타카나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사례 23
탑돌이 タプトリ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의 순 우리말 보통명사 표기는 가타카나 음차번역 외에도 여러 원칙이 나타난다. 우선 해당 명칭의 특징과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사례 24
솔섬 松島 (ソルソム)
모래시계공원 砂時計公園 (モレシゲ・ゴンウォン)

이와 함께 한국어 고유의 발음까지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

사례 25
하회탈 河回タル (仮面)

정리해보면 순 우리말 보통명사의 경우 문화재청에서는 의미번역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음차번역, 의미번역+음차번역, 음차번역+의미번역을 채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세 원칙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3] 한일 관계에 대한 고려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에는 한일 관계를 고려한 두 가지 원칙이 눈에 띈다. 그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에서 명칭 논란이 있는 어휘는 한국 명칭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통용되지 않는 한자어 용어이며 대체 가능한 어휘가 일본어에 있다면 그것을 채택한다는 대원칙의 예외가 된다.

사례 26

독도	竹島(X)	独島(O)
동해	日本海(X)	東海(O)
한반도	朝鮮半島(X)	韓半島(O)

두 번째는 일본을 무시하거나 모욕, 폄하하는 표현이나 명칭이 있으면 완화하여 표현한다는 표현 완화 원칙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왜'는 모두 '일본'으로 대체하도록 정해져 있다.

사례 27
왜적
昔の日本の海賊 (옛 일본의 해적)
사례 28
왜에서 온 사신은 몸에 천 조각을 걸치고 맨발인 점이 좀 특이하죠?
日本かやって来た使臣は、シンプルな服装に素足なのが特徴ですね。
(일본에서 온 사신은 단순한 옷을 입고 맨발인 점이 특징입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원칙은 미묘한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어 번역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특징적 사항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일본어 표기 지침은 대부분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순 우리말 보통명사의 경우 음차번역과 의미번역 기준이 지침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그리고 음식명과 성씨의 음차번역에서 현재 일본에서 통용되는 표기와 다른 기준이 제시된 것이 문제였다.
표기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실제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협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위'있는 기관 내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준이 확정된 후에는 모든 기관의 합의 하에 동일한 용어를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새로운 언어별 번역 지침(안)

이상의 검토 결과와 확인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각 언어별로 새로운 번역 지침을 마련해본 것이 아래 소개 되어 있다.

3.2.1 영어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안)

3.2.1.1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제정을 위한 고려 사항

[1] 음차역과 의미역

(1) 음차역의 로마자표기는 국립국어원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른다.
(2) 고유명사는 최대한 음차역을 제시하되,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간이 허용하는 한 의미역을 병기한다. 공간의 제약이 있는 도로표지판 등의 경우에는 의미역의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남산: Namsan Mountain
남산: Namsan Mt. (도로표지판)

[2] 문화재명칭:

(1) 문화재명칭 표기는 문화재청의 외국어 표기 기준에 따른다.

(2) 행정구역명이 포함된 문화재명칭의 경우,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고유명사로 간주, 붙임표(-) 없이 문화재명 앞에 표기하는 문화재청 방식과, 모든 행정구역명은 문화재명 뒤에 붙임표(-)를 붙여(예: 동, 리 단위), 혹은 붙임표 없이 (예: 시, 군 단위) 표기하는 한국관광공사 방식 중 통일된 안을 결정한다. 다만 행정구역명이 포함되는 문화재명의 경우, 문화재의 소재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의 표기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 Sinanni Historic Site of Ulju (문화재청)
Historic Site of Sinam-ri, Ulju (한국관광공사)

[3] 문화재명칭 이외의 일반적인 사회자원, 자연자원 명칭

(1)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안내 외국어 표기 기준에 따른다.

[4] 음식명칭

(1)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재단이 현재 서로 다른 표기 방식을 채택 중에 있는데, 두 기관이 협의하여 통일된 안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다.

3.2.1.2 영어 표기 기준(안)

[1] 기본 지침

(1) 로마자 표기

① 한국어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00-8 호(2000.7.7)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2) 인명 표기

① 인명 표기: 인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② 자, 당호, 아호, 아호, 아명, 시호, 관명 등은 붙임표(-) 없이 표기하되, 호와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이름을 먼저 표기하고 호를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한다.

③ 다만 국제적으로 관용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이름은 이에 따라 표기한다.

[예] 이승만: Yi Seung-man (X)
Syngman Rhee (O)

(3) 지명 및 문화재명 표기

① 지명의 경우, 그 지명의 성격을 드러내는 영어 번역어를 끝에 붙인다. 번역어는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붙인다. 예를 들어, 아미산은 '산(山)'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원을 말하므로 번역어는 'Garden'을 붙여 준다. 왕궁의 부속 건물인 자경전은 왕비의 침실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전각을 의미하는 'Hall'이나 'Pavillion' 이 아닌 침실을 의미하는 'Chamber'를 붙여준다.

[예] 아미산: Amisan Garden
자경전: Jagyeongjeon Chamber

② 지명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1 음절일 경우는 그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내용상의 중복이 있더라도 해당 자연지명이나 명소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한 후 그 성격을 나타내는 영어 번역어를 덧붙여 추가한다.

[예]
북한산: Bukhansan Mountain
낙동강: Nakdonggang River
강화도: Ganghwado Island
불국사: Bulguksa Temple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③ 지명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2 음절 이상일 경우는 해당 자연지명이나 명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일반명사 부분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영어 번역어를 사용한다.

[예]
정방폭포: Jeongbang Falls
불영계곡: Buryeong Valley

④ 2 음절이라도 다 표기하고 설명어를 붙이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

[예]
갓바위: Gatbawi Rock
남한산성: Namhansanseong Fortress

⑤ 행정구역명이 지명으로만 나오는 경우, 행정구역 단위는 '-si', '-do' 등과 같이 붙임표(-)로 분리해서 표기한다. 단 시, 군, 읍의 행정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⑥ 행정구역명이 유물이나 유적에 포함되어 고유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도 가능한 붙임표(-)를 넣도록 한다.

[예]
지산동 44 호분: Tomb No. 44 of Jisan-dong
울주신암리유적: Historic Site of Sinam-ri, Ulju
경주구황리금제여래입상: Standing Gold Buddha in Guhwang-ri, Gyeongju

⑦ 지명 표기에 있어 표기 목적에 따라 동일한 명칭이라도 지명과 행정구역명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예] 제주도: Jejudo Island (지명 표기)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4) 문화소 표기
① 한국 고유의 생활용품, 놀이명, 음식명, 동식물명의 경우에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② 우리나라 고유 용어의 경우 알려진 의미역이 없거나 임의로 번역하기 어려운 경우 로마자로만 표기한다.

(5) 띄어쓰기
① 2 단어 이상인 경우, 국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띄어 쓰되, 단어 단위로 분리하여 로마자로 전사한다.
② 하나의 단어가 4-5 개 이상 음절로 이루어진 경우, 의미 단어로 띄어쓰기 한다.

(6) 대소문자 및 이탤릭 표기
① 단체, 기관, 관청, 사건, 종교, 정당, 학파, 관직명 등은 대문자 정체로 표기한다.
② 서명, 예술(음악, 미술, 무용 등) 분야 작품의 명칭, 놀이명 등은 대문자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단, 서명의 로마자표기는 첫 단어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이탤릭으로 표기 후 괄호 안에 영역을 병기한다.
[예] 한국사신론
Hanguksa sillon (A New History of Korea)
③ 예술 장르, 우리나라 고유 단위, 생활용품, 음식명, 동식물명 등은 소문자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7) 자료명의 표기 및 번역
① 설명문에서 소문자로 표기해야하는 단어라도 자료명에서는 타이틀로 간주하여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2] 세부지침
(1) 공식 영문 명칭

①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확인된 영문명칭을 사용한다.
② 로마자로 전사된 것이든 의미를 번역한 것이든 또는 양쪽을 혼합한 것이든 상관없이 공식명칭으로 쓰이는 것을 기입한다.

(2) 서명
① 서명의 로마자는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단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알려진 의미역이 없거나 번역하기 힘든 경우는 로마자로만 표기한다.
② 서명에 인명이 포함될 경우 인명 표기형식은 그대로 쓰고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예]
김시습전: *Kim Si-seup jeon (The Life of Kim Si-seup)*
③ 신문명은 국문명을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하고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예]
황성신문: *Hwangseong sinmun*
조선일보: *The Choseon Ilbo*

(3) 유적
① 문화재청의 문화재명칭을 참조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문자로, 자료명이나 고유명사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② -정(亭), -당(堂), -향교(鄕校), -사(祠), -서원(書院), -재(齋), -사(寺), -루(樓) 등의 항목은 로마자표기하고 각 유적의 속성에 맞는 의미역을 병기한다.
[예]
-정(亭): Pavilion / -당(堂): Hall / -향교(鄕校): County School
-사(祠): Shrine / -서원(書院): Confucian Academy
-재(齋): Shrine, Library, House / -사(寺):Temple
-루(樓): Pavilion / 산성(山城): Fortress / 다리: Bridge
-극장: Theater
* 단, 산성 및 읍성의 경우, 산성과 읍성까지 로마자표기하고 Fortress 를 붙인다.
[예]
금강산성: Geumgangsanseong Fortress
③ - 가옥: House of -
[예]
화성정용채가옥: House of Jeong Yong-chae in Hwaseong
④ - 건물: 경우에 따라 - Building , Building of -
[예]
대한생명사옥: Korea Life Insurance's Head Office Building
고려대학교본관: Main Building of Korea University

⑤ 유적: Archeological Site

⑥ 유물산포지나 유적에 특정 시대가 명시된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쓴다.

[예]

구석기시대 유적지: Paleolithic Site

신석기시대 유적지: Neolithic Site

청동기시대 유적지: Bronze Age Site

⑦ 부도: memorial stupa / 부도군: memorial stupas

[예]

쌍계사부도: Stupa of Ssanggyesa Temple

⑧ -사지: - Temple Site

[예]

법화사지: Beophwasa Temple Site

⑨ 봉수대: Beacon Tower

[예]

남산봉수대: Namsan Beacon Tower

기장 이길봉수대: Igil Beacon Tower of Gijang

(4) 고분 및 왕릉

① 고분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알려진 의미역이 없거나 번역하기 힘든 경우는 로마자로만 표기한다.

② '고분'은 'Ancient Tomb'으로 번역하고 '고분군'은 Ancient Tombs 로 번역한다.

[예]

서악리고분군: Ancient Tombs of Seoak-ri

경주황남리고분군: Ancient Tombs of Hwangnam-ri, Gyeongju

③ '묘'는 'Tomb of -'로 번역하고, '묘소'는 'Burial Site of -'로 번역한다. '지석묘'는'Dolmen'으로 번역하고 '지석묘군'은 'Dolmens'로 번역한다.

[예]

홍대용선생묘: Tomb of Hong Dae-yong

박연묘소: Burial Site of Park Yeon

고창지석묘군: Dolmens in Gochang

충무봉평동지석묘: Dolmen of Bongpyeong-dong, Chungmu

④ '호분'의 경우 No. 로 표기한다.

[예]

덕화리제 2 호분: Tomb No. 2 of Deokhwa-ri

⑤ 고분 내 유적이나 유물의 경우 따로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예]

무용총무용도

Muyongdo (Drawing of Dancers) of Muyongchong (Tomb of the Dancers)

⑥ '왕릉'은 'Royal Tomb of -'로 번역한다.

[예]

동명왕릉: Royal Tomb of King Dongmyeong

신라성덕왕릉: Royal Tomb of King Seongdeok of Silla

(5) 비

① 비의 성격에 따라 memorial stone, tombstone, monument 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비의 이름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한다.

[예]

tombstone: 개인의 묘비

monument: 업적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경우.

memorial stone: 추모의 성격이 강한 경우.

② 지석, 묘표, 묘갈, 묘지 등 묘비를 나타내는 경우: -'s tombstone / tombstone of -

(6) 전각

①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번역어 'Hall'을 붙여 준다.

[예]

근정전: Geunjeongjeon Hall

창덕궁대조전: Daejojeon Hall of Changdeokgung Palace

봉정사극락전: Geungnakjeon Hall of Bongjeongsa Temple

(7) 유물

① '발'은 '*bal (bowl)*'로 '심발'은 '*simbal (deep bowl)*'로 번역한다.

[예]

아산백암리출토 발: *bal (bowl) excavated from Baegam-ri, Asan*

부여송국리출토 심발: *simbal (deep bowl) excavated from Songguk-ri, Buyeo*

② '물레방아'는 'Watermill'로 번역한다.

[예]

정선백전리물레방아: Watermill of Baekjeon-ri, Jeongseon

③ '마패'는 'Horse pass'로 번역한다.

[예]
목마패: wooden horse pass

(8) 탈
① 어느 지역의 특정 탈인 경우 지역명을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하회탈: Hahoetal Mask
② 캐릭터를 나타내는 탈인 경우 명칭 자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예]
양반탈: Yangbantal Mask (Mask of an Aristocrat)

(9) 민속
①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바로 이어 '춤', '놀이'라는 속성 정보를 의미역으로 병기하거나, 괄호 안에 의미역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예]
강강술래: Ganggangsullae Dance
Ganggansullae Dance (Circle Dance)
줄다리기: Juldarigi Play
Juldarigi Play (Tug-of-War)
안동차전놀이: Chajeonnori Play of Andong
Chajeonnori Play of Andong (Chariot Battle of Andong)

(10) 지명/시설/기관
① 웹에서 검색한 공식영문명칭을 최우선으로 하며, full name 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약어로 알려진 시설 및 기관명의 경우 full name 다음에 괄호로 약어를 병기한다. 설명문 내에서 동일한 기관명이 두 번 이상 나올 경우 첫 번째만 full name 과 약어를 병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약어로만 표기한다.
[예]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③ -공원: Park, -국립공원: National Park, -도립공원: Provincial Park, -자연휴양림: Natural Recreation Forest
④ 그밖에 흔히 쓰이는 지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고개: Pass, -폭포: Falls, - 저수지: - Reservoir, -항(港): - Harbor,
-해수욕장: - Beach, -온천: Hot Spring, -만: Bay, -문/-관문: Gate,
-고속도로: Expressway, -약령시: Herbal Medicine Market,

-장(場): Market (전통시장의 경우, Traditional Market 으로 쓰기도 한다.)

3.2.2 일본어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안)

3.2.2.1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제정을 위한 고려 사항

[1] 음차역과 의미역

(1) 음차역의 가나표기는 교육부의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을 따른다.

(2) 최대한 고유명사화하여 음차역을 제시하되,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간이 허용하는 한 의미역을 병기한다. 공간의 제약이 있는 도로표지판 등의 경우에는 의미역의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남산: 南山(ナムサン)

남산: 南山 Mt. (도로표지판)

[2] 문화재명칭:

(1) 문화재명칭 표기는 문화재청의 외국어 표기 기준에 따른다.

[예] 蔚州新岩里遺跡 (문화재청)

[3] 문화재명칭 이외의 일반적인 사회자원, 자연자원 명칭

(1)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안내 외국어 표기 기준에 따른다.

[4] 음식명칭

(1)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재단이 현재 서로 다른 표기 방식을 채택 중에 있는데, 두 기관이 협의하여 통일된 안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다.

3.2.2.2 일본어 표기 기준(안)

[1] 기본 지침

(1) 로마자 표기

① 한국어는 교육부의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2) 인명 표기

① 인명 표기: 인명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한자를 일본어 한자로 쓰고 음차역을 가타카나로 병기한다. 한자 없이 한글 표기만 있는 경우에는 음차역을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② 자, 당호, 아호, 아호, 아명, 시호, 관명 등은 붙임표(-) 없이 표기하되, 호와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이름을 먼저 표기하고 호를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한다.
③ 다만 국제적으로 관용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이름은 이에 따라 표기한다.

[예]

이승만: 李承晩(イ・スンマン)/ イ・スンマン

(3) 지명 및 문화재명 표기

① 지명의 경우, 한국어 한자를 일본식 한자로 변환하여 표기하고 음차역을 가타카나로 병기한다.

[예] 부여(扶餘) 扶余(プヨ)

② 지명의 한자를 일본식 한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일반명사는 의미역하여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예]

정방폭포: 정방瀑布

불영계곡: 불영渓谷

③ 2 음절이라도 다 표기하고 설명어를 붙이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

[예]

갓바위: ガッ岩

남한산성: 南漢三城

④ 행정구역명이 지명으로만 나오는 경우, 행정구역 단위에 해당하는 일본어 한자로 표기한다.
⑤ 행정구역명이 유물이나 유적에 포함되어 고유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예]

지산동 44 호분: 池山洞四十四号墳

울주신암리유적: 蔚州新岩里遺跡

경주구황리금제여래입상: 慶州九黄里金製如来立像

⑥ 지명 표기에 있어 표기 목적에 따라 동일한 명칭이라도 지명과 행정구역명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예] 제주도: 済州道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済州道、済州特別自治道

(4) 문화소 표기

① 한국 고유의 생활용품, 놀이명, 음식명, 동식물명의 경우에는 해당 단어의 일본어 한자로 표기한다. 다만, 의미역이 어려운 경우 음차역하여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② 우리나라 고유 용어의 경우 알려진 의미역이 없거나 임의로 번역하기 어려운 경우 음차역을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5)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6) 대소문자 및 이탤릭 표기
해당사항 없음.

(7) 자료명의 표기 및 번역
해당 사항 없음.

[2] 세부지침

(1) 공식 영문 명칭
①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확인된 명칭을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② 로마자로 전사된 것이든 의미를 번역한 것이든 또는 양쪽을 혼합한 것이든 상관없이 공식명칭으로 쓰이는 것을 기입한다.

(2) 서명
① 서명의 로마자는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단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알려진 의미역이 없거나 번역하기 힘든 경우는 로마자로만 표기한다.
② 서명에 인명이 포함될 경우 인명과 함께 한자로 표기한다.
[예]
김시습전: 金時習塼
③ 신문명은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예]
황성신문: 皇城新聞
조선일보: 朝鮮日報

(3) 유적
① 문화재청의 문화재명칭을 참조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문자로, 자료명이나 고유명사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② -정(亭), -당(堂), -향교(鄕校), -사(祠), -서원(書院), -재(齋), -사(寺), -루(樓), -사(寺), -루(樓), 산성(山城), 다리(橋), 극장(劇場)
* 산성은'山城'읍성은'邑城 ' 로 표기한다.
③ - 가옥: '-가옥'은 '-家屋'으로 표기한다.
[예]
화성정용채가옥: 華城鄭用采家屋
④ - 건물: 용도에 맞게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예]

대한생명사옥: 大韓生命社屋

고려대학교본관: 高麗大学校本館

⑤ 유적: 유적은 ‘遺跡’으로 표기한다.

⑥ 유물산포지나 유적에 특정 시대가 명시된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쓴다.

[예]

구석기시대 유적지: 旧石器時代遺跡跡

신석기시대 유적지: 新石器時代遺跡跡

청동기시대 유적지: 青銅器時代遺跡跡

⑦ 부도: / 부도군:

[예]

태화사지12지상부도: 太和寺址十二支像浮屠

⑧ -사지: ‘-寺址’로 표기한다.

[예]

법화사지: 法華寺址

⑨ 봉수대:‘烽燧台’로 표기한다.

[예]

남산봉수대: 南山烽燧台

(4) 고분 및 왕릉

① 고분’은 ‘古墳'으로 번역하고 ‘고분군’은 ‘古墳群’으로 번역한다.

[예]

의창 다호리 고분군: 義昌茶戸里古墳群

③ ‘묘’는 ‘-墓’로 번역하고, ‘묘소’는 ‘Burial Site of -'로 번역한다. ‘지석묘’는‘支石墓’로 번역하고 ‘지석묘군’은 ‘支石墓群’으로 번역한다.

[예]

광해군묘: 光海君墓

고창지석묘군: 高敞支石墓群

④ ‘호분’의 경우 ‘第一号’ 로 표기한다.

[예]

제 2 호분: 第 2 号墳

⑤ ‘왕릉’은 '王陵'로 번역한다.

[예]

선덕여왕릉: 善德女王陵

신라법흥왕릉: 新羅法興王陵

(5) 비

① 비는 ‘碑’로 표기한다.

[예]

진흥왕순수비: 真興王巡狩碑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雙紀寺真鑑禪師大空塔碑

② 지석, 지석묘 등은 해당 의미역을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예]

지석묘군: 支石墓群

(6) 전각

①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하고 ‘殿’으로 표기한다.

[예]

근정전: 勤政殿

창덕궁인정전: 昌徳宮仁政殿

봉정사극락전: 鳳停寺極楽殿

(7) 유물

① ‘발’은 ‘鉢’로 번역한다.

[예]

백자발 : 白磁鉢

② ‘방아’는 ‘臼'로 번역한다. 단, 방아의 종류에 따라 의미역을 첨가하여 번역한다.

[예]

제주애월말방아: 済州涯月馬碾き臼

삼척대이리통방아: 三陟大耳里添水唐臼

(8) 탈

① 어느 지역의 특정 탈인 경우 지역명을 한자로 표기한다.

[예] 하회탈: 河回タル

(9) 민속

① 명칭 전체를 음차역하여 가타카나로 표기하되,‘춤',‘놀이’라는 속성 정보를 의미역으로 병기하거나, 괄호 안에 의미역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지명이 포함된 무형문화재 등은 지명은 한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예]

강강술래: カンガンスルレ

안동차전놀이: 安東車戦ノリ

발탈: 足タル (仮面)
탈춤: タルチュム (仮面舞)

(10) 지명/시설/기관

①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식 한자로 변환하여 쓴다. 한자가 없는 순 한국어인 경우에는 음차역을 가타카나로 표기하거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일본어 단어로 번역하거나 한다.

[예]
폭포: 瀑布(滝)

② 약어로 알려진 시설 및 기관명의 경우 full name 다음에 괄호로 약어를 병기한다. 설명문 내에서 동일한 기관명이 두 번 이상 나올 경우 첫 번째만 full name 과 약어를 병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약어로만 표기한다.

[예]
한국개발연구원:韓国開発研究院 (KDI)

③ -공원: 公園, -국립공원: 国立公園, -도립공원: 道立公園, -자연휴양림: 自然休養林

④ -고개: 峠, -폭포: 瀑布(滝), - 저수지: - 貯水池, -항(港): - 港, -해수욕장: -海水浴場, -온천:温泉, -만: 湾, -문/-관문: 関門, 고속도로: 高速道路, -장(場): 市場

[예]
순천만: 順天湾

3.2.3 중국어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안)

3.2.3.1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제정을 위한 고려 사항

[1] 현재 지명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가 모두 번역 지침을 마련해놓았지만 한국 고유어 지명의 표기에 있어 의미역을 위주로 할 것인지 음차역을 위주로 할 것인지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외국어(중국어) 표기기준에서는 중국인들이 이해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어로 된 안내표기 및 안내방송은 반드시 상호 일치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서울메트로의 중국어 역명 방송안내는 대부분 음차역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중국인 방문객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준들을 새로 정비하여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3.2.3.2 기존 중국어 표기 원칙과의 조율

[1] 문화재 명칭 표기

(1) 문화재 명칭 표기는 문화재청의 외국어 표기 기준에 따른다.

(2)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는 '가옥', '생가' 등의 중국어 표기를 할 때, 건물의 규모나 해당 인사의 유명도 및 생존여부에 따라 표기 방식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2] 문화재명칭 이외의 일반적인 사회자원, 자연자원 명칭

(1)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안내 외국어 표기 기준에 따른다.

[3] 음식 명칭

(1)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재단이 현재 서로 다른 번역 표기 방식을 채택 중에 있는데, 두 기관이 협의하여 음식 명칭의 중국어 번역지침을 만든 뒤에 통일된 안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다.

3.2.3.3 중국어 표기 기준(안)

[1] 고유명사 표기

(1) 한자역

① 한자어로 된 고유명사는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한자 명칭을 중국식 한자로 표기한다.

[예]

경복궁(景福宮): 景福宫

전라남도(全羅南道) 全罗南道

북한산(北漢山): 北汉山

(2) 의미역

① 한국어 고유어로 된 고유명사은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적절한 중국어로 번역한다.

[예]

솔섬: 松岛

까치고개:喜鹊岭

② 외래어가 포함된 명칭이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좋은 의미로 의미역이 가능하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

[예]

스노우캐슬실내스키장: 雪堡室内滑雪场

(3) 음차역

① 한국어 고유어로 된 고유명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할 수 없을 경우, 한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해당 음을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는 중국어로 의미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음역하여 표기한다.

[예]

서울: 首尔

② 외래어가 포함된 고유명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할 수 없을 경우, 비슷한 음의 중국어로 음역하여 표기한다. 외래어의 원어가 대응되는 중국어 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중국어 표기를 사용한다.

[예]

알프스벨리관광농원: 阿尔卑斯山谷旅游农园

③ 관광공사의 지침에 따르면 영문이 포함된 고유명사 관광지명은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는 영문을 그대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중국인이 해당 기관을 쉽게 알아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영문과 같이 병기할 필요가 있다.

[예]

벡스코: BEXCO(釜山会展中心)

비발디파크오션월드: 维瓦尔第度假村水上乐园

[2] 일반명사 표기

① 한자어에서 변환된 중국어 간체자(또는 번체자) 표기가 중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어휘, 혹은 의미인 경우에는 명칭의 의미가 최대한 살아나도록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대 중국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로 바꾸어 표기한다.

[예]

고속도로: 高速公路

성당: 天主教堂

종택: 宗家祖宅

화장실: 洗手间

매표소 售票处

공항 机场

② 한국어 고유어로 된 일반명사는 해당 명칭의 특징과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로 의미역 한다.

[예]

사발: 碗

목걸이: 项链

나가는 곳: 出口

표 파는 곳: 售票处

③ 외래어가 포함된 명칭은 일반명사일 경우 대응되는 의미를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로 바꾸어 사용한다.

[예]

아트홀: 艺术大厅

④ 한국 고유의 생활용품, 놀이명, 음식명, 동식물명의 경우에는 최대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되, 필요한 경우 음역도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예]

강강술래: 传统圆圈舞 (强羌水越来)

[3] 기타

① 띄어쓰기: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경희궁 숭정전 돌계단: 庆熙宫崇政殿石阶

② 부호표기: 책제목, 신문명, 회화명 앞뒤로 ≪≫를 표기하여 제목을 따로 구분한다.

[예]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朝鲜王朝实录》

조선일보: ≪朝鲜日报≫

창덕궁 대조전 봉황도:昌德宫大造殿《凤凰图》

③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시 첨가할 수 있다.

[예]

서편제 촬영지 西便制电影拍摄地

바다열차: 海景列车

④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확인된 중국어 명칭을 사용한다. 중국식 한자로 변환된 것이든 의미를 번역한 것이든 또는 양쪽을 혼합한 것이든 상관없이 공식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을 기입한다.

[예]

한국관광공사(韓國觀光公社) 韩国旅游发展局

⑤ 한국 전통 고유의 유산 즉 무형문화재 혹은 유형문화재의 경우는 중국에서 이미 통용되는 번역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통용되는 표현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택한다.

[예]

판소리: 板索里

3.2.3.4 중국어 번역 세부지침

(1) 공식 중국어 명칭

①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확인된 중국어 명칭을 사용한다.

[예] 한국관광공사(韓國觀光公社) 韩国旅游发展局

② 중국식 한자로 변환된 것이든 의미를 번역한 것이든 또는 양쪽을 혼합한 것이든 상관없이 공식명칭으로 쓰이는 것을 기입한다.

(2) 서명/신문명/회화명

①책제목 앞뒤로 ≪≫를 표기하여 책제목을 따로 구분해야 한다.

[예]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朝鲜王朝实录》

②신문명은 번역어 앞뒤로 ≪≫를 넣고 표기한다.

[예] 조선일보: ≪朝鲜日报≫

③회화명은 번역어 앞뒤로 ≪≫를 넣고 표기한다.

[예] 창덕궁 대조전 봉황도:昌德宫大造殿《凤凰图》

(3) 유적

① 성/산성/읍성/성터

~성은 ~城, ~산성(山城), ~읍성(邑城), ~왜성(倭城), ~토성(土城),~석성(石城), ~마성(马城) 등으로 표기한다. 성지는 성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城址, 성곽은 ~城郭으로 표기한다.

② 사찰/사지/암자

사찰은 한국어 명칭 검색어 ~사를 포함하고 성격이 사찰이면 ~寺로 표기하고 ~정사 ~精舍, ~선원 ~禅院, ~불원 ~佛院 등으로 표기한다. 절터를 나타내는 ~사지는 ~寺址로 표기한다. 작은 절이란 의미가 있는 암자는 ~암 ~庵으로 표기한다.

③ 누각/정자

누각과 정각은 한국어 명칭 검색어 ~정(亭), ~각(阁), ~루(楼), ~당(堂), ~대(台)를 포함하고 실제 성격이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높이 지은 집의 형태면 모두 위와 같이 표기한다. 정자(누각)터인 ~정지는 ~亭址로 표기한다.

④ 서원/향교/서당/객사/관아

~서원은 ~书院, ~향교는 ~乡校, ~서당은 ~书堂, ~강당은 ~讲堂 등으로 표기한다.

객사는 ~客舍, ~관아는 ~官衙로 표기하고 객사는 ~헌(轩), ~관(馆), ~사(舍) 등을 포함한다. 관청(官厅)의 부속건물들은 동헌(东轩), 내아(内衙), 옥사(狱舍), 관아지(官衙址), 영지(营址) 등으로 표기한다.

⑤ 유적지/전적지/유배지

유적지는 인류가 과거 활동했던 장소를 의미하며 ~遗址로 표기하고, 유적은 ~遗迹으로 표기한다.

~전적지 战迹地, ~유배지~流放地, ~주거지 ~居住遗址, ~기포지 ~发祥地, ~취락지 ~居住遗址, ~배유지~培遗址 등으로 표기한다.

⑥ 사당/제단

사당은 ~사당(祠堂), ~사(祠), ~당(堂), ~각(阁), ~묘(庙), ~재(斋) 등으로 표기한다.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단이란 뜻으로 ~단(坛), ~신단(神坛), ~제단(祭坛) 등으로 표기한다.

⑦ 불상/탑

~불상은 모두 ~佛像, ~불상군은 ~佛像群으로 표기하고 불상의 재료와 형태에 따라 석불(石佛), 마애불(磨崖佛), 석조여래(石造如来), 마애여래(磨崖如来), 철불(铁佛), 미륵불(弥勒佛), 와불(卧佛), 삼존불(三尊佛) 등으로 표기한다.

자세에 따라서는 좌상(坐像), 입상(立像) 등으로 표기한다.~탑은 ~塔으로 표기한다.

석탑 石塔, 전탑(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아 올린 탑) 砖塔, 기념탑 纪念塔, 부도 浮屠, 탑군 塔群 등으로 표기하고 ~층~탑에서 ~층은 ~层으로 표기한다.

⑧ 가마/도요지/화석/조형물

도자기를 굽는 ~가마나 도기를 굽는 ~요는 ~窑로 표기하고 요지/가마터는 ~窑址, ~도요지는 ~陶窑址로 표기한다. 화석과 ~화석지는 ~化石遗址로 표기한다.

석물이나 조형물에서 한국어 명칭 ~상을 포함하는 것은 ~像으로 표기한다.

동상(铜像), 선돌(立石), 석상(石像), 용호석(龙虎石), 암각(岩刻) 등으로 표기한다.

⑨ 문/봉수대/돈대/장대/당간/석등

~문은 ~문(门), ~관문(关门), ~수문(水门)으로 표기한다.

봉수대와 봉화대는 烽火台로 표기하고 돈대 墩台, 장대 将台, 연대 烟台 등으로 표기한다.

~석등은 ~石灯, 종은 ~钟으로 표기하고 ~당간(사찰의 문 앞에 세우는 기)은 ~幢竿, 당간을 받쳐 세우는 기둥인 당간지주는 ~幢竿支柱로 표기한다.

(4) 고분/왕릉/무덤/묘/고인돌

① ~무덤과 ~묘는 ~墓로 표기하고 왕실 인물의 묘인 ~왕릉/릉은 王陵/陵으로 표기한다. 고대에 만들어진 무덤을 의미하는 고분은 ~古坟, 고분군은 ~古坟群으로 표기한다.

② ~고인돌과 ~지석묘는 같은 의미로 ~支石墓로 표기하고 쌍무덤(双墓), 의총(义冢), ~총(冢), ~원(园) ~장고분 长鼓坟 등으로 표기한다.

(5) 비

① ~비는 ~碑로 표기하고 기념비 纪念碑, 충혼비 忠魂碑, 신도비 神道碑, 순절비 殉节碑, 탑비 塔碑, 국사비 国师碑, 대첩비 大捷碑, 시비 诗碑, 묘비 墓碑, 척화비 斥和碑, 비각 碑阁 등으로 표기한다.

(6) 전각/궁/궁지/행궁/태실

① 전각은 ~전 ~殿, ~당 ~堂 등으로 표기하고, 전각터인 전지는 殿址로 표기한다.

② ~궁은 ~宫, ~궁지는 ~宫址로 표기하고 별궁이란 뜻의 행궁은 ~行宫으로 표기한다. 왕실 인물의 태를 봉안하던 곳의 뜻인 태실은 ~胎室로 표기한다.

(7) 탈
~탈은 假面／面具등으로 표기한다.

(8) 민속
~춤, ~무는 ~舞로 표기하고, ~놀이는 ~戏로 표기한다.

(9) 한국 전통 고유의 유산 즉 무형문화재 혹은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이미 중국에서 통용되는 번역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통용되는 표현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판소리: 板索里

3.3 공공기관 번역결과물 현황 및 수준 분석

3.3.1 분석 목적

번역 결과물은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번역결과물을 분석하여 언어별 경향과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특히 영어의 경우 2007년 연구와 비교해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는 공공번역 결과물의 전반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3.3.2 분석 방법 및 분석틀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연구를 담당하는 언어별 연구원이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향후 활용이 용이한 워드 파일로 구축한 후, 이를 대상으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유형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각 언어권별 연구원이 제시한 오류유형을 토대로 전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표 5> 번역결과물 평가 분석 틀

	오류 유형	정의
1	정보성 결여/오역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틀린 번역
2	부적절한 번역	사회문화 관습과 관행에 맞지 않아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3	상위어/하위어 번역	구체적 하위 범주화 혹은 추상적 상위 범주화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4	생략/첨가	정보의 누락 혹은 첨가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5	일관성 결여	자료 내, 자료 간 통일성 부재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6	관용성 위배	관용적 언어 사용 위배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7	수용성 부족	도착어로 매끄럽게 읽히지 않는 어색한 표현으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8	문법 오류	문법 규칙 위배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9	철자 및 문장부호 오류	철자 표기 및 문장부호 표기 규칙 위배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10	발음 표기법 오류	음차 표기 문제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위 표의 기준 설명에서 드러나듯 분석 기준은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공공번역에서 핵심은 정보 전달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가 제대로, 충분히 전달되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준이 나뉘었다. 각각의 기준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성 결여/오역

출발텍스트에서 의도한 정보가 번역에서 전달되지 못하거나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E1-TT] GunJe is abolished and DoJe is implemented

(제주특별자치도)

[F1-ST] 쌀밥에 고기볶음, 갖은 나물 등 반찬과 고명을 올리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다양한 제철 재료와 참기름을 첨가하면 더욱 맛있다.

[F1-TT] Riz nature recouvert de légumes, viande et de différents ingrédients de saison. Plat au goût relevé, grâce à la pâte de piment rouge et à l'huile de sésame.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1-ST] 애호박

[CH1-TT] 葫芦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

[JP1-ST] 실물경제

[JP1-TT] 実物経済 (서울특별시)

영어의 오류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역사 설명 부분에 등장한 번역이다. 한국어 출발텍스트는 ‘군제(郡制)가 폐지되고 도제(道制)가 시행되었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데 비해, 번역텍스트에서는 ‘군제’와 ‘도제’라는 고유한 행정단위 용어를 단순히 음차번역만 제공함으로써 의도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어 오류 사례는 비빔밥에 대한 설명이다. 비빔밥의 기본 재료에 제철 재료와 참기름을 첨가하면 더욱 맛이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프랑스어로는 '고추장과 참기름을 더하면 풍미가 좋아진다'로 번역되어 다른 의미가 되었다.

중국어 오류 사례는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에서 등장한 번역이다. [칼국수], [된장찌개], [모듬전]에서 나온 ‘애호박’을 전부 다 중국어 '葫芦'로 번역했는데 '葫芦'는 '조롱박'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잘못 번역한 것이다. '애호박'은 중국어 '西葫芦'로 번역해야 한다.

일본어 오류 사례는 한국어의 ‘실물경제’를 축어역으로 한자어로 번역하였지만 일본어에서 정보가 전달되려면 ‘実体経済’로 표현해야 한다.

[2] 부적절한 번역

두 번째 오류 범주는 출발텍스트의 정보는 전달되지만 그 방식이 도착문화권의 사회문화적 관행에 맞지 않아 오해의 가능성이 높은 번역을 가리킨다.

[E2-ST] 소장자료 현황
[E2-TT] Breakdown of Holdings

(규장각한국학연구원)

[F2-ST] 잘 익은 김치에 돼지고기나 어패류, 두부와 굵게 썬 파 등을 함께 넣어 얼큰하게 끓인 음식이다. 반찬으로 즐겨 먹는 대표적인 찌개다.
[F2-TT] Ragoût épicé au kimchi(chou fermenté), tofu, poireaux et la viande de porc(ou fruits de mer). C'est un ragoût qui, traditionnellement, accompagne le riz presque à tous les repa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2-ST] 돼지고기 수육
[CH2-TT] 熟猪肉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

[JP2-ST] IT강국
[JP2-TT] IT強国 (서울특별시)

영어 오류 사례를 보면 소장 자료의 종류를 항목별로 구분해 보여주는 표의 제목 '소장자료 현황'을 'Breakdown of Holdings'라고 번역했는데 이 표현은 주로 자산 보유 상태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용어여서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어 오류 사례는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김치찌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어 번역의 뜻은 '전통적으로 매끼 밥과 함께 곁들여먹는 찌개'여서, 마치 한국인들이 매 끼니마다 김치찌개를 먹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중국어 오류 사례를 보면 '돼지고기 수육'을 '熟猪肉'으로 번역하면 단지 '익은 돼지고기'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 '白切肉'이나 '白切猪肉'으로 번역해야 한다.

일본어 오류 사례를 보면 '강국'이라는 표현이 곧잘 쓰이는 한국어와 달리 일본어는 특정 분야가 특히 뛰어나고 발전되었음을 표현할 때 'IT大国/IT国家'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일본어에서 '강국'은 군사적 혹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

[3] 어휘 차원의 의미 손실 또는 추가

세 번째 오류 유형은 해당 어휘와 동일한 층위에 속하는 대응어나 등가표현을 찾아내지 못하여 해당 어휘의 상위어로 어휘층위로 높여 번역함으로써 해당 어휘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비해 '상대적 의미 손실(translational loss)'을 가져오는 경우, 혹은 해당 어휘 층위보다 낮은 하위어로 번역함으로써 '상대적 의미 추가(translational gain)'을 가져온 경우를 가리킨다.

[F3-ST] 삶은 국수에 고명을 얹고 멸치장국을 부어낸 국수로 예로부터 결혼식, 생일, 환갑 등 잔치 때 손님을 대접하는 대표 음식이다.

[F3-TT] Sur des nouilles cuites, on verse un bouillon à base d'anchois et aJPoute une garniture. C'est un plat traditionnellement servi aux invités les Jours de fête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3-ST] 간장 양념

[CH3-TT] 调味料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JP3-ST] 갓머리를 상징하는

[JP3-TT] かぶっている笠をイメージした

(예술의 전당)

프랑스어 텍스트 사례를 보면 잔치국수를 먹는 날이 언제인지 자세히 나열한 한국어 원문과는 달리, 프랑스어 번역문에서는 결혼식, 환갑, 생일을 포괄하는 잔칫날이라

는 상위 개념을 사용하여, 잔칫날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어 번역에서 예시한 경우를 보면, 우선 출발텍스트의 '간장 양념'을 중국어로 '调味料'로 번역하였다. 이는 '간장 양념'과 같은 층위가 아니라 그 상위의 층위에 해당하는 어휘로, '조미료, 양념, 소스' 일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런 일반 양념 가운데 '간장으로 만들어진 조미료/양념'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어 번역의 예시를 보면 원문의 '갓머리를 상징하는'이 '옛 선비가 쓰던 삿갓을 형상화한'으로 번역하였다. 이 때 '갓'에 해당하는 단어가 '삿갓'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오페라하우스의 지붕모양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음차를 하고 설명을 붙이거나, 상위어인 '冠'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정보의 불필요한 생략 또는 추가

네 번째 오류 유형은 출발텍스트에 나타나있는 정보를 도착텍스트에서 불필요하게 생략하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추가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E4-ST]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고기나 채소로 만든 소를 넣고 빚은 만두를 육수에 넣어 끓인 음식이다.

[E4-TT] Minced meat and vegetables wrapped in thin flour shells and boiled in beef broth. Oval shaped rice pasta may be added.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4-ST] 메밀로 만든 면을 삶아 동치미 국물과 쇠고기 육수 섞은 국물에 차갑게 말아 먹는 음식이다. 무, 배, 등을 얹고 겨자와 식초로 양념한다.

[F4-TT] Nouilles de sarrasin servies dans un bouillon froid avec des tranches de radis ou de poire coréenne et assaisonnées de moutarde et vinaigre.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4-ST] 아귀에 콩나물과 미나리 등 채소를 넣고 매운 양념장을 넣어 걸쭉하게 익힌 음식으로, 아귀의 쫄깃한 육질과 아삭한 채소 맛이 어우러진 별미다.

[CH4-TT] 是鮟鱇鱼与各种调味料及蔬菜一起蒸炖的饮食。鮟鱇鱼和辣味水芹味融合，口感鲜美。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영어 텍스트 사례는 만둣국에 대한 설명이다. 떡을 넣을 수도 있다는 뒷문장이 첨가되었다. 만둣국의 바로 다음 항목이 떡만둣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내용 첨가로 정보 전달을 복잡하게만 만들고 있다.

프랑스어 텍스트 사례를 보면 냉면 국물이 동치미 국물과 쇠고기 육수 섞은 국물이라는 원문의 설명을 단순히 '차가운 국물'로 번역해서 동치미와 쇠고기 육수 등이 생략됐다.

중국어 번역에서 예시한 경우는 한식메뉴 가운데 '082[아귀찜]' 요리법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요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 콩나물과 미나리… 매운… 걸쭉하게…쫄깃한 육질과 아삭한 채소 맛이…' 등의 내용이 다수 생략되었다.

[5] 일관성 결여

다섯 번째 오류 유형은 자료 내, 혹은 자료 간에서 일관성이 없어 정보 전달 효과 및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가리킨다.

[E5-ST] 숭례문
[E5-TT] Sungnyemun (Namdaemun) Gate (한국관광공사)
Sungnyemun Gate of Seoul (문화재청)
Sungnyemun (Namdaemun) (서울시)

[F5] 비빔밥 - Riz aux légumes et à la viande
산채비빔밥 - Bibimbap aux légumes sauvages
돌솥비빔밥 - Bibimbap servi dans une marmite en pierre chaude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5-ST] 춘천닭갈비
[CH5-TT] 春川鸡胸肉/春川烤鸡肉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春川烤鸡排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JP5-ST] 시청
[JP5-TT] 市庁 (문화재청)
市役所 (한국관광공사)

영어 사례 가운데 '일관성 결여'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국보 1호이자 서울시 관

광에서 빠지지 않는 장소인 숭례문의 표기이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청, 서울시의 표기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상태이다.

프랑스어 텍스트 사례를 보면 비빔밥의 경우, '야채와 고기를 곁들인 밥'으로 음식을 설명하는 번역 방법을 택했지만, 산채비빔밥과 돌솥비빔밥에서는 'bibimbap'이라고 음차하고 있다.

중국어 번역에서 예시한 경우는 춘천닭갈비의 메뉴명을 '春川鸡胸肉(춘천닭가슴살)'으로 번역했다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春川烤鸡肉(춘천닭고기구이)'을 사용하여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鸡胸肉'는 '닭가슴살'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에는 '春川烤鸡排(춘천치킨가스)'로 되어있는데 '烤鸡排'는 치킨가스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오역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春川铁板鸡(춘천철판닭고기)'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일본어 텍스트 사례의 경우는 시청을 한국식으로 그대로 옮겨 일본식 한자로만 바꿔준 문화재청 표기와 일본에서 통용되는 어휘로 바꿔준 한국관광공사 표기가 서로 일관성이 없다.

[6] 도착어에서의 관용성 위배

여섯 번째 오류 유형인 '관용적 언어사용 규범 위배'는 관용적 사용에 위배되는 표현으로 독자의 정보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이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함축 의미를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E6-ST] 연락처
[E6-TT] Main numbe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F6-ST] 씨알이 굵고 기름기가 적은 영광 지방 굴비를 최고로 친다.
[F6-TT] C'est dans la région Younggwang, que ce poisson est réputé être le meilleur car sa chair est épaisse et pauvre en graisse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6-ST]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CH6-TT] 文化体育观光部为了实现“富于文化的生活”

(문화체육관광부)

[JP6-ST] 노인
[JP6-TT] 老人

(예술의 전당)

영어 예시를 보면 직원 연락처를 표기하는 항목에서 전화번호를 'Main number'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에서 전화번호는 유선의 경우는 'Telephone number', 무선의 경우는 'Cell phone number' 등의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어 예시를 보면 프랑스어 예시를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생선 구이인 굴비구이를 설명하는 글이다. 원문에 등장하는 '기름기가 적은'은 생선의 담백한 맛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번역문에 등장하는 'pauvre en graisses'라는 표현은 다이어트에 적합한 기름기가 적은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굴비의 담백함을 전달하기에 부적절하다.

중국어 예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말 중에서 나온 문장인데 '富于'는 뒤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고 '富有文化魅力/气息/内涵的生活'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일본어 예시를 보면 한국어에서도 기피하는 '노인'과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관념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번역의 사례이다. 일본어에서의 관용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お年より(어르신)'과 같이 적절한 관용표현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7] 도착어 수용성 부족

일곱 번째 오류 유형은 문법적으로나 어휘사용 면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나 도착문화권에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어서 매끄럽게 읽히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E7-ST] 공간별 소개
[E7-TT] Information by Place

(예술의 전당)

[F7-TT] Chers citoyens du monde, En tant que Maire de Séoul, Je vous souhaite de tout cœur la bienvenue dans cette ville imprégnée d'histoire et de culture, une ville respirant la chaleur humaine.

(서울시)

[CH7-ST] 반찬으로 즐겨 먹는 대표적인 찌개다.
[CH7-TT] 是佐餐用代表性炖汤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

[JP7-ST] 박원순이라면 다릅니다
[JP7-TT] 朴元淳だと違います

(서울특별시)

영어 사례의 경우 지나친 직역으로 수용성이 부족한 번역이 되었다. ‘About the Complex’ 정도의 대안이 적절해 보인다.

프랑스어 사례의 경우 서울시 시장의 인사말이다. 전반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프랑스어 표현이 빈번하게 발견되는데, ‘chers citoyens du monde’, ‘une ville respirant la chaleur humaine’ 등은 ‘세계 시민 여러분’, ‘인간미가 느껴지는 도시’ 등을 프랑스어로 직역해서 표현한 것으로 프랑스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색한 조합이다.

중국어 사례의 경우 김치찌개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중국어로 그대로 직역한 듯이 어색하고 매끄럽게 읽히지 않는 번역이다.

일본어 사례를 보면 출발텍스트의 의미는 ‘박원순이라면 이전의 시장(市長)이나 정치인과는 다르다. 차별화가 된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일본어로 번역할 때에는 단순히 ‘다르다’의 뜻을 사전적 정의에 따라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만 전달할 경우 어색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박원순이 바꿀 수 있다’의 의미로 ‘朴元淳が変えます’로 번역하는 것이 수용성 면에서 더 적절하다.

[8] 문법 오류

문법 규칙이 위배되어 정보 전달이 방해받는 경우이다.

[E8-TT] 1776 (Year of the accession of Jeongjo) King Jeongjo orders the creation of the Kyujanggak. The Juhapru of the royal palace (Changdukgung) is used as the Kyujanggak building.

(규장각한국학연구원)

[F8-TT] Dans cette salle sont exposés les aspects de la vie quotidienne du peuple à l’époque de Joseon (1392-1910), vivant des activités agricoles au rythme des quatre saisons.

(국립민속박물관)

[CH8-ST]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터만 남아 있던 것을 1867년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 330여동의 웅장한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CH8-TT] “壬辰倭乱”时大部分建筑物被消失，到1867年在高宗的父亲兴宣大院君的主持下才重建成现在雄壮的330栋。

(국립고궁박물관)

[JP8-ST]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JP8-TT] 尽力してまいりします (문화재청)

영어 사례의 경우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하면서 동사의 시제를 과거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한 비문이다. 즉 'orders'가 아니라 'ordered', 'is used'가 아니라 'was used'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어 오류 예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각 전시홀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문장은 현재 분사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문장의 주어와 호응이 되지 않는 비문이다.

중국어의 경우 번역문 중에 '소실되어'를 그대로 '被消失'로 직역해 중국어 문법 규칙에 맞지 않다.

일본어의 경우 문화재청의 인사말 중에 나오는 표현으로 문법적으로 술어부분은 오류이다. 즉, 겸양어인 동사 'まいる'와 '합니다'의 'します'가 결합될 수 없다. 따라서 '尽力してまいります'로 고쳐야 한다.

[9] 철자 및 문장부호 오류

오탈자, 띄어쓰기 오류 등으로 정보 전달이 방해받는 경우이다.

[E9-TT] Tamna-gun establis_ed (pa_t of Goryeo) (제주도)

[F9-TT] Mardi 、Jeudi 、Vendredi : 9h - 18hr (국립중앙박물관)

[CH9-ST] 밥을 함께 싸 먹거나 저민 마늘, 고추 등을 얹어 먹기도 한다.
[CH9-TT] 包入米饭、蒜头辣椒等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JP9-ST] 김윤덕
[JP9-TT] キムヨンドク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어 사례의 경우 'established'와 'part'에서 각각 'h'와 'r'이 빠진 철자오류이다.

프랑스어 사례의 경우 박물관 관람 시간 안내하는 문장에서 오후 6시를 18h가 아닌 18hr로 표기하였다.

중국어 사례는 '불고기쌈'을 설명하는 문장인데 병렬관계를 나타낸 '蒜头'와 '辣椒' 사이에 부호 '、'가 있어야 한다.

일본어 사례는 인명 표기 규칙을 어기고 번역한 사례이다. 성 다음에 문장부호를 넣어 'キム・ヨンドク'으로 표기해야 한다.

[10] 발음 표기법 오류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로마자 표기하여 소리를 전달하는 음차번역에서 정보 전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E10-TT] Seogureung Tomb

(문화재청)

[F10-TT] Le Hoe est un plat de viande ou de poisson crus ou de légumes assaisonnés avec de la sauce de soja vinaigrée, de la pâte de piment vinaigrée ou de la moutarde.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용례집)

[JP10-ST] 허남식
[JP10-TT] フォ ナムシキ

(부산광역시)

영어 사례의 경우 서구릉으로 읽히는 이 릉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서오릉 혹은 서삼릉의 오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쪽에 소개된 동구릉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프랑스어 사례의 경우 회(생선회)를 프랑스어로 표기할 때 'Hoe'라고 쓰면 단어 처음에 오는 h가 묵음 처리되는 프랑스어의 특성 때문에 '회'라고 발음되지 않고 '외'라고 될 수 없다. 이는 정보 전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를 'sasimi'로 표기할 경우, 일식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poisson cru(날생선)'으로 표기하며 의미 전달을 강조할 경우, 자칫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Hoe'로 나타내서 프랑스어식 독음으로 읽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본어 사례를 보면 인사말 끝부분에 부산시장 성명이 잘못 표기되었다. 한국어의 '허'는 일본어로 'ホ'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번역어는 '포'로 읽어야 하는 표기이다. 즉, 'ホ・サムシキ'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3.3.3 분석 대상

웹사이트 번역결과물 수준 평가 및 분석을 위해 중앙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 관련기관, 기초예술 관련기관, 한국학 관련 기관 등 총 30개 공공기관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웹페이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표 6> 번역결과물 수준 평가 및 분석 대상 기관 및 홈페이지

구분	분석 대상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대검찰청	www.spo.go.kr
	관세청	www.customs.go.kr
	기상청	www.kma.go.kr
	농촌진흥청	www.rda.go.kr
	법무부	www.moj.go.kr
	산림청	www.forest.go.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서울메트로	www.seoulmetro.co.kr
	청와대	www.president.go.kr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부산광역시	www.busan.go.kr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문화관광 관련기관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문화재청	www.cha.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기초예술 관련기관	국립국악원	www.gugak.go.kr
	국립극장	www.ntok.go,kr
	대한민국예술원	www.naa.go.kr
	서울예술단	www.spac.or.kr
	예술의전당	www.sac.or.kr
	한국문학번역원	www.klti.or.kr
한국학 관련기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www.e-kyujanggak.snu.ac.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

3.3.4. 언어별 번역결과물 평가 · 분석 결과

앞서 소개한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번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에 언어별로 제시하였다.

3.3.4.1 영어 번역결과물 분석

영어로의 번역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정보성 결여/오역 등의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인명, 지명, 문화재명, 건물명, 문화소명 등

고유명사 표기의 일관성 결여였다. 앞서 살펴본 각 기관의 영문 표기 지침 상의 불일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관성 결여 문제와 더불어, 지침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도 빈번히 발견되었다. 다음은 영어 번역결과물 분석 세부 내용이다.

3.3.4.1.1 일관성 결여

영어 번역결과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오류 유형이 일관성 결여이다. 주로 한국어 인명, 지명, 문화재명, 건물명 그리고 문화소 관련 번역에서 일관성 결여 현상이 빈번히 발견되었다.

분석 대상 웹사이트 모두에서 고유명사 표기법에 있어 일관성 결여 문제가 공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인명이나 지명 표기의 경우, 사이트 간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사이트 내에서도 서로 다른 표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외국인 독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1] 인명 표기의 일관성 결여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에서는 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되 그 동안 써오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쓸 수 있다'고 했으며, 서울시는 '인명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표기법 자체에서부터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인명 표기의 경우 다음과 같이 너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성을 먼저 표기한 후 성 뒤에 쉼표 찍은 후 이름의 각 음절을 띄어 쓰기하고 각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 표기 (예: Hong, Kil Dong)
(2) 성을 먼저 표기한 후 성 뒤에 쉼표 찍은 후 이름을 하나의 단어로 표기하고 이름의 첫 글자만 대문자 표기 (예: Hong, Kildong)
(3) 성을 먼저 표기한 후 성 뒤에 쉼표 찍은 후 이름의 각 음절은 줄표(-) 첨가 (예: Hong, Kil-Dong 혹은 Hong, Kil-dong)
(4) 성을 먼저 표기하되 쉼표 찍지 않고 이름은 하나의 단어로 표기하고 이름의 첫 글자만 대문자 표기 (예: Hong Kildong)
(5) 성을 먼저 표기하되 쉼표 찍지 않고 이름의 각 음절 사이에 줄표(-) 첨가 (예: Hong Kil-Dong, Hong Kil-dong)
(6) 성을 이름 뒤에 표기하되 이름의 각 음절을 띄어쓰기하고 각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 표기 (예: Kil Dong Hong)
(7) 성을 이름 뒤에 표기하되 이름은 하나의 단어로 표기하고 이름의 첫 글자만 대문자 표기 (예: Kildong Hong)

(8) 성을 이름 뒤에 표기하되 이름의 각 음절 사이에 줄표(-) 첨가 (예: Kil-Dong Hong 혹은 Kil-dong Hong)

현재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1) '성+이름'의 순으로 표기하되 2)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3) 이름은 하나의 단어처럼 붙여 쓰거나 음절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음절 사이에 줄표(-) 사용을 허용하되 4) 줄표(-) 다음의 음절은 소문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명 번역 사례들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는 그만큼 인명 표기 관련 기준이 널리 공유되지 못하거나 기존의 인명 영문 표기 기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고, 이 토대 위에서 개개인의 인명표기방식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E11] 고학찬 - Ko, Hak Chan
위옥환 - Wi Ok-hwan
박선주 - Sun Ju Park
(예술의전당)

[E12] 이인승 - Lee, In-Sung
이영인 - Young-in Lee
(국립현대미술관)

[E13] 세종대왕 - Sejong the Great
King Sejong the Great
(국립국악원)

'고학찬'의 경우는 성이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가 추가 되어 있고 이름도 두 개의 단어처럼 음절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위옥환'의 경우는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고 있다. '박선주'의 경우는 성이 뒤로 가고 이름이 고학찬의 경우처럼 두 개의 단어로 처리되어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이름의 음절의 첫 글자를 각각 대문자로 표기할 경우 영어권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름의 두 번째 음절을 Middle Name으로 간주하므로 '고학찬'과 '박선주'의 경우 이름이 한 음절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인명 표기 역시도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 항목은 준수하고 있으나 '이인승'의 경우처럼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추가한 점, '이영인'의 경우는 성을 이름 뒤에 표기한 점 등은 인명 영문 표기의 일관성 결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역사적인 인물을 지칭할 때, 이름과 직위가 함께 쓰이는 경우에도 일관성 없이 다양한 표현들이 혼용되고 있다. 세종대왕을 지칭하는 표현에서도 동일 기관 내에서도 'Sejong the Great'와 'King Sejong the Great'가 혼용되고 있다.

[2] 지명 표기의 일관성 결여

한편 지명 표기에 있어서도 일관성 결여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E14] 남산 - Namsan (국립국어원 로마자표기법, 국립극장)
남산 - Namsan Mountain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E15] 명동 2가 - Myong-dong 2-ga
명동성당 -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16] 대학로 - Daehangno
대학로 - Daehak-ro
(서울특별시)

[E17] 독도 - Dokdo (청와대)
독도 - Dokdo Island (한국관광공사)

[E18] 을지로입구역 - Euljiro Ipgu Station
을지로입구역 - Eulji-ro Stn. (법무부)

남산의 경우,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법과 국립극장 웹사이트에서는 'Namsan'으로 표기하는 반면,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는 '남산'을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한 단어로 음차번역하고 대신 남산에 대한 부가정보인 'Mountain'을 병기하여 'Namsan Mountain'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지명 표기에 있어 주소 표기의 경우와 건물명 표기의 경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동일한 기준으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는 명동을 주소 표기할 때는 'Myong-dong 2-ga'로 표기하고 있지만, 명동성당이라는 건물명 표기에서 명동을 사용하는 경우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로 표기하고 있어 동일한 명동이라는 지명이 주소로 사용되는 경우와 건물명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로마자 표기 방식에 따른 발음표기도 다르게 하고 있다.

'대학로'의 영문 표기는 서울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동일한 사이트 내에서 음차번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제목에서는 'Daehangno'로 제시되고 그에 대한 설명에서는 'Daehak-ro'로 나오고 있다.

독도 역시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Dokdo'로 음차역만 제시하는 반면, 한국관광공사는 'Dokdo Island'로 음차역과 더불어 섬이라는 독도의 속성인 'Island'를 병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영문 홈페이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 공고의 텍스트에서는 '을지로입

구역'을 'Euljiro Ipgu Station'으로 지도에서는 'Eulji-ro Ipgu Stn.'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도 표기의 경우 공간의 제약이 있어 'Station'을 'Stn.'으로 약어 표기한 것으로 수용가능한 표기 방식이지만 동일한 '을지로'라는 지명을 표기하면서 동일한 기관의 동일한 자료에서 'Eulji-ro'와 'Euljiro'로 다르게 표기한 것은 그만큼 용어 표기의 일관성 결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19] 동해- East Sea
제주해협 - Jeju Strait
순천만 - Suncheonman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에서 '해'와 '해협'은 속성 지명인 'Sea'와 'Strait'을 의미역으로 표기하는 반면, '만'은 'Bay'라고 의미역으로 표기하지 않고 로마자 음차역 'man'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속성 지명의 의미역 vs. 음차역 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의 경우는 '순천만'의 경우 'Suncheonman Bay'로 음차역과 의미역을 병기하고 있다.

[3] 역사 관련 고유 명사 및 문화재명 표기의 일관성 결여

[E20] 조선왕조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이탤릭체 사용 표기)
(국립국악원)

[E21] 조선왕조 - Joseon
Joseon Dynasty
(한국학중앙연구원)

[E22] 고려왕조 - Goryo
Koryeo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23] 금관가야 - Geumgwan Gaya
대가야 - Dae Gaya
대가야왕릉전시관: Daegaya Royal Tomb Pavillion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과거 왕조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의 표기 방식 역시도 여러 가지 표기 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조선왕조의 명칭도 국립국악원에서는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등을 혼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Joseon'과 'Joseon Dynasty'를 혼용하고 있다.

고려왕조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관 내에서도 'Goryeo' 와 'Koryeo'를 혼용하고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고려는 'Goryeo'로 표기되는 것이 정확한 표기이므로 'Koryeo'는 일관성에 위배되는 동시에 철자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경우이다.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기본 표기 지침의 국가명 표기 항목에서는 '국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고 한 단어로 쓴다. 단 가야연맹에 속하는 나라들의 경우 '가야'를 구분해서 쓰기 위해 두 단어로 나눠서 쓴다. 시대명이나 왕조를 나타내기 위해 Dynasty를 붙여 쓸 경우, 고유명사이지만 관습적으로 정관사 the를 붙인다'라고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음차번역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문서의 기관/단체명 표기 항목에서는 '기관/단체명은 해당 기관에서 표기한 방식을 존중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공식명칭이 없으면 관광전자지도 외국어표기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대가야왕릉전시관'의 대가야는 Dae Gaya가 아닌 Daegaya로 표기하고 있다. 동일한 대상을 이처럼 서로 달리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서로 다른 대상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E24] 삼국유사 - Samguk yusa(History of the Three Nations)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삼국유사 -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문화재청)
[E25] 삼국사기 - Samguk Sagi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26] 승정원일기 - Seungjeongwon Ilgi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삼국유사 - Samguk yusa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삼국유사의 음역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Samguk yusa'로 표기하고 있으나 그 부연 설명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의 문화재 표기 방식을 존중, 문화재청의 표기를 채택하여야 함에도 규장각한국학연구소는 문화재청 표기를 찾아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번역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삼국'에 대한 지칭에 있어서도 규장각한국학연구소는 'Three Nations'와 'Three Kingdoms'를 혼용하고 있다. 반면 '삼국사기'는 음역으로 'Samguk Sagi'라고만 표기하고 있어 역사 관련 고유 명사 표기에 있어서도 일관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 표기에 있어서 앞 어휘 다음에 괄호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한 칸을 띄고 표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철자법 위배의 대표적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역사 관련 고유 명사 표기 중 역사 기록물에 대한 표기에서 대/소문자 표기

에 있어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승정원일기'를 'Seungjeongwon Ilgi'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삼국유사'를 'Samguk yusa'로 표기하고 있다.

[E27] 동남리사지 - Dongnamni Temple Site (한국관광공사)
왕흥사지 - Wangheungsa Temple Site (한국관광공사)

[E28] 해미읍성 - Haemieupseong Fortress
남목마성 - Nammok Horse Ranch Wall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E29] 견훤왕궁지 - Gyeonhwon's Palace Site
요석궁지 - Princess Yoseok's Palace Site
(한국관광공사)

사찰터를 의미하는 '사지'가 들어가는 문화재 명칭의 경우, '왕흥사지'처럼 해당 사찰의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와 '동남리사지'처럼 해당 소재지의 지명이 들어가는 경우로 나뉘는데, 현재 영문 표기상에서는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남리에 해당하는 영문 표기인 'Donanamni'는 사찰명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해미읍성'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 음차번역하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성'을 뜻하는 영어 설명어인 'Fortress'를 붙여준 반면 '남목마성'은 한글 표기에서 단일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남목마성'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남목' 부분만을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Nammok'으로 음차번역하고 '마성'은 의미 번역하였다. 단일 표기 지침 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이다.

견훤왕궁지에는 견훤의 이름만 음차번역한 반면 요석궁지에는 요석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공주라는 직위도 함께 명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E30] 창덕궁 주합루
The Juhapru of the royal palace (Changdukgung) is used as the Kyujanggak building.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31] 경희궁 숭정전
Sungjeongjeon Hall in Gyeonghuigung Palace
(한국관광공사)

[E32] 창덕궁 휘정당
Huijeongdang Hall of Changdeokgung Palace
(문화재청)

[E33] 숭례문
Sungnyemun (Namdaemun) Gate (한국관광공사)
Sungnyemun Gate of Seoul (문화재청)
Sungnyemun (Namdaemun) (서울시)

[E30]은 왕궁이나 왕궁의 부속건물을 표기할 때는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음역한 후 의미역을 추가한다는 문화재청이나 한국관광공사의 지침에 어긋난다. 주합루는 'Juhapru Pavillion'으로 창덕궁은 'Changdeokgung Palace'로 표기해야 한다.

[E31]과 [E32]를 보면 고궁이나 사찰의 부속 건물을 나타내면서 '부속건물+in+고궁/사찰' 형태와 '표기부속건물+of+고궁' 형태가 혼용되고 있다.

[E33]은 국보 1호이자 서울시 관광에서 빠지지 않는 장소인 숭례문의 표기이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청, 서울시가 모두 다른 표기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청은 음차번역에 더해 'Gate'임을 표시해 주었지만 서울시 표기 사전은 음차번역에 그치고 있다.

[E34] 군위삼존석굴 - Gunwi Buddha Triad Grotto (한국관광공사)
군위삼존석굴 - Gunwi Buddha Triad Cave Temple (문화재청)

한편 '석굴'을 뜻하는 영문 표기 역시 한국관광공사는 'Grotto'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문화재청은 한국어 '석굴'의 영문 직역 표현인 'Cave Temple'을 사용하고 있다.

[E35-ST] 여주계신리 마애여래입상
[E35-TT] Yeoju Gyesilli Standing Rock-carved Buddha

[E36]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 Hwajeonli Stone Buddhas of Yesan
(한국관광공사)

동일한 한국관광공사 내에서도 한국어에서 '행정구역명+문화재명'으로 이루어진 명칭의 경우 영어 표기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여주계신리 마애여래입상'의 경우는 '여주' 와 '계신리'라는 행정 구역 정보를 모두 고유명사로 간주, 문화재명 앞에 표기한 반면, '예산화전리 사면석불'의 경우는 '예산'과 '화전리'라는 행정 구역 정보 중 '화전리'만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음차번역하고 '예산'은 행정 구역 정보로 간주하여 문화재명 뒤에 표기하고 있다.

[E37] 남도석성 - Namdo Stone Fortress
몽촌토성 - Mongchontoseong Fortress (한국관광공사)

고유명사 표기에 있어 어느 어느 부분까지 음차역하고 어느 부분을 의미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이 결여된 표현이 빈번히 등장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남도석성'의 경우는 '남도'는 고유명사로 간주 'Namdo'로 음차역하고 '석성'은 돌로 만든 성이라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반면 '몽촌토성'의 경우는 '토성'이라는 의미역을 병기하지 않고 '몽촌토성' 전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Mongchontoseong' 전체를 음차번역한 뒤 '성'을 나타내는 'Fortress'라는 의미역을 추가하여 'Mongchontoseong Fortress'로 표기하고 있다.

[E38] 동학농민운동 - Donghak Peasant Revolution (한국학중앙연구원)
동학운동 - Donghak Undong (한국학중앙연구원)
동학농민운동 - Donghak Farmer's Movement (문화재청)

역사적 사실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영문 번역이 존재한다. 문화재청은 'Donghak Farmer's Movement'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일관성 결여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경우는 'Farmer's'라고 농민을 단수로 표기하는 문법오류도 범하고 있다.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라고 표기함으로써 '동학운동'이 당시 계급사회에 대한 일종의 농민 혁명, 농민 봉기였다는 추가 정보를 의미역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동일한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구축한 한국학 영문용어용례사전에서는 'Donghak Undong'이라는 음차번역만을 제시함으로써 '동학운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학 연구의 최고 권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서로 상이한 영문 표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이나 한국관광공사가 역사나 문화재 관련 명칭 등 한국학에서 중요한 콘텐츠들에 대한 표기 방식에 있어 '음차역+의미역'을 규범으로 정착시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영문용어용례사전은 단순한 음차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기관 내, 그리고 기관 간의 영문 표기 지침 표준화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 인공 축조물 명칭 고유 명사 표기의 일관성 결여

[E39] 영빈관 - Youngbin-gwan
경무대 - Gyeongmudae (청와대)

청와대의 부속건물을 소개하면서 '영빈관'의 경우는 붙임표(-)를 삽입, 건물의 이

름에 해당하는 ‘Youngbin’과 건물의 용도를 의미하는 ‘gwan’을 분리함으로써 두 개의 의미가 합해 하나의 명칭이 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반면, ‘경무대’의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 띄어쓰거나 붙임표를 붙이지 않고 표기하였다.

반면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축조물에 대해 ‘음차역+의미역’ 병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예: 경복궁 - Gyeongbokgung Palace). 이러한 지침에 따를 경우 ‘영빈관’은 ‘Youngbingwan Guesthouse’, 경무대는 ‘Gyeongmudae Hall’ 등으로 건물의 속성, 용도를 의미하는 의미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문화소 관련 고유 명사 표기의 일관성 결여

[E40] 떡볶이 – tteokbokki (한국관광공사)
떡볶이 – topokki (한식재단)

[E41] 가야금산조 - Gayageum sanjo
판소리 - Pansori
살풀이 - Salpuri Dance
단소 - Danso(bamboo flute) (국립국악원)

[E42] 소고춤 – So-Go-Chum (국립극장)

[E43] 강강술래 – Ganggangsullae (한국관광공사)
강강술래 - Gang Gang Sul Le (국립극장)
강강술래 - Ganggang Sullae (한국학중앙연구원)

더불어 문화소 관련 고유 명사 표기 역시도 기관 간 일관된 표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동일 기관 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떡볶이’의 영문 표기에 대해서는 최근 한식재단에서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기존의 표기인 ‘tteokbokki’ 대신 소리나는 내로 표기한 ‘topokki’라는 새로운 표기를 제시함으로써 떡볶이의 표기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켰다. 기존의 로마자표기법을 준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두 가지 표기법이 계속 동시에 사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가야금산조와 판소리는 그대로 음역하여 ‘Gayageum sanjo’, ‘Pansori’로 번역, 표기하는 반면 살풀이는 ‘Salpuri Dance’로 음역과 의역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한편 단소는 ‘Danso (bamboo flute)’라고 괄호 안에 별도의 부연, 보충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극장의 경우는 소고춤을 ‘So-Go-Chum’으로 번역하고

있어 국립국어원의 ‘Salpuri Dance’와는 상이한 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단소의 번역에 있어서는 ‘bamboo flute’이라는 부연, 보충 설명을 첨가하여 외국인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지만, 부연, 보충 설명이 상세하고 정확하지 않아 단소를 ‘bamboo flute’으로 번역할 경우, 대금과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43]에 제시한 강강술래의 번역의 경우는 한국관광공사, 국립극장,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모두 음차번역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음절 사이 띄어쓰기에 있어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전혀 통일되지 않고 있다. 관광공사의 경우는 고유명사는 ‘음차역’으로 제시하고 속성 정보는 ‘의미역’을 추가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Ganggansullae Dance’라고 번역해 주어야 함에도 강강술래의 경우는 음차역만을 제시하고 있다.

[E44] 김치전 - kimchi jeon
파전 - pajeon
김밥 - gim bap
삼계탕 - samgyetang
곰탕 - gom tang
비빔밥 - bibim bap
bibimbap
(한식재단)

[E45] 김밥 - gimbap
비빔밥 - bibimbap (한국관광공사)

한식재단의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에서는 ‘김치전’의 경우는 재료인 ‘김치’와 ‘전’을 각각의 고유명사로 간주, 띄어쓰기하고 있는 반면 ‘파전’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붙여 쓰고 있다.

반면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음식인 비빔밥의 경우, 한식재단은 목차에서는 ‘bibim bap’으로, 본문 텍스트 내용에서는 ‘bibimbap’으로 혼용해서 표기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또 다른 메뉴인 삼계탕은 ‘samgyetang’으로 하나의 고유명사로 음차역하고 있는 반면 ‘곰탕’은 ‘gom tang’으로 띄어쓰기하고 있어 이 역시 일관성 결여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경우는 김밤, 비빔밥의 경우는 각 단어를 하나의 고유명사화로 간주, 단어 전체를 하나의 음차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3.3.4.1.2 정보성 결여/오역

정보성 결여/오역, 즉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영어 번역의 사례로 특히 음차역만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독자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났다.

[E46] 최참판댁 - House of Choe Champan (한국관광공사)
[E47] Gunje is abolished and Doje is implemented (제주특별자치도)
[E48] Jejumok, Jeongeui, and Daejenghyeon established (제주특별자치도)
[E49] 국악 - Gugak (국립국악원)
[E50] 남대문 Namdae-mo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51] 신안다도해 - Sinan Dadoha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52] 양천향교터 - Site of Yangcheon Hyanggyo (서울시)

[E46]에서는 '참판'을 음차번역함으로써 이것이 직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 최참판 자체가 인물의 이름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E47]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역사 설명 부분에 등장한 문장이다. 한국어 원문은 '군제(郡制)가 폐지되고 도제(道制)가 시행되었다'로 추정된다. '군제'와 '도제'라는 용어를 단순히 음차번역하여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E48]은 제주목, 제주 정의현 성, 대정현 성이 설치되었다는 문장의 번역으로 추정된다. 이 역시 단순히 음차번역만 하고 있어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특히 정의현이나 대정현 성이 현재의 지명이 아니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E49]를 보면 가장 핵심 단어라 할 수 있는 '국악'을 'Gugak' 혹은 'gugak'으로만 음차번역하고 부연, 보충 설명을 전혀 해 주지 않아 'Gugak'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이라면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국악'이 처음 등장하는 문장에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고 이후부터는 이를 고유명사로 취급, 'Gugak'으로 일관되게 표기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50]은 음차표기만을 제시함으로써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동시에 문화재명 표기 규정에 위배되는 번역이다. 남대문의 경우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Namdaemoon Gate'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로마자 표기법에서도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은 줄표(-) 없이 붙여 쓴다'고 적시하고 있다.

[E51]에서는 신안다도해를 고유명사로 보아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음차 표기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안다도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전달하지 못한다.

[E52]를 보면 서울시도 '양천향교'를 고유명사로 간주, 두 개의 단어로 음차역만 제시하고 의미역을 병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천향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E53] 밥 - cooked grains (bap refers to grains, such as rice, barley, and bean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밥’에 대한 번역어로 ‘bap’이라는 음차번역과 ‘cooked grains’라는 의미 번역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괄호 안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콩을 익힌 것도 밥이 되어 버린다.

[E54-ST] 영남지방의 다른 지역에서는
[E54-TT] in the remainder of South Western area (국립국악원)

영남지방을 ‘South Western area’로 오역하였다. ‘Yeongnam (Southeastern) area’로 표기하여 ‘영남’을 고유명사화 하여 음차표기로 제시하는 동시에 ‘영남’ 지방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Southeastern’이라는 의미역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남서’를 의미하는 ‘South Western’을 하나의 단어인 ‘Southwestern’ 혹은 ‘South-western’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대/소문자 표기 오류에 해당한다.

[E55] 보리암 - Boriam Hermitage (한국관광공사)
[E56] 경복궁 자경전 - Jagyeongjeon Hall of Gyeongbokgung Palace (문화재청)
[E57] 덕봉강당 - Deokbong Lecture Hall (한국관광공사)

일반적으로 암자를 뜻하는 ‘암’을 ‘Hermitage’로 통일해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보리암의 경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두산백과의 경우 그 성격을 암자가 아닌 사찰, 절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Boriam Temple’이라고 해야 보다 정확한 번역이 될 것이다.

[E56]의 자경전은 경복궁의 내전이며 대비가 거처하던 침전이므로, 다른 집무를 보던 전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표기 ‘Hall’보다는 관광공사의 침실을 뜻하는 ‘Chamber’ 표기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E57]의 덕봉강당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일종의 서원이다. 하지만 강당의 대응어인 ‘Lecture Hall’ 로 번역함으로써 ‘덕봉강당’을 교육기관이 아닌 강의실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E58-ST] 칠곡노석리마애불
[E58-TT] Noseok-dong Rock-carved Buddhas of Seongju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칠곡노석리마애불’의 영문 명칭에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지명인 ‘Noseok-dong’과 ‘Seongju’라는 지명을 수정하지 않고 놓아두어 혼선을 초래한다.

[E59] 육아휴직 - pregnancy leave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육아휴직’을 ‘pregnancy leave’로 번역하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pregnancy leave’는 단기간의 출산 휴가를 의미하고 ‘육아휴직’은 보다 장기적인 육아와 양육을 위한 휴가이므로 ‘maternity leave’가 더 정확하고도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3.3.4.1.3 어휘 차원의 의미 손실 · 추가

[E60] 중원고구려비 - Jungwon Goguryeo Monument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석판, 묘비, 경계석 등을 의미하는 ‘Stele’를 사용하는 반면, 문화재청은 기념비, 기념물을 총칭하는 상위어인 ‘Monument’로 표기하고 있다.

[E61] 도산서원 - Dosanseowon Confucian School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서원’이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관이었다는 특성을 반영 ‘서원’을 ‘Academy’라는 하위어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청은 일반적인 교육기관을 뜻하는 ‘School’로 번역하는 데 그치고 있다.

3.3.4.1.4 정보의 불필요한 생략 또는 추가

내용의 불필요한 생략 혹은 첨가로 정보 전달이 방해 받는 경우이다.

[E62-ST] 군위 위성리 석조약사여래입상
[E62-TT] Wiseongni Standing Stone Buddha in Gunwi

(한국관광공사)

[E63] 신전동 고가 - Sinjeondong House (한국관광공사)

‘군위 위성리 석조약사여래입상’의 번역을 보면 ‘약사여래’의 ‘약사’에 해당하는 ‘Medicine Buddha’라는 정보를 생략하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신전동 고가’의 경우 오래되었다는 정보를 누락, 그냥 ‘House’로 표기함으로써 ‘고가’라는 정보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였다. 또한 신전동이라는 지명을 고유명사화해 붙임표 없이 하나의 단어로 표기하였는데, 신전동을 지명으로 간주 ‘Old House in Sinjeon-dong’이라고 표기해야 할지 ‘신전동’을 문화재명의 일부로 간주, 고유명사화해 ‘Sinjeondong Old House’라고 해야 할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64-ST]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고기나 채소로 만든 소를 넣고 빚은 만두를 육수에 넣어 끓인 음식이다.

[E64-TT] Minced meat and vegetables wrapped in thin flour shells and boiled in beef broth. Oval shaped rice pasta may be added.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만둣국에 대한 설명이다. 떡을 넣을 수도 있다는 문장이 첨가되었다. 만둣국의 바로 다음 항목이 떡만둣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내용 첨가로 정보 전달을 복잡하게만 만들고 있다.

[E65] 강연회 - Lecture meeting (대한민국예술원)

[E66] 강연료 - honorarium amounts (국제교류재단)

'강연회'는 'Lecture'라고만 표현해도 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meeting'을 첨가하여 어색한 번역이 되었고 '강연료' 역시 'honorarium'만으로도 충분한데 불필요하게 'amount'를 추가하여 'honorarium amount'로 번역하였다.

3.3.4.1.5 도착어에서의 관용성 위배

[E67] 실적 - Results (국제교류재단)

[E68] 연락처 - Main numbe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69] 황교안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Hwang Kyo-ahn

(법무부)

[E70] 일반심사위원회 - General judgement committee

(대한민국예술원)

[E67]의 사례를 보면 실적이라는 단어를 'Results'로 번역하고 있는데, 의미상 현재까지의 업적 내지는 성과를 의미하므로 'Past records', 'Past performance', 'Past achievements' 등으로 번역해 주어야 적절한 번역이 될 것이다.

[E68]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직원 연락처를 표기하는 항목에서 전화번호를 'Main number'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에서 전화번호는 유선의 경우는 'Telephone number', 무선의 경우는 'Cell phone number', 또는 통칭하는 'Contact information' 등이 훨씬 더 관용적인 표현일 수 있다.

[E69]는 장관의 인사말 끝에 '직위'와 '이름'의 순으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명시

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름' 다음에 '직위'나 '직책'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E70]에서는 '일반심사위원회'를 번역하면서 'General judgement committee'라고 번역, '심사'라는 한국어에 대해 영어 대응어인 'judgement'를 제시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격이나 결과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가리켜 'Screening Committee' 혹은 'Evaluation Committee'로 표현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관용성에도 위배되지만 위원회 명칭의 첫 단어를 제외한 다른 단어들도 첫 글자를 소문자로 표기하는 철자 오류를 범하고 있다.

3.3.4.1.6 도착어 수용성 부족

정보는 전달되나 도착어에서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E71] 운영 시간 - Open hour (국립국악원)
[E72] 공간별 소개 - Information by Place (예술의 전당)
[E73] 역대회장 - President History (대한민국예술원)
[E74] 추천서 - a paper of recommendation (대한민국예술원)

[E71]은 Opening hours를 잘못 쓴 표현이다. [E72] 역시 지나친 직역으로 수용성이 부족한 번역이 되었다. 'About the Complex' 정도나 'Space Layout' 의 대안이 적절해 보인다. [E73]에서는 '역대'라는 의미를 그대로 적용 'History'라는 단어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전의 회장들을 의미하므로 'Past Presidents' 혹은 'List of Former Presidents'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영어 웹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E74]는 '추천서'를 'a paper of recommendation'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추천서'는 'recommendation letter'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E75] 봉현봉수대터 - Bonghyeon Fire Signal Station Site (서울시)

[E76] 초지진 - Chojijin Garrison (문화재청)

'봉수대'를 뜻하는 'Fire Signal Station'은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사용하는 'Beacon Fire Station'이나 'Smoke-signal Station'이 보다 일반적인 표현이다. 또한 '초지진'의 경우도 문화재청은 'Chojijin Garrison'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바다에 위치한 요새의 경우 일반적으로 'Fort'를 사용한다. 따라서 초지진의 경우는 강화도에 위치한 해안 요새라는 점에서 'Fort'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Garrison'은 해안이 아닌 일반 부대, 주둔지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더 자주 사용된다.

3.3.4.1.7 문법 오류

문법 규칙을 위배하여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E77] `Seoul Arts Center is always tries to~ (예술의전당)

[E78] 1776 (Year of the accession of Jeongjo) King Jeongjo orders the creation of the Kyujanggak. The Juhapru of the royal palace (Changdukgung) is used as the Kyujanggak building.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77]은 be 동사와 try 동사를 겹쳐서 사용한 문법적 비문이다.

[E78]은 규장각의 역사를 설명하는 섹션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의 시제를 과거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한 비문을 제시하고 있다. 즉 'orders'가 아니라 'ordered', 'is used'가 아니라 'was used'가 되어야 한다.

[E79-ST] 데이터 포털은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자 다양한 공공 정보를 활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79-TT] Data Portal helps by providing a variety of services to support people's lives more convenient, wealthy, and take advantage of the country has a variety of public information. (공공데이터포털)

[E80-ST] 게시판 사용 시, 다른 사용자들의 인격 및 권리를 존중하여 개인의 의견을 올려주십시오.

[E80-TT] Before using bulletin board, your viewpoints and opinions should be expressed in respecting other personality and right.
(공공데이터포털)

[E79]의 경우는 문법 오류가 포함된 비문이 빈번히 등장함으로써 과연 번역문이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비문이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야 하는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에 영어 비문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국격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E80]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할 때 'other'이 아니라 소유격인

‘others''로 번역되어야 하며, 권리를 의미하는 ‘right’도 복수 형태의 ‘rights’로 표기해야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맥상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personality’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dignity’ 정도로 번역해 주어야 본 문장의 맥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3.3.4.1.8 철자법 및 구두점 사용 오류

띄어쓰기와 탈자 오류가 발견되었다.

[E81] From then on, she won a total of five consecutive general elections in thedistrict.
(청와대)

[E82] Tamna-gun establis ed (pa t of Goryeo)
(제주도)

[E83] 신청서 양식 (첨부) - ① Application form (attachment)
지원 동기 - ② Statement of Purpose: a one page personal statement (국제교류재단)

[E84] 박물관 로비에서 휠체어와 유모차를 무료 대여합니다.
Wheelchairs and Strollers are available at the Museum’s Lobby with free of charge. (서울고궁박물관)

[E85] 서울예술단 - eoul Performing Arts Company
초청받았다 - Invted to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 Young Peoples Favorite Theatrical Series
(서울예술단)

[E81]은 thedistrict 사이를 띄우지 않은 띄어쓰기 오류, [E82]는 h와 r이 빠진 철자 오류이다. [E83]은 대문자, 소문자 표기 규칙에 어긋난다. ‘Application form’이라고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한 경우라면 다음 줄의 ‘지원 동기’ 역시 ‘Statement of purpose’로 ‘purpose’를 소문자 표기해 주어야 한다는 대/소문자 표기 규정에 위배되며, 대/소문자 표기의 일관성에도 위배된다. 또한 ‘a one-page personal statement’라고 ‘one’과 ‘page’ 사이에 줄표(-)를 삽입, ‘personal statement’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표기해 주어야 함에도 ‘one’과 ‘page’를 각기 표기해 주는 문법 오류를 동시에 범하고 있다.

[E84]를 보면 서울고궁박물관의 시설 이용 안내에서 영어 문장 중간에 ‘Strollers’, ‘Lobby’ 등과 같이 일반 명사이면서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등장

한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의 경우 대문자, 소문자 오류가 빈번히 나타나는데, 웹사이트라는 특성상 편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는 대/소문자 오류가 심각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E85]에서는 서울예술단의 명칭의 일부이자 핵심 단어인 'Seoul'의 'S'가 누락되는 심각한 철자 오류가 발견되었고 'invited'의 'i'가 누락되었으며, 젊은층이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라는 표현으로 'People's Favorite'이라고 표현되어야 함에도 소유격에 해당하는 ' -'s'가 누락되었다. 특히 소유격 표기 오류는 문법 오류에도 해당되는 오류로 볼 수 있다.

3.3.4.1.9 발음 표기법 오류

[E86] Seogureung Tomb (문화재청)

[E87] 창덕궁 주합루

The Juhapru of the royal palace (Changdukgung) is used as the Kyujanggak building.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86]에서 서구릉으로 읽히는 이 능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서오릉 혹은 서삼릉의 오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쪽에 소개된 동구릉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면 창덕궁은 'Changedeokgung'으로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E87]의 경우는 창덕궁의 음역을 'Changdukgung'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E88] 국립국악원 - National Gukak Institute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홈페이지에서 하위 기관인 '국립국악원'을 지칭하면서 'National Gukak Institute'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국악'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Gugak'이 올바른 표기이다. 또한 국립국악원의 공식 영문 명칭은 'National Gugak Center'이므로 발음표기법 오류와 더불어 정보성 결여/오역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기관의 명칭을 번역할 때는 여러 영문 표기 지침에서 밝히고 있듯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영문 명칭을 확인한 후 번역해야 한다.

3.3.4.1.10 편집과 체계의 문제

10개 분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편집과 체계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발견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E89] 밥 BAP, 죽 JUK, 면 MYEON, 찜 JJIM...
(한식메뉴외국어표기 길라잡이)

[E90] 신세계 스파 14, 아이스링크 8, 신세계 백화점 22
(부산광역시 해운대 안내지도)

[E91] 떡볶이: topokki (Spicy Rice Cake)
사골떡볶이: sagol topokki (Spicy Rice Cake)
쌀 떡볶이: ssal topokki (Spicy Rice Cake)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E89]는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의 목차 부분이다. 한국어와 음차 표기 음식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목차는 외국인 독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목차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부산 센텀시티의 '신세계 스파', '아이스링크', '신세계 백화점'은 동일 지점에 함께 위치하는 곳들이다. 그런데 [E90]을 보면 이 세 곳에 14, 8, 22라는 동떨어진 번호를 매겨두어 마치 서로 멀리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

한편 [E91]에서는 떡볶이의 표제어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가운데 '떡볶이', '사골떡볶이', '쌀 떡볶이'는 음차번역만 다를 뿐 의미 번역은 동일하게 되어 있다. 굳이 여러 표제어 항목으로 잡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쌀 떡볶이'는 밀가루 가래떡이 거의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표제어가 될 필요가 없어 보인다.

3.3.4.1.11 영어 공공번역결과물분석의 소결

이상에서 영어 공공번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앞서 제시한 오류 사례 이외에 문장부호 오류나 부적절한 번역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여 영어로의 아웃바운드 번역결과물에 대한 오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전체적인 번역수준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발견된 것보다 향상되어 평균 중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적절한 번역이나 문장부호 오류는 최소화되어 2007년 문학번역원의 연구에서 형식적 측면(로마자 표기, 구두점 사용, 띄어쓰기 규칙 준수, 철자법), 통사적 측면(동사 시제 일치, 주어 동사의 성수 일치, 어순, 수식/피수식 관계) 등의 오류가 폭넓게 지적되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2] 문법 오류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다지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의 경우는 심각한 비문 수준의 번역이 제시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여전히 단순한 철자 오류, 특히 대문자/소문자 표기 오류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기관 웹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시급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3] 문법 오류 및 문장부호 오류와 같은 표면적 오류가 줄어든 반면, 어휘 차원의 의미 손실 혹은 추가, 도착어에서의 관용성 위배, 수용성이 부족한 번역은 여전히 문제가 될 정도로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출발텍스트에서 의도하는 정보는 영어로 전달하고 있지만, 실제 영어에서 잘 쓰이지 않은 어휘들을 함께 섞어 쓰거나 문장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장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게 되는 영어 독자들에게 한국과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매력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4] 영어 공공번역 결과물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일관성 결여이다. 일관성 결여 문제는 상이한 여러 기관의 번역 지침들 간에는 물론, 동일기관의 번역결과물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문화재 등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5] 우리의 의식주 문화에 고유한 현상을 가리키거나 우리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어휘, 곧 문화소의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일관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화소는 체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표기하고 이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해당 문화소의 국제적 확산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면에서 문화소 표기의 표준화 및 통일성을 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6] 문화소 번역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음가 이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음차번역'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음차번역은 해당 문화소가 어떤 의미나 유래를 담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 전달을 포기한 번역으로, 우리 문화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해당 문화소의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번역지침의 변경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3.4.2 중국어 번역결과물 분석

연구대상 웹페이지의 중국어 번역결과물을 분석하면서, 우선 기대한 것보다 많은 웹페이지에서 중국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일고 있는 한류 및 한국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문화콘텐츠 및 사회제도, 출입국관리, 도로 및 관광표지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중국어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로의 번역결과물 분석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것처

럼 보이지만, 문장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중국어의 언어사용 관습이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저급한 번역들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에도 중국어 웹페이지에 일본어 번역이 실려 있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오류사례들도 발견되어 충격적이다.

3.3.4.2.1 웹페이지 편집 오류

이 부분은 특히 한국과 한국문화, 한국에서의 관광 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중국어 정보를 기대하고 찾는 방문자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1]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AEO公认企业现状'(AEO인증기업 현황)을 소개하는 부분에 엉뚱하게도 相互认证协定(MRA)(상호인정협정)이 소개되어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Invest Korea'에 관한 각 웹페이지의 오른쪽 끝에 나오는 중국어 단어가 전부 다 잘려서 읽을 때 불편함을 초래한다.
[3] 그밖에 중국어 홈페이지로 안내되어 있는데 정작 정보는 일본어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다.

기관명	홈페이지 번역 오류 유형 및 내용	홈페이지 주소
기상청	날씨영상 - 天气图 (기상청)메뉴 제목이 일본어 한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밖에 '황사의 발원지'에 대한 소개도 일본어로 되어있다	http://web.kma.go.kr/chn/weather/asiandust/intro.jsp
법무부	법무부 조직도에 대한 소개가 일본어로 잘못 되어있으며 법무부 현재의 조직현황과 다르다.	http://www.moj.go.kr/HP/CHI/60.htm
산림청	산림청 중국어 홈피 하단의 산림청 주소가 일본어 한자로 표시되어 있다.	http://chinese.forest.go.kr/chtml/index.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学制与奖学金优惠(학제 및 장학금)'에 대한 세부 설명이 일본어로 잘못 되어 있다.	http://intl.aks.ac.kr/chinese/viewforum.php?f=21

3.3.4.2.2 정보성 결여/오역

주로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의 중국어 번역에서 다수의 정보성 결여/오역이 발견되었다.

[CH11] 냄비 - 蒸锅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12] 약과 - 韩国蜜油饼(蜜饯)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13] 애호박 - 葫芦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14] 족발 - 韩国酱猪肘(酱肘子)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15] 갈비찜 - 蒸炖排骨
닭매운찜 - 蒸炖辣子鸡
해물찜 - 蒸炖海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16] 초간장 - 醋泡酱油/酱汁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17] 호박고지 - 南瓜脯
박고지 - 葫芦脯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우선 [CH11]을 보면 [닭매운찜]에 대한 소개문에서 나온 '냄비'를 중국어 '蒸锅'로 번역했는데 '蒸锅'는 '찜통'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마치 '찜통'에 요리가 담겨 나오는 것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이다.

[CH12]에서는 [약과]에 대한 번역으로 '蜜饯'도 제시했지만 '蜜饯'은 원래 당액이나 꿀에 절인 과일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蜜饯'으로 번역하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CH13]은 [칼국수], [된장찌개], [모듬전]의 다양한 요리 재료로 사용되는 '애호박'을 잘못 번역한 경우이다. 전부 다 중국어 '葫芦'로 번역했는데는 '葫芦'는 '조롱박'을 가리키는 말로, 중국어로는 '西葫芦'로 번역해야 한다.

[CH14]의 [족발]을 중국어 '韩国酱猪肘(酱肘子)'로 번역했는데 '猪肘'나 '肘子'는 중국어에서 돼지 허벅지고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중국어로 '酱猪蹄'라고 한다.

[CH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에서는 '찜요리'는 전부 다 '蒸炖'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중국어의 '蒸'은 '뜨거운 김으로 익히거나 데우다'는 '찌다'의 뜻이고 '炖'은 '고기 등을 푹 고다. 푹 삶다'의 뜻이다. 따라서 '蒸炖'을 같이 사용하면 찌기도 하고 푹 조리기도 하는 요리법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다. '갈비찜'이나 '닭매운찜'과 '해물찜'의 요리법을 고려하면 '炖'으로 번역해야 한다.

[CH16]은 [수육]에 나온 '초간장'을 중국어 '醋泡酱油'로 번역했고 [파전], [해물파전]에서 나온 '초간장'을 '酱汁'으로 번역했다. 용어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잘못 번역한 것이다. '醋泡酱油'라는 말은 중국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초간장'을 중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酱油醋'로 번역해야 한다.

[CH17]은 [아홉 가지 나물]에서 나온 '호박고지'와 '박고지'를 중국어 '南瓜脯'와 '葫芦脯'로 번역된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어 '脯'는 '저며서 말린 고기'와 '꿀에 재워 말린 과일'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호박고지'와 '박고지'의 '고지'는 '干儿'로 번역해야 한다. 즉 '南瓜干儿'과 '葫芦干儿'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보성 결여/오역의 사례는 비단 한식메뉴 안내 관련 문헌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에서부터 기상청, 문화재청,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기관의 웹문서에서도 골고루 발견되고 있다.

[CH18] 旅客&邮编 (관세청)

[CH19] 针对疏远阶层、残疾人、多文化家庭儿童的教育项目
(국립민속박물관)

[CH20] 龙泉风暴
(기상청-기상특보)

[CH21] 最近地球温暖化带来的气候变化成为对全世界的挑战。
(기상청)

[CH22] 韩国的世界记录遗产
韩国的世界无形遗产
(문화재청)

[CH23] "2004. 03. 11《政府组织法》修订，文化财厅升格级次官厅
(문화재청)

[CH24] ①9月5日 部署更名
②3月6日 部署新设及更名
③新设成果战略组、空间文化科、文化技术人力科、对外协力组等四个部署部门
(문화체육관광부)

[CH25]韩国以未来60年的国家远景，提示“低碳素绿色成长”，将现今高能耗、大量排放温室煤气的结构转化为低碳素高效率的社会经济结构。即，“低碳素绿色成长”解决全球变暖等环境问题，实现可持续增长的新的国家发展模式。
(산림청)

[CH26-ST]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본받고 싶은 나라, 품격을 지닌 좋은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화된 가치 기준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CH26-TT] 韩国要不仅仅停留在冷冰冰的"富裕国家"，要发展成为"世界的典范"，必需以韩国文化认同为基础，确立先进文化的价值标准。
(한국학중앙연구원)

[CH18]에서 나타나고 있는 번역 '邮编'은 우편번호의 뜻이므로 내용상 '邮件通关'(우편물 통관)으로 번역해야 한다.

[CH19]에서 '소외계층'은 보통 '边缘群体/弱势群体'로 번역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말에서 쓰이는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CH20]의 경우 기상청의 기상특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토네이도'를 중국어 '龙卷风'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龙泉风暴'으로 잘못 번역했다. 또 [CH21]에서 '지구온난화' 역시 우리말에서 쓰이는 한자를 사용하여 그대로 직역했는데 '全球变暖'으로 번역해야 한다.

[CH22]에서 '세계기록유산' 역시 우리말에서 쓰는 한자를 써서 그대로 중국어로 옮겼는데 이는 비전문적인 용어다. 중국어로는 '世界记忆遗产'나 '世界记忆工程' 혹은 '世界档案遗产'으로 번역해야 하고, '인류무형유산'도 중국어로 '非物质文化遗产'이나 '无形文化遗产'으로 번역해야 한다.

[CH23]은 문화재청의 연혁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승격하다'를 중국어 '升格级'으로 잘못 번역했다. 또 [CH24]에서는 한국어는 원래 '①9월5일 부서명칭 변경 ②3월 6일 부서신설 및 명칭변경 ③성과전략팀, 공간문화과, 문화기술인력과, 대외협력팀 등 4개 부서 신설'의 내용이었는데, 중국어 번역에서는 '부서'를 '部署'로 잘못 번역했다. '部署'는 '부대의 임무나 성질에 따른 배치나 안배'의 뜻이므로 용어를 잘못 번역한 것이다.

[CH25]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중국어 '低碳绿色发展'로 번역해야 되는데 한자어 그대로 '低碳素绿色成长'으로 잘못 처리했다.

[CH26]은 원장 인사말의 일부이다. 그런데 실제 번역은 한국어 출발텍스트와는 전혀 다르게 '한국은 차가운 '부유한 나라'에 머물러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델'로 발전해야 하며 한국문화의 인정을 기반으로 선진문화의 가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라는 동떨어진 의미의 문장이 되었다.

3.3.4.2.3 부적절한 번역

정보성 결여/오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번역의 사례가 두드러지게 많이 눈에 띄는 것이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의 사례들이다. SARS 발병 이후 한국음식을 단순한 이국적 느낌의 음식을 넘어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중국인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음식의 정확하고 적절한 번역은 중국에서의 음식한류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CH27] 간장게장 - 酱蟹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28] 느타리 - 糙皮侧耳蘑菇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29] 된장국 - 大酱清汤(酱汤)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30] 돼지고기 수육 - 熟猪肉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31] 순대 - 糯米肠(米肠)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32] 잔치국수 - 韩国婚庆面(韩国宴席面)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33] 젤라틴 - 骨胶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34] 퓨전요리 - 混合型料理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35] 향토 음식 - 乡土饮食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구체적으로 [CH27]의 [간장게장] 번역이 '酱蟹'로 되어있는데, '酱蟹'라는 용어를 써서 번역하면 중국인들은 '게 간장조림'으로 오해할 수 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한국 간장게장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미 '酱油腌蟹'나 '酱油腌生蟹'라는 번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간장게장'의 제대로 된 요리법을 소개하자면 이름에 '腌(절이다)'자가 들어가야 더 정확하게 '간장게장' 요리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酱油腌蟹'나 '酱油腌生蟹'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CH28]의 '느타리'는 '糙皮侧耳蘑菇'로 번역할 수 있지만 중국인 일상생활에서 '平菇'가 더 많이 쓰인다.

[CH29]에서 '된장국'의 중국어 번역으로 '大酱清汤'과 '酱汤'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중국어의 '清汤'은 '기름기나 건더기가 없는 멀건 국물'을 의미하므로 '된장국'의 번역으로 적절하지 않다. '게장'의 경우처럼 이미 중국에서는 '韩国大酱汤'이나 '韩式酱汤'이라는 번역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 번역이 더 적절할 것이다.

[CH30]의 '돼지고기 수육'을 '熟猪肉'으로 번역하면 단지 '익은 돼지고기'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육'을 이미 '白切肉'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일관성있게 사용하여 '白切猪肉'으로 번역해야 한다.

[CH31]의 '순대'의 경우 이를 '糯米肠(米肠)'로 번역하면 중국인이 '찹쌀소시지'나 '쌀 소시지'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독일이나 다른 나라도 '순대'와 비슷한 음식이 있

는데 다만 한국 순대는 당면이나 채소, 찹쌀도 들어가는 것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韩式血肠(한국식순대)'로 번역하는 것은 더 순대의 특징을 잘 살린 것 같다. 반면 '잔치국수'를 '韩国婚庆面'으로 번역하면 한국에서 혼인잔치 때에 한하여 먹는 국수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CH33]에서 '젤라틴'의 번역으로 '骨胶'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출발텍스트에서 말하는 '젤라틴'은 보통 중국어로 '胶原蛋白'라고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퓨전요리'를 '混合型料理'로 번역했는데 이것 역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중국어로는 대부분 '融合菜'라고 하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국인 독자에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번역이 될 것이다.

[CH35]에서 제시한 '향토 음식'의 번역 '乡土饮食'은 지나친 직역으로, 중국어로는 '地方风味菜'로 번역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식메뉴 소개와 관련한 정보성 결여/오역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이는 음식이름이나 조리법 소개로 국한되고 있지 않다. 이보다 중요성이 더 큰 중요 정부기관 및 기구에서 운영하는 중국어 홈페이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이 대표적이다.

[CH36] 非洛芃 (관세청)

위 사례에서 관세청 웹사이트의 '마약'을 설명하면서 '필로폰'을 중국어로 흔히 사용하지 않는 '非洛芃'으로 번역해놓았다. '필로폰'을 의미하는 '甲基苯丙胺/甲基安非他明/去氧麻黄素'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冰毒'으로 번역되어야 그 의미가 즉각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3.3.4.2.4 일관성 결여

[1] 음식명 및 재료 표기의 일관성 결여

[CH37] 간장 양념장 - 酱油/调味汁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38] 매운 고춧가루 양념장 - 辣椒粉和辣酱/辣酱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39] 쌈밥 - 蔬菜包饭(饭团)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40] 절인 배추, 배추김치, 보쌈김치 - 泡白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41] 청국장찌개 - 清麴酱汤/豆瓣酱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42] 국수전골 - 牛肉火锅面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국수전골 - 面条火锅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CH43] 고등어조림 - 炖青花鱼/酱炖鲭鱼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고등어조림 - 红烧青花鱼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CH44] 궁중떡볶이 - 宫廷炒年糕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궁중떡볶이 - 宫廷辣炒年糕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CH45] 설렁탕 - 先农汤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설렁탕 - 牛骨炖汤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CH46] 춘천닭갈비 - 春川鸡胸肉/春川烤鸡肉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춘천닭갈비 - 春川烤鸡排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CH37]의 경우 [은대구조림]의 조리법 가운데 '간장 양념장'을 '酱油'으로 번역했다가 [소갈비구이], [돼지갈비구이]에서 '调味汁'으로 다르게 번역했다. 용어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번역도 문제가 있다. '酱油'는 단지 '간장'의 뜻이고 '调味汁'은 '소스'의 뜻이다. '간장 양념장'은 '간장이 들어간 양념장'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간장 양념장'을 '酱油调味汁'으로 번역해야 한다.

[CH38]의 경우 [매운탕] 조리법에 사용되는 '매운 고춧가루 양념장'은 '辣椒粉和辣酱(고춧가루와 고추장)'으로, [해물탕]에서 나온 '매운 고춧가루 양념장'은 '辣酱(고추장)'으로 번역되어 있다. 동일한 '매운 고춧가루 양념장'을 서로 달리 번역하여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했다.

[CH39]에서도 [쌈밥]의 메뉴명을 중국어 '蔬菜包饭(饭团)'으로 번역해놓고 요리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또 '饭团包'로 번역하여 일관성이 없다.

[CH40]의 [보쌈] 번역을 보면 '절인 배추, 배추김치, 보쌈김치'를 전부 다 '절인 배추'의 뜻을 나타내는 '泡白菜'로 번역했다.

[CH41]에서도 청국장찌개 메뉴명의 '청국장'을 '清麴酱'으로 처리했다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豆瓣酱(두반장)'으로 번역했다.

또 [CH4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는 국수전골을 '牛肉火锅面(쇠고기국수전골)'으로 번역했고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과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은 '面条火锅(국수전골)'로 번역했는데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다. 국수전골에 쇠고기가 들어가므로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는 '牛肉火锅

面(쇠고기국수전골)'으로 번역했는데 쇠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즐겨먹는 중국인에게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의 번역은 메뉴를 고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찬가지로 [CH43]에서 제시한 '조림'의 번역의 경우,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에서는 '炖'으로 번역된 반면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의 표기사전에서는 '红烧'로 번역되었다. 중국어 '炖'은 '(고기 등을) 푹 고다, 푹 삶다'의 뜻이고 '红烧'는 '고기나 생선 등을 살짝 볶은 다음, 간장을 넣어 색을 입히고 다시 조미료를 가미하여 졸이거나 뚜껑을 닫고 익히다'의 뜻이다. 두 가지 요리법 모두에 졸이는 과정이 다 포함되지만 '红烧'는 간장과 설탕으로 색을 입히고 살짝 볶는 과정을 거쳐야 되므로 '炖'과 다르다. 게다가 중국의 '红烧' 요리는 대부분 흑적색을 띈다. 따라서 이런 요리 특징을 고려해서 번역하는 게 좋을 듯 하다. '炖青花鱼'나 '红烧青花鱼'로 번역하면 중국인이 요리법이 서로 다른 요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어조림'은 대부분 매콤한 맛이 있어서 메뉴명에 '辣(맵다)'자가 들어가야 매운 요리를 먹지 못하는 중국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CH4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궁중떡볶이의 용어 번역도 통일되지 않았다. 그런데 궁중떡볶이는 옛 궁궐에서 왕자와 공주들의 간식과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떡볶이를 말하는 것으로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서 '간장떡볶이' 라고도 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과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은 '宫廷辣炒年糕(궁중매운떡볶이)'로 번역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번역인 것 같다.

또 '설렁탕'의 경우 [CH45]에서처럼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는 설렁탕의 유래대로 '先农汤(선농탕)'으로 번역했고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과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은 요리법대로 '牛骨炖汤(우골찌개)'으로 번역했는데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다. 중국인에게 요리법이 서로 전혀 다른 요리로 인식될 수 있다.

춘천닭갈비의 메뉴명 역시 '春川鸡胸肉(춘천닭가슴살)'으로 번역했다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春川烤鸡肉(춘천닭고기구이)'을 사용하여 일관성이 없다. 문제는 '鸡胸肉'는 '닭가슴살'의 의미이어서 오역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에는 '春川烤鸡排(춘천치킨가스)'로 되어있는데 '烤鸡排'는 치킨가스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오역이다. 중국에서 이미 '春川铁板鸡(춘천철판닭고기)'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다.

[2] 지명 및 기구명 표기 일관성 결여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가운데 하나인 산림청을 소개하는 중국어 웹사이트를 보면 메뉴 제목은 '林业厅'으로 되어있지만 산림청 청장의 중국어 인사말에서는 '山林厅'이라는 번역어가 등장하여 같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마저도 일관성이 없다.

[CH46] 산림청 - 林业厅
산림청 - 山林厅

(산림청)

그밖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지하철역 표기도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 사용자 편의에 맞도록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CH47]	구성역 - 構成	(서울메트로)
	구성역 - 驹城站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구성역 - 駒城	(한국관광공사)
[CH48]	구파발역 - 旧摆拨	(서울메트로)
	구파발역 - 旧把拨站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구파발역 - 舊擺撥	(한국관광공사)
[CH49]	까치울역 - 喜鹊屋站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까치울역 - 鵲洞	(서울메트로/한국관광공사)
[CH50]	독바위역 - 独岩	(서울메트로)
	독바위역 - 瓮岩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한국관광공사)
[CH51]	돌곶이역 - 多尔谷齐站	
	돌곶이역 - 石串站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CH52]	보라매역 - 波拉梅	(서울메트로/한국관광공사)
	보라매역 - 波拉美站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서울메트로의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는 구성역을 번체자 '構成'으로 표기했는데 잘못된 표기이다.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과 한국관광공사의 지하철 노선도는 구성역의 유래대로 번역했지만 한국관광공사의 지하철 노선도의 구성역은 번체자 '駒城'으로 잘못 표기했다.

구파발의 유래를 고려하면 서울메트로의 '旧摆拨'이 맞는 번역이지만, 한국관광공사의 중국어 지하철노선도에서는 번체자 '舊擺撥'로 표기했다.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은 '까치울역'은 의미와 발음을 고려해 '喜鹊屋站(까치집역)'으로 번역했는데 서울메트로와 한국관광공사는 까치울역이 오정구 작동(鵲洞)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鵲洞'으로 번역했다. 서로 다른 번역지침을 적용한 결과이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역명 표기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메트로의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는 '독바위역'을 홀로 독의 '独'자와 바위를 의미하는 '岩'을 합쳐 '独岩'으로 번역했다. 반면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은 '독바위'라는 지역이 '옹암'이라고도 불리는데 착안하여 '瓮岩(옹암)'으로 번역하

였는데, 음차번역과 의미번역이 혼용된 경우이다.

동일한 기관의 역명 번역에서도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돌곶이역’의 경우는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에서는 ‘多尔谷齐站’으로 음차번역한 반면, 버스정류장 돌곶이역은 ‘石串站’으로 의미번역하여 일관성이 없다.

‘보라매역’의 번역도 두 개여서 ‘波拉梅’와 ‘波拉美站’이 제시되어 있는데, 둘 다 모두 음차번역이다. ‘梅’와 ‘美’의 중국어 성조가 다르므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3.3.4.2.5 도착어에서의 관용성 위배

여기에서 제시하는 오류사례들은 중국어의 언어관습에 위배되는 어색한 연어(collocation)를 사용함으로써 관용성을 위배한 예, 곧 잘못된 문장 성분을 함께 나란히 사용하여 중국어답지 않은 어색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예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요 정부부처의 역할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이런 어색한 번역이 쉽게 눈에 띈다.

[CH53-ST]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CH53-TT] 文化体育观光部为了实现“富于文化的生活”
(문화체육관광부)

[CH54-ST] 과거에 황폐했던 우리 숲이 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CH54-TT] 过去一度荒芜的山地如今已变得十分繁茂，要论森林管理的发展，韩国相当与其他OECD国家比肩。 (산림청)

[CH55-ST] 지식경제부가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CH55-TT] 作为实物经济的总管部门，解放后藉着商工部的成立，知识经济部一直向导了我国经济产业的发展。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말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라는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 중의 '富于'는 뒤의 내용과 결속할 수 없는 구조이다. 중국어 관용성을 고려한 번역은 ‘富有文化魅力/气息/内涵的生活’이어야 한다.

[CH54]는 산림청 청장 인사말에서 나온 문장인데 ‘~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출발텍스트를 ‘相当与……比肩’으로 처리했다. 이것 역시 중국어 관용성을 고려한다면 ‘可与……比肩’로 번역해야 한다.

[CH55]에서도 ‘지식경제부가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를 번역한 ‘知识经济部一直向导了我国经济产业的发展’에서 '向导'는 뒤의 ‘发展’과 함께 쓰일 수 없는 표현이다. 따라서 ‘引领着’나 ‘主导着’로 바꾸어야 한다.

한식메뉴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오류들을 찾을 수 있다.

[CH56-ST] 쇠고기를 넣고 끓인 육수를 주고 쓰고, 닭고기나 해물육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CH56-TT] 汤汁多采用牛肉汤，有时也采用鸡汤或海鲜汤。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57-ST] 부친 전을 색깔 맞춰 보기 좋게 담아낸 음식이다
[CH57-TT] 然后根据颜色装盘。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떡국'에 대한 설명을 번역한 번역텍스트에서 '쓰다'와 '사용하다'를 모두 중국어 '采用'으로 번역했는데, '采用'이 뒤에 있는 '牛肉汤'이나 '鸡汤或海鲜汤'과 내용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또 '모둠전'에 대한 번역에서도 '맞추다'를 중국어 '根据'로 번역한 것은 중국어 언어 사용 관습에 맞지 않는다.

3.3.4.2.6 도착어 수용성 부족

여기에서 제시하는 중국어 오류 유형은 독자가 읽어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한국어 출발텍스트를 그대로 직역해놓아서 매끄럽게 읽히지 않고 중국어답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표현들이다. 한마디로 번역투(translationese)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우선 여러 정부부처 웹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인사말 번역은 이렇게 수용성이 떨어지는 중국어표현과 문장으로 인해 의미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CH58-ST] 고궁뜨락이 그 예스럽고 정갈한 멋의 시간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CH58-TT] 古宫庭院招请您来享受整洁与具有传统性的时间旅行里。
(국립고궁박물관)

[CH59] 厅长致词 (청장 인사말)
(농촌진흥청)
[CH59] 厅长致词 (청장 인사말)
(문화재청)

박물관의 편의시설인 뮤지엄 숍 '고궁뜨락'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출발텍스트와 대응하는 중국어 어휘를 나열해놓았을 뿐이지 매끄럽게 읽히지 않는 어색한 번역이다. 농촌진흥청 청장 인사말도 전체적으로 과도한 직역으로 인해 메시지 전달이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의 청장 인사말은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직역한 듯 어색한 번역투로 일관하고 있다.

수용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번역은 역시 음식에 관한 설명에서 비일비재하다.

[CH60-ST] 떡국과 만둣국은 별개의 음식이었으나 한데 섞여 하나의 음식이 되었다.
[CH60-TT] 年糕汤和饺子汤虽是不同的饮食，这里却合成一种饮食。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61-ST] 우거지는 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 놓은 겉대를 말한다.
[CH61-TT] 菜帮是青菜的外表层菜叶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62-ST] 냄비에 닭을 통째로 담고 물을 부은 뒤 인삼, 마늘, 대추를 넣고 푹 삶은 음식이다. 삶은 고기는 소금을 곁들이고 국물은 찹쌀을 넣고 죽을 쑤어 먹는다.
[CH62-TT] 将整鸡与蒜头放入水中炖煮，鸡肉沾盐食用，汤中加入糯米煮成粥食用。除蒜头以外，还可以加入人参和大枣。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떡만둣국’을 설명한 내용을 번역한 [CH60]의 경우, ‘한데 섞여 하나의 음식이 되었다’를 ‘这里却合成一种饮食’으로 번역했는데,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직역한 듯 굉장히 어색하다. ‘우거지’에 대한 번역에서도 ‘우거지는 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 놓은 겉대를 말한다’를 '青菜的外表层菜叶'으로 중국어답지 않게 옮겨놓았다.

‘삼계탕’을 다룬 [CH62]에서는 중국어 번역텍스트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어 텍스트는 요리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는데 비해 중국어 번역텍스트는 ‘닭과 마늘을 물에 담고 푹 삶는다. 삶은 고기는 소금을 곁들여서 먹는다. 국물에 찹쌀을 넣고 죽을 쑤어 먹는다. 마늘 외에 인삼과 대추를 넣을 수 있다’로 문장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번역하여 정보 전달이 잘 안 된다.

3.3.4.2.7 어휘 차원의 의미 손실 또는 추가

[CH63] 간장 양념 - 调味料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64] 나물 - 山野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65] 조개류 - 鱼贝类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66] 초간장 - 酱汁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위 번역사례들을 보면 [잡채]에서 나온 '간장 양념'을 중국어 '调味料'로 번역했는데 '调味料'는 '조미료, 양념, 소스'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간장 양념'의 상위어다. 엄연히 '酱油调味汁'라는 대응어가 존재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번역해야 한다.

[비빔밥], [돌솥비빔밥], [아홉 가지 나물], [비빔밥상]에서 '나물'을 중국어 '山野菜'로 번역했는데 '山野菜'는 '산나물'을 의미하는 뜻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중국인이 '비빔밥'에 들어간 '나물'을 모두 '산나물'로 오해할 수 있다. 또 [된장찌개]에서 나온 '조개류'를 중국어 '鱼贝类'로 번역했는데 '鱼贝类'는 '어패류'의 뜻이므로 '조개류'의 상위어다. '조개류'는 '贝类'로 번역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번역이다.

[파전], [해물파전]에서 나온 '초간장'을 '酱汁'으로 번역했는데, '酱汁'은 '소스'를 뜻하는 말이므로 '초간장'의 상위어이다. 이것 역시 출발텍스트와 같은 층위의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3.3.4.2.8 정보의 불필요한 생략 또는 추가

번역텍스트 독자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 등을 고려하여 출발텍스트에 없는 정보를 설명을 위해 추가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발텍스트와 번역텍스트간의 정보성의 등가를 구현하기 위해 번역사가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생략한 경우 이외에, 불필요한 추가나 생략은 출발텍스트의 정보를 적절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전통의 보고(寶庫)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로고에 대한 중국어 소개가 다 끝나지 못한 채 웹페이지에 올려져있다.

[CH67]

从下往上展开的三条线象征韩民族的悠久历史和文化的积累,横向连接的三条线中,左边的短线意味着过去的历史及文化,右边的长线意味着未来文化的发展以及民族文化的飞跃,中央的短线

(국립중앙박물관)

그밖에 한식메뉴를 다룬 출발텍스트의 정보 가운데 세세한 정보나 번역이 어려운 것들은 흔하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CH68-ST] 달콤하고 부드러운 불고기와 매콤하고 쫄깃쫄깃한 낙지가 잘 어우러진다.

[CH68-TT] 柔嫩的牛肉和鲜辣的章鱼混合在一起，相得益彰。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69-ST] 차나무의 잎을 푸른빛이 그대로 나도록 말린 것으로

[CH69-TT] 将茶叶晾干以后，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70-ST] 한입 크기로 썬 가래떡이나 가늘게 뽑은 떡볶이용 떡에

[CH70-TT] 将年糕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71-ST] 아귀에 콩나물과 미나리 등 채소를 넣고 매운 양념장을 넣어 걸쭉하게 익힌 음식으로, 아귀의 쫄깃한 육질과 아삭한 채소 맛이 어우러진 별미다.

[CH71-TT] 是鲶鳅鱼与各种调味料及蔬菜一起蒸炖的饮食。鲶鳅鱼和辣味水芹味融合，口感鲜美。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72] 대하를 쪄서 - 蒸煮后的大虾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73] 찻상(녹차, 다식, 약과) - 茶套餐(绿茶,茶食,蜜饯) (茶桌)

술상(청주,육포,어란,은행)→酒套餐(清酒,肉脯,鱼籽,银杏) (酒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68]에서 [불낙전골]의 맛을 묘사하는 부분인데 '달콤하고'와 '쫄깃쫄깃한'의 의미가 번역텍스트에 빠져 있고, [CH69]의 경우 출발텍스트는 '차나무의 잎을 푸른빛이 그대로 나도록 말린 것으로'라는 내용인데, 번역텍스트에서는 '将茶叶晾干以后(차나무의 잎을 말린 뒤)'의 뜻만 전달하여 '푸른빛이 그대로 나도록'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떡볶이]를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한입 크기로 썬 가래떡이나 가늘게 뽑은 떡볶이용 떡에'을 그냥 '年糕段(떡토막)'으로 번역되었고, [아귀찜] 요리법을 소개하는 부분 역시 요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 콩나물과 미나리… 매운… 걸쭉하게…쫄깃한 육질과 아삭한 채소 맛이…' 등의 내용이 다수 생략되었다.

반면 '대하' 조리법을 다룬 사례에서는 출발텍스트에 없었던 '煮(끓이다/삶다)'의 의미를 첨가했다. [CH73]에서 다루고 있는 '찻상'과 '술상'에 대한 중국어 번역 뒤에 '茶桌'과 '酒桌'이 첨가되어 있다. '茶桌'과 '酒桌'은 '차 테이블'과 '술을 올리는 상'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불필요하다.

3.3.4.2.9 문법 오류

[CH74-ST]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터만 남아 있던 것을 1867년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 330여동의 웅장한 모습으로 재건되었습

니다.

[CH74-TT] “壬辰倭乱”时大部分建筑物被消失，到1867年在高宗的父亲兴宣大院君的主持下才重建成现在雄壮的330栋。

(국립고궁박물관)

[CH75]

本库将所收集的资料进行数据处理后提供于参观游客，是游客接触韩国及世界传统文化信息的最佳平台。

(국립민속박물관)

[CH76]

韩国投资促进局由于即使企业完成投资、成立后，也提供扶持服务，因此能帮助外资企业在最大范围内应用韩国投资环境，并在最短的十日内适应韩国市场和生活。

(산업통상자원부)

[CH77]

对国民以正义和关怀，执行正确检察任务

(검찰청)

[CH74]의 중국어 번역텍스트 중에 ‘소실되어’를 그대로 피동형인 ‘被消失’로 직역해 비문법적이다. [CH75]의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와 대응되는 ‘提供于参观游客’라는 표현에 '于'의 쓰임이 중국어 문법에 맞지 않고 대신 '给'를 사용해야 한다. ‘Invest KOREA’를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연결사 ‘由于即使’의 쓰임이 전혀 중국어 문법에 맞지 않고 문장 중의 ‘应用’은 의미상 뒤의 내용과 함께 결합하여 사용될 수 없다. [CH77]의 검찰청 인사말에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 문장은 문장 전체가 비문이다.

[CH78-ST] 산에서 나는 각종 나물을 밥 위에 올리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CH78-TT] 山菜拌饭是用辣酱拌上各种煮熟或炒熟山野菜而成，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79-ST] 쇠고기나 홍합, 멸치 국물에 미역을 넣고 끓인 국이다.

[CH79-TT] 海带汤用牛肉、海虹、鲽鱼汤中加入海带熬制而成。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80-ST]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넣어 맵게 양념하기도 한다.

[CH80-TT] 可在调味汁中可加入辣椒粉和辣酱。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산채비빔밥’에 대한 설명에서 ‘各种煮熟或炒熟’과 ‘山野菜’ 사이에 조사 ‘的’가 빠져있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다. [CH79]의 경우 중국어 번역텍스트에서 ‘用’를 쓰

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是在’를 써야 한다. 또 ‘돼지갈비구이’에 대한 설명에서는 중국어 조동사 ‘可’를 두 번 사용하여 비문법적이다.

3.3.4.2.10 철자법 및 문장부호 오류

[CH81] 문화체육관광부
发言人 : 制定和调整文化体育观光部主要政策的国民宣传计划并对此进行协商及给予支持、管理与文化旅游政策相关的各种信息和情况、确认报道内容及支持采访、管理政策报道监视系统、运营和缝隙政策顾客管理服务、管理文化体育观光部业务的对外政策发表及支持简报的发表、运营和支持电子简报、指定和运营网上发言人等负责在社交媒体上的政策沟通及执行检查和评价等业务。

[CH81]은 문장부호 오류의 대표적 경우로, 병렬관계인 중국어 문장 사이에 부호 ' ; '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부 다 '、'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문장 부호의 오용으로 인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CH82] 문화체육관광부소개 - 介绍文化體育观光部

[CH83] 정책보좌관 - 政策輔佐官

[CH84] 기관 - 機關

[CH85-ST] 비상, 재난 대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명칭 변경
[CH85-TT] 为了加强应对紧急情况和灾难的能力把进及对策官的名称改为紧急安全企划官 (문화체육관광부)

[CH86] 인천공항세관 신설 - 新设仁川进场海关 (관세청)

[CH87] ‘展馆以历史通道为中心左右各设三个层,根据陈 文物的特点细分为史前·古代馆,中世·近世馆,书画馆,捐赠馆,雕刻·工艺馆,亚洲馆及 亚洲__ 个域.为使参观者更加容,愉快地进行参观.本馆使用了各种各样的展览方法,建立起一个高科技导览系统.’
(국립중앙박물관)

[CH88] 중요민속문화재 - 重要民俗文化才
등록문화재 - 登陆文化才 (국립고궁박물관)

[CH89]
館長 / 国立慶州博物館 / 国立夫餘博物館 / 国立濟州博物館
(국립중앙박물관)

[CH90]
학교 연계 교육 - 学校連携教育
학교 관련 교육 - 学校相關教育
(국립중앙박물관)

[CH91]
국립현대무용단 - 国立當代舞蹈團
(예술의전당)

[CH92]
티켓 예매 사이트 - 售票網址
(예술의전당)

[CH82]의 경우 '介绍文化體育观光部'의 '體'자가 번체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CH83]에서는 '政策輔佐官'의 '輔'자가 번체자로 되어있다. 또 [CH84]에서는 '機關'이 번체자로 표시되어 있고, [CH85]에서는 '进及'이 오타이므로 '紧急'으로 수정해야 한다. [CH86]도 '新设仁川进场海关'의 '进场'을 '机场(공항)'으로 수정해야 한다.

'상설전시'를 다루고 있는 [CH87]의 번역은 문장 중간 중간에 빠진 글자로 인해 문장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CH88]의 경우 '重要民俗文化才'의 '才' 그리고 '登陆文化才'의 '陆'과 '才'가 모두 잘못 표기되어 있고, '重要民俗文化财产'을 '登录文化财产'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밖에 '館長(관장)', '国立慶州博物館(국립경주박물관)'의 '慶'과 '館', '国立夫餘博物館(국립부여박물관)'의 '餘'와 '館', '国立濟州博物館(국립제주박물관)'의 '濟'와 '館' 등이 다 번체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CH90]의 '学校連携教育'의 '連携'와 '学校相關教育'의 '關'도 번체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CH91]의 '国立當代舞蹈團'에서도 '當'과 '團'이 번체자로 표기되어 있고 [CH92] 역시 '售票網址'의 '網'이 번체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모두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가 혼용된 사례이다.

[CH93] 아귀찜 - 辣炖安康鱼(蒸炖鮟鱇鱼)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94] 꿀떡/약식/수정과/강정/약과 - 松籽/松籽粉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95] 쇠고기전 - 剪牛肉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CH96-ST] 밥을 함께 싸 먹거나 저민 마늘, 고추 등을 얹어 먹기도 한다.

[CH96-TT] 包入米饭、蒜头辣椒等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위 [CH93]에서 '鮫鰊'은 중국어 번체자이기 때문에 간체자 '安康'을 사용해야 한다. '잣'의 경우도 '松籽'로 표기했는데 중국어사전에는 '松籽'가 아닌 '松子'로 표기되어 있다. '剪牛肉'의 '剪(자르다)'은 오타로, '煎'을 사용해야 하고, 불고기쌈에 대한 설명에서도 병렬관계를 나타낸 '蒜头'와 '辣椒' 사이에 부호 '、'가 있어야 한다.

3.3.4.2.11 중국어 공공번역결과물분석의 소결

이상에서 사례별로 요약한 중국어 공공번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어의 경우 웹페이지 관리 소홀로 중국어 대신 일본어 번역이 들어가는 기초적인 오류가 종종 발견되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기상청, 법무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같은 주요부처의 웹페이지가 이런 관리 소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2] 총 19개 공공기관의 중국어 웹사이트 분석 결과, 번역수준이 높은 소수의 경우와 수준 이하인 다수의 경우가 공존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중국어에서는 함께 쓰이지 못하는 어휘들이 섞여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읽히는 수용성 부족의 문장이 많다는 점이다. 몇몇 사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이트는 단지 중국어 웹페이지를 갖추어 구색을 맞추고자 했다는 인상을 준다.

[3] '한식메뉴 외국어 길라잡이'의 중국어 번역에서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용어 사용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이나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과 표기가 서로 달리 나타나는 다수의 일관성 결여 사례도 문제이다.

[4] 우리 문화에 특유한 현상이나 문화콘텐츠를 가리키는 문화소 번역과 관련하여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이미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음식 용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할 때 해당 용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어 독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없이 수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 이런 음식명 번역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한식명 번역은 번역을 통해 먹음직스럽고 맛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해야 좋은 번역인데 '구절판'처럼 단지 '九折坂'으로 번역하면 맛과 아름다움을 다 갖춘 요리라는 상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음식의 특징, 맛, 유래, 미(美)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음식명의 외국어 표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6] '한식메뉴 외국어 길라잡이'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안 제작과정 중의 '메뉴 설명 작업'에 따르면 '메뉴 한글 설명문을 만든 다음 영어로 번역을 하였고, 영어 설명문을 바탕으로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베트남어로 번역 작업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학문적으로도 이런 이중번역은 출발텍스트에서 곧바로 번역할 때보다 정보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감수하고 이중번역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7] 한국관광공사의 중국어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와 서울메트로에서 제공하는 중국어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는 역명 자체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의 혼용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3.3.4.3 일본어 번역결과물 분석

3.3.4.3.1. 정보성 결여/오역

[JP11] 실물경제 - 実物経済 (서울특별시)

[JP12] 경청하여 - 傾聴して (제주특별자치도)

[JP13]) 수경재배 - 水硬栽培 (제주특별자치도)

[JP14-ST] 모두의 소망과 꿈이 모여

[JP14-TT] 諸々の希望と夢が融和すれば(??의 희망과 꿈이 융화한다면)

[JP15-ST]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JP15-TT] 人間と自然が相生する生命の空間に変貌します(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JP16-ST] 넓은 잔디밭,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각종 공연과 가족나들이 시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심공원을 조성합니다

[JP16-TT] 広闊な芝生、清冽に流れる河川、各種公演と家族連れが施設と

相俟った綺麗な都市公園造成します(광활한 잔디밭, 청렬하게 흐르는 하천, 각종 공연과 가족이 시설과 ?? 아름다운 도시공원 조성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JP17-ST]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JP17-TT] 真正・不正事項の調査・処理(진정、부정사항의 조사、처리)

[JP18-ST] 민원 일반 및 민원 상담

[JP18-TT] 請願一般・請願相談(청원일반、청원상담)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JP11]을 보면 한국어의 '실물경제'를 축어적으로 한자어로 번역하였지만 일본어의 정확한 표현은 '実体経済'(실체경제)이다. 제주도의 홈페이지에서 일본어는 자동 기계 번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조사가 빠지거나, 지나치게 축어역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동일한 한자어가 한국어와 일본어에 존재하는 경우 한국식 한자어를 그대로 대응어로 옮겨놓은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데, 한국어의 '경청'은 동일한 한자어가 존재하나 일본어로는 '清聴'가 더 정확하다. 또 [JP13]는 한자어인 수경재배가 자동번역되는 과정에서 틀린 한자로 변화된 경우로, 일본어로는 '水耕栽培'로 번역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번역은 전체적으로 번역문장의 수준이 매우 낮은데, 일본어에서 쓰이지 않는 한자어가 사용되는가 하면, 조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쉽게 발견된다. '모두의'의 번역어로 사용된 '諸々'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고, '함께 어울리는'을 번역한 '相生'이나 '맑은 물'을 표현한 '清冽に' 역시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이며, '어우러진'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相俟った'는 존재하지 않는 한자어의 조합이다. 또한 '도시공원을 조성합니다'에서 '의'에 해당하는 조사 'の'가 누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문에 사용된 한자는 해당 표현에 맞지 않는 번역으로 한국식 한자를 그냥 축어적으로 사용하여 출발텍스트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진정'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申し立て나 請願'이 적절한데, 전혀 다른 뜻의 한자어가 동음이라는 이유로 사용되었다. '민원'도 일본어로는 '苦情'가 적절하다.

3.3.4.3.2 부적절한 번역

[JP19] IT강국 - IT強国

(서울특별시)

한국어는 '강국'이라는 표현이 곧잘 쓰이지만 일본어는 특정 분야가 특히 뛰어나고 발전되었음을 표현할 때는 'IT大国/IT国家'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일본어에서 '강국'은 군사적 혹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

3.3.4.3.3 어휘 차원의 의미 손실 · 추가

[JP20-ST] 갓머리를 상징하는 모양의

[JP20-TT] 昔の学者がかぶっていた笠をイメージした

(옛날 학자가 썼던 삿갓을 본딴)

(예술의 전당)

한국어 출발텍스트는 '갓머리를 상징하는'인데 '옛 선비가 쓰던 삿갓을 형상화한'으로 번역하였다. 이 때 '갓'에 해당하는 단어가 '삿갓'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오페라하우스의 지붕모양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음차번역과 함께 의미에 관한 설명을 붙이거나, 관직에 있는 사람이 쓰던 모자를 말하는 상위어인 '冠(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3.3.4.3.4 정보의 불필요한 생략 또는 추가

[JP21-ST]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화상공간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JP21-TT] 時間や空間の制約なく、情報のやり取りができる場となれば幸甚に存じます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JP22-TT] 形成するうえでの決定的な要素として要素です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서 요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JP23-ST] 관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융성의 본산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JP23-TT] 観客には生涯忘れぬ感動を差し上げる文化の隆盛を成します(관객들에게는 생애 잊지 못할 감동을 전달하는 문화의 융성을 이루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국립고궁박물관의 사례는 출발텍스트의 내용이 충분히 번역되지 않았고, 술어 동사로 일본어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幸甚'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발텍스트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時間や空間の制約なく、情報のやり取りができるサイバー空間を新しく設け、お目見え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례는 '요소'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문장이 내용상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앞부분의 '요소'를 빼서 '形成するうえで決定的な要素です'로 수정하여야 한다.

예술의 전당 사례는 수용성에도 문제가 있고, 출발텍스트의 의미와 의미가 다른 어휘를 사용한데다, 출발텍스트의 내용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 항목에 넣었다. '観客には忘れられない感動を送り届ける文化立国の本家として、常に皆さんのそばにあります ' 등으로 수정할 수 있다.

3.3.4.3.5 일관성 결여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의 지침이 불일치하여 일관성 없는 번역이 각각 제공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 두 기관은 특히 외국인들의 정보이용이 대표적으로 많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일관성 결여는 사용자 편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JP24] 층 - 重 (문화재청)
층 - 層 (한국관광공사)

[JP25] 유배지 - 流刑地 (문화재청)
유배지 - 流配地 (한국관광공사)

[JP26] 궁(지) - 宮 (跡) (문화재청)
궁(지) - 宮 (址) (한국관광공사)

[JP27] 고택 - 古宅 (문화재청)
고택 - 故宅 (한국관광공사)

[JP28] 시청- 市庁 (문화재청)

시청 - 市役所 (한국관광공사)

[JP29] 성당 - 聖堂 (문화재청)

성당 - カトリック教会 (한국관광공사)

[JP30] 再編作業/5大産業に改編(재편작업/5대산업으로 개편) (부산광역시)

위 사례군에서 제시한 번역들은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번역을 발주하고 사용하는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에 따라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번역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고,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우리 문화콘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번역을 제공하는 기관들끼리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시급히 표기 기준을 통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홈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내에 동일한 한국어 표현인 '개편'을 각각 '再編'과 '改編'으로 표현하고 있어 표현에 통일성이 없다. 조직 등이 바뀔 때는 일본어로 '再編'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3.3.4.3.6 도착어에서의 관용성 위배

[JP31] 老人 (예술의 전당)

[JP32] 다가올 미래를 향해 - 訪れる未来に向けて (찾아올 미래를 향해)

(서울특별시)

도착어로 이루어지는 번역은 반드시 도착텍스트 사용자들의 언어관습에 적합한 방식, 곧 관용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JP31]의 '노인'은 일본의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번역의 사례이다. 한국어에서도 기피하는 '노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어의 노인을 뜻하는 'お年より(어르신)' 등 적절한 관용표현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또 한국어에서는 관용적으로 '다가올, 오는, 지난, 올' 등의 표현을 시간 표현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위 예문처럼 '찾아오다, 방문하다'의 뜻인 '訪れる'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문장이 어색해지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 표현을 빼는 편이 낫다.

3.3.4.3.7 도착어 수용성 부족

[JP33-ST] 물질적、육체적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얻은 지혜의 정수들을 기반으로 이제 문화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JP33-TT] その解決の道程の中で得られた智恵の真髄に基づき

(그 해결의 도정 중에 얻어진 지혜의 진수를 바탕으로)

[JP34-ST]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JP34-TT] 国民の文化的な向上を図ることを基本任務としています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합니다)

(이상 문화재청)

[JP35-ST] 박원순이라면 다릅니다

[JP35-TT] 朴元淳だと違います(박원순이라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JP36-ST]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P36-TT] 芸術の香りが満ちる芸術の殿堂のホームページにようこそ

(예술의 향기가 가득 찬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 ~)

[JP37] 정통 콘서트장 - 正統コンサート会場(정통 콘서트장)

[JP38-ST]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자리잡은 지난 25년간

[JP38-TT]文化芸術の貧土だった韓国が文化強国として立ち上がる25年の間に(문화예술 불모지였던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일어서는 25년 동안에)

(이상 예술의 전당)

[JP39] 범국가적인 노력 - 汎国家的な努力(범국가적인 노력)

(한국콘텐츠진흥원)

[JP40-ST] '문화융성'의 토대 구축

[JP40-TT] 国民の生活と現場で「文化隆盛」を実践

(국민의 생활과 현장에서 '문화융성'을 실천)

(문화체육관광부)

[JP41-ST] 부산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커집니다

[JP41-TT] 釜山の位相と役割が従って広大になります

(부산의 위상과 역할이 따라서 광대해 집니다)

(부산광역시)

[JP42-ST] 작은 소리도 듣겠습니다

[JP42-TT] 小さな音も聞きます(작은 소리도 듣겠습니다)

[JP43-ST]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JP43-TT] 人を先に思います(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용성 부족'의 경우 출발텍스트의 정보가 전달되기는 하나, 과도한 직역으로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 번역이다. 문화재청의 첫 번째 사례인 [JP33]은 출발텍스트의 내용이 많이 축소되기도 했지만, '정수'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진수'로 번역하여 어색하게 받아들여진다. 문화재청의 [JP34]는 '문화적 향상'이라는 한국어 출발텍스트도 어색하지만 '문화적'과 '향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일본어로 직역하면 어색하게 들린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 발전'의 의미로 해석하여 '文化の発展'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문장도 과도한 직역이다. '박원순이라면 이전과는 다르다. 차별화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전달해야 하는데, 번역에서는 '다르다'를 사전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만 전달하고 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박원순이 바꿀 수 있다'의 의미로 '朴元淳が変えます'가 적절할 것이다.

예술의 전당에서 찾은 [JP37]은 전반적으로 정보전달에 무리가 없으나 문장의 의미와 불일치한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어 출발텍스트의 '정통'은 콘서트장에 가장 적합한, 본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나 일본어로 '정통'은 역사적으로 진정한 성격을 지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본어로는 본격적인이라는 뜻을 지닌 '本格的なコンサート場'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JP38]에서도 '불모지'의 사전적인 대응어로 '貧土'가 있긴 하나, 이 단어는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농촌에서 척박한 땅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따라서 '문화가 발전되지 못한'의 의미를 담아 '文化の発展しなかった'、또는 '文化の立ち後れた'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같은 문장의 '文化強国'은 '文化大国 등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JP39]의 경우 한국어로 '범국가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한자어로 축어역하였으나 일본어로는 '나라를 들어'라는 뜻인 '国上げての努力'로 수정하여야 한다.

3.3.4.3.8 문법 오류

[JP44-ST] 2013년 올해로 개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JP44-TT] 2013年になって開館25周年を向かいました。

(2013년이 되어 개관 25주년을 마주했습니다)

[JP45] 小規模な/最高な/独特な(소규모의/최고의/독특한)

[JP46 -TT] 文化芸術の中心地で生まれ変わる事ができました

(문화예술의 중심지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예술의 전당)

[JP47-ST] 문화가 생활이고 생활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JP47-TT] 文化が生活でかつ生活が文化になれるよう、誠心誠意尽力してまいりします

(문화가 생활이면서 생활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여 ???)

(문화재청)

[JP48-ST]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

[JP48-TT] クラスターの造成を勧めする予定(클러스터의 조성을 권할 예정)

[JP49] 良質な雇用創出 (양질? 고용창출)

(서울특별시)

[JP50] などでしたあると調査されました(등이었다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 전당에서 발견된 [JP44]는 어휘선택이 잘못된 번역이다. '25周年を迎えました'로 수정되어야 한다. '소규모/최고/독특'은 일본어에서 명사이다. 그런데 번역문에는 모두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小規模の最高の独特の'로 수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良質'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수정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의 [JP47]은 인사말 중에 나오는 표현으로 문법적으로 술어부분이 오류이다. 즉, 겸양어인 동사 'まいる'와 '합니다'의 'します'가 결합될 수 없으므로 따라서 '尽力してまいります'로 고쳐야 한다.

[JP48]은 서울특별시 관련 내용의 첫 문장으로, 한자어 변환도 잘못되었고 문법적으로도 동사활용 자체가 틀린 경우이다. 우선 '추진하다'라는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일

본어는 ‘進める’인데 본문의 동사는 ‘권유하다’의 뜻인 동사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문장은 ‘クラスターの造成を進める予定’로 번역되어야 한다.

마지막 사례인 문화체육관광부 문장은 통사구조가 틀린 문장이다. 동사가 두 개 결합되어 술어가 두 개 겹친 셈이 되었다. 즉, ‘などであると’ 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3.4.3.9 철자 및 문장부호 오류

[JP51] 대한민국 - 大韓民國 (문화체육관광부)

[JP52] ブルメ (문화체육관광부)

[JP53] 김윤덕 - キムヨンドク (한국콘텐츠진흥원)

[JP54] 略４千万名の訪問客(약 4천만 명의 방문객) (예술의 전당)

[JP55] 全世界GDP医薬1/4を(전 세계 GDP 의약 1/4를) (서울특별시)

[JP56] 夢のスポーツ檜舞台(꿈의 스포츠 ? 무대)

[JP57-ST] 자연과 문화,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부산시민공원’을 만듭니다

[JP57-TT]自然、文化、美麗が一団となって「釜山市民公園」を創生します

(자연, 문화, 미려?가 하나가 되어 ‘부산시민공원’을 창생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철자 및 문장부호 오류를 모아놓은 사례 가운데 첫 사례에는 한국식 한자 國이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大韓民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JP52]는 한국어 홈페이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출발텍스트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맛집순례’ 등을 뜻하는 일본어 ‘グルメ(구루메)’를 잘못 쓴 표기 오류로 보인다.

세 번째 사례는 인명표기 규칙을 어기고 번역한 사례이다. 한국의 이름을 일본어의 가타카나로 표기할 때, 성(姓)다음에 가운뎃점을 넣어 성과 이름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즉 ‘キム・ヨンドク’로 표기해야 한다. 예술의 전당의 사례는 ‘약’의 한자어가 오류로, ‘約’을 잘못 표기하였다.

서울시의 [JP55]는 단순한 입력 실수로 추정되는데, ‘GDP의 약~’인 문장에서 두 글자를 붙여 한자 변환하여 엉뚱한 한자어가 입력되었다. ‘GDPの約1/4’로 번역해야 한다. [JP56]도 한자 변화 실수로 추정되는데 ‘の’가 들어가야 할 곳에 엉뚱한 한자인 ‘檜’가 들어갔다.

부산광역시의 문장은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 엉뚱한 한자어가 들어가 있다. ‘아름다움’이 ‘美麗’로, ‘만든다’가 ‘創生’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도 뜻이 통하지 않고 일본어에도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이다. 이 문장은 ‘自然、文化、美しさが調和した「釜山市民公園」を作ります’등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3.3.4.3.10 발음 표기법 오류

[JP58] 허남식 - フォ ナムシキ (부산광역시)

인사말 끝부분에 부산시장 성명이 잘못 표기되었다. 한국어의 '허'는 일본어로 'ホ'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번역어는 '포'로 읽어야 하는 표기이다. 즉, 'ホ・サムシキ'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3.3.4.3.11 일본어 공공번역결과물분석의 소결

이상에서 일본어 공공번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일본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내용 전달에 무리가 없으며, 크게 어색하지 않은 수준이다. 내용 전달이나 기본적인 표기 오류로 인해 정보 전달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번역문장이 일본어 원어민이 읽어서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을 지키는 사이트도 드물다. 일본어 한자 표기에서 중국어 한자나 한국어 한자가 버젓이 섞여 사용되는 등, 기초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 홈페이지 번역의 문제점으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기관장의 인사말이 의외로 오류가 자주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기관장 이름의 일본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기초적인 문법 오류 때문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동일한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서도 번역의 질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는 점이다. 그 이유를 유추해보면, 처음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번역된 소위 '대문' 페이지 번역, 그리고 이후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한 뉴스 등 메뉴내용의 번역 주체가 달라지면서 번역수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소개 페이지의 번역결과물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과 번역수준 및 스타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영어 중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의 표기 지침에서 일관성 결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일본의 문화재명 표기 기준까지 참고하여 꼼꼼하게 만들어진 현행 표기 기준의 가치는 높이 평가하지만, 이들 기준 간의 상호 일관성 결여는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4.4 프랑스어 번역결과물 분석

3.3.4.4.1 정보성 결여/오역

[F16-ST] 돌솥에 멥쌀과 잡곡을 섞어 담고 밤, 대추, 은행, 콩 등을 넣어 즉석에서 지은 밥이다.

[F16-TT] Riz nature, céréales et fruits secs(marrons, fruits de ginkgo, et pignons) cuits à la vapeur dans une marmite en pierre.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17-ST] 잘 익은 김치에 돼지고기나 어패류, 두부와 굵게 썬 파 등을 함께 넣어 얼큰하게 끓인 음식이다. 반찬으로 즐겨 먹는 대표적인 찌개다.

[F17-TT] Ragoût épicé au kimchi(chou fermenté), tofu, poireaux et la viande de porc(ou fruits de mer). C'est un ragoût qui, traditionnellement, accompagne le riz presque à tous les repa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18] 동치미 - Dongchimi (kimchi radis dans de l'eau)

(한국관광공사)

[F19-ST] 쌀밥에 고기볶음, 갖은 나물 등 반찬과 고명을 올리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다양한 제철 재료와 참기름을 첨가하면 더욱 맛있다.

[F19-TT] Riz nature recouvert de légumes, viande et de différents ingrédients de saison. Plat au goût relevé, grâce à la pâte de piment rouge et à l'huile de sésame.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16]은 각종 잡곡을 넣고 지은 '영양돌솥밥'에 대한 설명을 번역한 것인데, 영양돌솥밥에 들어가는 잡곡 중, 콩이 'pignon (잣)'으로 번역되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김치찌개'를 다룬 [F17]에서는 '반찬으로 즐겨먹는 대표적인 찌개'를 '전통적으로 매 끼 밥과 함께 곁들여먹는 찌개'로 번역하여 마치 김치찌개가 김치처럼 매 끼니마다 상에 오르는 반찬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동치미'에 대한 번역도 '동치미'를 발음대로 음차번역을 한 뒤, '물에 담긴 무우 김치'로 설명하고 있는데, '무우를 물에 담가 발효시킨 김치'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야 한다.

[F19]는 '비빔밥'에 대한 설명으로, 비빔밥의 기본 재료에 '제철재료와 참기름을 첨가하면 더욱 맛이 좋다'는 내용이 프랑스어로는 '고추장과 참기름을 더하면 풍미가

좋아진다'로 번역되었다.

3.3.4.4.2 표기상의 일관성 결여

어휘 사용에서의 일관성 결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텍스트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동일한 텍스트 내에서도 발견된다. 우선 한식재단에서 발간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에 나타난 어휘 일관성 부족의 예를 먼저 살펴보자.

[F20-ST] 뜨거운 돌솥에 밥을 담고 갖은 나물과 고기볶음을 얹은 뒤 고추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F20-TT] Riz servi dans une marmite en pierre chaude, recouvert de divers légumes et de viande sautée, à mélanger avec la pâte de piment rouge.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21-ST] 쌀밥에 고기볶음, 갖은 나물 등 반찬과 고명을 올리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F21-TT] Riz nature recouvert de légumes, viande et de différentes ingrédients de saison.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22] 밥 - Riz nature

잡곡밥 - Bap aux céréale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23] 비빔밥 - Riz aux légumes et à la viande

산채비빔밥 - Bibimbap aux légumes sauvages

돌솥비빔밥 - Bibimbap servi dans une marmite en pierre chaude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24-ST] 총각김치

[F24-TT] Chonggak kimchi (kimchi de radis, dit « kimchi des vieux garçons ») (한국관광공사)

Kimchi de petits radis coréens et leurs tige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25-ST] 동치미

[F25-TT] Dongchimi (kimchi radis dans de l'eau)

(한국관광공사)

kimchi de radis entier dans le ju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라는 동일한 용어 용례집에서 돌솥비빔밥의 고기볶음은 'viande sautée(볶은 고기)'라고 번역된 반면, 비빔밥의 고기볶음은 단순히 'viande(고기)'로 번역되었다. 비빔밥에서 상위어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 '고기볶음'이라는 동일한 어휘에 대한 번역의 일관성이 결여된 예로 판단된다.

밥과 잡곡밥 항목에서 밥은 'riz'라고 의미역한 반면, 잡곡밥은 'bap'이라고 음차역하여 번역 방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또 비빔밥의 경우, '야채와 고기를 곁들인 밥'으로 음식을 설명하는 의미역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산채비빔밥과 돌솥비빔밥에서는 'bibimbap'이라고 음차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비빔밥' 항목에서 'bibimbap'이라는 음차역과 그 뜻을 풀이하는 의미역을 함께 제공한 다음, '산채비빔밥'과 '돌솥비빔밥'의 번역에서는 'bibimbap'을 그대로 음차역해서 쓰고 추가적인 정보인 '산채'와 '돌솥'만 추가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외에 기관간의 번역 불일치 내지 일관성 부족의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우선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동일한 한식메뉴를 설명하면서 서로 상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예도 발견되었다.

'총각김치'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음차역을 한 다음 '총각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총각'의 어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총각 김치'라는 설명을 덧붙인 반면, 한식재단에서는 '한국의 작은 무와 줄기 김치'로 번역했다. 이는 '동치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물에 넣은 무우 김치'라는 한국관광공사의 설명이나 '국물에 담긴 통무 김치'라는 한식재단의 설명이 다르다. 동치미의 경우 무를 통째로 담을 수도 있지만 썰어서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식재단의 설명에서는 'entier'를 생략해야 한다. 반면 동치미 국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관광공사의 'eau'보다는 한식재단의 'jus'가 보다 적절하다.

3.3.4.4.3 정보성의 등가가 무시된 번역

[F26-ST] 쌀로 만든 가래떡을 얇게 썰어 육수에 넣고 끓인 음식으로 설날에 즐겨 먹는다. 쇠고기를 넣고 끓인 육수를 주로 쓰고, 닭고기나 해물육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F26-TT] Le Tteokguk, plat traditionnel du nouvel an, est préparé avec du Tteok, une pâte de riz découpée en rondelles

que l'on fait mijoter dans un bouillon de viande de boeuf, de poulet ou de fruits de mer.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27-ST] 삶은 국수에 고명을 얹고 멸치장국을 부어낸 국수로 예로부터 결혼식, 생일, 환갑 등 잔치 때 손님을 대접하는 대표 음식이다.

[F27-TT] Sur des nouilles cuites, on verse un bouillon à base d'anchois et ajoute une garniture. C'est un plat traditionnellement servi aux invités les jours de fête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28-ST] 쌀밥에 고기볶음, 갖은 나물 등 반찬과 고명을 올리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다양한 제철 재료와 참기름을 첨가하면 더욱 맛있다.

[F28-TT] Riz nature recouvert de légumes, viande et de différents ingrédients de saison. Plat au goût relevé, grâce à la pâte de piment rouge et à l'huile de sésame.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29-ST] 콩을 삶아 곱게 간 다음 체에 거른 국물에 국수를 말고 소금으로 간한 뒤 얼음을 띄워 열무김치와 함께 먹는 여름철 음식이다.

[F29-TT] Sur un lit de nouilles cuites, on verse du jus de soja cuit, finement broyé, filtré et salé. Ce plat estival se mange froid avec le yeolmu kimchi.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30-ST] 만두와 얇게 썬 가래떡을 육수에 함께 넣어 끓여 먹는 음식이다. 떡국과 만둣국은 별개의 음식이었으나 한데 섞여 하나의 음식이 되었다.

[F30-TT] Bouillon de viande aux raviolis et aux Tteok découpés en rondelles, et portés à ébullition. Une recettes à mi-chemin entre le Tteokguk et le Mandutguk.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26]은 우리 한식 메뉴 가운데 한해를 여는 대표음식인 설날 떡국에 대한 설명이

다. 떡국에 들어가는 멥쌀로 만든 가래떡을 단순히 '떡'이라는 상위어로 번역하여 설날음식이 '일반적인 떡'인 것으로 전달하고 있다.

[F27]은 잔칫날 즐겨먹는 '잔치국수'에 대한 설명이다. 잔치국수를 먹는 날이 언제인지 자세히 나열한 한국어 출발텍스트와는 달리, 프랑스어 번역텍스트에서는 단순히 잔칫날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이라고 설명하여 잔치국수를 먹는 날에 대한 정보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콩국수'의 경우, '얼음을 띄워' 먹는다는 출발텍스트의 의미를 단순히 '차게' 먹는다고 번역하고 있고, '떡만둣국'은 따로따로 먹던 떡국과 만둣국을 섞어서 떡만둣국으로 먹는다는 출발텍스트의 정보를 '떡만둣국이 떡국과 만둣국을 섞은 조리법'이라고 번역하여 이 음식의 유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3.3.4.4.4 정보의 불필요한 생략 또는 추가

[F31-ST] 김치를 잘게 썰어 밥과 함께 볶은 뒤 달걀프라이를 얹은 음식이다.

[F31-TT] Riz sauté à la poêle à feu doux avec du kimchi(chou fermenté) haché.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32-ST] 소갈비를 토막 내어 무와 함께 푹 삶은 음식으로 맑은 국물이 구수하고 갈비를 뜯어 먹는 맛이 쏠쏠하다.

[F32-TT] Soupe claire, consistante et savoureuse, à base de morceaux de côtes de boeurf et de radis. On peut y ajouter des vermicelles. Et prendre plaisir à manger les morceaux de côtes de boeuf avec les doight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33-ST] 흰밥을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한 뒤 살짝 구운 김 위에 얇게 펼쳐 놓고 시금치, 당근, 단무지, 고기볶음 등을 넣어 둘둘 말아 알맞은 크기로 썰어 먹는 음식이다.

[F33-TT] Riz nature assaisonné, roulé dans une feuille d'algue avec des épinards, des carottes et du radis vinaigré. Au moment de le servir, on coupe le Gimbap en rondelle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34-ST] 소머리, 쇠족, 쇠고기, 뼈, 내장 등을 함께 넣고 오랜 시간 푹 고아 만든 탕으로 국물이 뽀얗고 맛이 진하다.

[F34-TT] Soupe épaisse et riche, à base de boeuf, de tête de veau, d'os à moelle, d'abats et de pied de boeuf, longuement mijoté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35-ST] 청국장은 푹 삶은 콩을 따뜻한 곳에서 단시간에 발효시켜 만든 장이다. 육수에 고기, 김치, 두부, 고추 등을 넣고 청국장을 풀어 찌개를 끓여 먹는다.

[F35-TT] Ragoût à base de Cheonggukjang(pâte de graines de soja cuites, brièvement fermenté à température chaude), composé de kimchi(chou fermenté), viande, tofu et piment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36-ST] 메밀로 만든 면을 삶아 동치미 국물과 쇠고기 육수 섞은 국물에 차갑게 말아 먹는 음식이다. 무, 배, 등을 얹고 겨자와 식초로 양념한다.

[F36-TT] Nouilles de sarrasin servies dans un bouillon froid avec des tranches de radis ou de poire coréenne et assaisonnées de moutarde et vinaigre.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31]의 '김치 볶음밥'의 번역에서는 김치볶음밥 위에 올리는 달걀프라이가 번역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또 '갈비탕'의 번역에서 갈비를 뜯어 먹는다는 내용을 번역하면서 출발텍스트에 없는 '손가락으로'라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김밥'에 대한 번역텍스트에는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한다는 내용이 생략되었고, '살짝 구운 (김)', '밥을 얇게 펴다', '고기볶음' 등의 내용이 생략되었다.

[F34]의 '설렁탕'에 대한 설명에서도 '국물이 뽀얗다'는 표현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고 출발텍스트의 '뼈'는 '골이 든 뼈'로 단어가 첨가되어 번역되었다. '청국장 찌개'에 대한 설명에는 각종 재료를 넣는 대상인 '육수에'가 생략되었고, '냉면'에 대한 번역에서는 냉면 국물이 동치미 국물과 쇠고기 육수 섞은 국물이라는 출발텍스트의 설명을 단순히 '차가운 국물'로 번역했다.

전반적으로는 한식 조리법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한국적인 표현들(뽀얗다, 밑간하

다, 얇게 펴다)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으며, 프랑스어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은 보편적인 요소(달걀 프라이, 고기 볶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략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3.3.4.4.5 프랑스어의 관용성 또는 수용성 위배

[F37-ST] 어린 닭의 배 속에 인삼, 대추, 밤, 찹쌀, 마늘 등을 넣고 축 고아 만든 음식이다.

[F37-TT] Soupe de jeune poulet farci de ginseng, jujube, marrons, riz glant, ail, le tout longuement mijoté.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38] Cependant, si le lundi tombe un jour férié, le musée sera ouvert comme un jour normal et sera fermé le jour suivant

(국립중앙박물관)

[F39-ST] 씨알이 굵고 기름기가 적은 영광 지방 굴비를 최고로 친다.

[F39-TT] C'est dans la région Younggwang, que ce poisson est réputé être le meilleur car sa chair est épaisse et pauvre en graisses.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우선 여름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삼계탕에 대한 번역에서 번역텍스트에 사용된 'poulet'라는 단어는 이미 '영계'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굳이 'jeune'라는 단어를 덧붙여 도착어 표현이 어색해 졌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관람일을 소개하는 내용의 번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월요일은 휴관일이지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박물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대신 그 다음날 휴관하도록 한다'는 휴관 원칙을 번역하면서, '~에 겹치다'라는 프랑스어의 'tomber sur'라는 관용적 표현이 전치사 'sur'가 생략되어 사용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생선 구이인 '굴비구이'에 대한 번역을 보자. 출발텍스트에 등장하는 '기름기가 적은'이란 내용은 생선의 담백한 맛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그런데 번역텍스트에 등장하는 'pauvre en graisses'라는 표현은 굴비의 담백한 맛을 전달하기보다는 다이어트에 적합한 기름기가 적은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출발텍스트에서 의도한 정보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F40]

Chers citoyens du monde, En tant que Maire de Séoul, je vous souhaite de tout cœur la bienvenue dans cette ville imprégnée d'histoire et de culture, une ville respirant la chaleur humaine.

(서울시)

위의 사례는 서울특별시 시장 인사말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프랑스어 표현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chers citoyens du monde', 'une ville respirant la chaleur humaine' 등은 '세계 시민 여러분', '인간미가 느껴지는 도시' 등을 프랑스어로 표현한 것으로 프랑스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색한 조합이다.

3.3.4.4.6 문법 오류

[F41-ST] 잘게 썬 전복과 쌀을 참기름으로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인 보양죽이다. 전복의 쫄깃한 식감과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F41-TT] Potage fortifiant à base de riz connu pour son goût savoureux et sa texture épaisse, grâce aux ormeaux hachés, revenus dans de l'huile de sésame, avant d'avoir longuement mijoté.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F42]

Dans cette salle sont exposés les aspects de la vie quotidienne du peuple à l'époque de Joseon (1392-1910), vivant des activités agricoles au rythme des quatre saisons.

(국립민속박물관)

[F43]

le musée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de Corée propose des ressources précieuses en termes d'histoire musicale dans ses anciennes salles de sculptures, salles des maîtres et sales des instruments tandis qu'une galerie d'animations 3D ainsi que la galerie sur l'expérience de la gugak offrent au public une expérience pédagogique virtuelle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coréenne. (국립국악원)

[F44]

Programme pour l'expérience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coréenne Afin d'élargir les horizons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coréenne et de son usage dans la vie de tous les jours, nous proposons tout un éventail de programmes éducatifs de tous niveaux et de tous intérêts. (Recherches pédagogiques)

(국립국악원)

[F41]은 '전복죽'에 대한 설명을 번역한 것으로, 전복죽을 오래 끓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avant d'avoir longuement mijoté'라고 번역했는데 복합과거형인 'avoir mijoté'가 아니라 동사원형인 'mijoter'을 사용해야 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각 전시홀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현재분사형으로 연결되는 절이 문장의 주어와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다. 또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사례는 프랑스어에서 문장을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오류를 보여준다. 마지막의 [F44]는 거꾸로 문장 한 가운데에 갑자기 대문자가 등장하는데,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의 경우, 문장 중간에는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프랑스어 문법 규칙에 위배된다.

3.3.4.4.7 철자법 및 문장부호 오류

[F45]

Du terminal de Seoul-nambu, prendre le bu local en direction de Goryeong

(한국관광공사)

[F46]

A partir de 2013, le pretium doloris sera accordé aux personnes qui sont blessées ou qui ont péri essaynant de sauver les autres et protéger les biens des autres pour commémorer leur volonté.

(서울시)

[F47]

Mardi 、Jeudi 、Vendredi : 9h - 18hr

(국립중앙박물관)

[F48]

le musée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de Corée propose des ressources précieuses en termes d'histoire musicale dans ses anciennes salles de sculptures, salles des maîtres et sales des instruments tandis qu'une galerie d'animations 3D ainsi que la galerie sur l'expérience de la gugak offrent au public une expérience pédagogique virtuelle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coréenne.

(국립국악원)

위 사례들을 보면 우선 박물관 관람 시간을 안내하는 문장에서 '오후 6시'를 '18h'가 아닌 '18hr'로 표기하였다. 국립국악원의 인사말에서 발췌한 사례에서는 문장을 대문자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문자 'l'로 시작했으며, 홀을 의미하는 'salle'라는 단어에서 'l'이 생략되는 철자법 오류를 볼 수 있다. [F46]은 2013년 한국 주요축제를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번역텍스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고령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가기 위한 교통편을 설명하는데,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된다는 설명에서 '버스(bus)'를 'bu'라고 기재했다. 또 2013년에 새롭게 바뀌는 서울시의 행정제도에 대한 내용에서는 'essayer' 동사의 현재진행형인 'essayant'이 'essaynant'으로 기재되어 철자법 오류가 발생했다.

문장부호 오류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49]

De mars à mai le temps est principalement clément.

(한국관광공사)

[F50]

Vous trouverez également un ascenseur juste en face de Sadang Station Au premier sous-sol, vous trouverez un ascenseur menant au rez-de-chaussée, à gauche de la sortie 2.

(국립중앙박물관)

[F51]

Japonais Mardi - Vendredi 09h30~10h30 / Samedi 10h30~11h30, 14h30~15h30 (국립중앙박물관)

우선 한국관광공사의 사례는 한국의 날씨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3월부터 5월까지는 날씨가 주로 화창하다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le'라는 관사 앞에 쉼표가 들어가야 하는데, 쉼표가 생략되었다. 두 번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는

교통편을 설명한 내용에서,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마침표가 생략되었다. ‘Sadang Station’ 뒤에 마침표를 찍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문장이 연결되어야 한다.

[F51]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가이드 이용 가능시간에 대한 것이다. 일본어를 의미하는 ‘japonais’다음에 ‘:’이 들어가, 뒤의 설명과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장 부호가 생략되어 내용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

3.3.4.4.8 프랑스어 공공번역 결과물 분석 소결

이상에서 프랑스어 공공번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랑스어 공공번역 결과물 분석 결과, 번역텍스트만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읽히지만 한국어 출발텍스트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번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는 우선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 영어 설명문을 바탕으로 프랑스어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역된 제 2외국어는 한국어 출발텍스트가 아닌 영어 번역텍스트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우리 문화콘텐츠의 프랑스어 번역 및 표기를 통일하고 적절한 번역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문화 콘텐츠 전문가가 프랑스어학자, 프랑스어로의 아웃바운드 번역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승인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르게 번역하는 일관성 결여 문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러 기관에서 발간된 자료는 물론이고 동일한 기관에서 발간된 자료(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내에서도 발견된다. 한국관광공사의 한식 관련 자료의 경우, 한식재단의 것과 용어 및 표현이 불일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는 한국 문화와 한식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4] 번역사 프로필에 따라 번역수준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 프랑스어 원어민이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프랑스어 표현은 자연스러우나 오타, 띄어쓰기, 문장 부호 오류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반면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서울시의 경우, 프랑스어 표현이 문법 오류가 나타나는 비문이거나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수용성 부족 문장이 많다.

[5]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철자법이 틀린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3.3.5 분석결과 종합과 소결

[1]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용어 표기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

다. 이는 공공번역 표준화의 첫 단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간에 상이한 점들이 많고, 이 기준들을 개발 구축한 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과 공유하거나 상호 조정하여 통일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서로 상이한 지침 및 기준의 존재가 오히려 번역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일부 외국어 웹사이트의 경우 중국어 웹사이트임에도 일본어 내용이 채워져 있거나 내용이 일본어에 준하여 표기되어 있는 충격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웹사이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채널인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점에서 외국어 웹사이트의 현 관리 상태는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번역의 수준이 문제가 된다. 특히 외국인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도착어 사용자들의 언어사용관습에 위배되거나 수용성이 떨어지는 표현으로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번역이 아직도 많은 것은 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들 어색한 번역을 통해 얻어지는 국가 이미지에는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4] 일본어와 중국어의 경우는 해당 도착어에 맞는 한자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경하게 한국어 한자어가 섞여 쓰이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 일부에서 우리 문화콘텐츠나 한식명의 음가를 전달하기 위한 음차번역이 의도하는 발음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때 언어별로 번역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5] 언어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를 통틀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번역의 문제는 일관성 결여였다.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현상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한 번역은 물론이고 동일기관 웹사이트 안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6] 중국어와 프랑스어 번역의 경우 중역(重譯)이라는 번역전략을 의도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부자연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문장을 낳고 있다. 학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역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3.4 공공번역 관련 기관·기구의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연구

3.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공공번역결과물분석에 이어 공공기관의 번역 수급 및 수준관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번역 업무담당자 및 공공기관 업무 수주 번역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면접 조사를 통해 공공번역 결과물 실태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고

자 하였다.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공공기관 번역 업무담당자와 번역사는 공공번역의 발주자와 수주자로서 번역과정의 최일선에 서 있는 주체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공공번역의 현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기도 하다.

3.4.2 연구 설계

3.4.2.1 조사 목적

공공번역 결과물 분석에 이어 공공번역 과정을 살피기 위한 첫 단계로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목적은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특성, 번역의 발주와 진행 과정, 번역물번역수준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업무담당자가 어떤 애로 사항을 느끼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는 공공기관 번역 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 판단된다.

3.4.2.2 조사 방법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1]
전문용어집 및 홈페이지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기관 선정

⇩

[2]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를 바탕으로 대상자 및 연락 정보 확보
전화통화를 통해 조사 대상자 섭외

⇩

[3]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사전에 메일 발송
설문조사 목적 및 범위 사전 안내

⇩

[4]
조사 대상 기관 직접 방문
조사 대상자와 사전 배포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 조사 실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번역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 그리고 그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섭외되었다. 설문을 바탕으로 한

면접 조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전 발송하여 조사 대상자가 관련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는 2013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두 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이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상자들을 면접하였다.

3.4.2.3 조사 대상

조사 대상 기관은 <표 6>과 같다.

<표 6> 공공번역 담당자 면접 설문 조사 대상 기관

기관 속성	조사 대상 기관명
중앙정부부처	안행부
	국토부
	문광부
	외교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경기도청
공공기관	한국특허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문화예술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한식재단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교육 기관	서울대학교

기관 속성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중앙정부 부처가 네 곳,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 정부 부처 소속 기관이 세 곳이었고 문화 예술 기관이 세 곳, 공기업과 교육기관이 각각 한 곳씩 포함되었다.

모든 조사 대상 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조사 대상자는 해당 기관의 번역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하는 인물이었다. 총 14곳의 대상 기관에서 16명을 면접하였다. 12곳에서는 한 명씩이, 나머지 두 곳에서는 두 명이 조사 대상자가 되었다. 문화재청의 경우 국제협력과의 사무관과 계약직 번역사.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번역서비스팀과 해외스마트관광팀 직원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 중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 기관으로 국내 발명특허의 영어 요약문 작성 공개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주 기능이 따로 있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가장 번역에 특화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4.3 연구 결과

번역 업무담당자의 특징, 번역의 발주와 진행 과정, 번역수준관리, 전반적 애로 사

항과 문제의식으로 나누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4.3.1 번역 업무담당자의 특징

조사 대상 번역 업무담당자 16인 중에서 번역이 주된 업무인 경우는 5인, 부수 업무나 추가 업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인이다. 전화로 면접 대상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번역 업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직무 담당자를 섭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주된 업무라는 답변은 많지 않았다. 번역이 주된 업무라고 한 5인 중에서 3인은 번역을 위해 채용된 계약직(별정직) 인력으로 직접 번역을 수행하는 경우였고 나머지 2인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가공팀, 한국관광공사 번역서비스팀에서 각각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였다.

근속개월수는 3개월-70개월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21개월이다. 한편 순환보직으로 번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8명의 경우를 따로 살펴보면 근속개월수가 3-20개월이고 평균이 8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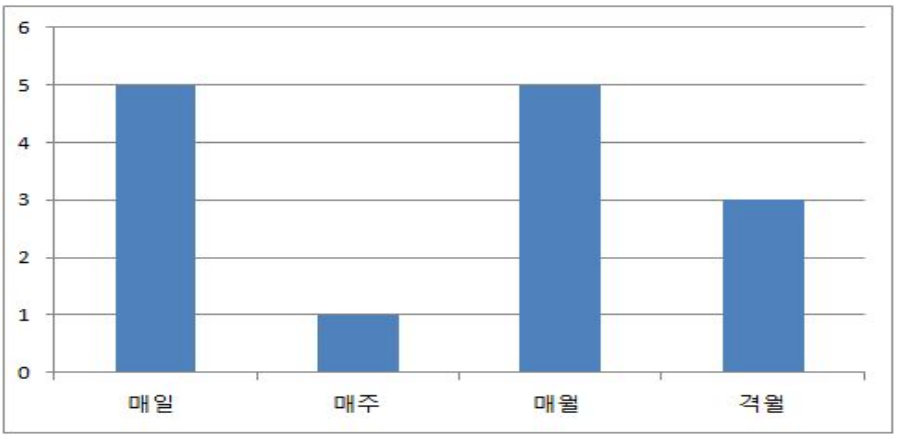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담당자는 보직이 순환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는 계약직(별정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업무 관리나 총괄을 맡는 일반직 공무원은 자주 보직이 바뀌면서 짧은 기간 동안만 업무를 담당하는 탓에 업무 파악력이 떨어지고 관리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는 면접 대상 공무원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계약직은 상대적으로 장기 근속하여 실무 전문지식을 쌓게 되지만 의사결정 권한을 갖기 어렵다.

3.4.3.2 번역의 발주와 진행 과정 파악

번역 수요 발생 주기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보면 매일 번역 수요를 처리한다는 경우가 5건, 주 단위로 발주하는 경우가 1건, 1개월 1회 이상이 5건, 2,3개월 1회 이상이 3건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80%가 매월 번역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번역 수요 발생 빈도가 대단히 높다.

그런데 이는 기관 전체가 아닌 조사 대상자 개인이 처리하는 번역 수요이다. 기관 전체의 번역 수요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기관 내 부처, 부처 내 담당자들이 각각 번역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관 전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없었던 것이다.

수요가 발생하는 번역물 종류를 보면 기관소개 자료집이나 홍보물이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아 11건이었고 다음으로 정기간행물 6건, 국제행사 관련자료 5건, 기관홈페이지 4건, 연설문 3건, 업무서신 2건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관 열네 곳 가운데 열한 곳이 외국어로 된 기관 소개 자료집이나 홍보물을 발간하고 있다는 것은 번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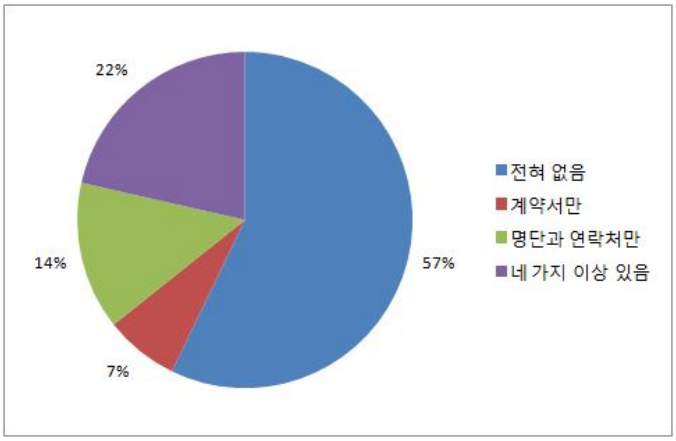
<그림 3> 공공기관의 번역 수요

번역 수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내부 인력이 처리하고 꼭 필요할 때에만 외주를 준다는 답이 9건으로 주로 외부 인력으로 처리한다는 답변 5건보다 많았다. 내부 인력에 의존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이다. 번역을 외부에 맡기려고 했다가 비용 문제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경우도 몇 곳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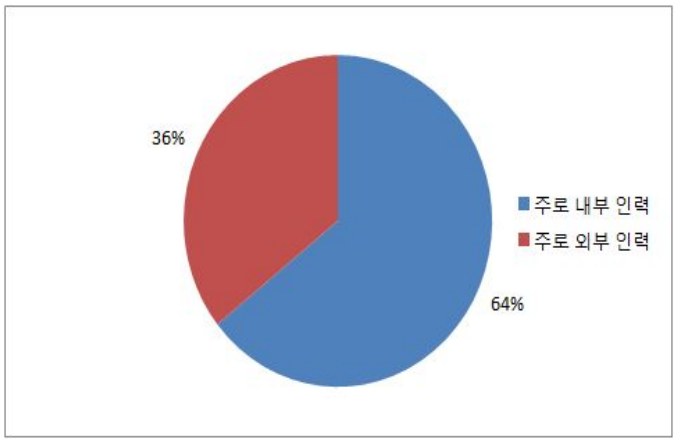
수요를 외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방법은 공개입찰에 붙인다는 답변이 5건, 개인적 인맥 통한 섭외가 3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인맥을 통해서만 번역사를 섭외한다는 답변도 한 건 나왔다.

번역 발주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번역사의 경력, 이전에 함께 일해 본 경험, 수준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4건씩이었고 비용은 3건이었다. 두 곳에서는 수준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 단 하나만을 고려한다고 답하였다.

공개입찰은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업무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입찰에서는 번역을 포함한 기획, 디자인, 인쇄 및 배포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체 입찰 단가를 낮춰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번역수준보다는 번역 비용에 더 민감하게 되고, 이는 결국 번역의 수준 문제로 연결되기 쉽다.



<그림 4> 공공기관의 번역 수요 해결 방식



<그림 5> 공공기관의 번역 발주 자료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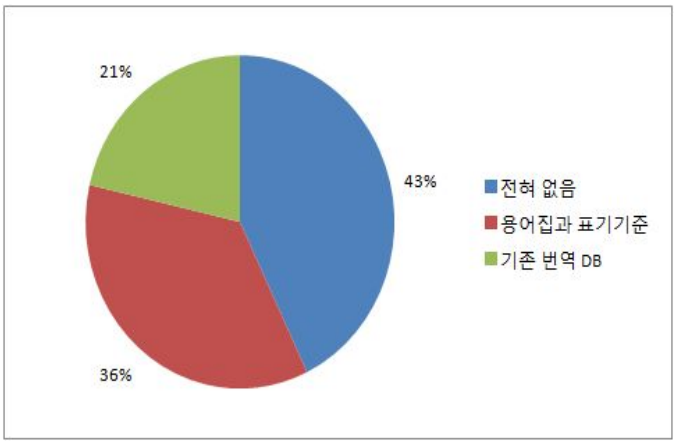
‘번역 발주 및 납품 관련 지침(매뉴얼)이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덟 곳, 번역 계약서만 있다는 경우가 한 곳, 번역사 명단과 연락처만 있다는 경우가 두 곳이었고 번역 계약서, 발주 가능한 번역사 명단과 연락처, 번역사 선정 기준, 번역 납품 후 검토, 번역 검토 후 처리방법 중에서 네 가지 이상 마련되었다고 응답한 곳은 세 곳이었다.

번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데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기관에 발주 및 납품 관련 지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발주 가능한 번역사 명단과 연락처마저 마련되어 있은 64%의 기관에서는 번역 수요가 발생하여 외부 발주를 해야 할 경우 담당자가 그때부터 수소문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앞서 번역 수요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번역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어집이나 참고자료가 마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경우가 여섯 곳이었고 용어집과 표기기준가 있다는 경우가 다섯 곳, 기존 번역 DB가 있다는 경우가 세 곳이었다.

번역 진행을 위한 용어집이나 참고자료는 번역 수요가 내부적으로 처리되든, 외부적으로 처리되든 공히 필요하다.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43%나 된다는 것은 임기응변으로 그 때 그 때 번역 수요를 처리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은 앞서 번역결과물 분석에서 제기되었던 일관성 결여 문제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번역물을 참고할 수도 없고 지침 등의 참고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과거와 현재, 부서와 부서 간 번역결과물의 일관성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6> 공공기관의 번역 참고자료 보유 현황

한편 면접 대상자들은 공공기관이 만들어 배포하는 표기 지침이나 용어 용례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표기 지침과 용어 용례는 제작 못지않게 배포와 홍보가 중요하다. 여러 기관의 번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애써 제작한 취지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기존 자료의 공유와 활용 측면이 보다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4.3.3 번역물 수준 관리 현황 파악

발주 번역물이 납품된 후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들이 번역 납품 후 내부 직원이 번역의 적절성을 검토한다고 응답하였다. 납품된 번역이 곧바로 사용되지 않고 일단 내부 직원의 검토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번역수준관리의 첫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직원의 자질에 따라 검토의 수준은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납품된 번역물에 대한 수준 평가 지침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여덟 곳(6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직원의 검토는 상당히 자의적이라 판단된다.

번역물 수준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경우가 열 곳(64%)에 이르렀다. 퍽 높은 비율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묻자 정보 누락이나 첨가, 용어나 표현의 부적절성과 비일관성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불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다섯 곳의 불만족 이유(복수 응답)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용어나 표현의 비일관성을 꼽은 경우가 네 곳으로 가장 많았고 용어나 표현의 부적절성이 세 곳에서, 내용의 누락이나 첨가가 두 곳에서 꼽혔다. 번역결과물 분석에서 대두되었던 일관성 결여 문제를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담당자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납품된 번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곱 곳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번역물 수준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던 열 곳 중에서도 세 곳에서는 납품 번역물에 이의를 제기해 보았다고 하였다. 이는 모순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수준 이의를 제기한 후 수정 작업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만족을 표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 기관의 번역에 대해 외부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 네 곳만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기관의 외국어 홈페이지나 번역 자료에 대한 외부의 피드백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상태로 드러난 셈이다. 이의 제기를 받았다는 네 곳에서 밝힌 외국인 번역 사용자의 이의 제기 이유는 용어의 부적절성, 직함 표기, 오타 문제로 나타났다.

3.4.3.4 업무담당자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 의식

면접 과정에서 업무담당자들이 언급한 애로사항과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번역가 풀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다.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담당자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번역사를 찾기 어렵다는 애로점을 거듭 호소했다. 이 때문에 국악원이나 문화재청 등 전문용어와 지식이 필요한 번역이 주로 이루어지는 기관에서는 몇몇 특정 외부인에게만 번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2] 번역기간이 늘 너무 촉박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특히 본래부터 번역 업무를 위해 채용된 응답자들(별정직이나 계약직)이 시간 촉박 문제를 많이 언급하였다. 촉박하게 할당되는 번역 업무를 처리하느라 야근과 휴일 근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면접 대상자도 있었다.

[3] 고유명사 표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큰 애로사항이었다. 최종 승인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기관이 없는 상태이므로 다양한 표기가 공존하고 번역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4]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자주 지적되었다. 여전히 번역을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상급 의사결정자들이 존재하고 이런 상태에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번역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 그밖에 번역 수정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 동일 기관에 지정 발주하는 경우에도 업무 투입 번역사가 달라지는 탓에 번역수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 계약직 직원의 신분 불안정과 과도한 업무량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3.4.4 연구 결과의 시사점

조사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공공기관 번역 업무의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 부재

한 기관 전체의 번역 수요나 번역 현황을 파악하는 주체는 찾을 수 없었다. 개별 업무담당자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역 수요를 직접, 혹은 외주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관의 번역을 총괄하는 부서 혹은 직위는 부재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번역사 섭외, 관련 자료 제공, 번역수준관리, 번역결과물의 DB 측적이 모두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 기관 안이라 해도 부서 내, 부서 간 번역물의 통일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번역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2]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 의사결정자의 지나치게 잦은 변경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배치되는 정규직 공무원, 그리고 번역 관련 업무를 위해 채용된 별정직 혹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관리, 총괄 업무를 맡게 되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업무 담당 평균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짧고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오래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주된 의사결정권을 정규직 공무원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번역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렵게 된다.

[3] 번역 발주 매뉴얼 및 번역수준관리 매뉴얼의 미비

번역 계약서, 번역사 명단과 연락처, 번역사 선정 기준, 번역 납품 후 검토, 번역 검토 후 처리 방법 중 무엇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0%에 달했다. 대부분의 번역 업무담당자들이 번역사 섭외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도 이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섭외 가능한 번역사 명단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번역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번역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사가 부족하다는 일차적 문제도 있다. 한편 번역수준관리 매뉴얼이 갖춰진 경우도 거의 없어 내부 직원이 납품된 번역물을 한번 훑어보고 사용하는 정도였다.

[4] 번역 참고용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음

번역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어집이나 참고자료가 전혀 없다는 경우가 43%였다. 지속적으로 번역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용어집, 표기기준, 기존 번역 데이터베이스 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번역의 일관성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5] 번역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낮은 인식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담당자들은 번역 중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번역 업무를 위해 채용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들의 현장 경험에 따르면 정부 관련 부처에서 번역을 여전히 장식품에 불과하여 그저 겉치레로 구색만 갖추어 만들어놓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번역의 기능이나 번역을 통한 소통, 번역 정보의 충실한 제공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 번역수준 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등도 이런 낮은 인식으로 인한 결과이다. 한편 다수의 기관들이 본 연구의 연구진들의 면

접 요청을 거절한 것도 시사적이다. 번역 업무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아예 거부하는 행동은 설사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3.5 공공기관 번역 수주 번역사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3.5.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 번역 업무담당자에 이어 공공기관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번역사들은 공공기관의 발주를 받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공기관 번역 과정의 중요한 한 축이다. 또한 공공기관 번역 업무담당자 면접에서 찾아낸 결과를 확인, 강화하거나 반박하는 역할 또한 할 수 있다.

3.5.2 연구 설계

3.5.2.1 조사 목적

공공기관의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사를 조사함으로써 공공기관 번역 과정 현황을 보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번역사의 경력 및 번역 작업 수행 유형,
[2] 발주 기관의 번역 수요 처리 방식
[3] 번역 수주 경로 및 요율 결정 방식
[4] 공공번역 진행 과정의 현황 및 문제
[5] 번역수준관리의 현황 및 문제

번역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를 통해 파악한 현황을 재확인하고 이와 별도로 번역사들이 경험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3.5.2.2 조사 방법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에서 거래 번역사들의 연락처를 수집할 목적이었으나 번역사 명단 및 연락처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원 통번역대학원 출신인 연구진이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공공기관 설문 결과를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이 직접 번역사들을 만나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3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였다.

3.5.2.3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번역 수주 경험이 많은 프리랜서 번역사 3인과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인하우스 고용 번역사 2인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소속, 전공 언어, 경력은 <표 7>에 나와있다.

<표 7> 심층면접조사 대상 공공기관 번역 수주 번역사

번역사 구분	총 경력	근무형태	번역언어 조합	주요 업무내용
A	8년	프리랜싱	중국어-한국어	정부부처 홈페이지, 홍보자료, 회의자료 정기 수주
B	17년	프리랜싱	프랑스어-한국어	정부부처 한국홍보계간지, 외교문서
C	13년	프리랜싱	일본어-한국어	정부부처 한국홍보계간지
D	6년	계약직 고용 (보건복지부)	영어-한국어	통역 20%, 번역 70%, 감수 10%
E	3.5년	계약직 고용 (안전행정부)	중국어-한국어	통역 30%, 번역 40%, 감수 30%

조사 대상 번역사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전공자들이었다. 업무 경력은 3.5년에서 17년까지였고 평균은 9.5년이었다. 프리랜서들의 경력이 고용 번역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었는데 이는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후 기관에 취업해 경험을 쌓은 후 독립해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번역사들이 맡는 역할을 살펴보면 프리랜서 번역사 3인은 정부부처 홈페이지나 홍보자료, 한국홍보계간지 관련 번역을 고정적으로 수주하여 일하고 있었다. 고용 번역사들은 번역 뿐 아니라 통역, 감수까지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용 번역사의 업무에서는 번역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통역과 감수 일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는 외국어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내야 하는 고용 번역사들의 바쁘고 힘든 입장을 잘 보여준다.

3.5.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번역 및 용어 지침, 발주 지침의 부재

조사대상 번역사들은 공공기관에 번역지침, 용어지침, 발주지침이 모두 없다고 답하였다. 프리랜서 번역사 뿐 아니라 고용 번역사들도 마찬가지 답변을 하였다. 이는 앞서 공공기관 번역 업무담당자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다만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한국교류재단만이 예외적으로 번역 브리프와 표기 기준을 제

공한다고 한다. 번역 브리프에는 번역의 목적, 독자에 대한 정보(사용처), 번역사의 재량(의역)이 허용되는 정도가 들어가고 표기 기준에는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표기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한 번역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서 양식과 같이 중요한 공문서의 경우에도 번역 지침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지적하였다.

[2] 용어 일관성 결여

번역사들은 기관 내 그리고 기관 간 용어 통일이 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기관별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잦으며 번역사가 문제를 지적한다 해도 담당자들은 현재 표준화된 용어나 표기 방식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된 표기 방식이 없는 탓에 동일 기관의 번역물이라 해도 번역사마다 제각각 다른 표기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과물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번역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용어나 표기 방식의 일관성 결여를 부채질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기업 고객의 경우는 용어 지침이나 과거 번역결과물 등을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공공기관들이 민간 기업에 비해 번역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체계적인 번역결과물 감수 부재

번역물 감수와 관련해 번역사들은 내부 직원의 검토와 외부 감수 의뢰를 모두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내부 직원이 번역물 수준을 검토하는 기관들의 경우 그 직원의 역량 수준에 따라 편차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앞서 공공기관 번역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에서 언급되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외부에 감수를 의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번역, 예를 들어 서한, 연설문, 협정문 같은 경우인데 외부 감수자 명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관 내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섭외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번역사에게 번역과 감수, 번역수준 관리의 책임까지 모두 맡기는 기관도 있는데 이 경우 번역사 개인의 자질에 따라 번역결과물 수준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번역을 맡은 번역사가 동시에 감수까지 진행하는 것은 진정한 감수라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4] 아웃바운드 번역 시 도착문화 수용성보다 출발텍스트에 대한 충실성 요구

번역을 의뢰하는 정부 부처들은 원문인 한국어 중심의 번역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국식 표현을 고집하다보니 외국어로 어색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 번역의 경우, 중국어로 어색한 표현이라고 지적해 주어도 발주기관은 한국식 한자어를 사용해 줄 것을 강요한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번역결과물 분석에서 한국식 한자와 번체자가 종종 발견되었던 것에는 이런 상황도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5] 통일된 번역사 관리 체계의 부재

고용 번역사의 경우 중앙 정부의 관리 없이 각 부처의 재량으로 급여 및 계약 조건, 계약 기간 등이 결정된다. 이는 번역결과물의 일관성 부재, 번역 과정의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통번역 인력을 일원화된 전담기관에서 관리할 경우, 번역결과물의 통일성, 비용 절감, 업무 효율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상 부처에서 필요로 할 때 알아서 번역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후자의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번역업무 통일성 및 효율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번역사들의 의견이었다. 이는 일원환된 전담기관에서 번역 수급 관리를 IT 시스템을 통해 일괄 처리, 관리한다면 오히려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선진사례 연구

4.1. 연구 배경 및 범위

4.1.1 연구의 목적

앞서 국내 공공번역 담당기관의 번역 수급 업무담당자와 실제 번역 수주 전문번역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번역의 국가적 표준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수순은 실제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공공번역 표준화를 이룩하기 위해 이미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관리를 위해 체계화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해외의 대표적인 공공번역 담당기관들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및 자료 수집이 될 것이다. 이는 이들 선진사례의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체계화 노력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국가적 차원의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할 때 구체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1.2 대상기관 선정 근거

전 세계적으로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관리의 표준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언급되는 기관이 바로 EU(European Union, 이하 'EU')의 공공번역 기관들이다. EU의 공공번역 기관들은 EU의 출범 및 발전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EU 통합으로 야기된 이 초국가적 기구(supranational organizations)의 방대한 공공번역 수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오고 있다. 이에 지난 20 년 동안 이들 EU 관련 공공번역 기관들이 축적해 온 노하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공번역 표준화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EU 내 공공번역 수급을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꼽히는 다음 3개 기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EU 내 최대 규모의 번역부서인 **EU 진행위원회 번역총국 (DGT**: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이하 'DGT'),
[2] EU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초국가적 외부기구의 번역수급과 EU 전체의 전문용어 표준화 · 관리를 총괄하는 **EU 번역센터**(Translation Center for the Bodies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dT'),
[3] EU이사회 및 유럽이사회의 공공번역 수급을 담당하는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부**(Language Service).

EU의 공공번역 수급기관들을 중심으로 다자간 초국가적 협의체를 위한 공공번역

처리 경험을 살펴볼 수 있다면, 개별국가들의 공공번역 담당기관들에 대한 연구조사 및 이해 역시 향후 우리 사회의 공공번역 표준화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오래 전부터 영어와 프랑스어의 2중 국가 공식어를 채택해오고 있는 캐나다, 그리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실현을 위해 공공번역을 중요하게 다루어온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의 사례는 이런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는 이미 1934년에 연방정부 조달청 산하에 **캐나다 번역국(Translation Bureau)**을 출범시켜 운영해오고 있다. 반면 호주는 공공번역을 전담하는 정부산하기관을 운영하는 대신 통번역사의 자격관리 및 인증을 담당하는 민간기구, 곧 **호주전국통번역사인증기구(**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이하 'NAATI')를 통해 공공번역의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번역의 수급 및 수준관리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 두 사례는 EU의 사례와 함께 우리 사회의 향후 공공번역 표준화 노력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많은 시행착오를 덜 수 있게 해줄 것이 분명하다.

이상의 서구 선진사례 이외에도 아시아의 이웃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공공번역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공번역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오고 있다는 점, 최근의 급격한 경제성장 및 서구식 시장경제 도입 과정에서 공공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이 국제사회 편입 및 주도적 위치로의 부상 과정에서 공공번역 부문을 어떻게 활성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중국민족어문번역국**과 **중국 국가과학기술용어위원회**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중국의 국가적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는 번역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번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메이지유신 당시 국가차원의 '번역국'을 설치, 서양의 주요 고전들을 번역함으로써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공공번역 수요를 각 정부부처별로 처리하고, 그것도 주로 외주번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전문용어 표준화이 일환으로 주도하고 있는 **'학술용어집' 발간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차원에서의 용어 표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1.3 대상기관 목록(표)

이상의 배경에서 본 연구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조사연구대상 기관은 <표 8>과 같다.

<표 8> 해외 선진사례 조사 대상 기관

지역/국가	기관명	설립년도	소속 및 성격
유럽/EU	EU집행위원회 번역총국 (DGT: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1993년	-EU집행위원회 산하 인하우스 번역 서비스 전담 기관
	EU번역센터 (CdT: Translation Center for the Bodies of the European Union)	1994년	-독립기관으로 유럽 내 각종 기관의 외주 번역 처리 및 전문용어 관리 총괄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부	2007년	-EU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산하 총사무국(General Secretariat) 내 조직으로 EU 이사회 및 유럽이사회의의 번역 업무를 담당
캐나다	번역국 (TB: Translation Bureau)	1934년	- 캐나다 '공공사업 및 행정서비스부'(PWSGC: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한국의 조달청에 해당) 산하 정부 기관으로 번역, 감수, 전문용어 표준화 등을 담당
호주	호주통번역사인증청 (NAATI: National Authority for Accredit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1997년	- 1997년 이민부 산하 기관으로 통번역사 공인 기관으로 출범, 1984년 공기업으로 독립
중국	중국민족어문번역국	1955년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직속의 민족어문 번역 서비스 담당 기관
	중국국가과학기술용어위원회	1985년	-중국정부 대행으로 과학기술용어 심사 및 반포
일본	문부과학성 '학술용어집' 사업	1947년	- 문부과학성

4.2. 개별 기관별 연구 보고 I: EU

4.2.1 EU 내의 공공번역의 수요 및 위상

4.2.1.1 EU의 탄생

유럽 전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공동체인 EU(EU: European Union)은 지난 60여 년간 통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다양한 진전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조인한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바탕으로 유럽 최초의 경제통합기구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만들어졌고, 이후 이러한 공동체 경험을 바탕으로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근간으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핵에너지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출범했다. 1967년에는 로마조약 10주년을 맞아 기존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핵에너지공동체가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라는 단일 기구로 통합되었고,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등이 합류하면서 유럽공동체는 유럽을 대변하는 경제적·정치적 공동체로 점차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1992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EU으로 재편성되었다.

이후 회원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유럽 역내의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2002년에는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가 출범하는 등 역내 통합수준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4.2.1.2 EU의 공식어 및 언어적 수요

EU의 전신인 유럽 내 3개 공동체는 출범 당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등 4개 언어를 공식어로 지정하여 사용했다. 1973년 영어와 덴마크어가 추가되면서 공식어는 6개로 늘어났고, 1981년에는 그리스어의 추가로 7개, 1986년에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추가로 9개가 되었다. 1995년에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가 추가되어 공식어가 11개로 늘어났다.

EU의 지역적 언어적 확대는 2004년 동구권의 합류를 계기로 더욱더 심화되었다. 동구권의 다수국가가 EU에 합류함에 따라 체코어, 에스토니아어, 헝가리어,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가 공식어에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공식어 수가 20개로 크게 증가했다. 2007년 불가리아어, 아일랜드어, 루마니아어가 추가되었고,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어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EU의 공식어는 2013년 현재 2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24개 공식공용어 모두가 동일한 수요와 영향력을 갖고 사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EU에서는 24개 공식어 가운데 회의 진행 및 공식문건 작성 시 '절차어(procedural language)'로 사용되는 언어는 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이다.

이들 공식어 이외에도 '언어 및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정신에 따라 바스크어, 카탈루니아어, 갈리시아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웨일즈어 등의 지방언어 역시 '추가언어(additional language)'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4.2.1.3 공공번역의 필요성 및 수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의 경우와는 달리, EU에서 제정하는 모든 법안은 모든 EU 시민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시민의 권리 및 의무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EU의 모든 법안은 항상 EU의 모든 공식어로 문서를 번역하여야 한다. 법안 이외에도 EU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EU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문건 역시 공식어로 번역된다. 이런 사회적 필요에 따라 EU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은 자체 번역부서를 운영하거나 외주번역서비스를 통해 관련 업무문서를 EU 공식어로 번역한다.

모든 법안과 일반에 공개된 주요 정치문서는 모든 공식어로 번역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효율 및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 이들 핵심 문서 이외의 기타 문서는 필요한 언어로만 선별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별로는 주요문서를 '절차어'로 번역하거나, '절차어'로 쓰인 주요문서를 특정 회원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차어'를 번역 언어로 사용하는 번역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2.1.4 EU 내 공공번역 담당 기구

EU 내 대표적인 공공번역 담당 기관으로는 EU 내 최대번역기구인 **EU 집행위원회 번역총국**, EU과 관련이 있는 초국가적 기구들을 위한 번역수요 처리와 전문용어 표준화 및 관리를 총괄하는 **EU 번역센터**, EU이사회 및 유럽이사회의 번역업무를 담당하는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부**가 있다.

이들 세 개 기구별로 조직구조 및 업무흐름, 번역수준 평가 및 관리 활동, 전문용어표준화 노력을 중심으로 EU 내 공공번역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4.2.2 EU집행위원회 번역총국(DGT)

4.2.2.1. 기구 연혁

EU 집행위원회의 번역부서인 EU 집행위원회 번역총국(DGT: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이하 'DGT')은 1993년에 발족한 세계 최대의 번역기관 중 하나이자 EU 집행위원회 최대 규모의 부서이다. 2013년 현재 번역사와 지원 인력(번역 업무흐름 관리, 번역지원, 커뮤니케이션, IT 지원, 교육 등)을 합쳐 약 2,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과 룩셈부르크 2곳에 각각 본부가 있으며, 이외에도 EU 내 각 회원국에 현지사무소를 운영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신규 법안 제정, EU 예산 책정 및 법률 실행, 해외

에서 EU 대표 등이기 때문에, DGT에서는 EU의 제반 법률, 규제 및 규정, 지침 등 입법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번역이 전체 번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법률 실행 안내, 기관 내 교신과 관련된 문서 등이 그 뒤를 잇는다. DGT 상근 번역사는 일반적인 전문(全文) 번역은 물론이고, 문서별로 서면 혹은 구두 요약 번역을 제공하기도 하고, 웹 콘텐츠 번역과 함께 웹 콘텐츠 편집 및 구성 자문, 언어자문, 번역 핫라인(translation hotline) 운영 등 번역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U의 번역사들은 번역이 EU 입법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직접적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번역과정에서 출발텍스트의 오류 등을 잡아내어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정하게 돕는 것은 물론, 출발텍스트 작성자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출발텍스트에 대한 검토 및 언어자문, 편집 서비스도 제공해준다. 또한 번역사 이외에도 별도로 전문용어, 언어조율, IT, 번역 수준관리, 행정,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을 두고 번역업무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2.2.2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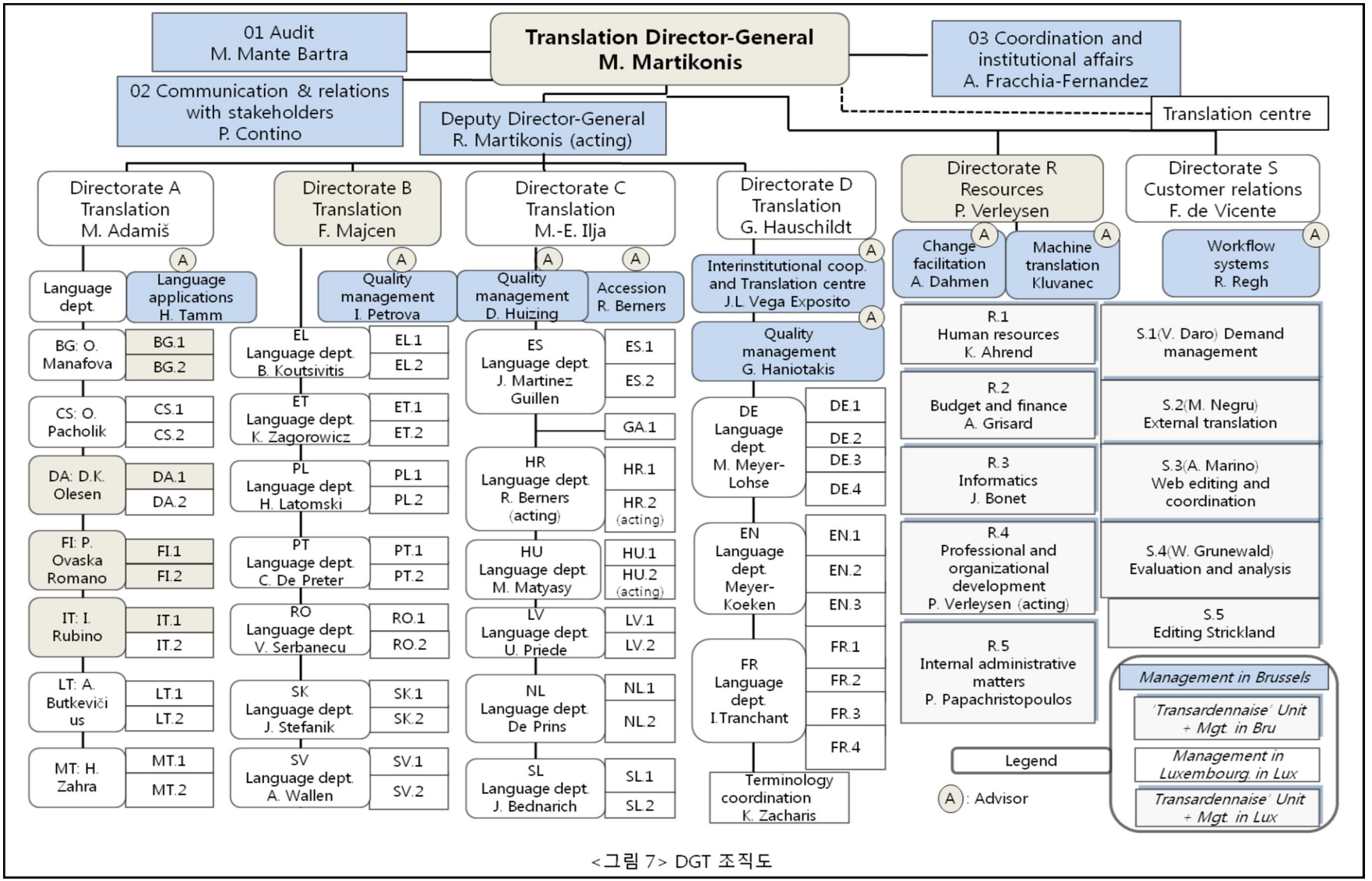
DGT의 조직은 다음 페이지의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조직도에 나타나 있는 부서별로 담당 업무를 살펴보자.

[1] 번역 업무

DGT는 현재 24개 EU 공식어별로 '언어과(Language Department)'를 두고 있으며, 각 언어별로 다시 실질적인 번역업무를 수행하는 '번역부서(Translation Unit)'가 운영된다. 각 언어과는 전문용어 관리 및 문서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언어과 소속 번역부서에서 실제 번역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24개 언어과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번역 관련 행정업무, 전략수립 및 번역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개의 국(Directorate) 즉 '번역국 A', '번역구 B', '번역국 C', '번역국 D'를 두고 있다.

DGT는 각각의 번역부서를 브뤼셀과 룩셈부르크에 50:50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있으며, 총책임자는 브뤼셀 본부에서 근무한다. 단, 에스토니아 어, 라트비아 어, 폴란드 어, 헝가리 어, 슬로베니아 어, 몰타 어, 체코 어, 슬로바키아 어의 번역부서는 룩셈부르크 본부에만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고, 아일랜드 어 번역부서는 브뤼셀에서만 운영된다.

브뤼셀 본부와 룩셈부르크 본부로 이원화된 각 번역부서는 각각 주된 번역대상이 되는 주제분야 등을 기준으로 자체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번역업무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언어과 내에 주제분야별 번역부서를 별도로 설치했으나, 최근 조직구조 변경이 단행됨에 따라 언어과별로 2개의 번역부서를 브뤼셀 본부와 룩셈부르크 본부에 나누어 배치하게 되었다. 각 언어과에서 산하 번역단위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며, 정치, 경제 등의 주제분야를 기준으로 번역부서별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1 Audit
M. Mante Bartra
Translation Director-General
M. Martikonis
03 Coordination and institutional affairs
A. Fracchia-Fernandez
02 Communication & relations with stakeholders
P. Contino
Deputy Director-General
R. Martikonis (acting)
Translation centre
Directorate A
Translation
M. Adamiš
Directorate B
Translation
F. Majcen
Directorate C
Translation
M.-E. Ilja
Directorate D
Translation
G. Hauschildt
Directorate R
Resources
P. Verleysen
Directorate S
Customer relations
F. de Vicente
A
Language dept.
Language applications
H. Tamm
Quality management
I. Petrova
Quality management
D. Huizing
Accession
R. Berners
Interinstitutional coop. and Translation centre
J.L. Vega Exposito
Quality management
G. Haniotakis
Change facilitation
A. Dahmen
Machine translation
Kluvanec
Workflow systems
R. Regh
BG: O. Manafova
BG.1
BG.2
CS: O. Pacholik
CS.1
CS.2
DA: D.K. Olesen
DA.1
DA.2
FI: P. Ovaska Romano
FI.1
FI.2
IT: I. Rubino
IT.1
IT.2
LT: A. Butkeviči us
LT.1
LT.2
MT: H. Zahra
MT.1
MT.2
EL
Language dept.
B. Koutsivitis
EL.1
EL.2
ET
Language dept.
K. Zagorowicz
ET.1
ET.2
PL
Language dept.
H. Latomski
PL.1
PL.2
PT
Language dept.
C. De Preter
PT.1
PT.2
RO
Language dept.
V. Serbanecu
RO.1
RO.2
SK
Language dept.
J. Stefanik
SK.1
SK.2
SV
Language dept.
A. Wallen
SV.1
SV.2
ES
Language dept.
J. Martinez Guillen
ES.1
ES.2
GA.1
HR
Language dept.
R. Berners (acting)
HR.1
HR.2 (acting)
HU
Language dept.
M. Matyasy
HU.1
HU.2 (acting)
LV
Language dept.
U. Priede
LV.1
LV.2
NL
Language dept.
De Prins
NL.1
NL.2
SL
Language dept.
J. Bednarich
SL.1
SL.2
DE
Language dept.
M. Meyer-Lohse
DE.1
DE.2
DE.3
DE.4
EN
Language dept.
Meyer-Koeken
EN.1
EN.2
EN.3
FR
Language dept.
I.Tranchant
FR.1
FR.2
FR.3
FR.4
Terminology coordination
K. Zacharis
R.1
Human resources
K. Ahrend
R.2
Budget and finance
A. Grisard
R.3
Informatics
J. Bonet
R.4
Professional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P. Verleysen (acting)
R.5
Internal administrative matters
P. Papachristopoulos
S.1(V. Daro) Demand management
S.2(M. Negru) External translation
S.3(A. Marino) Web editing and coordination
S.4(W. Grunewald) Evaluation and analysis
S.5
Editing Strickland
Management in Brussels
'Transardennaise' Unit + Mgt. in Bru
Management in Luxembourg in Lux
'Transardennaise' Unit + Mgt. in Lux
Legend
A : Advisor

<그림 7> DGT 조직도

[2] 번역 지원 업무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국(Directorate)'인 '행정지원국 R' 산하에 인사부서(Human Resources Unit), 예산 및 재무 부서(Budget and Finance Unit), IT부서(Informatics Unit), 전문성 및 조직 개발 부서(Professional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Unit), 행정부서(Internal Administrative Matters Unit)를 두고 있다.

[3] 번역 수급 관리 및 수준관리 조직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등 발주처 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발주고객관계 관리국 S' 산하에도 5개의 하위부서들이 존재한다.

55명으로 구성된 비교적 규모가 큰 부서인 '수요관리부서(Demand Management Unit)'는 번역 업무흐름 및 수요관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번역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외주번역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계약과 관련한 협상 및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번역수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 및 정오표 요청을 담당하고, 번역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전처리(Pre-treatment)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외주번역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공, 작업방식 안내, 납기 및 번역량 산정을 담당하며, 각각의 문서별로 요구되는 '번역서비스수준 안내서'(QC1 및 QC2) 및 외주코드(INT/ADM/REC)를 지정 부여한다. 수요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각 언어과에서 외주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더불어 DGT는 번역결과물 수준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평가분석부서(Evaluation and Analysis Unit)', 출발텍스트의 수준을 관리하는 '편집부서(Editing Unit)', 웹 텍스트의 번역과 편집을 담당하는 '웹번역부서(Web Translation Unit)', 외주번역 의뢰 및 관리를 총괄하는 '대외번역부서(External Translation Unit)'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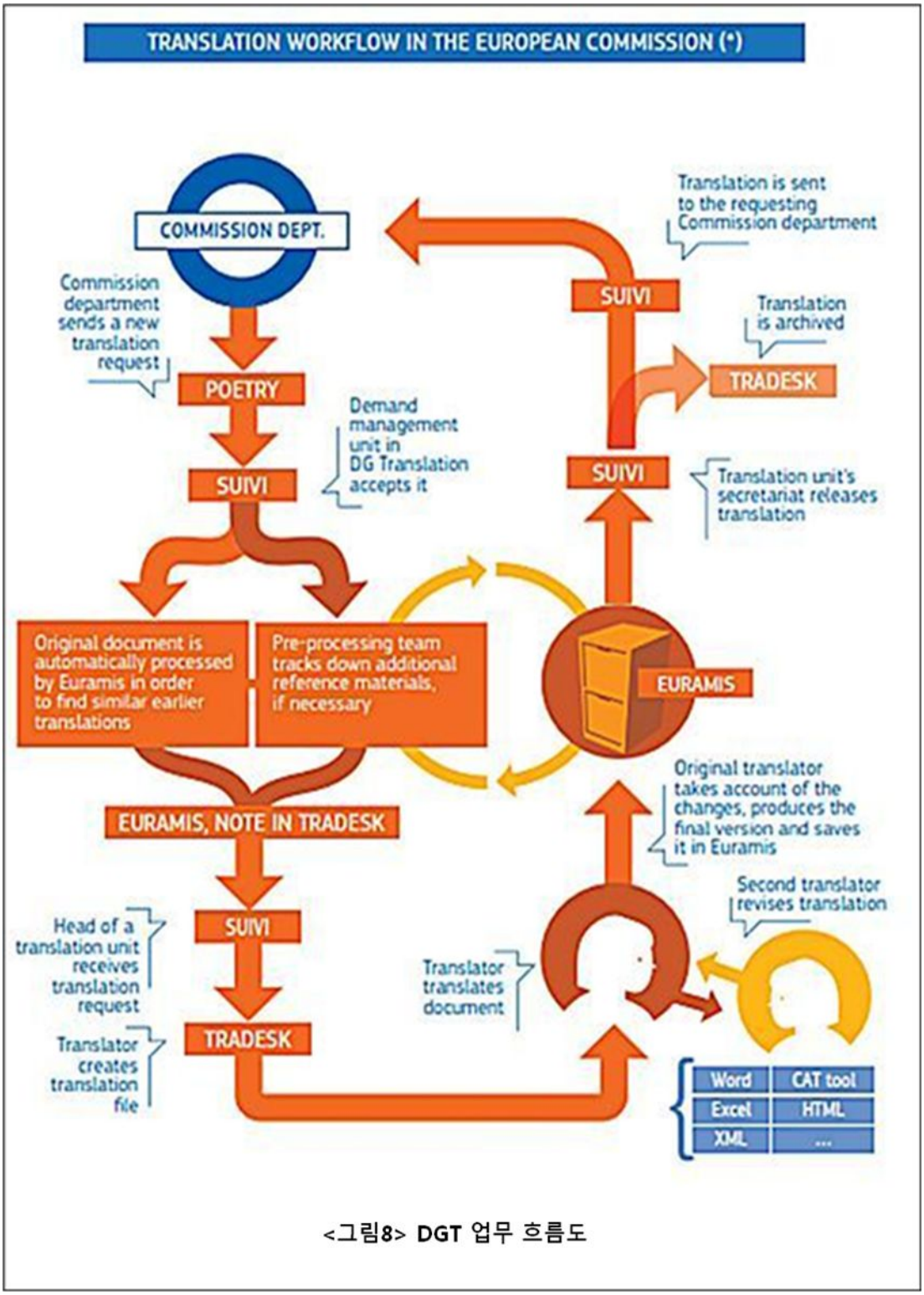
4.2.2.3 업무 흐름

DGT의 업무흐름을 나타낸 것이 <그림 8>이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요관리부서(Demand Management Unit)에서 번역요청 접수 및 전처리

먼저 EU 집행위원회 내 부서가 번역대상 문서를 '번역요청 전자전송 소프트웨어'인 'Poetry'로 보내면, '번역요청 관리 소프트웨어'인 'Suivi'를 통해 번역총국의 수요관리부서에 번역요청이 전달된다. 번역의뢰기관과 번역사를 연결하는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수요관리부서는 해당 문서가 내주처리를 요하는 핵심문서인지, 혹은 서비스수준계약을 통해 외주처리해도 좋은 비(非)핵심문서인지를 판단한 후 번역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DGT는 번역대상 문서를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8> DGT 업무 흐름도

(1) 제 1유형 문서(Type 1 Document): 중요 정치문서, 신규 법안 등이 있으며, 특히 EU 집행위원회 업무 프로그램(CWP: Commission Work Programme)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가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2) 제 2유형 문서(Type 2 Document): 기존 법규의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3) 제 3유형 문서(Type 3 Document): 언론 공개를 위한 보도자료, 홈페이지 콘텐츠 등 중요 커뮤니케이션 자료가 해당된다.
(4) 제 4유형 문서(Type 4 Document): 기타 핵심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로 구성된다.

제1유형 문서는 반드시 DGT에서 내부적으로 번역처리 하도록 되어있으며, 제 2유형 및 제 3유형 문서는 내주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외주처리도 가능하다. 제4유형 문서는 외주처리가 원칙이다. 이때 외주번역사에게는 '기밀유지각서'가 업무수주의 일부로 요구된다.

수요관리부서에서 번역요청을 수락하면 출발텍스트 문서가 번역업무 통합지원 인터페이스인 'Euramis'를 통해 이미 중앙 번역메모리에 저장된 번역텍스트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편 수요관리부서에서는 문서의 분량과 도착어를 파악하고 서식을 점검하며, 관련 참고자료를 확보하고 문서 내 그림 및 도표가 편집 가능한 형식인지 확인하는 등의 '전처리 작업'을 진행한다.

[2] 번역부서(Translation Unit)에서 번역 집행

전처리가 완료된 문서는 'Euramis', 그리고 'Tradesk'상의 'Note'를 거쳐 'Suivi'로 다시 전달된다. 이 단계에서는 번역요청이 해당 번역부서장에게 전송되며, 부서장은 번역대상 문서를 검토한 후 적절한 번역사에게 번역업무를 배정한다. 업무를 배정받은 번역사는 'Tradesk'에서 번역대상 문서를 확인한 다음, 번역물 파일을 생성하고 작업을 진행한다.

번역작업 중 수요관리부서는 언어과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문서 관련 정보를 언어과에 전달하며, 언어과의 요청에 따라 필요 시 의뢰인과 납기 연장 협상에 나선다.

일단 번역작업이 완료되면 번역수준관리를 위해 동료 번역사가 번역물에 대한 교차검토를 진행한다. 교차검토가 완료되면 번역사는 번역결과물에 제기된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본을 Euramis에 저장한다. Euramis에 저장된 최종본은 Suivi로 전달되며, 번역부서 사무국에서 최종 번역결과물을 검토한 후 납품을 완료한다. 이 때 최종본은 Suivi를 통해 번역을 요청했던 부서로 전송되며, Tradesk를 통해 해당 번역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한편 수요관리부서는 번역이 완료된 후 수정요청 및 정오표 관리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4.2.2.4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업무흐름 관점에서 번역 전, 번역 중, 번역 후 등 번역 전 과정에 걸쳐 번역수준관리 활동이 이루어진다.

먼저 번역 전에는 출발텍스트 편집, 형식 검토(문서 서식, 페이지 번호 등), 요구

되는 번역서비스 수준을 명시한 문서분류, 후처리 등이 실행된다. 번역 중에는 부서장의 리스크 평가에 따라 번역물을 교정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물론, 번역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툴 및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주제분야 지식 공유를 통해 번역수준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번역 후에는 피드백, 설문조사, 사후 번역수준관리등을 실시하며, 이외에도 번역 관련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 번역 관련 도구 및 프로세스 개발, 번역메모리 및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특히 외주번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번역수준 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1] 철저한 외주번역사 순위 관리제 운영

DGT는 이미 선발과정을 거쳐 확보되어 있는 외주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외주 번역사 순위 목록'을 운영하고, 구체적 번역수요가 접수되면 이 순위에 입각한 입찰을 통해 외주 번역사를 선정하고 번역 업무를 배정한다. 외주 번역사 선정 시에는 이 목록상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번역사를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번역사가 일정 등의 이유로 해당 업무를 거절하면 차순위 번역사에게 다시 업무협의를 진행한다. 외주번역사들은 매월 번역수준 평가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순위 목록도 매월 업데이트한다.

[2] 번역계약서에 번역요구수준 관리 기준 명시

외주번역 계약서에는 교정 및 검토, 번역본의 완결성(누락 및 추가 불허), 충실성, 정확성 및 일관성, 참고자료의 정확한 인용, 전문용어 및 어휘의 일관성, 명확성 및 적절한 어역 사용, 맞춤법 및 문법 정확성, 출발텍스트 서식 유지, 번역지침 준수 등의 번역수준관리 기준을 명시한다. 모든 외주 번역사는 높은 번역수준 달성과 납기 준수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납품이 지연될 경우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10%의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3] 내부 번역팀에 의한 수준 평가 및 수정 보완

외주로 처리된 모든 번역물은 내부 번역팀의 평가와 교정을 거치는데, 이 평가 과정에서 납기의 긴급성 및 번역별로 요구되는 번역요구수준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번역수준 사이에 다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번역수준관리 담당 부서에서 이와 관련한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 전략 수립 역할을 한다.

모든 번역물은 번역료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부 번역팀의 평가 및 감수 을 거친다. 그러나 번역결과물 문서 전체에 대한 전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당 평가 분량은 최소 10%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 번역결과물 수준평가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익명으로 진행되며, 수준평가를 통과한 번역물에 대해서만 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하며, 결제는 통상적으로 납품 후 30~45일 내에 이루어진다.

[4] 번역수준 평가 도구 활용

DGT는 전산화된 번역수준 평가 도구인 '번역수준평가지(QAT: Quality Assessment Tool)'를 통해 외주번역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지에는 총 8개로 구성된 오류유형이 열거되어 있고, 각 오류유형별로 심각성을 '낮음(Low)'과 '높음(High)'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자는 번역결과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해당 오류유형을 시스템 상에 기록한다. 이 평가지에 사용되는 오류유형을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표 9> DGT의 수준 평가 8개 오류유형

오류유형	설명
오역(SENS)	-출발텍스트의 의미 변형 -도착어로 읽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오류 -타당성이 결여된 내용 첨가
누락(OM)	-타당성이 결여된 내용 누락
명확성 및 어역오류(CL)	-언어역, 문제, 언어간섭, 유의어 반복, 지정분한 문장
용어오류(TERM)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용어사용
참고자료오류(REF)	-제공된 참고자료 내용을 검토하지 않아 인용문이나 제목을 재번역해야 하는 경우 -문서작성 지침, 번역브리프 등의 참고자료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문법오류(GR)	-문법오류
철자법오류(SP)	-철자법 오류
문장부호오류(PT)	-문장부호 오류

[5] 내부 번역수준 평가위원회 운영

DGT는 번역수준 면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번역을 제출하거나 지속적으로 번역수준이 문제가 되는 번역사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사안을 총괄하는 '내부 번역 수준 평가 및 관리 위원회(Internal Committee for Quality)'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번역부서, 대외번역부서, 재무부서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번역사가 제출한 번역결과물에 대해 전체 재번역이 필요할 정도로 번역결과물 수준이 심각하게 낮다고 번역부서에서 판단하면, 대외번역부서에서 내부수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때 번역수준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번역을 평가한 평가자 이외의 다른 평가자로 하여금 번역물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또는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상근번역사에 대해서는 외주 번역사에 상응하는 번역수준관리지표가 적용되

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근번역사가 단순히 번역결과물을 산출해내는 데 급급하지 않고 조직 내에서 기대되는 번역수준을 달성하고 팀워크에 기여하는 데 보다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2.3 EU 번역센터(CdT)

4.2.3.1 기구 연혁

1994년 설립된 EU 번역센터(CdT: Translation Center for the Bodies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dT')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기관이다. DGT와는 달리 EU 산하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EU으로부터 예산지원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느다. 그 대신 '유럽공동체 상표특허청'과 같이 EU와 관련이 있는 초국가기구들을 기관고객으로 유치하여 이들에게 지급받는 번역료로 직접 재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상업적 번역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CdT는 번역, 번역물 수정 및 교정, 비원어민이 작성한 출발텍스트의 편집, 표준화, 전문용어 관리 및 목록 작성 등의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GT 출신 인사가 현 센터장으로 재직하는 등 DGT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 기관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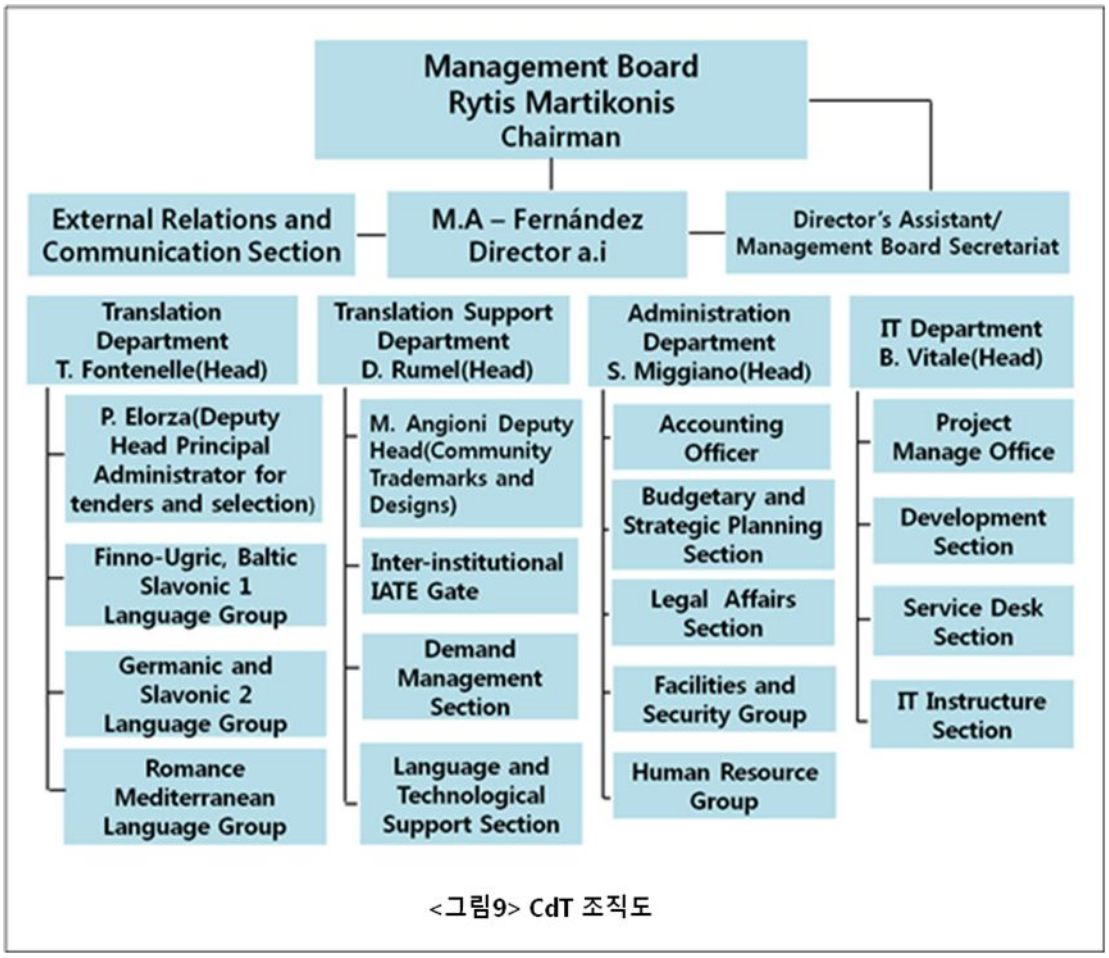
CdT는 유럽 내 각종 기관의 점증하는 번역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와 더불어 자체 번역부서를 두고 있는 기관들의 외주 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업무합리화와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초국가 기관 간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CdT는 2013년 현재 59개 유럽 내 기관과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럽의회와도 유사한 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스페인 알리칸테에 소재한 '유럽공동체상표특허청(OHIM)'이 최대고객으로, 이외에도 특허, 신약 등록, 화학, 항공보안, 금융, 산업연금, 주식시장, 정치,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 내 기관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CdT 상근번역사는 번역, 번역물 교정, 출발텍스트 편집(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업무를 담당한다. 번역업무 이외에도 소속 언어부서 내 전문용어 코디네이터, 번역수준관리 코디네이터, 컴퓨터보조번역 코디네이터와 협업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번역센터의 고객관리 코디네이터와도 긴밀한 협업을 진행한다.

4.2.3.2 조직도

CdT의 조직을 정리한 것이 <그림 9>로, 각 부서별로 관장하는 업무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림9> CdT 조직도

[1] 번역부서

CdT의 번역부서는 '핀란드-우글리아 어 · 발트 어 · 슬라브어 담당 제1 번역부서', '게르만 어 · 슬라브어 담당 제2 번역부서', '로망스 어 · 지중해 어 담당 제3 번역부서'의 3개 번역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부서 책임자 이하 부책임자, 교육담당자, 비서 등이 번역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번역지원부서

번역지원부서는 수요관리과(DMS: Demand Management Section), 기관간 IATE 그룹(Interinstitutional IATE Group), 언어기술지원과(Language and Technology Support Section)로 이루어져 있다.

[3] 행정지원부서

행정부서는 상근번역사 채용, 인사관리, 외주 계약 등을 주 업무로 하며, 예산전략계획과(Budgetary and Strategic Planning Section), 법무과(Legal Affairs Section), 시설보안그룹(Facilities and Security Group), 인사그룹(Human Resources Group)으로 나누어진다.

[4] IT 담당 부서

IT부서는 번역업무 관련 도구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 과(Development Section),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데스크 과(Service Desk Section),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IT인프라 과(IT Infrastructure Section)으로 구성되며, 최근 센터 내 IT 프로젝트 관리를 전담하는 프로젝트관리실(Project Management Office)이 신설되었다.

4.2.3.3 업무 흐름

CdT의 업무 흐름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CdT 업무 흐름 단계

사전처리	(a) 고객 번역 요청- '클라이언트 포털' 인터페이스 이용 (b) 번역대상 문서 분석(번역지원부서) - 번역분량, 비용 및 납기산정 (c) 번역물 배정 - 문서의 기밀성, 납기 등을 고려하여 상근번역사 또는 외주 번역사에게 번역물 배정
⇩	
번역 및 교정	(d) 번역 진행 및 전달 (e) 검토 및 평가 - 상근번역사가 작업한 번역물의 경우 동료 상근번역사가 교차검토(cross-checking) 및 교정(revision)을 수행 - 외주번역사가 작업한 번역물의 경우 상근번역사의 평가(assessment) 및 교정을 거침
⇩	
사후처리	(f) 서식 확인 및 수정: 복잡한 파일 형식의 경우 사후편집(post-editing)을 통해 출발텍스트 서식에 맞게 정리
⇩	
납품 및 후속조치	(g) 고객에 최종본 납품 (h) 고객 피드백 접수 - 수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명 및 수정 진행

이상의 흐름도에서 나타난 공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1] 전(前)처리

CdT의 업무흐름은 크게 4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인 '전처리(Pre-Treatment)'는 다시 행정적 전처리, 언어적 전처리, 기술적 전처리로 나누어진다. 행정적 전처리는 번역 납기 및 분량 확인, 번역 관련 지침 및 참고자료 전달, 번역요율 등 기타 사안에 대한 협상으로 구성되며, 언어적 전처리에는 콘텐츠 분석을 통한 내주 혹은 외주 여부 결정, 기존 번역메모리 분석을 통한 번역물 분량 산정, 전문용어 확인, 참고자료 제공이 포함된다. 외주 의뢰 시 센터에서 보유한 외주번역사 인력 및 순위 목록을 바탕으로 번역물을 배정한다. 기술적 전처리로는 파일 형식 변환 및 서식 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번역 및 평가 · 교정

두 번째 단계인 '번역 및 평가 · 교정(Translation/Revision)' 단계는 상근번역사와 외주 번역사별로 과정이 다르다. 먼저 번역물의 분량을 확인하여 4장 이하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내부 번역팀에 배정하고, 그 이상의 분량은 외주로 처리한다. 특히 기밀성이 요구되는 문서의 경우 내부 번역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 번역대상 문서의 분야도 고려 대상이다. 일반적인 주제분야를 다루는 문서는 내부번역팀에 배정하고, 주제분야가 최첨단정보 등을 다루는 전문분야 문서인 경우 해당 분야 주제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외주번역사에 의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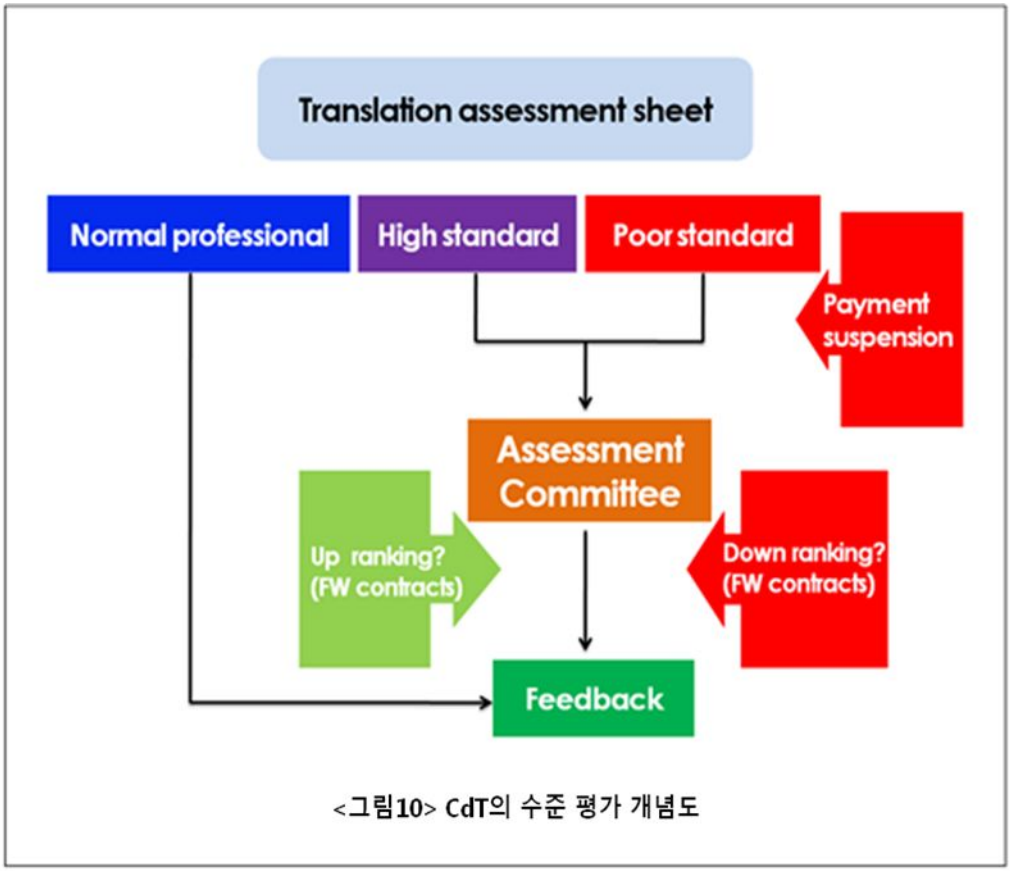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번역물의 출발어-도착어 언어조합도 중요한데, 내부 번역팀에서 소화할 수 없는 언어조합은 모두 외주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내주·외주 번역물 모두 번역작업이 완료되면 내부번역팀의 교차 평가검토 및 교정을 거친다.

[3] 후(後)처리

세 번째 단계인 '후처리(Post-Treatment)'는 완성된 번역물을 고객에 납품하기 전에 모든 내용이 제대로 번역되었는지, 번역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등의 기술적 측면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 역시 행정적 후처리, 언어적 후처리, 기술적 후처리로 구분된다.

행정적 후처리에는 인보이스 발송 및 결제 처리가 포함되며, 언어적 후처리에서는 번역물에 대한 피드백 및 수준 평가가 이루어진다. 번역물에 대한 교정자의 피드백은 수요관리과를 통해 번역사에게 전달되며, 외주 번역물의 경우 '-1', '0', '+1'의 3등급으로 평가하여 번역사 등급산정 및 추후 번역물 배정에 반영한다.

기술적 후처리에서는 출발텍스트 서식에 맞게 번역물의 서식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출판용 문서의 경우 그에 따른 데스크톱 퍼블리싱(DTP) 작업을 지원하며, XML 등의 형식으로 된 웹 콘텐츠의 경우 실제 온라인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그림10> CdT의 수준 평가 개념도

[4] 납품 및 후속조치

마지막 단계인 '납품 및 후속조치(Delivery & Follow-Up)' 단계에서는 최종본을 고객에게 납품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고객관리팀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며, 최종번역수준 문제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수요관리과에서 피드백을 전달받고 해당 번역사에게 연락을 취한다.

4.2.3.4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CdT는 '내부 번역팀의 추가 수정이 필요 없는 수준의 번역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1) 완전성과 정확성, (2) 번역지침 준수, (3) 참고문서 및 기존 출판물에 대한 정확한 인용, (4) 일관성 있는 전문용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물에 대한 수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그림 10>인데,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1] 번역수준평가지 활용

CdT에서는 번역물 수준 평가를 위해 교정자에게 소정의 평가양식을 제공하는데, 전문 번역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0점·', 일반적 기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번역인 경우 '1점', 일반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품질의 번역은 '-1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1점'을 받은 번역물의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으로 반영

되어 해당 번역물에 대한 결제가 즉시 정지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는 자신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실제 오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번역사 순위평가위원회 운영

이러한 번역수준 평가 점수에 따라 번역사 인력 및 순위 목록 내 순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CdT는별도의 순위평가위원회를 두고 번역평가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번역사의 순위가 조정되는 경우 해당 번역사에게 순위 변화를 알리는 통지가 발송되며, 통지에는 자신이 수행한 번역물에 대해 평가자가 제시한 구체적 피드백 내용이 포함된다.

동일한 번역결과물 수준에 대하여 평가자별로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CdT는 순위평가위원회를 통해 '-1점'을 받은 사례을 모두 검증·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번역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평가결과에 대해 번역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번역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재번역(retranslation)을 요하는 번역물의 처리는 납기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자가 번역물에 대한 일차평가를 진행한 후 번역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기에 여유가 있으면 수요관리과에 연락을 취하여 번역물을 번역사에게 되돌려 보내고 재작업을 요청하게 된다. 납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평가자가 해당 번역물에 대한 수정 및 재작업을 직접 수행한 후 고객에 납품한다.

실제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금전적 페널티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인보이스는 그대로 발송하지만 이와 동시에 페널티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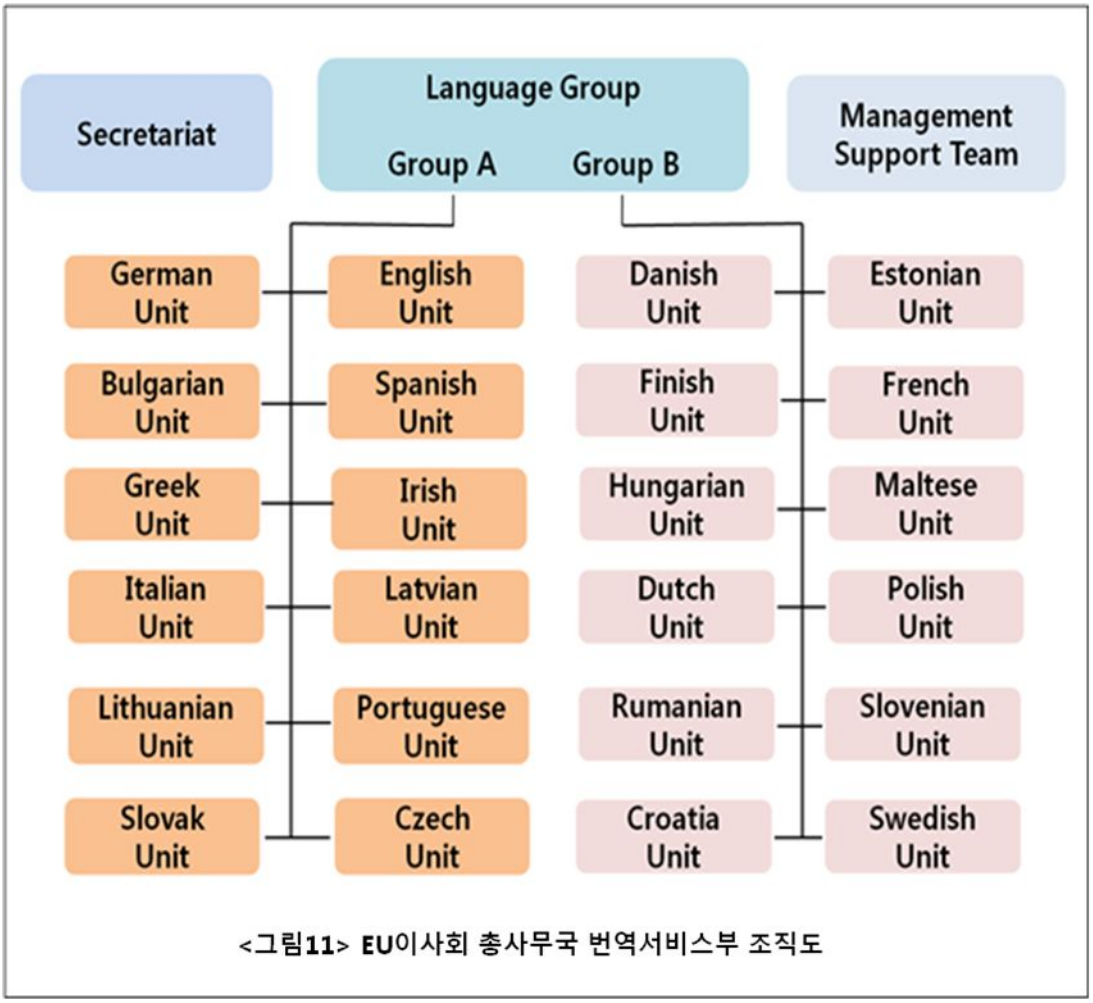
4.2.4.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

4.2.4.1 기구 연혁

2007년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독립기관으로 발족한 EU이사회 총사무국(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General Secretariat)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및 EU 이사회 의장을 지원하는 EU 산하기구이다. 동 사무국의 번역서비스 부(Language Service)는 인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Directorate-General A' 산하에 있는 'Directorate 3 - Translation and Document Production'(약칭 'DGA-3 Directorate') 소속이다.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는 주요 정책문서와 함께 입법절차 중 핵심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법안을 EU 공식어로 번역하며, 유럽대외관계청(EEAS)을 비롯한 타 EU 산하기관의 번역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의 대중 및 총사무국 내 다양한 실무기구(Working Party)와 관련된 일반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직 내 행정수요에 따른 번역도 함께 수행하는데, 별도로 통역 서비스는 따로 제공하지 않고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통역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의 상근번역사는시 번역, 번역물 교정, 출발텍스트 편집, 전문용어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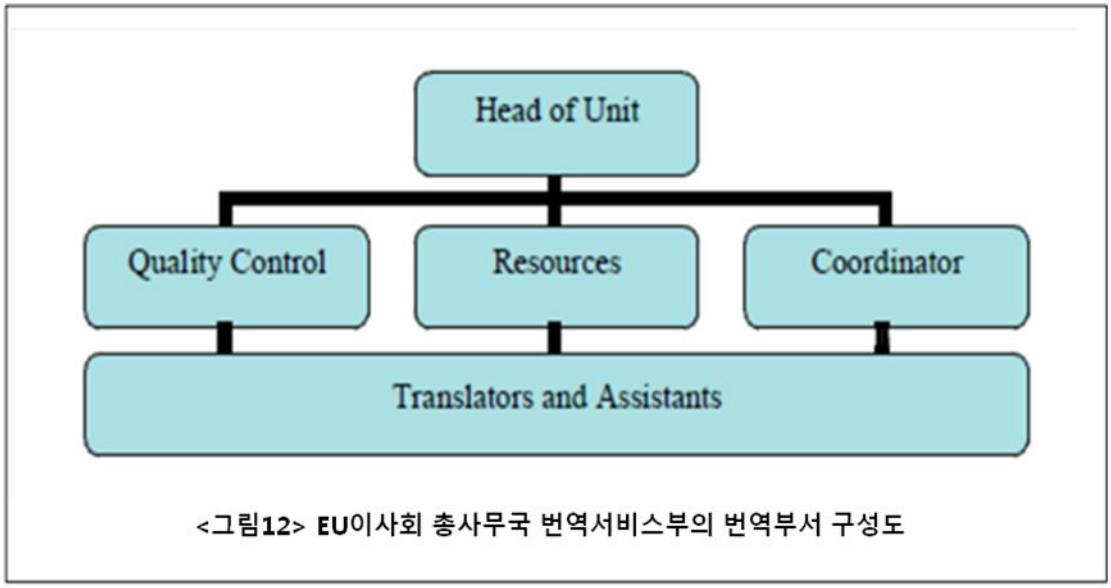


<그림11>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부 조직도

4.3.4.2 조직도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는 중앙관리조율그룹과 EU 공식어별 번역부서로 구성되는데, 2013년 현재 총 24개의 번역부서가 활동 중이다.

각 번역부서는 자체 관리 팀과 부서장(Head of Unit, AD), 번역수준관리 담당자(Quality Controller, AD), 인력관리자(Resources Manager, AST), 지역 코디네이션 책임자(Head of Local Coordination, AST)를 두고 있다. 2006년 신설된 직책인 번역수준관리정책 코디네이터(Quality Policy Coordinator)가 수행하는 업무는 (1) 번역수준관리 관련 각 부서장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제공 (2) 해당 사안에 대한 대내외 연락 (3) 동 연도에 마련된 번역수준관리정책 지침(quality policy note)를 바탕으로 하는 번역수준 개선 노력 조율이 대표적이다.



<그림12>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부의 번역부서 구성도

2012년 현재, 전문번역사 650명, 지원인력 250명이 번역서비스 부 내 각 번역부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각 번역부서는 번역사 26명, 보조원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번역부서별 자체 관리팀에서 행정업무 및 번역업무 배분을 담당한다.

중앙 수준에서는 전문용어·문서 코디네이션 담당자, 컴퓨터보조번역툴 코디네이터,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번역수준관리정책 코디네이터 등이 각 번역부서를 지원하고 있다.

4.2.4.3 업무 흐름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의 업무흐름은 크게 (1) 번역요청 및 사전준비, (2) 번역물 배정 및 번역작업, (3) 사후편집 및 납품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1] 번역요청 및 사전 준비

법안 수정안, 회의에 사용될 문건, 법률 외 분야 텍스트, 정책문서, 성명자료 등 의뢰인이 작성한 다양한 출발텍스트 문서는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부의 '워크플로우(Workflow)' 프로그램을 통해 동 기관 내 모든 공식문서를 관리하는 코디네이션 및 번역생산부서(Coordination and Production Unit)로 전달된다. 코디네이션 및 번역생산부서에서 문서의 레이아웃 및 서식을 확인한 다음 해당 문서를 EU이사회 서버와 보관정보시스템(AIS: Archive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하면 문서의 출발어와 관련된 수신자에게 즉시 전달된다.

문서에 대한 번역요청이 접수되면 코디네이션 및 번역생산부서는 핵심문서 분류정책에 의거하여 번역요청의 타당성을 평가한 다음, 핵심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모든 공식어로 번역을 진행한다. 한편 핵심문서 이외의 문서도 필요 시 공식

어 전체 또는 일부로 번역할 수 있다. 번역요청이 수락되면 코디네이션 및 번역생산 부서는 번역량을 산정하고 납기를 설정하며, 번역작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번역메모리의 형태로 변환한다.

[2] 번역물 배정 및 번역작업

이와 같은 사전준비 작업을 거친 문서가 각 언어부서에 전달되면 현지 코디네이터가 (문서의 분량 및 납기에 따라) 1명 또는 그 이상의 보조원 및 번역사에게 해당 문서를 배정하며, 번역수준 보장을 위해 완성된 번역물을 확인·수정할 수 있도록 동료 번역사가 평가 및 감수 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번역사와 평가 및 감수 자는 번역의 일관성, 효율성, 속도를 높여주는 다양한 컴퓨터보조번역 및 전문용어 관리 도구를 번역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3] 사후편집 및 납품

번역 및 평가교정 작업이 완료되면 보조원이 번역물을 넘겨받아 완성된 문서가 레이아웃 요건 및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다음 보관정보시스템에 번역물을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된 문서는 엑스트라넷(Extranet) 시스템을 통해 회원국, EU 집행위원회 및 기타 임시 수신자에게 자동으로 회람되고 회의 시 인쇄물 형태로 배포도 가능하며, 일반 공개 대상 문서의 경우 EU이사회의 '공공 문서 등록부(Public Register)'에 등록된다.

4.2.4.4 번역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는 번역부서별, 언어별 및 중앙 수준에서 번역수준의 관리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 번역부서별 및 언어별 번역수준 관리 담당자 제도 운영

각 번역부서 소속의 번역수준관리 담당자는 부서장을 도와 동 부서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의 언어적·기술적 수준을 개선하고, 번역사 및 보조원의 업무품질을 모니터링하며, 중앙 전문용어·문서관리 부서와 협업하여 부서 내 전문용어·문서관리 작업을 주도한다. 또한 EU 내 타 기관 소속의 동일언어 번역부서와 협업하여 번역수준관리 관련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언어별 번역수준관리 담당자는 중앙 수준의 수준관리정책 코디네이터와 긴밀히 협력하며 번역수준향상을 위한 구체적 조치 및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이를 통해 번역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다.

[2] 번역수준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번역부서별 요건

한편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는 문서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번역사, 평가교정자, 보조원의 업무 우수사례를 발굴해 문서화하며, 번역과정 자체 이외에도 번역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타 사항, 수준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번역부서별 요건

등을 상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EU이사회 번역서비스 부의 번역수준 및 프로젝트 관리 요건

구분	내용
우수사례 전파	-번역사, 교정자, 보조원의 핵심업무를 정리해 정오표(COR) 및 수정본(REV) 처리 지침 마련 -다양한 문서유형별 처리 우수사례 소개
최종본 모니터링	-매주 전주에 완료된 번역물 중 일부(약 20장 분량)를 무작위로 선정해 평가 -해당 문서를 번역수준관리 담당자에게 발송, 기관에서 요구하는 번역수준 표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의뢰 -문서의 유형 및 목적(즉, 목적정합성)을 주로 고려 -매주 번역수준관리 담당자 회의 개최, 표본평가 대상 번역물의 문제점을 논의
프로세스 모니터링	-번역물 자체가 아닌 번역사, 교정자, 보조원 등 다양한 업무 주체들의 업무를 평가, 기관에서 권장하는 우수사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 -개별 번역사 및 보조원에게 업무 관련 지침을 제공 -부서장의 직원평가에 필요한 기준 제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타 기관의 동일언어 담당 번역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용어 문제 등 해결 -기관 내 타 부서(법률언어전문가 등)와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4.2.4.5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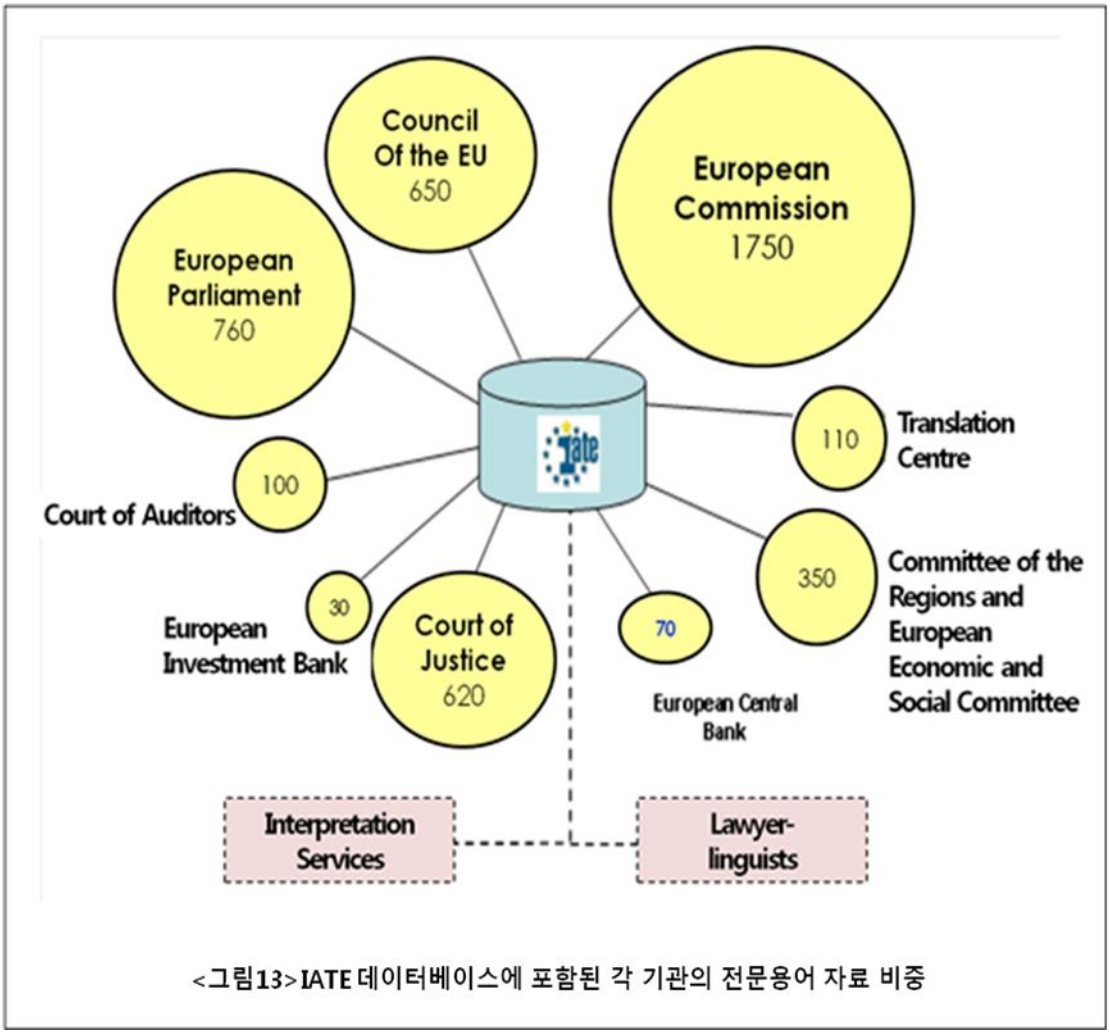
유럽에서는 20 여 년 전부터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으며, 이러한 기관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EU 산하기관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을 위해 구축된 통합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IATE(InterActive Terminology for Europe)이다.

EU 집행위원회, EU이사회, 유럽의회, 유럽회계감사원, EU 지역위원회·경제사회위원회, CdT, SCIC,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투자은행, 유럽중앙은행이 프로젝트 파트너로 IATE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CdT는 2003년부터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지원, 유지보수, 개발업무를 담당하며 IATE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CdT는 유럽 내 다양한 기관을 대표하여 IATE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주요 기관고객과 협력하여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전문용어로 구성된 용어집을 만

드는 한편, 이들 용어를 EU 24개 공식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용어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승인된 용어는 내부용 IATE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며,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IATE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공개된다.

2013년 7월 현재 IATE에 등재된 항목은 총 147만 건이며, 항목에 포함된 용어는 870만 건, 약어는 50만 건, 구문은 14만 건이다. 언어별 용어 수는 영어가 1,415,793건으로 가장 많으며, 프랑스어는 1,352,133건, 독일어는 1,038,515건이다. 2013년 공식어로 추가된 크로아티아어의 경우 8,453건으로 가장 적은 수의 용어가 등록되어 있다.



<그림13> IATE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각 기관의 전문용어 자료 비중

2012년 초에 발효된 '전문용어 관리 프레임워크(Terminology Framework)'에서는 전문용어 관리를 DGT의 핵심업무로 간주하고 있다. DGT의 전문용어 작업에는 관리자, 전문용어 작업자, 번역사, 전문용어조율부서 등이 참여한다. 먼저 관리자는 계획위원회를 통해 전문용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련 자원을 확보하며, 전문용어 작업자는 번역부서에 소속되어 전문용어 관리 작업을 주도하며, 번역총국 내 전문용어

관리이사회에서 해당 부서의 입장을 대변한다. 번역사는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의 최종 사용자로, 전문용어의 추가 및 수정에도 밀접하게 관여한다. 전문용어조율부서는 번역총국 내 다국어 전문용어 관리 프로젝트, IATE 관련 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다언어 및 언어간 업무를 총괄하며, 2013년 1월부터 번역국 소속으로 이관되어 번역업무와의 일관성을 기하고 있다.

DGT는 번역사 이외에도 풀타임 및 파트타임 전문용어 작업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언어과마다 최소 2명의 전문용어 작업자(FTE 기준)를 두고 있다. 전문용어 작업자의 업무로는 (1) 번역과 연관된 전문용어 검색, (2) IATE 항목의 생성, 확인 및 통합, (3) 언어별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 수행, (4) 언어와 관련된 기관간 협력, (5) 각국 전문용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양자간 접촉 등이 있다. 각 언어과에서 다양한 후보용어 중 최종적으로 사용할 용어를 확정하면 전문용어 작업자가 데이터베이스 입력 작업을 수행한다. 각 개념마다 하나의 항목을 생성하며,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항목을 생성하려는 경우 기존 항목의 존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EU 내 각 언어공동체의 서로 다른 니즈를 감안하여 각 언어과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전문용어 작업을 진행한다.

DGT는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용어 작업자 및 번역사의 요구를 수렴한 후 전문용어관리이사회와 계획위원회를 거쳐 전문용어 관리를 위한 연간작업계획(Annual Work Programme)을 수립한다. 한편 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용어 작업에 대해 연 2회 평가를 진행하는데, (1) 다국어 프로젝트 작업의 진척도, (2) IATE 상의 용어 및 항목 생성, 수정, 삭제 현황(정량지표), (3) 정의, 문맥정보, 참고 등이 포함된 항목 수(정성지표), (4) 언어별 전문용어 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제출된 언어과별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4.2.5 EU의 번역사 채용 기준 및 자격 요건

이상의 3개 EU 공공번역 기관의 경우, 번역사 채용·선정 방식에 있어 대체로 공통적인 기준 및 자격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되, 내주 번역사와 외주 번역사의 채용 및 선정 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상기 3개 EU 공공번역 기관 번역사들의 업무 범위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2.5.1 내주 번역사의 채용방식 및 기준

EU는 내주 번역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유럽 내 전체 기관의 공개채용 업무를 '유럽인재선발사무국'에서 진행하도록 일원화했으며, 이에 따라 DGT와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 등의 공공번역 담당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 사무국을 통해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CdT의 경우는 자체 절차를 통해 내주 번역사 및 지원인력을 채용하나, 번역사의 자격요건 등은 유럽인재선발사무국에서 제시하는 요건과 거의 유사하다.

4.2.5.2 공개채용 절차 및 선발과정

번역사 및 기타 직군의 공개채용에 대한 지원은 유럽인재선발사무국 홈페이지(http://europa.eu/epso)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번역사의 경우 매년 7월에 온라인 지원이 개시되며, 선발과정에는 5~9개월이 소요된다. 공개채용 대상 언어 수는 기관별 번역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24개 공식어에 대한 공개채용을 매년마다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개채용 예비목록(reserve list)을 두고 번역수요 발생 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1] 온라인지원 및 지원자 파일 검토

정규직 번역사 공개채용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인재선발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을 받으며, 지원자는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통해 본인이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여야 한다. 이후 지원자가 후속단계를 위해 평가센터(Assessment Centre)에 출석하면 선발위원회(Selection Board)에서 가장 적합한 지원자의 파일을 검토한다.

[2] 사전시험

사전시험은 각 회원국에 위치한 평가센터에서 컴퓨터기반시험(CBT) 형태로 진행된다. 주언어와 관련된 영역은 언어적 논리력(20점), 추상적 논리력(10점), 수리적 논리력(10점)으로 구분되며, 언어적 논리력과 추상적 논리력 영역을 합쳐 총 30점 중 15점 이상이어야 통과할 수 있고 수리적 논리력 영역 점수는 4점 이상이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제1 출발어 독해(10점), 제2 출발어 독해(10점)에서 5점 이상을 기록하여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총점 60점 중 29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3] 번역 필기시험

번역 필기시험은 사전시험과 동일하게 각 회원국에 위치한 평가센터에서 진행된다. 응시자들은 100분 동안 사전 없이 컴퓨터로 45줄 길이의 번역텍스트 문제 2개에 대해 번역시험을 치르게 된다. 문제별 총점은 80점이고 최소 40점을 기록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각 지원자에 대해 2명의 심사관이 채점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3인이 채점하기도 한다. 필기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00명의 지원자를 뽑아 그 다음 단계인 대면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4] 대면평가

사전시험, 번역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평가센터에서 진행되는 대면평가는 구조화 인터뷰(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집단과제(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구두발표(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 구성된다.

구조화 인터뷰에서는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질문을 받으며, 집단과제의 경우 집단에서의 능동성 여부, 문제해결 능력 등 지원자의 태도를 5~6명의 심사관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관찰한 후 평가점수를 매긴다. 총점 80점 중 4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된다.

[5] 선발 대상자 예비 목록 작성

공개채용 절차의 모든 단계가 끝나면 선발위원회는 번역 필기시험 점수를 65%, 대면평가 점수를 35% 반영하여 지원자의 최종점수를 산정한다. 또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의 전체 파일을 검토한 후 번역사 예비목록을 작성한다.

이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번역사는 소정의 유예기간을 거쳐 정직원 자격을 얻게 된다. 추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등 업무 관련 자격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력서를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다.

4.2.5.3 번역사 고용형태 및 직급 분류

번역사의 고용형태에 따라 번역사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힌다.

(1) 정규직 번역사
(2) 계약직 번역사
(3) 임시직 번역사
(4) 인턴 번역사

EU 정식 직원인 정규직 번역사는 '행정직군(Administration)'을 의미하는 'AD 등급'을 부여받으나, 이는 행정적인 분류일 뿐 위계적 직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례로 언어부서의 책임자가 'AD 9등급'을 부여받는 반면 해당 언어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번역사가 그보다 높은 'AD 12등급'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DGT의 경우 명시적인 직급분류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번역사의 업무경력에 따라 소속 번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

(1) 주니어 번역사(junior translator),
(2) 시니어 번역사(senior translator),
(3) 전문번역사(expert translator),
(4) 언어전문가(linguistic expert)

주니어 번역사의 경우 직원 등급분류 상 시작단계인 AD5 및 AD6에 해당하는 번역사가 많으며, 업무경력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교정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가 적다. 시니어 번역사의 경우 업무에 익숙해짐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하급 번역사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번역사의 업무경력 및 관련지식이 더욱 축적되면 높은 전문성을 지닌 전문 번역사 및 언어 전문가가 된다. 과거에는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승진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번역수준 및 생산성에 보다 역점을 둔 성과제를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단, 연공서열제와 성과제를 적절히 혼합하여 일정한 근무기간이 지나면 최소한의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4.2.5.4 번역사 자격요건

번역사 공개채용에 지원하려면 EU 28개 회원국 시민으로서 완전한 권리(범죄경력 등 제한요소 없음)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 3년제 이상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최저등급인 AD5 수준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므로 업무경력은 요구되지 않으며, 연령제한도 없다. 모든 지원자는 모국어 또는 주 언어 이외에 EU 공식어 2개를 능숙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4.2.6 외주 번역사 의뢰 시스템

4.2.6.1 선정방식 및 기준

다음으로 상기 3개 EU 공공번역 기관들의 외주 번역사 선정방식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외주번역에 사용되는 EU 표준계약인 기본계약 및 특약에 대해 알아본 다음 주요 입찰유형 및 진행방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4.2.6.2 기본계약 vs. 특약

여기서는 CdT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번역 관련 입찰에 사용되는 기본계약 및 특약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

기본계약은 고객별 경쟁입찰 요청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입찰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CdT의 경우 새로운 분야의 고객을 확보할 때마다 새로운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조합에 주로 적용된다. 기본계약에서 다루는 분야는 일반, 법률, 의학, 기술, 환경 등으로 다양하다.

CdT는 기관 홈페이지와 EU 입찰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입찰 요청을 공시하며, 이후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가 열려 학력 및 실무경험, 전문용어 리소스, IT 툴 사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입찰자를 평가한다. 번역사의 번역수준을 요율과 대조하여 산정한 '번역수준-요율 비율(quality/price ratio)'을 기준으로 외주 번역사의 순위를 매겨 목록을 작성하며, 외주번역 의뢰 시 수요관리섹션에 해당 목록이 전달된다. 수요관리섹션은 이처럼 순위화된 외주 번역사 목록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목록 내 순위에 따라 외주 번역사를 접촉하고 업무 진행 의사를 확인한다. 목록에 등재된 외주 번역사 중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번역사가 없는 경우, 적합한 언어조합을 가진 개인 번역사 또는 번역업체에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있다.

CdT에서 사용하는 기본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언어조합별 요율 및 결제방법, 계약의 수행(문서 전달, 번역메모리 사용, 납기 및 납품지연 페널티, 번역수준관리 요건 등), 저작권, 기밀유지, 데이터 보호, 계약의 종료,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피해보상, 계약자의 이차적 책임, 과세 관련 조항, 계약의 정지, 감사, 준거법 및 관할권 등 다

양한 사안이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2] 특약(specific contract)

특약은 기본계약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외주번역 유형에 사용되는 계약이다. 일례로 영어-프랑스어 언어조합에 대해 기본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영어-독일어 언어조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계약 대신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입찰보다 비교적 유연한 형태인 '의향서 제출 요청(call for interest)'을 통해 EU 공식어 이외 언어에 대한 특약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외에도 CdT에서는 영어-스와힐리어 언어조합 등 특수한 번역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헤드헌팅을 통해 적합한 번역사를 찾아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 요청에 참여하지 않고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었다가 해당 언어조합에 대한 번역수요가 발생하면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4.2.7 입찰유형 및 진행 방식

다음으로 DGT의 사례를 중심으로 EU 공공번역 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의 다양한 유형 및 진행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DGT의 외주번역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외번역부서가 2013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제별 경쟁입찰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EU 일반사안(GEN),
[2] 법률 및 사법(LEG),
[3] 각종 기술분야(TECH),
[4] 재무 및 예산(ECON),
[5] Europa 웹페이지(WEB) 등

대외번역부서는 공공조달에 대한 EU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요청을 진행한다. DGT는 입찰과정에서 공개입찰 절차(open procedure, 경쟁입찰 요청), 제한입찰 절차(restricted procedure), 협상입찰 절차(negotiated procedure) 등을 활용하고. 이 중 모든 지원자에게 열려있는 공개입찰 절차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영어가 출발어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프랑스어 등 기타 공식어를 출발어로 하는 공개입찰은 드문 편이다. 제한입찰 절차는 먼저 모든 지원자의 지원을 받은 후 일부 지원자를 선정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협상입찰 절차는 DGT에서 선정한 공급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찰절차로, 일부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업체를 등록하고 장당 요율 기준으로 가장 낮은 요율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입찰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지원자의 입찰 참가 및 낙찰 가능성을 검토하여 가능성이 낮은 지원자를 배제하고, 계약 완수에 필요한 기술적·전문적 요건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적합한 지원자를 선별한 다음, 마지막으로 제안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약 자격을 부여한다.

DGT는 언어조합별로 10~40개의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외주번역사 목록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번역사 또는 번역업체에 가장 먼저 접촉한 다음, 해당 번역사 또는 번역업체가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면 차순위 업체로 하나씩 내려가는 계단식 접근법을 취한다.

4.2.8 EU의 공공번역 수준 관리 현황 개괄

EU 공공번역 담당 기관의 번역수준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DGT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대상 문서의 분류 및 번역수준관리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출발텍스트 교정 서비스 및 문서작성 지침, 번역메모리의 활용, 웹 콘텐츠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각 기관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4.2.8.1 번역대상 문서 유형 분류 및 유형별 발주 방식 정립

2004년 EU의 회원국 확대로 공식어 수가 대폭 증가했고, 그 결과 번역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번역업무 처리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번역요청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DGT는 다음 전략을 수립해놓고 있다.

[1]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핵심문서의 번역에 집중

[2] 번역대상 문서의 분량 한도를 설정

[3] 모든 공식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는 문서의 경우 필요한 언어에 한해 번역작업을 진행

[4] 내부 번역부서와 함께 외주 번역사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업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

이러한 전략에 따라 DGT는 번역 상 문서를 문서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제 1유형(Type 1) 문서로는 중요 정치문서, 신규 법안 등이 있으며, 특히 EU 집행위원회 업무 프로그램(CWP: Commission Work Programme)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가 중요성이 높다.

[2] 제 2유형(Type 2) 문서에는 기존 법규의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3] 제 3유형(Type 3) 문서는 보도자료, 홈페이지 콘텐츠 등 중요 커뮤니케이션 자료이며,

[4] 제 4유형(Type 4) 문서는 핵심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문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제 1유형 문서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제 2유형 및 제 3유형은 내주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외주처리도 가능하다. 반면 제 4유형 문서는 외주처리가 원칙이다. 이 같은 문서유형 분류의 도입으로 DGT는 내주번역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외주를 통한 번역처리의 가능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4.2.8.2 출발텍스트교정 서비스 및 문서작성 지침 제공

높은 번역수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가 출발텍스트 문서의 수준 및 완성도이다. 특히 24개나 되는 공용언어로 법안 및 주요 문서의 번역이 이루어지며 출발텍스트 작성자 중 대다수가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는 EU의 경우 출발텍스트의 수준 관리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DGT는 출발텍스트 수준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인 편집부서를 두고 출발텍스트를 교정하는 한편 출발텍스트 작성자 및 의뢰부서에 출발텍스트 작성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편집부서는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출발텍스트를 작성하는 타 총국 관계자의 출발텍스트 작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DGT는 다양한 언어과에서 해당 언어와 관련된 문서작성 및 번역지침을 수립하여 출발텍스트 작성 및 번역의 일관성과 완결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한편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 부는 비 원어민이 영어 및 프랑스어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출발어 문서의 번역수준관리를 통해 번역수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출발텍스트 편집(editing) 서비스의 활용을 권장한다. 이외에도 문서 전처리(pre-processing) 작업의 일원화, 참고자료 제공, 표준 서식 적용 등을 언어별로 통일하는 코디네이션 작업을 통해 번역수준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4.2.8.3 번역메모리의 활용

DGT에서는 중앙 번역메모리인 'Euramis'와 로컬 컴퓨터 번역메모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SDL Trados 2007'의 일부인 'Translator's Workbench' 등 다양한 컴퓨터보조번역 도구를 번역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EU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부 역시 다양한 컴퓨터보조번역 도구와 'Euramis'를 활용하여 용어 및 문체의 일관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dT는 2013년 현재 컴퓨터보조번역 도구로 'SDL Trados 2007'을 사용하고 있으며 번역지원부서 내 번역기술지원섹션(LTS)이 번역메모리의 준비, 유지보수, 관리 작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고객의 출발텍스트 수정으로 인한 추가번역 등으로 번역메모리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번역 업무흐름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번역메모리를 번역사와 공유한다.

4.2.8.4 웹 콘텐츠 관리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유럽 내 각종 기관과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기관별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DGT는 웹 콘텐츠의 번역 및 출발텍스트편집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인 웹번역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웹번역부서는 웹 콘텐츠에 적합한 어역, 형식, 처리 도구를 활용하여 부서별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게재되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 내 각종 총국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웹번역부서는 웹 콘텐츠 관련 도구를 개발하고 부서별 홈페이지 설계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4.3 개별 기관별 연구 보고 II: 캐나다 번역국(Bureau de la Traduction)

4.3.1. 캐나다에서의 공공번역의 수요 및 관련 정책

캐나다는 헌법에서 두 개의 공용어를 인정하고 있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국가이다. 현재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복수공식어정책으로 인해 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모두 영어와 프랑스어로 기록 보관하는 것은 물론 모든 법안, 자료, 법령, 규칙 등 공공문서들도 영어와 프랑스어의 양 언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가 차원의 공공번역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적 특수성으로 인해 캐나다는 번역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번역시장도 세분화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총 800여 개의 번역업체, 500여개의 언어학교, 100여개의 언어 관련 연구기관 및 업체가 언어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언어산업종사자 총 30,000명 가운데 절반은 번역사, 통역사, 전문용어전문가이다.

4.3.2 기구 연혁 및 구조

캐나다에서 공공번역을 담당하는 기구는 캐나다 번역국(Bureau de la Traduction, 이하 'BT')이며, 캐나다 국민이 영어와 프랑스어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공식어로 자유롭게 정부 문서에 접근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캐나다 정부 운영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1934년에 탄생한 연방기관이다.

BT의 본부는 캐나다 가티노(Gatineau)에 위치하며,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BT의 주요 클라이언트는 상원 및 하원으로 이루어지는 캐나다 의회, 캐나다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이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캐나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민간기구나 업체의 경우에도 캐나다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BT에 번역 서비스나 언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4.3.2.1 인력풀

BT는 총 1,8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1,200명은 번역사, 통역사, 전문용어전문가이다. BT의 직원은 모두 언어학 전공자들이며 권위 있는 시험의 집필자, 감수자, 교정자이기도 하다. 직원 중 일부는 법률, 컴퓨터, 기술 및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주제 분야 전문가이다.

BT는 상근번역사 이외에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아웃소싱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다. BT에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프리랜서, 통·번역 에이전시, 기업의 경우, BT 사이트에 언어 서비스 공급업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BT의 언어 서비스 공급업체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퀘벡 주 인증 번역사 · 전문용어전문가 · 통역사 협회(Ordre des traducteurs, terminologues et interprètes agréés du Québec, OTTIAQ) 등재회원이거나, 혹은 캐나다 번역사 · 전문용어전문가 · 통역사 위원회(Canadian Translators, Terminologists and Interpreters Council, CTTIC)에 가입된 지역의 전문가협회 또는 전국 전문가협회 등재회원이어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도착어 관련 대학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영 제출하여야 한다.
[3] 개인의 경우, 출발어와 도착어로 샘플 번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력서 및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5] 캐나다 번역국의 서류 심사 후, 합격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6]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 번역사를 적어도 한 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기업은 리스트에 가입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캐나다 소득관리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서 발급하는 업체 번호(Business number, BN)나 조달사업체 번호(Procurement business number, PBN)를 발급받아야 한다.

4.3.3 조직 및 부서별 업무

캐나다 번역국은 다음 총 5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1] 전문용어 표준화 부(Terminology Standardization Directorate)
[2] 통역 및 의회 번역 부(Interpretation and Parliamentary Translation)
[3] 고객 서비스 부(Client Services Sector)
[4] 통합서비스 부(Corporate Services)
[6] 전문서비스 부(Professional Services)

이들 부서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3.1 전문용어 표준화부(Terminology Standardization Directorate)

전문용어 표준화부의 주요 업무는 캐나다 정부의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영어와 프랑스어의 양 공식어로 통일하고 표준화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주로 전문용어전문가와 언어전문가들이 근무하는 부서이다.

전문용어 표준화부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전문용어 및 언어 데이터 뱅크인 '테르미넘 플러스(TERMIUM Plus®)'를 구축 확장하고 배포 제공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들의

전문용어 및 언어 관련 요청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도구 개발이나 '캐나다 언어 포털 사이트(Portail linguistique du Canada)' 콘텐츠 관리도 담당한다.

캐나다 언어 포털 사이트는 언어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온라인 언어 도구 및 문서 작성 도움말과 기사, 언어 숙련 연습 및 관련 게임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대학에서 제작한 언어 콘텐츠와 문서 작성 도구, 언어 전문가들이 작성한 기사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캐나다 언어 포털 사이트에 개재되는 기사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포함하는 100여 개의 다양한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전문용어 표준화부의 주요 업무는 전문용어 관련 업무와 언어 관련 업무로 나뉜다. 전문용어 관련 업무는 전문용어전문가들이 전문용어 관련 검색을 통해 영어와 프랑스어로 테르미넘 플러스를 수정· 보완하고 확대하는 일이 주 업무로,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제분야에 가장 적합한 용어가 무엇인지를 조언해주거나 특수 전문용어 및 표현을 준비하고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한다.

전문용어 표준화부에는 다언어 팀이 있어 테르미넘 플러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누크티투트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전문용어 관리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용어 표준화와 관련해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언어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문용어 표준화부 언어 전문가들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기사를 작성해서 캐나다 언어 포털 사이트에 업데이트한다. 뿐만 아니라 BT에서 발간하는 권고안과 주의사항을 작성하는 것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부 언어 전문가들의 몫이다.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법적, 문체적, 용례적 어려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도 전문용어 표준화부의 업무이다.

4.3.3.2 통역 및 의회 번역부(Interpretation and Parliamentary Translation)

통역 및 의회 번역부는 번역사, 통역사, 행정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통역사는 총 70명 정도가 상근하는데, 캐나다의 공식어로만 통역 업무를 진행하는 인력이 대부분이지만, 이 중 일부는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전문가이기도 하다. 통역 및 의회 번역부의 통역사들은 대부분 캐나다 수도에서 근무하지만 때로는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한다. 통역사들은 의회 통역, 또는 캐나다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회의의 통역을 담당한다.

통역 및 의회 번역부에 근무하는 번역사는 총 150명으로, 상원과 하원의 토론, 의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토의내용 및 보고서, 의회 도서관 검색 자료, 상·하원 의원의 업무 자료, 의회 사무국에서 작성한 자료 등을 번역한다.

통역 및 의회 번역부의 주요업무는 의회와 연방 행정부에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회와 정부 기관에 공식어, 원주민 언어, 외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대상은 주로 하원과 상원, 의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기자 회견, 의회 관련 업무이다. 번역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 상원 위원회, 상원위원 및 하원위원 사무실, 상원 및 하원의 행정 서비스,

상원 도서관, 분쟁 위원회, 윤리 위원회 등에서 작성된 자료의 번역과 감수를 담당한다. 하원의 회기 중에는 회의내용을 영어와 프랑스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담당한다.

4.3.3.3 고객 서비스부(Client Services Sector)

고객 서비스부는 BT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BT의 서비스와 제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고객과 BT 직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조율하거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또 BT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고객들에게 BT 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비용과 청구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관리, 판매 등 다양한 업무 분야를 커버한다.

4.3.3.4 전문 서비스부(Professional Services)

전문 서비스부는 캐나다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공식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부 활동 분야에서 요구되는 번역 및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1,400명의 전문가가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1,000명은 기밀자료까지 열람이 가능한 높은 보안 수준의 정예요원들이다. 캐나다 연방 행정 활동의 다양한 분야의 서류를 캐나다 공식어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도 다룬다.

전문 서비스부에서는 번역 및 언어 서비스를 공식어, 원주민 언어, 외국어로 제공하며, 긴급 번역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많은 분량의 번역 업무를 관리하고, 번역사를 클라이언트 업체 및 기관에 파견하기도 한다.

4.3.3.5 통합 서비스부(Corporate Services)

통합서비스부는 BT의 효율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BT의 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가격 대비 우수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BT의 여타 부서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기술, 보안, 금전 관리, 전략 플래닝, 정책 분석, 시설 관리, 시장 및 재고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우수한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해 의회와 캐나다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3.4 주요 업무

캐나다 번역국의 주요 업무는 (1) 캐나다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 번역서비스 (2) 의회 번역 서비스 (3) 통역 서비스 (4) 다국어 서비스 (5) 용어 표준화 서비스 (7) 교

육 및 평가 서비스 등이다. 이 가운데 번역 관련 업무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4.1 캐나다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 번역 서비스

BT는 다양한 언어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밀문서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등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정부 부처와 주요 국가 기관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근번역사들이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데 경제 및 법률, 환경 및 생물, 토목 및 전기 기계, 산업, 컴퓨터, 의학 기술, 인문학 등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보유한 언어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4.3.4.2 의회 번역 서비스

BT는 연방의회, 지방 의회, 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상원 및 하원의원 의원실, 의회 도서관, 의회 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의뢰하는 자료 번역 및 감수를 담당한다. 그 대상은 주로 회의 의사록, 의회 의원 발의안, 공식어로 의회에서 발표할 연설문 요약(약 1000단어), 공문 등으로, 개인 업무에 필요한 초청장이나 정당 가입 요청서 등은 번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회의 의사록은 회의 당일날 저녁에 번역에 착수해서 24시간 내에 인터넷 버전과 페이퍼 버전 번역물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의원들에게 다음 날 아침에 전달한다.

4.3.4.3 다국어 서비스

BT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번역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번역, 번역 및 감수, 이중 언어 텍스트 번역, 번역 및 수정, 번안 및 요약 번역 등이 있다.

4.3.5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캐나다 번역국에서 번역결과물의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제공하는 감수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서 작성 감수(원본 감수)
[2] 문서 작성 감수 및 번역
[3] 번역 감수(원본과 번역본 비교 감수)
[4] 이중언어 텍스트 감수
[5] 이중언어 텍스트 감수 및 번역
[6] 전문가 평가
[7] 수정

BT는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해 번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번역사 교육 프로그램은 희망자에 한해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 번역 관련 세미나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번역 평가 서비스는 특정 번역텍스트, 한 명의 번역사가 번역한 여러 가지 번역텍스트, 혹은 동일한 번역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한 번역 시리즈 등을 대상으로 번역의 장단점을 자세히 분석평가 한다. 평가 후 제공하는 수정 권고안에는 항상 판단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많은 분량의 텍스트가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BT에 번역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1) 번역사의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2) 클라이언트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 3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3) 번역결과물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등이다.

평가 비용은 케이스별로 상이하므로 번역 교육 및 평가 서비스 담당부서에 별도로 의뢰해야 한다.

4.3.6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캐나다 번역국에서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하여 제공하는 전문용어 관련 서비스 내용은 (1) 전문용어 표준화 (2) 전문용어집 작성 (3)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전문용어집 감수 (4) 클라이언트의 전문용어 DB 저장, 관리, 유포 등이다.

전문용어 표준화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개의 공용어로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용어집을 작성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홍보한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일반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용어 표준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4.3.6.1 TERMIUM Plus®

세계 최대 전문용어 및 언어 DB인 '테르미눔 플러스'는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언어 어플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이용 가능하다. 2012년 가을에 첫 선을 보인 이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애플과 블랙베리 기종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안드로이드폰으로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 DB 어플은 온라인 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noslangues.gc.ca/ app-mobile.'로 문의할 수 있다.

4.3.6.2 문서 작성 도우미(Outils d'aide à la rédaction)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에 대해 문체 혹은 언어 용법 관련 각종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시해주는 캐나다 번역국의 언어 및 전문용어 DB 및 간행물.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Chroniques de langue
캐나다 번역국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잡지에서 언어의 변천사에 대한 기사를 발췌하여 소개하는 소식지
[2] Clefs du français pratique
프랑스어 문법, 통사, 용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제시.
[3] ConjugArt
8000개의 프랑스어 동사에 대해 동사변형 제시

[4] Dictionnaire des cooccurrences
공기어(共起語)관련 정보 제공
[5] Juridictionnaire
법언어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도구
[6] Le Bellerive: Didacticiel sur les principales conventions typographiques françaises
문장 부호, 숫자 표기, 이탤릭체 및 대문자 사용 등 언어 규칙 관련 소프트웨어로, 개발자인 Robert Bellerive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7] Le guide du rédacteur
일치 관련 규칙, 명료하고 심플한 언어의 원칙, 인용 관련 규칙 등 다양한 언어 규칙을 제공하는 자료이며 영어 버전의 이름은 Canadian Style이다.
[8] Le Rouleau des prépositions
프랑스어 전치사 관련 자료. Maurice Rouleau 제작.
[9] Les mots du droit (Nouveau)
텍스트 맥락을 고려하여 영어 법률 용어에 대한 프랑스어 등가어를 제시하는 자료. Louis Beaudoin가 제작하였으며, 프랑스어의 등가어만 제시.
[10] Lexique analogique
유행어 등 번역하기 어려운 영어 단어에 대해 프랑스어 등가어를 제시하는 자료로 Jacques Dubé 제작.
[11] Favourite Articles
영어 용례 및 문체 등을 소개하는 자료. 번역 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영어 사용 시 어려움 등을 소개하고 있음. 영어로 글을 쓸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비하게 도와주는 자료.
[12] HyperGrammar2
영어 문법지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대문자 사용 규칙 철자법, 문장부호 등 소개.
[13] Peck's English Pointers
영어로 문서 작성 시 틀릴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 문법, 철자법, 용례 등.

France Peck 제작.

[14] The Canadian Style
숫자 표기, 요약어, 쉼표, 지리명, 일부 사용법이 까다로운 단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신, 보고서, 참고문헌 및 참고 작성 요령 소개.

[15] Word Tailoring
프랑스어에 대한 영어 등가 표현 제시. 맥락에 따라 가장 적절한 번역 가능하게 도와줌.

[16] Writing Tips
문법, 문체, 용례에 대한 해결책 제시. 영어만 제공.

4.3.7. 기타 참고 사항

BT는 긴급 상황 시 업무 시간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중에 근무 시간이 지난 뒤나 주말 혹은 공휴일에도 응급 번호(1-855-997-3300)를 이용하면 BT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4.4. 개별 기관별 연구 보고 III: 호주 NAATI

4.4.1. 호주 내에서의 공공번역의 수요 및 관련 정책

영어가 국어인 호주에서는 한국과 같이 해외 각국 및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위한 공공번역 수요는 크지 않고, 공공번역보다는 민간번역의 수요가 더욱 높다고 하겠다. 다만 이민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이민자들을 배려한 다양한 언어 통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호주 전국 통번역사 자격인증기관(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이하 'NAATI')'이라는 공공기관이 생겨나게 되었다.

4.4.1.1. 통번역사의 선발과 인증 관리를 통한 번역 수준 관리

호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 혹은 이민자 지원 차원의 번역 업무에 대해 정부는 직접 개입하는 대신 자격 있는 통번역사의 선발과 인증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격 있는 통번역사를 관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번역실무나 번역결과물 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접근법이다.

NAATI는 호주 유일의 자격인증 기관으로 호주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려면 누구나 이 기관의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NAATI가 채택한 통번역사 자격인증 방식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1] NAATI에서 실시하는 검정 시험에 합격하는 것
[2] NAATI가 인정하는 호주의 통번역 교육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는 것
[3] 해외 통번역 교육 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
[4] 검증된 국제 통번역 전문가 단체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것
[5] 통번역 분야의 출중한 경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자격인증은 통번역사를 위한 것인데 여기 더해 NAATI는 '기초능력 인증'과 '언어보조'라는 두 종류의 외국어 능력 인정을 더 두고 있다. '기초능력 인증'은 NAATI에서 인증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언어에 한해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언어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정하지 않는다. '언어보조'는 통번역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중언어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외국어 능력 인증은 NAATI가 모든 언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통번역사 자격을 인증받은 인력이 없는 상황에 기초능력자라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파악된다.

4.4.1.2. 공공번역 전담 국가기구 대신 NAATI를 활용하게 된 배경

앞서 언급한 대로 NAATI는 직접적으로 번역 실무를 담당하거나 번역결과물 수준을 관리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번역사 자격을 인증하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이민자들의 출신국가 언어를 포괄하는 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 또한 중요한 점이다. 2012년 6월 현재 NAATI의 상근 고용인원은 총 37명에 불과하다. 이사회 인원 5명을 제외하면 모두 32명이 호주 전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8개 지역 사무소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안마다 전문가 필요인력의 도움을 받는 체제로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4.4.2. 기구 연혁

NAATI는 1977년에 설립되었는데, 호주 이민부 산하 기관으로 출발했다가 2001년 이후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형태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호주 정부의 회계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2010년 7월에서 2011년 6월까지의 일년 간의 회계 수입을 보면 정부 재정지원이 53.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수입은 자격인증시험 실시 수입, 시험 준비 자료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NAATI가 표방하는 사명은 호주의 통번역 국가기준을 설정, 유지, 향상시키는 한편, 다양한 문화-언어 공동체인 호주의 인구구성 및 수요 변화에 맞춰 자격을 인증받은 우수한 통번역사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NAATI의 구체적인 기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호주의 통번역 국가 기준을 설정, 유지, 향상

[2] 수요 변화에 맞춰 자격인증 체계를 유지, 보완

[3] 호주 사회가 자격 갖춘 통번역사의 가치와 올바른 활용을 인식하도록 교육

[4] 공인된 외부 기관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인증 과정을 확립

[5] 자격인증을 받은 통번역사들에게 인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6] 통번역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4.4.3 조직도

NAATI의 조직도가 <그림 14>에 나와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9개 지방정부의 다문화 및 이민정착 관련 부처 장관들이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고, 이들 부처에서 대표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조율한다.

다음 단계를 점하고 있는 것이 NAATI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의장 1인, 최고경영자 1인, 이사 3인으로 구성되는데, 실제 기업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은 최고경영자가 맡는다. 최고경영자 아래에 '자격평가자문위원회'(Qualifications Assessment Advisory Committee), '전문가 자문 그룹'(Professional Reference Group), '지역 자문 위원회'(Regional Advisory Committees)가 위치해 자문과 조언을 맡게 된다. 이들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4.4.3.1 자격평가자문위원회

평가 기준 설정, 실제 평가, 교육기관 인증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 학문적 자문을 담당하는데, 교육 및 실무담당 인력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통번역 교육 기관 인정

[2] 통번역 교육 기관 인정을 위한 NAATI 가이드라인 설정과 검토

[3] 해외 자격인증 제도 평가

[4] 상위 수준 자격인증 평가

[5] 다양한 수준의 자격인증 기준 개발

[6] 이의 신청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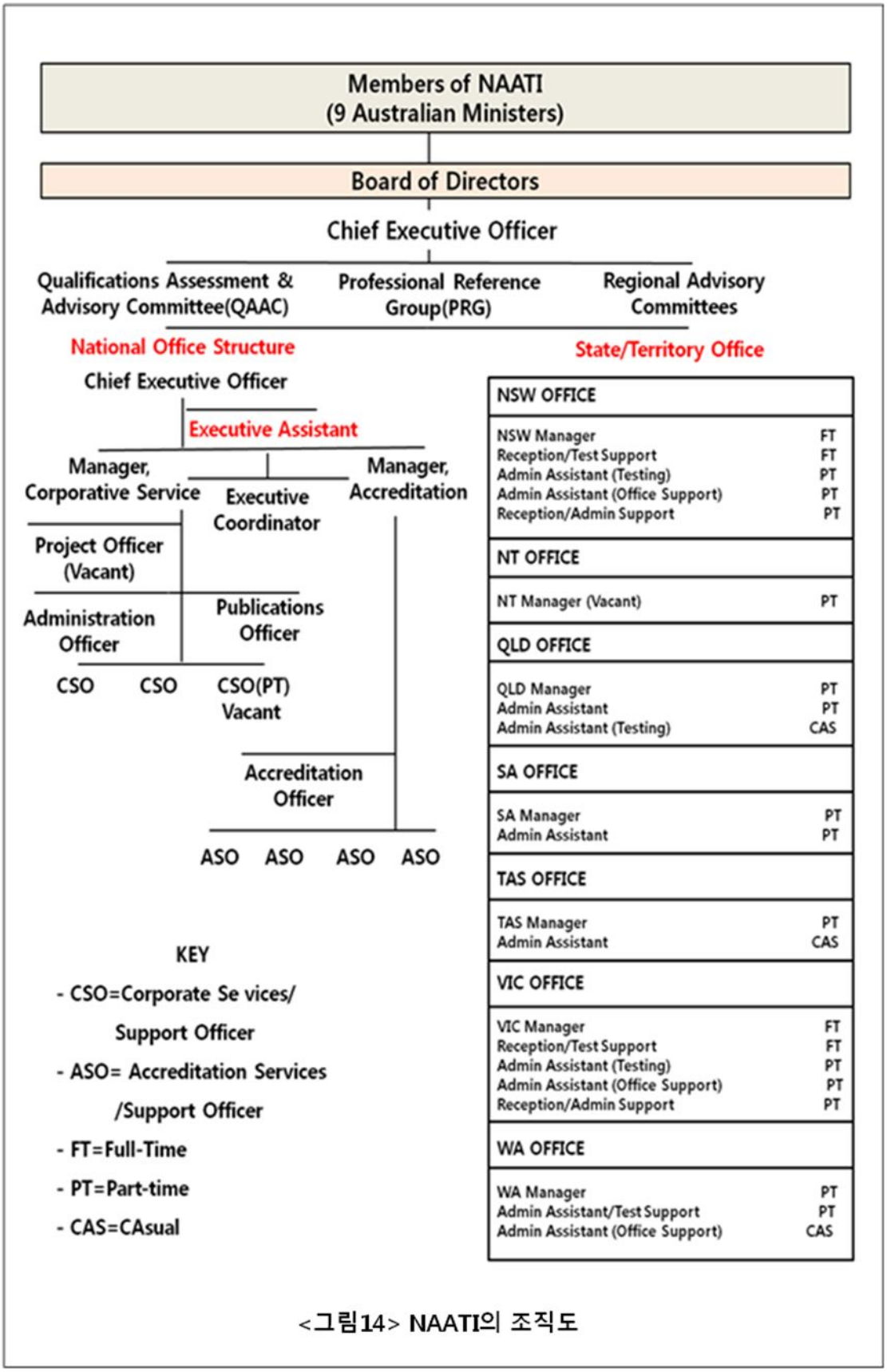
[7] 자격인증과 평가 관련 정책 개발

[8] 자격인증과 평가 관련 사후 검토

[9] 통번역 직업 기준과 관련된 정책 이슈 검토

4.4.3.2 전문가 자문 그룹

2012년에 신설된 조직으로 평가자문위원회 및 지역 자문위원회의 자문활동을 보완하고 정교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통번역 서비스 업체 대표, 통번역사,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14> NAATI의 조직도

[1] 자격인증과 평가 관련 정책 개발
[2] 자격인증과 평가 관련 사후 검토 참여
[3] 통번역 직업 기준과 관련된 정책 이슈 검토
[4] 통번역 직업의 실제적 중요성과 관련된 구체적 의사결정
[5] 통번역 실무 담당자의 의견 수렴 및 검토
[6] NAATI 미래 의사결정에 대한 통번역 실무자 의견 수렴
[7] 통번역 실무진과의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4.4.3.3 지역 자문 위원회

호주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 마련된 위원회로, 지역사무소 별로 7-19명 규모이다. 지역의 의견과 목소리를 시드니에 소재한 전국사무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역의 통번역 수요, 실무 기준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
[2] 정책 개선 변화에 대한 자문
[3] NAATI 자격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
[4] 통번역 실무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교환
[5] 산업계와의 정기 자문 수행NAATI

NAATI의 실제 업무 수행 조직은 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시드니 전국사무소와 지역 사무소로 나뉜다. 시드니 전국사무소는 통합서비스 팀과 자격인증 팀으로 구성되는데 통합서비스 팀은 프로젝트 진행, 관리 업무, 출판을 맡고, 자격인증 팀은 자격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지역 사무소는 총 일곱 곳으로 호주 행정구역마다 마련되어 있다. NAATI 지역 사무소의 목록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표 12> NAATI 지역사무소 설치 현황

NAATI 지역 사무소	사무소 소재 도시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
노던 테리토리	다윈
퀸즐랜드	브리즈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태즈메이니아	호바트
빅토리아	멜버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트 리더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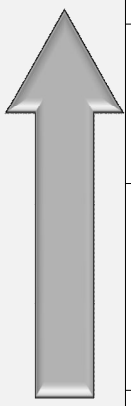
지역 사무소들은 국가 사무소와 협력하여 자격인증시험 실시, NAATI 공인 통번역 교육 기관 심사, 지역별 통번역 인력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4.4.4. 업무 흐름

4.4.4.1. NAATI 자격인증시험

NAATI의 자격인증시험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응시자 신청 규모에 따라 실시된다. 시험은 통역과 번역이 구분되고 통역과 번역에 대해 다시 각각 네 등급으로 구분한다. 통역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준 통역사부터 직업 통역사와 회의 통역사를 거쳐 최고 등급인 상급 회의 통역사에 이른다. 번역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준 번역사에서 직업 번역사와 상급 번역사에 이어 상급 최고 번역사에 이르는 구조이다. 각 등급 별로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고, 자격인증 후 가능한 실무 영역이 정해진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NAATI의 통번역사 자격인증 위계 구조

구분	통역	번역	설명
	상급 회의통역사 Conference Interpreter (Senior)	상급 최고 번역사 Advanced Translator (Senior)	NAATI 자격인증의 최고 단계. 풍부한 경력과 리더십 필요함.
	회의통역사 Conference Interpreter	상급 번역사 Advanced Translator	복잡하고 기술적인 통번역을 할 수 있는 수준. 경력 필요함. 통역의 경우 순차와 동시 모두 가능함
	직업 통역사 Professional Interpreter	직업 번역사 Professional Translator	준 전문 상황(금융, 법률, 의료, 사회 서비스 등)에서 통번역을 할 수 있는 최저 등급. 통역의 경우 순차 통역이 가능함.
	준 통역사 Paraprofessional Interpreter	준 번역사 Paraprofessional Translator	전문 분야 아닌 일반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통번역 가능한 수준

상위 등급을 인정받는 경우는 소수이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회의통역사 2인, 상급 회의통역사 1인만이 자격을 인증 받았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상급 번역사 자격을 인증 받은 사람도 1인에 불과하다. 반면 '기초능력 인증'과 '언어보조'라는 외국어 능력 인증을 받은 경우는 많은 편이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4개 언어에서 '기초능력 인증'을 받은 사람이 90명, 7개 언어에서

언어보조능력을 인증 받은 사람이 23명이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26개 언어에서 70명이 기초능력 인증을, 5개 언어에서 일곱 명이 언어보조 능력을 인증 받았다.

지금까지 NAATI의 인증을 받은 전체 번역사들의 누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홈페이지(https://www.naati.com.au/online)에 연락처가 공개된 전문 번역사 등급 이상의 번역사 수가 한국어의 경우 40여명, 러시아어의 경우 58명이라는 점을 보면 언어별로 수백 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증시험응시자의 통번역 능력 심사는 평가단이 하게 되는데, 이 평가단은 지역별, 언어별로 구성되며 해당 언어의 시험 실시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12년 6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평가단은 2012개에 달했다. 평가단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한중일 세 언어를 포함하여 무려 115개에 달하는 검정 대상 언어, 시드니 전국사무소를 포함하는 8개의 시험 지역, 4 단계의 통번역사 자격 등급과 두 단계의 외국어 능력 인증 시험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시험 방식은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번역을 예로 들어보면 번역언어별로 양쪽 방향의 번역시험을 모두 보는지, 전문분야의 한 방향 시험만 보는지, 지문 몇 개를 번역하는지, 합격선 점수가 몇 점인지 등이 단계별로 다르다. 또한 번역시험 외에 통번역사의 윤리에 관한 시험도 치르도록 되어 있다.

매년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연간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NAATI의 자격인증 시험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1857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3147회 실시되었다. 시험은 지역별로 치러지는데 <표 ???>에 따르면 두 해 모두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의 시험 실시 횟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빅토리아 주, 퀸즐랜드 순이다.

<표 14> NAATI의 지역별 연간 자격인증 시험 실시 회수

	2010.07-2011.06	2011.07-2012.06
호주 캐피털 테리토리	75	137
뉴사우스웨일즈	603	1108
노던 테리토리	53	39
퀸즐랜드	280	439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36	194
태즈메이니아	6	29
빅토리아	565	980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39	221
	1857회	314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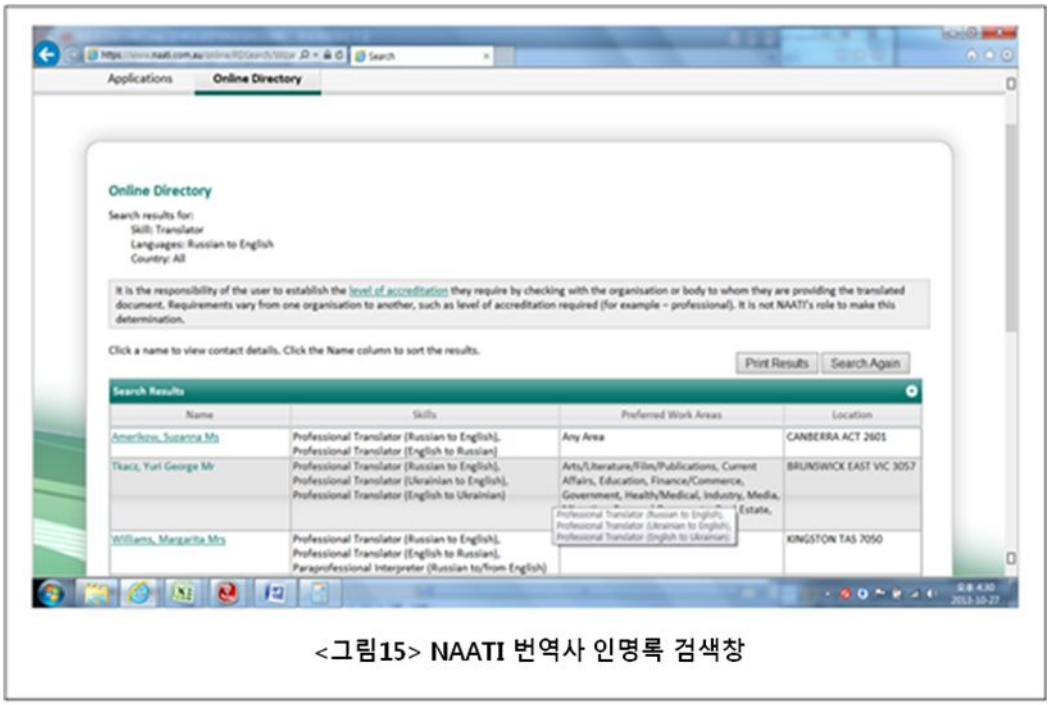
4.4.4.2 NAATI 자격인증의 채널

NAATI는 자격인증시험을 비롯한 다섯 가지 인증 경로를 통해 매년 새로운 번역사들을 번역사 인력풀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111개 언어 1468명,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485명이 통번역사 자격인증을 받았다. <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격인증시험을 통해 인증 받는 경우보다 NAATI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자격인증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자격인증시험의 비중이 28%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다시 말해 자격인증의 경로가 충분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표 15> NAATI 자격인증의 채널 별 인증 번역사 현황

	2010.07-2011.06	2011.07-2012.06
자격인증시험	440명	703명
해외 자격인증	43명	38명
NAATI가 인정하는 교육 기관 졸업	985명	1744명
	1468명	2485명



<그림15> NAATI 번역사 인명록 검색창

4.4.4.3 NAATI 인증 번역사 인명록의 활용

번역 수요자가 인증 번역사를 찾는 과정은 무척 편리하다. 앞에서 소개한 NAATI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번역사 인명록을 검색할 수 있는데, 원하는 언어서비스가 번역인지, 통역인지, 출발어와 도착어는 각각 무엇인지,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순차적으로 선택 입력하면 <그림 15>와 같은 번역사 인명록 창이 뜬다. 여기에서 원하는 번역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직접 연락할 수 있다.

4.4.5 번역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NAATI는 번역수준 관리를 위해 자격인증시험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험 뿐 아니라 인증된 교육기관을 졸업함으로써 자격인증을 받는 번역사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인증 교육기관에 대한 재심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현재 호주 내 통번역 교육기관 중에서 NAATI의 인정을 받은 곳은 34 곳이다. 뉴사우스웨일즈가 열다섯 곳으로 가장 많고 퀸즐랜드와 빅토리아에 각각 8 곳이 있는데, 인증 교육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도 3 곳에 달한다. 매년 심사를 통해 새로운 교육기관을 인증하거나 기존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전체 인증 교육기관의 총 수는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한다. NAATI가 중점을 두는 또 하나의 제도적 노력은 끊임없이 인증대상언어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가능케 하려는 목적인데, 현재 115개 언어를 대상으로 인증을 제공하고 있고, 새로운 소수-희귀 언어들을 계속적으로 인증대상언어로 추가해가고 있다.

4.4.6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노력

호주 정부 차원에서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번역과정이나 결과물을 관리하기 보다는 번역사의 자격을 공식 인증하는 간접적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전문용어 표준화 또한 자격 갖춘 번역사의 영역으로 맡겨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4.5. 개별 기관별 연구 보고 IV: 중화인민공화국

4.5.1. 중국에서의 공공번역 수요 변화 및 관련 정책

개혁개방과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 번역 시장의 규모는 약 100억 위안(약 1조 8천억 원)로 추정되며, 작게는 운전면허증, 공증문서, 성적 증명서 등에서부터 크게는 관광소개자료, 국제회의, 중국 문화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일상 업무 수

행과 중국의 국제 위상 정립 과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 이외에 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1] 출발텍스트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출발텍스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번역 오류 문제

[2] 전문용어가 일관적이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거나 핵심 키워드를 부적절하게 번역하여 번역 수준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

[3] 번역텍스트가 도착어의 언어관습에도 맞고 도착어 독자들에게 매끄럽게 읽히는 번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의미 전달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이러한 번역의 문제들은 작게는 번역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였고, 크게는 정부와 기업의 업무에 어려움을 초래해오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번역에 관한 '**국가표준**'(GB/T19682-2005, GB/T19363.1 -2003)까지 제정하면서 번역 수준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오고 있다. 이 국가표준에는 일관성있는 전문용어 사용, 핵심 키워드의 정확한 번역,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한 규정 등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공번역 표준화 상황은 번역의 발전 속도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공공번역은 다양한 주제분야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일정 영역의 번역의 표준화만으로는 전반적인 번역수준을 최적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를 절감한 중국정부는 독일 등 선진서구국가들의 번역표준을 참고하여 법규를 업그레이드하였으며, 모든 번역 관련 서비스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지도해오고 있다. 또한 공공번역 표준화를 '기술표준', '관리표준', '업무표준'으로 분할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철학, 언어학, 미학, 심리학, 사회과학, 공학, 인문과학 등 다양한 주제분야의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전문용어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공공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은 **중국 민족어문번역국**과 **국가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국가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전문용어를 **중국 표준화 용어 데이터베이스**(中国规范术语)로 정리하여 온라인 무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5.2 중국민족어문번역국(中国民族语文翻译局)

4.5.2.1. 기구 연혁

중국민족어문번역국은 1955년에 설립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직속의 공공기관이며 중국의 유일한 국가급 민족언어번역기구이다.

4.5.2.2 조직

중국민족어문번역국(中国民族语文翻译局)은 사무실(당위원회사무실), 업무처, 몽골

어문실, 티베트어문실, 위구르어문실, 카자흐어문실, 조선어문실, 이(彝)어문실, 장(壯)어문실, 연구실(민족어문번역연구소), 정보처, 인사처, 재무처, 이직 휴양 및 정년 퇴직 직원처, 총무처 등 부서로 구성된다.

중국민족어문번역국은 통번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통번역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 고급전문기술직함을 가진 직원이 60명이 되고 전문기술자가 전체 직원의 73%를 차지한다.

4.5.2.3 부서별 업무

우선 중국민족어문번역국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과 국가의 중요한 문헌, 법률법규 및 주요 회의와 관련된 민족어문 번역과 동시통역업무를 수행하며, 당과 국가 및 사회단체를 위한 민족어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민족어문 기초이론과 번역이론 및 특수 이슈에 대해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3] 민족어문의 신조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규범화 및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며 민족어문의 신조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다.

[4] 민족어문 정보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민족어문 정보화에 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주도한다.

[5] 민족어문 번역 단체 및 번역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족어문 번역과 관련된 교류와 교육을 추진한다.

[6] 국가민족위원회에서 위탁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번역국 업무처의 주요업무는 (1) 당과 국가의 중요한 문서 번역, (2) 번역업무의 관리, 프로젝트 관리, 추진현황 감독, 자료 수집 (3)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신조와 전문용어의 규범화, 표준화 연구 (4) 민족 지역의 용어 규범화 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민족어문 용어 심사 진행 (5) 민족지역의 번역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번역 용어에 대해 전문가 심의 추진 (6) 소수민족 언어문자 번역에 대한 자격인증 (7) 소수민족 언어문자와 관련된 교육과 민족언어 문자의 국내외 교류 추진 및 (8) 지방 민족어문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대표적이다.

4.5.2.4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국정부나 그 산하기관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실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및 조사를 통해 확보한 웹페이지 자료만으로는 번역수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해당 부처의 담당을 확인하여 국제전화를 통한 전화면담까지 실시하였으나, “대체로 고급번역가 직함을 가진 내부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감수 작업을 맡아서 진행한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4.2.2.5.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노력

중국민족어문번역국은 매년 몽골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카자흐어, 조선어, 이(彝)어, 장(壯)어의 7개 언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학자를 초청해 2박3일에 걸쳐 신조어 및 전문용어 표준화 회의를 진행한다.

중국민족어문번역국은 이런 연례회의에서 새로 채택할 신조어를 확정하는 한편 이들 신조어를 기본 7개 언어별로 어떻게 번역하여 사용할 것인지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신조어와 전문용어를 배포하면 모든 언론과 미디어가 표준화된 신조어와 전문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4.5.3 중국 국가과학기술용어위원회(全国科学技术名词审定委员会)

4.5.3.1 기구 연혁

1985년에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중국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여 과학기술용어를 심사하고 확정 반포하는 권위있는 기구이다. 1987년8월12일에 중국 국무원은 중국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반포한 용어는 권위와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 각 과학연구기구, 교육기관, 생산경영업체 및 언론출판사가 반드시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전문용어 표준화를 담당하는 이 기구에서 전문용어들을 국가적 권위와 구속력을 갖도록 채택하면, 이를 다시 중국민족어문번역국에서 기본 7개언어별로 번역대응어를 확정한다.

4.5.3.2 기구의 구성

중국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의 71개 세부 주제분야별로 전문용어 분과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 사무국이 각종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모두 108명의 유명한 학자, 전문가, 교수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5.3.3 주요 업무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과학기술용어 사업의 방향, 정책, 규정 및 계획을 수립

[2] 분야별 과학기술용어의 심사, 반포, 조율, 보급 및 활용

[3] 대만 및 한어권의 과학기술용어에 관한 교류, 협력 및 표준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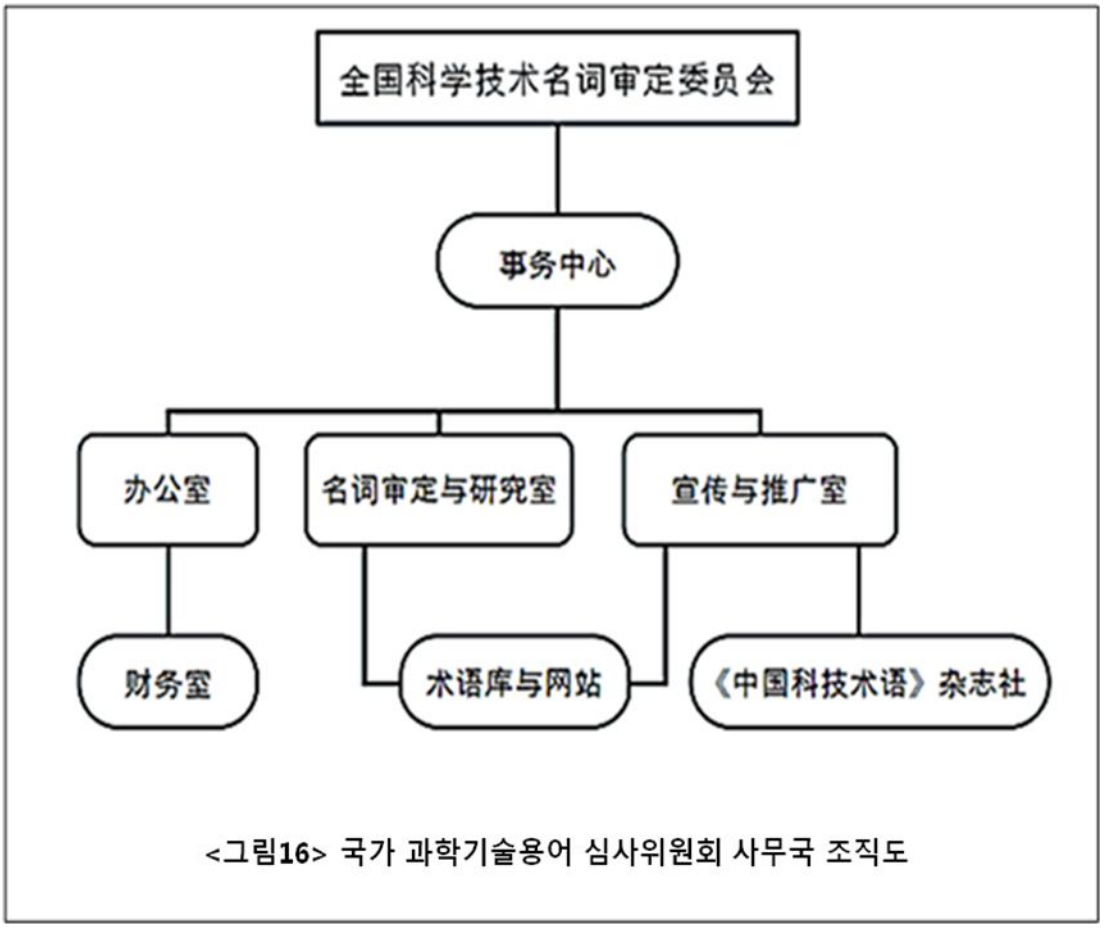
[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연구와 국내외 학술 교류 활동을 주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의 각종 결의의 집행

[2] 과학기술용어와 개념 정의에 대한 심사 및 반포

[3] 각 분과위원회 업무의 조율
[4] 대륙과 대만의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대조 및 연구
[5] 용어학 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주관
[6]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가 심사 반포한 과학기술용어를 정리하여 출판
[7] '중국 과학기술 용어' 저널을 발행
[8] 과학기술 표준화 용어를 보급
[9] 네트워크를 구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10]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



<그림16>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방치하지 않고 중국 본토와 대만에서 각기 사용하는 과학기술전문용어도 수집하여 비교하고 연구한 결과를 축적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항목에서도 이야기되겠지만 그 결과를 '대조본'으로 묶어 발간해오고 있다.

4.5.3.4 전문용어 표준화 노력 및 서비스

현재까지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는 총 71개의 분야별 분과심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3천여 명의 과학자가 전문용어 심사사업에 참여했다. 천문학, 물리학, 생물화학, 전자학, 농학, 의학 등 모두 75개 분야의 표준화 용어를 발표했고, 대륙과 대만의 과학기술용어를 대조한 '대조본'을 총 10종 발간하였으며, 오류가 많은 한자사용 현상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번체자본을 8개 분야에서 출판했다.

중국의 전문용어 표준화 노력을 집대성하여 대중적 사용이 가능하게 한 결과물이 바로 '**중국 규범(표준화) 용어 데이터베이스(中国规范术语)**'이다. 중국 규범용어 데이터베이스는 '**중국지식사이트(中国知网,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와 중국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국가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가 매년 반포한 용어 데이터가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온라인 무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국어와 영어 모두로 검색이 가능하다.

전문용어 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특이한 것이 1990년 6월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국과학기술원, 국가교육위원회 및 신문출판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3대원칙이다. 중국정부는 중국 과학기술용어 심사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해오고 있는데, 특히 이들 3대 기관은 과학기술용어 표준화를 위한 중국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3대원칙을 발표하고 이의 전 사회적 준수를 요구했다.

[1] 각 언론사가 대중매체를 통해 용어 표준화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며 이미 반포된 표준용어를 앞장서서 사용해야 한다.

[2] 향후 출판될 각 출판사의 서적, 문헌, 자료 등은 반드시 반포된 표준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 등과 같은 참고서는 반포된 표준용어의 사용 여부가 참고서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3] 향후 출판될 각종의 교과서에는 반드시 반포된 표준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중국 정부 차원의 지시와 지원에 힘입어 중국에서는 표준화된 전문용어의 보급과 활용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4.6. 개별 기관별 연구 보고 V: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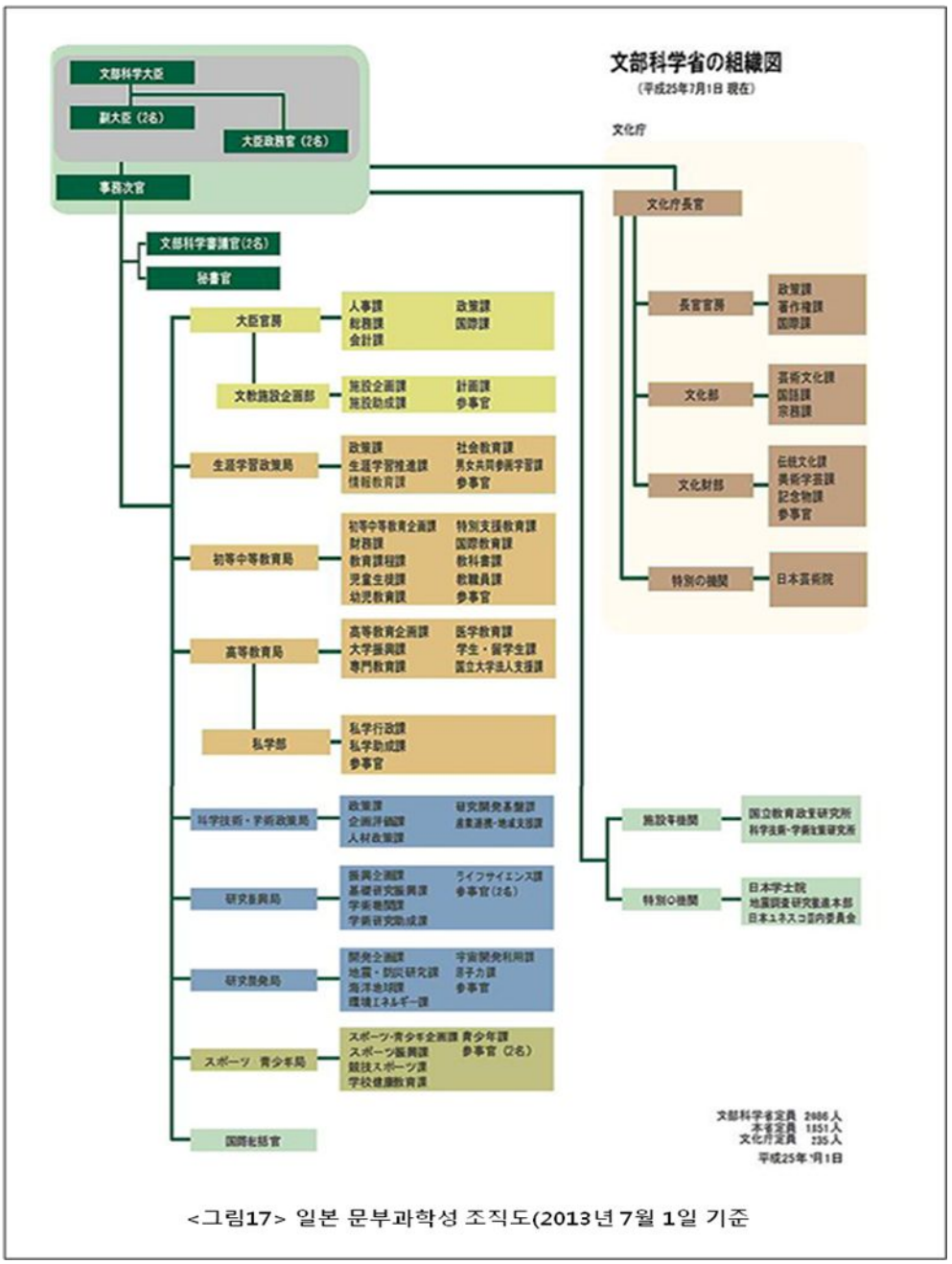
4.6.1 일본에서의 공공번역 수요 및 위상

일본의 경우, '공공번역'이라는 개념 하에 번역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일본의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www.yahoo.co.jp를 통해 '공공번역', '공공기관의 번역' '행정기관의 번역' '정부 예산에 의한 번역'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지만,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되는 공공번역 사례를 찾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번역업무'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방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통역·번역 업무를 외주(아웃소싱)한 자료가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산발적인 통역/번역 업무는 각 기관 및 부처별로 외주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본의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은 수 년 전부터 추진되어오고 있고,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및 연락을 위한 '연락회'를 조직하여 매년 번역해야 할 법령을 정하고 번역을 수행하도록 해오고 있는데, 주무부처는 '내각관방부'이다.

그러나 내각관광부나 여기서 진행하는 법령 번역 사업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 상으로 검색이 불가능하고, 추진 중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공공번역정책, 그 가운데 법령 번역사업 등에 대한 추진 주체 및 방법,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17> 일본 문부과학성 조직도(2013년 7월 1일 기준

4.6.2 전문용어 표준화 노력

4.6.2.1 문부과학성 학술용어집

일본의 경우 공공번역 사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전문용어 표준화 노력은 일찍부터 문부과학성이 주도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부과학성 과학기술ㆍ학술정책국 산하 '학술심의회'에서 전문학술용어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는데, 과거 6 개였던 과학기술학술 관련 심의회(해양개발심의회, 항공전자등 기술심의회, 자원조사회, 기술사심의회, 학술심의회, 측지학심의회)가 2001년의 개혁 과정에서 과학기술ㆍ학술심의회로 통합되었다.

문부과학성의 공개 인터넷 자료에 나타난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 30명 이내, 임기 2년(재임 가능)

[2] 연구계획ㆍ평가분과회, 자원조사분과회, 학술분과회, 해양개발분과회, 측지학분과회, 기술사분과회를 설치

[3] 각 위원회에 임시위원 및 전문위원을 둔다.

[4] 심의회 및 분과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부회를 설치.

이들 분과 위원회에서 전문학술용어집을 발간하는데, 각 분야별로 새로운 용어가 수입되거나 발생되어 용어집 추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쳐 용어의 번역을 포함하여 용어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문부과학성의 학술심의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학술용어가 수록된 '학술용어집'은 독립행정법인인 '일본학술진흥회'가 간행하고 있고, 저작권은 문부과학성 단독 소유이거나, 두 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4.6.2.2 표준화 필요성의 인식 및 대처

일본에서 전문학술용어 표준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로, 당시 서양어(영어 등)의 번역어로 만들어진 신조어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후 패전 직후부터 전문용어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문부성(현재의 문부과학성)이 1947년 2월, 당시 학술연구회의에 학술문헌조사특별위원회 학술용어제정과회를 설치하여 신학술용어제정을 위한 조사심의에 착수하였다. 이후, 1949년 7월 이후, 동 조사회는 문부성 학술장려심의회 학술용어분과심의회로 개칭되었다. 참고로 초창기(1955년) 심의회는 '국어심의회위원'을 회장으로 관련기관장 및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관련학회 및 단체의 전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각 학술분야별로 내용을 마련한 후, 문부성의 편집을 거쳐 '학술용어집'으로 간행하게 되었다.1954년 3월, 각 분야의 학술용어집이 발행되었다. 그 후, 기존의 '학술용어집'의 증보와 신분야의 '학술용어집'이 발행되고 있다. 문부성은 현재도 학술용어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마다 관련 부처 및 학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모든 학술용어집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일본어-영어 편', 2부는 '영어-

일본어 편'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으며, '참고' 편이 있는 책도 있다. 제1부인 '일-영편'에서는 하나의 학술용어에 대해 '로마자로 표현된 학술용어', '통상 일본어로 표현된 학술용어', '영어 원어 용어'가 기술되어 있고, 로마자의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제2부인 '영-일편'에서는 하나의 학술용어에 대해, '영어', '통상 일본어로 표현된 학술용어', '로마자로 표현된 학술용어'가 기술되어 있고, 영어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용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다.

<표 16> 학술용어집 발간 주제분야별 현황

주제분야별로 발간된 학술용어집 현황		
수학	물리학	동물학
토목공학	채광야금학	화학
기계공학	건축학	선박공학
화학(개정판)	식물학	전기공학
도서관학	논리학	기독교학
항공공학	계측공학	천문학
지진학	화학(증보판)	분광학
유전학	치학	지상학
원자력공학	전기공학	해양햑
지리학	지학	기계공학(증보판)
화학(증정2판)	심리학	농학
기상학(증정판)	동물학(증정판)	식물학(증정판)
건축학(증정판)	물리학(증정판)	토목공학(증정판)
전기공학(증정2판)	치학(증정판)	유전학(증정판)
천문학(증정판)	언어학	계측공학(증정판)
도서관정보학	분광학(증정판)	지진학(증정판)
약학	의학	

'문부성학술용어집'이라고도 불리는 이 '학술용어집'을 주제분야별로 표로 정리한 것이 <표 16>이다. 수학 등 28개 분야의 학술용어를 제정하였고, 그 중 동물학 등 9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초판 이후 개정작업까지 마무리되어 있다. 현재 새로이 학술용어를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학 등 4개 분야,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분야는 유전학 등 4개 분야이다.

4.7. 해외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현황 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해외 선진사례로서 EU, 캐나다, 호주, 중국의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모델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들 다양한 모델 가운데 어느 한 사례를 그대로 복사 적용해서는 우리의 공공번역 수준 및 수급 관리 표준화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 모델들은 그것이 나타나게 된 국가 사회를 배경으로 독특한 공공번역 수요 특성과 구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모델의 장단점과 특성 가운데 우리 사회의 공공번역 수요 구조에 부합되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한편, 이들을 통합 발전시켜 우리 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각 모델 별로 우리 식 모델 구축에 적용할 수 있거나, 이 과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4.7.1 해외 선진 모델 별 평가 및 시사점

4.7.1.1 중국 모델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이웃 중국의 모델부터 살펴보자. 중국 사례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전문용어 표준화와 번역의 초점은 중국어로의 번역 및 중국어로의 용어 표준화, 곧 '인바운드' 방향이 접근이 대종을 이룬다는 것이다.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사용인구[3]가 10억명이 넘고 세계최대규모 초국가기구인 유엔연합(UN)의 6대 공용어(official language)의 하나라는 현실적인 '언어의 힘'(language power)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의 번역, 곧 '아웃바운드' 방향의 접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 전세계 사용인구가 8천만 명 내외에 불과한 소수언어(minor language)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로 인해 우리의 공공번역의 경우 우리 문화콘텐츠의 해외 수출 및 확산을 위한 아웃바운드 번역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사례를 곧바로 우리 현실에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일찍부터 공공번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외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번역표준을 수립한 다음 이를 올바른 번역의 지침서로 활용해오고 있으며, 공공번역을 전담할 기구로 민족어문번역국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런 모습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국정철학 아래에서 새로운 정부조직이나 기구 창설을 기피하다보니 공공번역 전체를 관장하고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우리 현실에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행정집행능력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가 국민통합 및 국가발전 촉진 차원에서 전문용어 표준화를 실시해오고 있다는 점, 또 매년 전문용어가 표준화 확충 및 확정을 위한 연례회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결과를 신문 등 주요매스컴을 통해 발표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이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번역 표준화 및 수준 개선을 이끌어오고 있다는 점은 공공번역 및 공공용어의 일관성 부재로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욱이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대만 전문용어에 대한 지속적 대조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를 바라보며 양안적(兩岸的) 용어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분단국가로서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역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

3) 이는 학자에 따라 7개에서 많게는 13개의 지방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중국어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아니할 수 없다.

공공번역 수준 및 수급 관리, 그리고 다양한 주제분야에 대한 전문용어 표준화에 정부 관련기관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모델은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와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다양한 주제분야 및 민족어문에 걸친 공공번역에 대해 국가적 번역 표준을 도입하고 표준화된 전문용어를 반포하는 과정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표준화를 주도해왔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공공번역 표준화 분야의 후발주자일는지 모르나 보다 공격적인 국가주도형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7.1.2 캐나다 모델

캐나다 모델 역시 연방정부통합단일기구의 운영을 통해 공공번역 수준 및 수급 관리 표준화를 이룩한 경우이다. 국가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의 이중언어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구조적 번역 수요가 존재하는 사회 특성에 맞게 번역국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모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준별 번역사 관리 운영이다. 외주 번역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국(局) 내에서 활동하는 내주 상근 번역사들을 대상으로도 수준별 구분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 내 번역경험이 비교적 일천한 '신진 번역사', '상급자 감수가 필요한 번역사' '독립적 번역이 가능한 번역사' '감수자급 번역사' 등으로 세분하여 번역사 수준에 따른 업무 차별화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문번역기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번역사들에 대해서도 공공번역의 전반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캐나다 모델에서 중요한 또 다른 점은 민간분야 번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항상 주도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번역국은 공공번역 분야의 번역결과물 수준 관리를 위해 번역서비스를 자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번역 수준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局) 내에 번역교육 및 평가 서비스 부서를 운영하여 다양한 번역관련 세미나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번역 교육을 꾸준히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번역평가의뢰를 접수하여 해당 번역의 장단점을 자세히 분석 평가한 후, 판단근거와 함께 수정권고를 제공한다. 이때 번역평가 대상은 특정한 번역 결과물, 단일 번역사가 번역한 여러 가지 번역텍스트, 혹은 동일한 번역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한 번역 시리즈 등이 될 수 있고, 많은 분량의 텍스트가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전문용어집 작성은 물론, 고객이 작성한 전문용어집을 감수하는 한편, 고객의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관리 서비스도 제공해준다.

이렇게 공공번역의 수준 및 수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간분야 번역에 대해서도 번역수준 향상 및 번역사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번역 과정에서 구축되는 전문용어를 일반 대중에게 무료 배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고객이 자체 개발한 DB를 감수하고 관리해주는 일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4.7.1.3 오스트레일리아 모델

번역사 수준관리 차원에서 캐나다 모델보다 공격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호주식 모델이다. 영어가 공식어인 호주에서는 한국과 같이 해외 각국 및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위한 아웃바운드 공공번역의 수요는 크지 않다. 그러나 이민인구 비중이 높은 다민족 다언어 국가라는 특성상 이민자 배려 차원에서 이들 이민자가 사용하는 소수언어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통번역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호주국가통번역사인증기구('NAATI)를 운영하고 있다. 수준높은 번역의 수급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신 정부공인인증을 취득한 통번역사를 공급하는 호주의 방식은 번역 과정이나 번역결과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간접적인 접근법이다. 즉 공기업으로 하여금 번역사들에게 국가차원의 공식 자격인증을 제공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웹 기반 번역발주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번역사들을 중심으로 번역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접적 수준 관리 체계인 셈이다.

호주 모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우리 사회 전체에서 활동하는 번역사들이 생산해내는 전체 번역결과물에 대한 수준 평가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단 공공번역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번역사들만이라도 국가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번역사 및 전문 감수 평가자 풀을 구축하여 실제 공공번역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공공번역의 수준 관리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시행경험을 인증을 희망하는 전체 번역사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자발적 인증을 취득하는 번역사들이 향후 공공번역은 물론 향후 민간 번역분야에서도 활동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공 민간 부문을 가리지않고 인증을 취득한 번역사들이 활동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호주 모델의 경우 번역 서비스 제도화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삼아 접근한다는 것이다. 호주는 가능한 한 많은 언어를 대상으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115개 언어를 대상으로 인증을 제공하고 있고, 새로운 소수·희귀 언어들을 계속적으로 인증대상 언어로 추가해가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적 번역 수요가 큰 주요언어(main languages)들에 대해서만 번역사 인증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모든 인종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가능한 한 인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통번역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모델과 호주 모델이 함께 시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우 우선 공공번역을 담당할 단일 전문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이 기구 내적으로 전문번역인력을 확보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등급 부여 및 수준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이 경험과 기준을 바탕으로 전체 민간 부문에서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사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번역사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인증을 취득한 번역사들을 중심으로 번역수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번역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7.1.4 유럽연합의 복합 모델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모델이 유럽의 다양화된 번역접근 모델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집행위원회 번역총국(번역총국), 유럽연합 번역센터(번역센터), 유럽이사회 총사무국 번역서비스부 등 공공번역 담당기관을 여러 곳 운영하면서 역내

의 다양한 공공번역 수요를 충족시켜오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집행이사회 번역총국(번역총국)에서는 공공번역 집행을 위한 예산을 모두가 유럽연합정부에서 부담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시민의 권익과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률, 규정, 조례 등은 공공예산 범위내에서 무료 수급을 담당한다. 반면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영역의 번역은 유럽연합 번역센터(번역센터)에서 담당한다. 유럽연합의 예산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번역센터는 구체적 번역수요를 가진 번역발주기관의 발주를 소화하는데, '유럽공동체상표특허청(OHIM)'이 가장 큰 기관고객으로, 그밖에 특허, 신약 등록, 화학, 항공보안, 금융, 산업연금, 주식시장, 정치,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럽 내 기관고객을 대상으로 유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내 번역담당기구들은 서비스 대상 번역의 성격만 다를 뿐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해 모두 동일한 표준 및 절차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모두 내주 상근 번역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에서 열거한 3개 기구 모두 '유럽인재선발사무국'(European Personnel Selection Office[4])을 통해 번역사를 충원한다. 번역사 채용·선정 및 아웃소싱 뿐만 아니라 번역업무 수행 및 번역수준 평가 표준화를 위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번역과정의 효율성과 번역수준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전문용어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유럽연합 번역센터(번역센터)에서 주체적으로 관장하는 한편 다른 번역담당기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특성은 예산 집행 및 타 번역기관과의 공조 방식이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기존에 각 공공번역의 세부분야에서 번역수급을 담당해오고 있던 기관들의 업무영역과 예산집행권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번역을 전담할 단일전문전담기관에서 이들 기존의 번역관련 기관 모두와 협력하여 번역 및 표기 표준을 제정하고 포괄적 전문용어를 확정 확충 배포하는 한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 기관의 업무 영역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역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무료로 번역수급을 집행하는 대신,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번역결과물 평가 및 감수 서비스, 웹페이지 구축 자문 및 실제 번역, 주제분야별 용어 사전 제공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7.2 제 모델의 공통적 시사점

이상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양한 모델들은 각자 등장하게 된 국가 사회의 공공번역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하고 진화해왔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향후 공공번역 수준 및 수급 관리 표준화를 위한 모델 설정을 위한 공통적 시사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7.2.1 공공번역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처럼 다문화·다언어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오랜 시간에 걸

4) 이 사무국은 번역사 충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충원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쳐 형성된 EU에서는 공공기관 문서의 번역이 EU 전체의 업무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EU 시민들의 기본생활과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24개 공식어로 번역하는 것은 물론, 입법과정에서부터 번역사가 단순히 번역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텍스트에 내재된 논리적 오류 등도 찾아내어 수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공공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여 유럽 내 공공기관에서는 번역수급을 처리하고 번역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나 체계가 잘 잡혀져 있고, 해당기관별로 관련 업무흐름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번역업무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체계적 절차의 필요성을 양지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공공번역 분야는 공공번역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체계적 번역업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일원화된 번역업무 인터페이스의 도입, 번역메모리 및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출발텍스트 수정, 문서작성 지침 및 문서형식 조정을 통한 번역수준 개선, 번역사 채용 및 선정 과정의 표준화, 번역수준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기준 확립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 가운데 어느 것도 특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중복집행되거나 낭비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견된다.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공공번역 수준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번역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공공번역 전담기관이 발족되어 (1) 공공기관의 모든 번역 요청에 대해 접수에서부터 최종 번역결과물 납품, 사후 평가 및 클레임 처리까지의 전단계를 관리하는 일원화된 인터페이스 운영, (2) 번역대상 문서의 분석 및 전처리, (3) 번역업무 배정 및 전문용어 및 주제분야 참고자료 등 제공, (4) 번역결과물에 대한 전문평가 교정 및 감수, (5) 번역물의 후처리 및 납품, (6) 번역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공유 및 번역수준 평가, (7) 공공기관 문서의 한국어 출발텍스트 수정 및 외국어 출발텍스트 감수, (8) 번역메모리,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병렬 코퍼스 및 문서검색 도구, 문서작성 지침 등 번역 관련 도구의 유지관리, (9) 체계적 절차에 따른 상근번역사 채용 및 외주 번역사 선정 기준 마련 등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 문화콘텐츠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공공번역의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7.2.2 공공번역 전문 수급체계를 통한 전문성 제고

본 연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은 국내의 공공번역이 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별 또는 조직 내 수요부서별로 소수의 통번역사를 상근계약직 형태로 채용하여 번역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체계를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구나 부처에서 조직 내 번역수요를 최대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번역사 또는 번역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외주번역을 의뢰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번역수급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순환보직 및 배치 원칙에 따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충원되고 있는 점, 납품이 완료된 번역결과물에 대한 체계적 수준 평가 및 수정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등은 본 연구 시점 이전에 확인된 현실에서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업무흐름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업무는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여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번역 관련 업무절차, 번역사의 자격요건, 상근번역사 채용 및 외주번역사 선정 원칙, 번역수준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공문서의 번역을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참고자료 및 용어집 제공, 업무 관련 지식 공유, 안정적인 업무일정 확보, 번역수준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연구조사,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공공문서의 번역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표준화된 업무흐름의 도입, 체계적인 번역수준 관리 및 평가, 번역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기타 정보 공유, 번역일정의 효과적 관리 등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4.7.2.3 일원화된 인터페이스[5] 및 웹기반 공공번역 네트워크 운영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공공번역이 필요한 기관에서 직접 번역담당기관까지 방문하여 번역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인터넷 기반 번역수급관리 네트워크를 국가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번역수요가 있는 기관이나 실제 번역담당기관 모두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자원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런 웹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출발텍스트 문서에 대한 분석 및 전처리는 물론이고 번역업무 배정, 번역과정 관리, 번역물 교정, 번역물 후처리, 피드백 공유 등 번역업무와 관련된 전체 업무흐름이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되는 것이다.

또 공공번역 담당 기관 내적으로도 번역 의뢰인과 기관 내 번역 프로젝트 관리 담당부서, 상근번역사 및 외주 번역사, 교정 담당자, 기타 지원부서를 연결하는 일원화된 업무흐름 관리 인터페이스를 채택하고 있고, 고객서비스나 클레임 처리 등을 별도의 전문부서가 담당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공공기관의 경우 번역 업무흐름 관리에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번역대상 문서의 의뢰 및 전달, 번역물 납품, 전달이 모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발텍스트 문서와 번역본, 교정본, 참고자

5) '인터페이스'란 '특정 분야 혹은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구나 체계, 집단이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공동범주'를 가리키는 전문용어로, 여기서는 공공번역 수요 기관, 공공번역 공급자, 번역업무 배정, 번역 관련 전문지식 및 용어 자문 담당, 개별 번역과제별 서비스 수준 및 납기 결정 등과 같이 공공번역의 수요 접수에서부터 마지막 납품 단계까지 관여하게 되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 또는 채널을 가리킨다.

료 등의 관리가 일원화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서관리의 체계성이 떨어지며, 시스템이 아닌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담당자 교체 시 문서관리의 연속성이 크게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번역흐름 상의 각 행위자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처리에 난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번역 관련 업무흐름 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인터페이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업무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발텍스트 문서 및 번역물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번역 관련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모든 행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연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4.7.2.4 번역수준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

EU의 DGT와 CdT는 외주번역의 번역수준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번역이 필요한 문서유형별로 각각 요구되는 최종 번역수준을 달리하여 최종 문서로서의 완결성이 중요한 번역, 정확성만 담보할 수 있으면 약간의 어색한 표현 등은 수용되는 번역, 전체 문서를 모두 번역하지 않고 중요내용만을 잡아내어 요약식으로 신속하게 번역하는 것이 필요한 번역 등과 같이 기대번역수준을 정의하여 번역대상 문서의 분류에 활용하는 한편, 전반적 번역수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구체적인 번역오류 내역을 전산화된 평가도구로 표시하여 외주 번역사의 순위결정 및 추후 번역업무 배정에 반영한다. 상근번역사에 대해서는 외주 번역사에 준하는 수준 평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나, 번역수준에 대한 내부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어 채용 후 교육 및 멘토링, 번역사간 교차검토를 통해 상근번역사의 번역수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기관의 경우 번역수요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주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절차 없이 담당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외주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내주번역 및 외주번역에 대한 번역수준 평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번역수준에 대한 대응은 번역 오류로 인한 클레임 및 재번역 요청으로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보다 정확한 번역수준 평가를 통한 효과적 번역수준 관리를 위해서는 번역오류의 세부적 유형 및 가중치를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수준 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화된 방식으로 외주 번역사를 관리하고 번역수준 관련 피드백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번역수준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관별로 1인 또는 소규모 번역팀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상근번역사에 대한 번역수준 평가 시스템 도입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기관 간 번역부서 협력, 체계적 기준 제공 및 교차검토를 통해 전반적 번역수준 제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4.7.2.5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인력 도입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공공번역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전문용어전문가임을 알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예와는 약간 다르지만 문부과학성에서 직접 일본어-영어 간 전문용어 통일을 위한 학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선진국들에서는 전문번역이 전문번역사 집단이 혼자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들 이외에 'terminologist'라고 불리는 전문용어전문가, 그리고 실제 번역과정의 행정지원과 고객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지원팀이 함께 협업하는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전문용어전문가들은 전문번역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대학 이상에서 전문용어학을 전공한 전문인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전문용어학을 개설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용어 통일 및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향후 공공번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이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커리큘럼 개발 및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국의 '중국 규범(표준화)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이 사회전체적으로 권위를 갖는 전문용어 지침을 조속히 구축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일부로 공공기관 번역담당자들이나 전문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및 면접조사에서도 통일된 전문용어집의 개발 및 제공이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것도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인력 양성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용어 통일 및 표준화 노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중국의 경우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인 중국은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용어 위원회에서 대만 및 한어권의 과학기술용어를 조사 연구하고 이 분야의 교류, 협력 및 표준화 사업까지를 업무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전문용어분야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과 같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7.2.6 표준화된 기준에 근거한 번역사 채용 및 자격인증

호주 NAATI는 국가 기구가 실시하는 통번역사 자격인증시험을 통해 4단계의 자격을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 번역국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혹은 개인을 언어 서비스 공급업체 리스트에 등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EU 산하 기관에서는 유럽인재선발사무국이라는 직원채용 전담 기관을 통해 일원화된 방식으로 상근번역사를 채용하며, 체계화된 입찰절차와 계약방식을 활용하여 외주번역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들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상근번역사 채용 및 외주 번역사 선정과 관련된 표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면 번역수급 관리 및 번역수준 개선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 직원채용 전담 기관을 설치하거나, 공공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상근번역사 및 번역업무 지원인력 채용 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제분야에 대한 번역사의 전문성, 업무경력을 비롯한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고용형태, 급여수준, 기타 처우를 표준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공통의 상근번역사 지원 및 전형방식을 수립하고 지원자 관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외주 번역사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공공번역을 담당할 외주 번역사의 최소 자격요건, 요율 및 표준 계약방식을 명문화하고 표준화된 외주번역 처리절차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공번역 전담기관을 통해 외주번역 처리과정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4.7.2.7 공공번역 지원시스템 개발 및 일반 공개

컴퓨터보조번역 및 번역메모리[6],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다국어 문서로 구성된 번역 코퍼스, 메타검색 도구 등 다양한 번역 관련 기술을 번역업무에 활용하는 유럽과 캐나다의 경우는 국내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국내 공공기관의 경우 컴퓨터보조번역 도구와 호환이 되지 않는 한글 문서형식(HWP)을 주로 사용하는데다, 기존 문서 및 번역본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상근번역사가 기억에 의존하여 기존 문서 중 재활용이 가능한 내용을 수작업으로 판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중국, 일본과 같이 본 연구의 해외사례연구 대상이 되었던 국가들 모두가 공공번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용어집이나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정부 주도로 구축한 다음, 정부 기관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무료로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번역 이외에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에 대해서도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 유지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 또 캐나다 번역국처럼 인터넷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및 번역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반인들이나 민간부문에 번역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 역시 우리 공공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

6) '번역메모리'(translation memory, TM)란 이미 기존에 번역된 출발텍스트(source texts)와 해당 번역텍스트를 번역단위(translation units)별로 양대언어 쌍으로 축적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때 번역단위는 이미 번역이 이루어진 소제목, 목록의 열거사항, 구(句), 절(節), 문장 등이 될 수 있다. 번역메모리의 기능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번역(computer-assisted translation, CAT)의 실행 도구로, 인간번역사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V. 연구 성과 평가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성과를 연구 취지 및 설계, 연구진 구성, 세부 과업별 성과로 나누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5.1 연구 취지 및 설계에 대한 평가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초 토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과정은 <그림 18[7]>에 도식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1] 1단계에서는 '공공번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그 특징과 실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다.

[2] 2단계에서는 우리 사회 공공번역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4가지 모듈로 나누어 실제 연구를 실시하였다.

(1) **모듈 1**: 공공기관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의 비교 분석

(2) **모듈 2**: 공공기관 웹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한 번역결과물 평가 및 분석
- 전체 22개 기관 대상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4개 언어로 구축된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

(3) **모듈 3**: 공공기관 번역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4) **모듈 4**: 공공기관 번역업무를 실제로 수주하여 수행하는 전문번역사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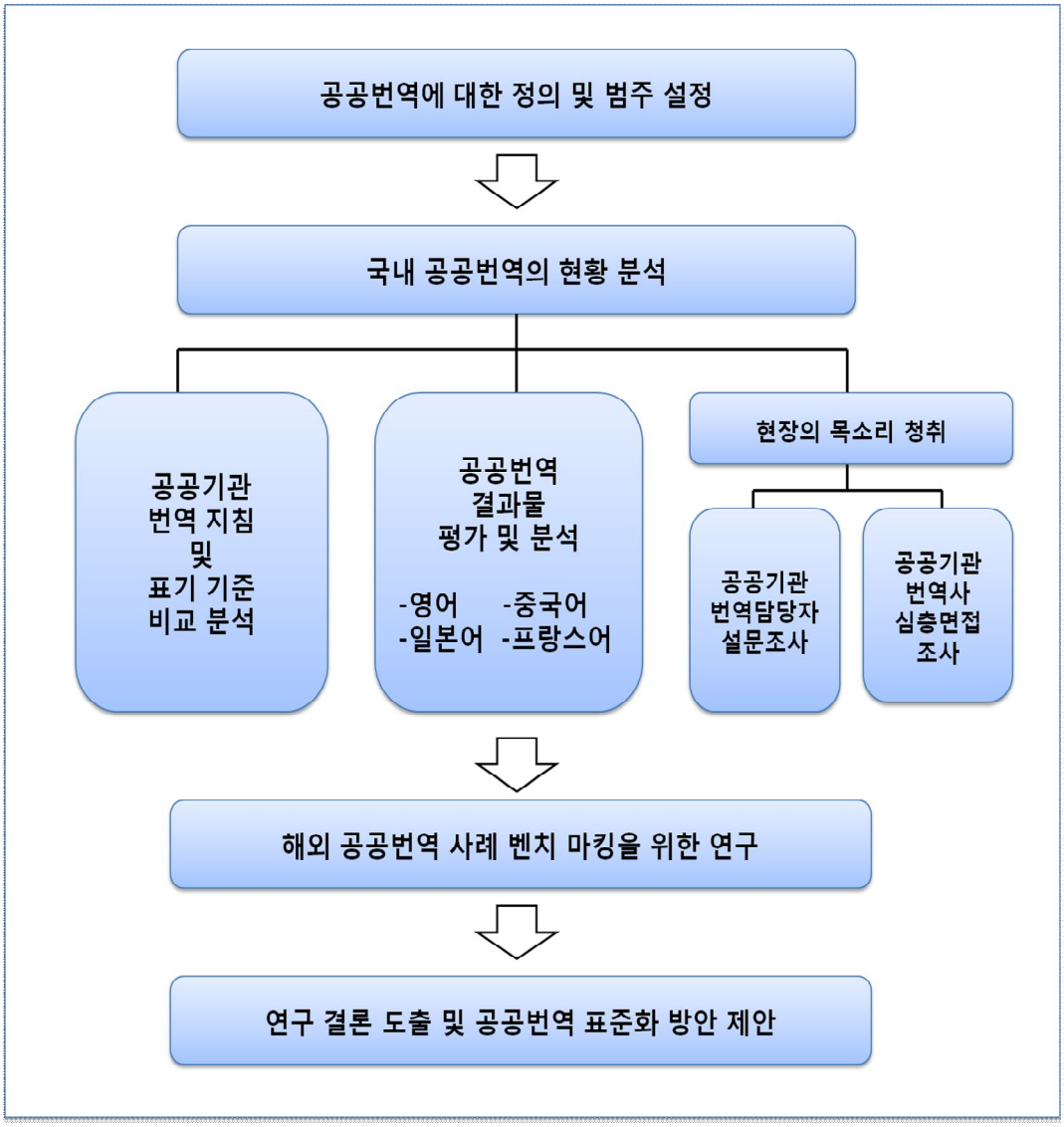
[3] 3단계에서는 해외 공공번역 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 및 자료 연구를 수행하였다.

[4]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설계를 가지고 진행된 본 연구에서,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밑그림을 그린다는 연구 목표는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이라 본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번역 표준화라는 궁극적 지향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연구와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단계적인 연구를 통해 접근한다는 취지 역시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

7) 이 그림은 본 연구보고서 도입부 연구설계 소개 부분에서 <그림 1>으로 제시한 것을 참조의 편의를 위해 여기 다시 <그림 18>로 제시하였다.



<그림 18> 연구 과정 도식화

연구 설계 역시 [개념 설정 → 국내 현황 분석 → 해외 현황 분석 → 결론 및 방안 제안]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연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념 설정은 전체 연구의 방향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으로,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결과물 및 번역 수급과정 현황을 먼저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외 공공번역 현황을 조사, 분석하는 과정은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국내 공공번역의 현황에 대한 생생한 자료와 해외 공공번역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본 연구의 1차적 표준화 방인 제시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에서 공공번역을 정립하고 표준화하는 과정 전체에 유용한 토대가 될 것이다.

5.2 8대 세부과업 영역 별 연구 성과 평가

본 연구 서론에 밝힌 세부 연구과업 별로 본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2.1 세부목표 1. 공공번역의 정의 및 대상/범위 규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국가기관에 의한 번역' '공공기관 번역', '공공분야 통번역'이라는 용어가 '공공적 성격 및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번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공공번역을 '우리 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으로 개념화하였다. 특히 공공번역의 특징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 '국가공공기관의 예산지원', '광범위한 일반대중의 사용'의 세 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는 번역 수요가 존재하나 실제로 그 수요를 바탕으로 번역을 발주할 주체가 없거나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해당 수요를 '잠재적 수요'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잠재적 수요는 민간부문의 시장논리, 혹은 상업적 논리로는 공급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의 개입 내지 예산 투자의 근거가 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공공번역의 범위로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홍보 인쇄물, 문화유산관광 안내, 교통 표지판 및 정보 안내판, 한국학 개념 및 한국 의식주 문화 자료, 대중문화 자료 등을 포함시켰다. 공공문서로는 중요도 별로 구분하여 국가적 중요성이 큰 제1유형 문서로 헌법, 대통령 연설문, 국가 간 조약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상징적 문건을 선정하였고, 제1유형보다는 중요성이 덜하지만 국제관계 및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번역이 필요한 제2유형 문서로 장·차관(급) 공식서한, 연설문, 외국정부/국제기구에 발송하는 공식문서, 기관 홍보자료 등을 포함시켰다.

5.2.2 세부목표 2. 공공기관 번역 표기기준 및 웹페이지 번역 실태 조사 및 분석

공공기관의 외국어 번역결과물 분석을 위해 표기 기준 및 웹페이지 번역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선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정부 운영 기관, 문화예술 단체 총 22개 기관의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수집한 번역결과물 자료를 대상으로 파일럿 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전체 연구진 논의를 거쳐 총 10개의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또 공공기관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국립국어원,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서울시,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총 6개 지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영어와 일본어 번역을 위한 표기 기준들이 크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도달하여, 불일치 현상을 항목 별로 별도로 비교, 분석하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번역 표기 기준 및 웹페이지를 평가 분석한 결과 언어별로 번역 수준과 오류 유형이 차이가 있다는 것, 또 모든 언어 번역에서 공통적

으로 두드러진 문제가 번역기관별 번역의 일관성 결여임도 밝혔다. 중국어의 경우 법무부, 산림청, 기상청과 같은 주요기관의 웹페이지 내용이 일본어로 구축되어 있는 충격적인 현실도 찾아내었다.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회' '김치' '동치미' 같이 우리 한식을 대표하는 음식의 표기가 프랑스어의 발음체계상 제대로 된 발음을 전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하루속히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5.2.3 세부목표 3.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관리 과정 파악을 위한 면접 조사

공공번역 번역 수급 및 수준관리 과정 파악을 위한 면접 조사는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담당자들,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의 번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번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두 핵심주체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파악함으로써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공공기관 번역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를 통해 번역결과물의 일관성 결여 문제가 생겨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순환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번역 발주나 번역수준 관리가 주먹구구로 이루어졌으며 번역 참고 자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번역사 면접 조사는 공공기관 번역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 결과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여기 더해 공공기관의 출발어(즉 한국어) 중심 경향을 지적하여 수용성이 떨어지는 어색한 번역, 중국어와 일본어 번역의 한국식 표현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5.2.4 세부목표 4. 공공번역 표준화 필요성 확인

공공번역 결과물, 그리고 수급 및 수준관리 과정 분석을 통해 공공번역 표준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번역 결과물은 분석 대상 4개 언어 모두에서 일관성 결여 문제를 드러냈고 공공번역 과정에서는 용어의 통일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1) 번역 수급 프로세스의 표준화 (2) 번역결과물 수준 평가 및 감수 기준의 표준화 (3) 번역결과물로서의 콘텐츠의 표준화 (4) 번역결과물 사후 관리의 표준화를 네 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특히 '번역결과물로서의 콘텐츠의 표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의 통일 및 표준화, 그리고 전문용어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밝혔다.

5.2.5 세부목표 5. 해외 공공번역 현황 벤치마킹

해외 공공번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럽 연합의 번역기구 3 곳, 캐나다 번역국, 호주 NAATI, 일본 문부과학성, 중국 민족어문번역국과 국가과학기술용어위원회를 선

정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번역 업무 관리 과정의 체계화, 번역수준관리, 전문용어 관리, 번역사 자격 심사 및 선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공공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성
[2] 공공번역 전담기관의 설립을 통한 체계적 업무관리 및 번역수준 향상
[3] 공공번역 전문 수급체계를 통한 전문성 제고
[4] 일원화된 인터페이스 및 정부차원의 웹기반 공공번역 네트워크 운영
[5] 번역수준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
[6] 전문용어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인력 도입
[7] 표준화된 기준에 근거한 번역사 채용 및 자격인증
[8] 번역메모리,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등 번역 관련 기술의 활용
[9] 공공번역 지원시스템의 일반 공개 및 서비스 강화

특히 폭발적인 번역 수요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어 사회구조적으로 번역수요가 존재하는 캐나다, 다문화언어사회로서 사용하는 영어 등 주요언어를 대상으로 한 번역 과정 및 수준관리 대신 번역사 인증을 택한 호주 등,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개발된 공공번역 시스템 모델들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 및 일본의 경우는 인터넷 기반의 자료조사로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실제 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내각관광부' 주관으로 제반법률의 영어로의 번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과정이나 내용을 온라인 조사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이 두 국가를 대상으로 좀더 심도있는 출장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2.6 세부목표 6.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공공번역 표준화 요건 파악

해외 기관들은 국내 현실과는 다른 맥락과 목표 하에 공공번역을 실현해 가고 있다. 국내 공공번역은 관광 산업 및 한국 문화 안내 홍보에 큰 비중을 둔다. 또한 한국어가 변방언어라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번역이 외국어를 전공한 내국인 번역사 손에서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의 번역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아직 낮은 편이다.

본 연구가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해 (1) 번역 수급 프로세스의 표준화 (2) 번역결과물 수준 평가 및 감수 기준의 표준화 (3) 번역결과물로서의 콘텐츠의 표준화 (4) 번역결과물 사후 관리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았으나, 실제로 (1) 번역 수급 프로세스의 표준화, (2) 번역결과물로서의 콘텐츠의 표준화 (2) 번역결과물 수준 평가 및 감수 기준의 표준화 및 번역결과물 사후 관리의 표준화의 세 범주로 통합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번역 수급 프로세스의 표준화'는 전담 기구의 설립 및 일원화

된 인터페이스 구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점, 두 번째로 '번역결과물로서의 콘텐츠의 표준화'는 기구별 부처별로 방치되어 있는 번역지침 및 표기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전문용어 표준화를 시급히 이룸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번역결과물 수준 평가 및 감수 기준 표준화' 및 '번역결과물 사후 관리의 표준화'는 장기적으로는 전문 전담기관의 설립 운영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선 현 단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번역을 위해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에 전문가들로 태스크 포스 팀을 설립한 후 이들로 하여금 번역결과물 평가 및 감수에 필요한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평가 및 감수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 및 감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 및 단체가 구축한 번역결과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보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5.2.7 세부목표 7. 주요 언어별 번역 기준 제시

영어와 일본어는 번역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정보 전달이 불가능할 수준의 번역은 드물었다. 반면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일관성 결여였다. 기관 별로, 혹은 동일 기관 내에서도 일관성 결여 사례가 무수히 발견되었다. 따라서 영어와 일본어의 경우 전문용어 및 표기 표준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어와 프랑스어는 기초적인 표현, 문법적인 오류가 드물지 않았다. 정보 전달이 가능한 수준의 번역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발음 체계의 차이로 인해 음차번역에서 오류가 자주 발견되었으므로 음차번역 기준 정립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혔고, 중국어의 경우 도착어에서의 관용성 및 수용성이 문제가 되는 번역, 출발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신중하지 못한 번역어휘 선택 등의 문제를 이제라도 하루바삐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다양한 기관의 언어별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비교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새로운 번역 지침(안)을 제안하여, 향후 검토를 거쳐 통일된 번역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5.2.8 세부목표 8. 중국어, 일본어 대상 한자 사용 원칙 정립

중국어와 일본어의 한자 사용 원칙은 각각 중국식 한자와 일본식 한자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특별히 별도의 한자 사용 원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유능한 번역사라면 기본적으로 번역과정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고, 대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번역결과물 분석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중국어 번역결과물에 '간체자'가 아닌 '번체자'가 쓰인다거나, 아예 일본식 한자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본어 번역문에서는 한국식 한자 사용 사례들이 버젓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번역독자를 위해서는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이런 오류사례는 별도의 한자 사용 원칙을 정립하여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한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한 오류로 보아 번역사들에게 바른 한자 사용 원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3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밑그림을 그린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대한 세부목표별 성과는 위에서 요약 제시 하였다. 이제 본 연구 성과를 보다 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제안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지침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언어별 번역 전문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전문용어전문가, 번역대상텍스트의 주제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렇게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평가팀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번역 지침과 함께 기존의 번역지침들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집대성한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번역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 결여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따라서 용어 관리에 이미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는 해외 사례 수집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Termium Plus나 유럽연합 전체를 관장하는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IATE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 이들이 어떤 분야의 용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해나가는지 파악해야 하는 한편, 해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용어집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3] 용어 사용의 일관성 결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 번역 지침을 모아 제공하는 단일 웹사이트의 개설을 제안하였다. 향후 온라인 번역 용어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웹사이트의 구성과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때 앞서 [1]에서 언급한 번역지침 표준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4] 본 연구의 번역 대상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4개 외국어였다.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해 어떤 외국어 몇 개를 일차적 관리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고민이 필요하다. 표준화 대상 외국어가 선정되면 각 외국어에 대한 번역 실태 점검 및 지침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아랍어와 같이 언어구사인구 자체는 크지 않지만 UN 공식언어이고 한류(韓流)를 비롯한 우리 문

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언어문화권의 언어를 대상으로 보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장기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번역을 총괄하는 단일전담전문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 독립 기구의 형태, 규모, 운영 방식,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해외 어느 사례와도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구성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우리 공공번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 공공번역의 발전방향을 조망해보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6.1 공공번역의 개념과 범위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사용되던 '국가기관에 의한 번역', '공공기관 번역', '공공분야 통번역' 등의 용어가 '공공적 성격 및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공공번역'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공공번역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으로 개념화된다. 공공번역의 특징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국가공공기관의 예산지원', '광범위한 일반대중의 사용'의 세 가지가 있다. 공공번역에 대한 수요는 민간 부문의 시장논리, 상업성 논리로는 충족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의 개입 내지 예산 투자가 요구된다.

공공번역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공공용어에 한정된다. 여기서 공공용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말 용어'라 할 수 있다. 공공번역의 범위를 용어에서 더 확장해서 구와 절, 문장 단위 이상의 텍스트까지 포괄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홍보 인쇄물, 문화유산관광 안내, 교통 표지판 및 정보 안내판, 한국학 개념 및 한국 의식주 문화 자료, 대중문화 자료, 주요 공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요 공문서는 중요도별로 구분하여 국가적 중요성이 큰 헌법, 대통령 연설문, 국가 간 조약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상징적 문건을 1차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장·차관(급) 공식서한, 연설문, 외국정부/국제기구에 발송하는 공식문서, 기관 홍보자료 등은 2차 대상이 될 것이다.

6.2 기관별 번역 지침 분석과 그 대안

국립국어원,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서울시,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번역 지침 총 6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이들 번역 지침은 공공번역을 위한 일차적 기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발견되었다. 프랑스어와 중국어 번역 지침에 수록된 사례들에서는 언어적 오류, 잘못된 의미 전달, 생략의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영어와 일본어의 경우에는 번역 지침들 간의 불일치 현상이 드러났다. 한국어 고유명사의 음차역과 의미역 기준이 지침별로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 용어가 지침에 따라 달리 번역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번역 지침 내의 부정확성 문제, 번역 지침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번역 지침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한 단계 나아간 번역 지침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번역 지침은 후속 연구와 실무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다시 정교화되어야 한다.

6.3 공공번역물의 평가 결과

[1]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의 아웃바운드 번역의 결과물 수준이 수년 전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본다. 특히 영어와 일본어로의 번역은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것보다 우수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여전히 원어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물도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을 크게는 표현의 관용성과 수용성 차원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 자료가 공공번역 담당기관의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이외에 주로 이들 기관이 구축해놓은 외국어 웹사이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번역을 통해 '한국'을 접하게 되는 번역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국가 이미지를 전달하기는 매우 요원한 일일 것이다.

[2] 모든 언어를 통틀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번역의 문제는 일관성 결여였다.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현상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한 번역은 물론이고 동일기관 웹사이트 안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3] 외국어로의 아웃바운드 번역의 경우 언어별로 번역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와 중국어의 경우는 해당 도착어에 맞는 한자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경하게 한국어 한자어가 섞여 쓰이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4] 근본적인 번역전략을 정책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중국어와 프랑스어 번역의 경우 중역(重譯)이라는 번역전략을 의도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부자연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문장을 낳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학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역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한편, 원칙적으로 우리 콘텐츠를 가장 정확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 출발텍스트에서 목표 도착어로 곧바로 번역하는 접근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 일부 외국어 웹사이트의 경우 중국어 웹사이트임에도 일본어 내용이 채워져 있거나 내용이 일본어에 준하여 표기되어 있는 충격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웹사이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채널인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점에서 외국어 웹사이트의 현 관리 상태는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6]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번역의 수준이 문제가 된다. 특히 외국인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도착어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 관습에 위배되거나 수용성이 떨어지는 표현으로 어

색하게 받아들여지는 번역이 아직도 많은 것은 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들 어색한 번역을 통해 얻어지는 국가 이미지에는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6.4. 공공번역 종사자의 인식 조사 결과

공공번역 번역 수급 및 수준관리 과정 파악을 위해 공공기관 14곳의 번역 업무담당자들,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의 번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번역사 5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번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두 핵심주체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파악함으로써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공공기관 번역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를 통해 번역결과물의 일관성 결여 문제가 생겨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순환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번역 발주나 번역수준 관리가 주먹구구로 이루어졌으며 번역사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참고자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번역 업무담당자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번역사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 고유명사 표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그리고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번역사 면접 조사는 공공기관 내 업무 연속성, 번역 발주, 품질 관리, 참고자료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공공기관 번역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 결과를 교차 확인하는 기회였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의 출발어(즉 한국어) 중심 경향이 지적되었다. 발주기관에서 한국식 표현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탓에 수용성이 떨어지는 어색한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번역사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도 언급되었으나, 대안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번역사 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 관리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관 간의 협력 문제, 보고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문제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6.5 공공번역 선진 사례 조사 결과

6대 해외 선진 사례 조사 연구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신들의 언어문화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폭발적 번역 수요를 경험하고 있는 EU에서 각기 다른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번역 수요를 해결하고 있는 번역 전담기관 세 곳의 사례,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어 사회구조적으로 번역 수요가 크고 사회통합을 위한 번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캐나다에서 연방정부기관으로 번역 전담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례, 또 다문화 언어사회로서 100여 개를 상회하는 언어를 통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번역사 인증제를 채택하고 이를 민간기구로 하여금 관리

운영하게 하는 호주의 사례 등,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개발된 공공번역 시스템 모델들은 향후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좌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체계적 업무관리 및 번역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번역 전담기관의 설립 필요
[2] 공공번역 전문 수급체계를 통한 전문성 제고 필요
[3] 일원화된 인터페이스 및 정부차원의 웹기반 공공번역 네트워크 운영 필요
[4] 번역수준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 필요
[5]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인력 도입 필요
[6] 표준화된 기준에 근거한 번역사 채용 및 번역사 자격의 공인화 필요
[7] 번역메모리,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등 번역 관련 자료와 기술의 활용 필요

6.6 우리나라 공공번역의 문제점

본 연구 결과 우리 사회 공공 영역의 번역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1) 공공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2) 이런 인식의 부재로 인해 공공번역 서비스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 장치의 부재 (3) 번역을 단순히 번역사의 문제로만 바라봄으로써 전반적 번역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인력지원, 번역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 번역인프라 구축 노력의 전무, (4) 공공번역결과물수준 향상에 필요불가결한 번역지침 및 표기 기준이 각 담당기관별로 상이하여 일관성 없는 번역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 (5) 문화콘텐츠 등 전문용어 표준화 노력의 부재, 마지막으로 (6) 공공번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번역사들의 자격 및 수준 관리 체계의 부재 등이다.

6.7 제언

현 단계에서 공공번역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공공번역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해결책들을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하더라도,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일 창구로서의 전담기관을 하루아침에 신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해 요구되는 작업을 단계별, 우선순위 순으로 설정한 후 설정 단계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6.7.1 공공번역 표준화 정착을 위한 단기 과제

우선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국가 차원의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의 통일 및 표준화, 그리고 전문용어 통일 및 표준화이다. 이는 번역결과물 분석에서 4개 언어 공통적으로 지적된 일관성 결여 문제,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 분석에서 번역사들이 토로한 '일관된 표기 기준 부재'라는 고충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문용어 표준화에 선행하여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의 통일 및 표준화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언뜻 생각하면 문화콘텐츠 등의 번역에 필요한 용어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실제 번역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용어 표준화가 더 손쉬운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일한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복수(複數)의 번역용어들이 난립하고 있는 데다, 이들 용어들이 도착어에서의 관용성이나 수용성 면에서 부정확하거나 어색한 표현들인 경우도 무수히 발견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통합하여 단일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여러 기관에서 구축해놓은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구축해놓은 용어 지침들을 특정한 전담기관을 두어 모두 모으게 한 다음, 공공번역을 담당하는 기관수요자 대표, 번역 및 문화소통전문가, 언어전문가, 전문용어 전문가로 구성되는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표준화 팀으로 하여금 수합된 지침 및 기준을 모두 검토하여 표준화된 지침 및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8]. 그런 다음 표준화된 지침 및 기준을 근거로 용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야만 체계적이고 적절한 번역용어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연수 및 교육, 또는 전공을 감안한 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번역의 수급 및 수준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번역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 번역평가 및 감수 인력풀의 부재로 공공번역 현장에서 수준 낮은 번역들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 번역평가 및 감수 인력풀을 구성하고, 희망하는 공공번역 관련 기관에서 기존 공공번역

8) 이 작업은 일정기간 시간을 요하는 작업일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용어 표준화 작업이 단계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향후 표준화된 용어 서비스를 제공할 단일 웹사이트를 미리 개설하고 이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놓은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한시적 서비스 기간에는 용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1) 현재 용어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2) 동일한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경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모두 제공하며 (3) 피드백이나 문의를 온라인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통해 용어 표준화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단일 웹사이트를 통해 표준화된 종합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면서 유럽 등의 경우처럼 정부 관계기관이나 민간부문, 전문번역사들의 요청에 따라 주제분야별 용어 사전을 온라인으로 편집 제공하는 등의 부가 서비스도 궁극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및 향후 이루어질 공공번역의 평가 및 감수 수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6.7.2 공공번역 표준화 정착을 위한 이상적인 방안: 공공번역 단일 전담기관 설치.운영

공공번역 표준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는 캐나다의 번역국 또는 EU의 번역총국과 같은 공공번역의 제반 측면을 전담하는 기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현재의 공공번역이 여러 기관에 의해 산발적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스타일 및 용어 통일 내지 표준화가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공공번역을 위한 예산을 중복 집행하는 등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없고, 집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집행된 사업의 성과가 발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그 해결을 맡는 단일 전담기관이 만들어진다면 그 기관은 정부기관이나 공공분야의 번역 수요를 총괄 수합하고, 번역 수요처와 공급처의 인터페이스를 강화하며, 국가적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번역 수급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문 번역 업무 및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업무, 번역 및 번역수준 평가 과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적합한 일원화, 단일화된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관리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단일 전담기관이 바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전문 영역이 있어서 번역 문제를 기관 나름의 고유 업무로 여겨온 전통이 있고, 하나의 국가기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국민적 합의 도출, 예산 책정 및 인력의 증원 등 각종 과제가 해결되는 절차가 단순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감안하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6.7.3 공공번역 표준화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표준화 연구.조정 기관 지정 운영

위에서 열거한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의 통일 및 표준화, 그리고 전문용어 통일 및 표준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중장기적으로 공공번역을 전담하는 단일 전담기관이 발족할 때까지 미루어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또한 공공번역을 위한 예산이 중복 집행이나 낭비적 집행 요소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번역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나마 통합조정 역할을 하게 되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컨트롤 타워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문화재청 등 각급 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번역 지침들 사이의 불일치, 내부 모순, 각종 오류들을 극복하여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지침으로 통합하여 각 기관에 제공하는 일이 시급한바, 우선 이런

업무를 맡아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하는 공공번역 관련 과제들을 통합하여 정보 데이터로 구축하고 서비스함으로써 사업과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지작업과 관련 법규 정비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어떤 기관에게 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언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외래어 표기 사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운용,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의 국어 순화 등 번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해 왔고, 새로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사전 번역사업' 및 '공공번역 표준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부록 1: 공공번역 업무 처리 기관 및 근거 법제화 안>은 앞서 제시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장기적 공공번역 단일 전담기관 발족을 준비하는 역할을 국립국어원이 수행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를 규정한 최소한의 법제 정비 안이다. 즉, 현행 법령에는 그간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수행해 온 국립국어원이 외국어를 다루는 공공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국어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들을 수정할 때 필요한 조항들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부록 1>이다.

다만 국립국어원에게 앞서 논의한 역할이 맡겨질 경우, 국어학 및 언어학 전문가로 이루어진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는 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번역 전반, 곧 번역과정은 물론 번역목적에 따른 번역전략 수립, 번역 평가 및 감수, 번역사 수준관리 등등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성격을 규정하고 업무 흐름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휘 아래 언어별로 최소한의 번역전문가가 기존 업무구조 및 인력과 협업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6.7.4 제안: 공공번역 표준화 연구.조정 기관의 수행 과제

6.7.3에서 밝힌 현실적인 공공번역 표준화 연구.조정 기관이 관련 업무활동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번역 표준화 업무의 구체적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1) 언어별 번역 지침을 개발하여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공유 및 활용
(2) 수요조사 및 각급 기관들로부터의 계획 수집 등을 통하여 사업 중복 제거
(3) 각종 공공용어 표준 번역안 마련 및 마련된 번역어 자료들을 통합 검색,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전문번역사 풀 구축 및 각급 소요 기관에 제공

(5) 번역 결과물 감수 및 평가 기준 개발 및 전파
(6) 번역 외주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평가 기준 개발
(7) 번역사 자격의 국가 자격화 또는 국가 공인화 추진

<부록 1>
공공번역 업무 처리 기관 및 근거 법제화 안

1.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안

1.1. 법규 정비의 필요성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 용어의 표준 번역 마련과 보급 활동인 '공공번역 표준화'는 언어정책의 일환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무 부처는 현재 국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밝히겠지만 현재 법령으로는 한국어 용어의 외국어 번역을 국어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 보인다. 번역의 결과인 외국어가 국어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기존의 제도와 맥을 같이 하여 여러 분야의 용어 번역 표준화를 총괄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1.2. 법규 정비 내용

1.2.1.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1조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바르게 번역하는 일은 국어 발전과 무관하여, 이를 기초로 공공번역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의 '국어'는 '국어 및 국어문화'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문화'는 '국어로 가꾸어온 우리 민족의 언어문화'라는 뜻으로 이해되므로 국어 용어를 바른 외국어로 바꾸어 알리는 것이 '국어문화의 발전과 보전'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해당되는 조항은 2조, 4조, 6조, 8조, 9조, 10조, 21조이다.

한편,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번역 표준화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항 마련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제18조(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시행) 국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문화를 세계에 바로 알리고 외국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에 대하여 바른 번역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1.2.2.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모법인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시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문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각종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번역 조항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신설>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 1. - 2. - 3. 국어 사용 환경 및 국어의 외국어 번역에 - - 가. - 나. - 다. - 라. - 마.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의 외국어 번역 실태

1.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어문정책 담당 부서는 현재 문화정책국이며, 담당 소속기관은 국립국어원이고, 공공번역 표준화 업무는 공공언어지원단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공공번역 표준화 업무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순화 등 기존의 몇몇 업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관련 업무 소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문화정책국)① (생 략) ② (생 략) ③ 1~11. (생 략) <신설>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① (생 략)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생 략)	제14조(문화정책국)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1~11. (현행 1~11과 같음) 12.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의 표준 번역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 제2항의 1과 같음) 2. (현행 제2항의 2와 같음) 3.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의 번역 표준화 4. (현행 제2항의 3과 같음) 5. (현행 제2항의 4와 같음)

1.2.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문화정책국 소속 국어정책과장의 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면 될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문화정책국) ①~③ (생 략)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5. (생 략) <신 설> 27. (생 략)	제10조(문화정책국) ①~③ (현행 제1항~제3항과 같음)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5. (현행 제10조4항의 1~25와 같음) 26.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의 표준 번역에 관한 사항 27. (현행 제10조4항의 26과 같음)

[붙임]

□ 공공번역 업무 법제화를 위한 국어기본법 등 관련 법규 신·구 조문 대비표

ㅇ 국어기본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국어 및 국어문화의 -.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어 및 국어문화의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어 및 국어문화의 - - - - - - - - - - .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국어 및 국어문화의 -. ② -. ③ -. 1. 언어 - - - - - - - - - - - - - -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 － － － － － － 국어 및 국어문화의 －.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 － － － － － － － 언어 － 국어 사용 환경, 국어의 외국어 번역 － － － － － － － － － － － － － － － －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 － － － － － － － － － － 국어와 국어문화의 －.
<신 설>	**제18조(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시행)** 국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문화를 세계에 바로 알리고 외국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에 대하여 바른 번역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 － － － － － － － 국어 및 국어문화의 －.

○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의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ㆍ방송ㆍ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가요ㆍ영화ㆍ광고ㆍ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신설>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 1. – 2. – 3. 국어 사용 환경 및 국어의 외국어 번역에 – – 가. – 나. – 다. – 라. – 마.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의 외국어 번역 실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문화정책국)① (생 략) ② (생 략) ③ 1~11. (생 략) <신설>	제14조(문화정책국)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1~11. (현행 1~11과 같음) 12.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의 표준번역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① (생 략)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생 략)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 제2항의 1과 같음) 2. (현행 제2항의 2와 같음) 3.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의 번역 표준화 4. (현행 제2항의 3과 같음) 5. (현행 제2항의 4와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문화정책국) ①~③ (생 략)	제10조(문화정책국) ①~③ (현행 제1항~제3항과 같음)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5. (생 략)	1.~25. (현행 제10조4항의 1~25와 같음)
<신 설>	26.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의 표준 번역에 관한 사항
27. (생 략)	27. (현행 제10조4항의 26과 같음)

<부록 2>

공공번역표준화 연구 설문-면접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공공번역표준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통역번역학회의 설문면접조사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에서 공공 서비스를 위해 수행하는 번역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07.29.

한국통역번역학회장 정호정 교수 <standardtr-ksci@daum.net>
국립국어원 박주화 연구사 <coin@korea.kr>

Ⅰ. 답변해주시는 분의 업무 관련 질문입니다.

1. 현재 주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입니까? _____

2. 주된 업무와 번역 관련 업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① 번역 관련 업무가 주된 업무이다.
② 번역 관련 업무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③ 번역 관련 업무는 주된 업무 외에 추가로 할당 받은 업무이다.
④ 기타 ( )

3. 번역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 년 ____ 월

4. 번역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번역 업무 기획 (번역 발주 결정, 내용 결정, 요율 결정 등)
② 번역사 섭외, 계약, 연락
③ 번역 과정에서 번역사의 문의 사항 답변, 필요한 자료 제공
④ 납품된 번역문 검수
⑤ 납품된 번역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번역사와 연락하여 해결
⑥ 기타 ( )

5. 함께 번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들이 계십니까? 예 ____ 아니오 ____
계시다면 몇 분입니까? ____ 명

6. 번역 관련 업무를 어떻게 담당하게 되셨습니까?
① 순환보직으로 배치되었다.

② 관심이 있어 자원하였다.
③ 본래부터 번역 관련 직종으로 채용되었다.
④ 기타 ( )

7. 귀 기관에서 한 직원이 번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① 1년 이하 ② 2년 이하
③ 4년 이하 ④ 기타 ( )

8. 번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Ⅱ. 번역 발주와 진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9. 귀 기관에서 번역을 발주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월 1회 이상 ② 2, 3개월 1회 이상
③ 6개월 1회 이상 ④ 연간 1회 이상
⑤ 기타 ( )

10. 귀 기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주한 번역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언어 방향	횟수	매수 (A4 기준)
한국어 -> 영어		
한국어 -> 기타 외국어(어)		
한국어 -> 기타 외국어(어)		
한국어 -> 기타 외국어(어)		
영어 -> 한국어		
기타 외국어(어) -> 한국어		
기타 외국어(어) -> 한국어		
기타 외국어(어) -> 한국어		

11.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번역의 종류는 주로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기관 소개 자료집이나 홍보물 ② 정기 간행물
③ 연설문 ④ 업무 서신
⑤ 기관 홈페이지 ⑥ 국제행사 관련 자료
⑦ 전문용어 및 규정집 ⑧기타 ( )

12. 귀 기관의 번역 수요는 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① 내부 담당 인력이 처리한다. ____
-> 번역 담당 인력의 채용 기준과 채용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② 외부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처리한다. ____
-> 주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번역을 맡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민간 번역회사 (번역 에이전시)
② 프리랜스 번역사
③ 통번역대학원 센터
④ 해당 언어나 주제 전공 교수
⑤ 기타 ( )

13. 번역을 외부에 발주할 경우 그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공개입찰 ② 개인적 인맥을 통한 섭외
③ 주거래 번역사에게 연락 ④ 인지도 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의뢰
⑤ 기타 ( )

14. 번역 발주처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번역사의 경력
② 비용(번역요율, 예산 등)
③ 공동 작업 경험(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 및 전문가)
④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
⑤ 업무의 편리성(예: 원스톱 서비스 제공)
⑥ 기타 ( )

15. 번역 발주 및 납품 관련 지침(매뉴얼)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번역 계약서 ② 발주 가능한 번역사 명단과 연락처
③ 번역사 선정 기준 ④ 번역 납품 후 검토
⑤ 번역 검토 후 처리 방법
⑥ 기타 ( )

16. 귀 기관의 번역을 의뢰할 때 어떤 지침을 전달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번역의 목적
② 번역을 사용할 독자에 대한 정보
③ 원문의 배경이나 주제 정보
④ 전문용어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
⑤ 번역사의 재량(의역 등)이 허용되는 정도
⑥ 기타 ( )

17. 귀 기관이 발주한 번역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어집이나 참고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없다. ____
-> 번역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담당 번역사가 알아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특별히 필요한 용어나 자료가 없다고 생각한다.
③ 필요한 경우 담당 직원과 연락하여 확인하면 된다.
④ 자료를 정리할 필요성은 있지만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다.
⑤ 기타 ( )
② 있거나 준비 중이다. ____
-> 있거나 준비 중인 번역 참고 자료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용어집

② 표기 기준
③ 기 번역문 DB
④ 기타 ( )

18. 현재 몇몇 기관에서 우리말의 외국어 번역을 위한 용어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____
-> 어느 기관의 용어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 )
-> 알고 계시는 용어 지침을 번역 발주 과정에 활용하십니까?
혹시 활용하지 않으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우리 기관의 번역 업무와 별 관련 없는 용어들이다.
② 용어 지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③ 용어 지침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④ 기타 ( )
② 아니오 ____
-> 이러한 지침을 앞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19. 번역을 발주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예: 유능한 번역사를 찾기 어려움, 번역요율 협상이 쉽지 않음, 제 시간에 번역물이 납품되지 않음, 업무처리 시한이 촉박함 등)

Ⅲ. 번역물 품질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발주한 번역물이 납품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①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한다.
② 내부 직원이 번역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③ 외부 전문가에게 감수를 의뢰한다.
④ 기타 ( )

21. 납품된 번역물에 대한 품질 평가 지침(매뉴얼)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없다. ____
② 있다. ____
-> 어떤 평가 지침을 갖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표현이 매끄럽게 잘 읽히는가?
② 문체가 번역의 목적(홍보, 안내, 정보전달 등)에 적합한가?
③ 내용의 누락이나 첨가가 없는가?
④ 용어나 표현이 적절한가?
⑤ 용어나 표현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나?
⑥ 기타 ( )

22. 납품된 번역의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만족하는 편이다.
② 불만족하는 편이다.
-> 불만족하시다면 어떤 면이 문제가 됩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외국어다운, 혹은 우리말다운 번역이 아니다.
② 번역의 목적(홍보, 안내, 정보전달 등)에 적합하지 않다.
③ 원문 내용이 누락되거나 변경된다.
④ 용어나 표현이 부적절하다.

⑤ 용어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⑥ 기타 ( )

23. 납품된 번역이 불만족스러워 이의 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____
② 있다. ____
-> 어떤 언어와 장르의 번역이었습니까? (예: 영어로 번역된 기관 홈페이지, 중국어로 번역된 기관 브로슈어 등)
( )
-> 이의제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이의제기를 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 )

24. 귀 기관에서 납품 받아 사용 중인 번역에 대해 외부인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없다. ____
②있다. ____
-> 어떤 언어와 장르의 번역이었습니까? (예: 영어로 번역된 기관 홈페이지, 중국어로 번역된 기관 브로슈어 등)
( )
-> 외부인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외부인의 이의 제기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

25. 귀 기관의 번역 품질 관리와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번역표준화를 위한 귀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3> 공공기관 번역결과물분석

번역 결과물 분석 – 영어 –지침 및 용어집

출처기관명	세부출처	오류유형	출발어	도착어	오류 내역 설명
국립국어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일관성 결여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도 허용)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씀.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일관성 결여	남산	Namsan	남산의 음차역만 제시; 산이라는 의미 정보 제시하지 않음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남산	Namsan	자연지명은 그 속성지명을 로마자로 바꾸어 앞의 고유지명과 붙임표 없이 표기; 고유지명 '남' + 속성지명 '산'으로 간주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동해 제주해협	East Sea Jeju Strait	해'와 '해협'은 속성 지명인 'Sea'와 'Strait'을 의미역으로 표기; 속성 지명의 의미역 vs. 음차역 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일	일관성 결여	순천만	Suncheonman	만'은 'Bay'라고 의미역으로 표기하지 않고, 로마자 음차역 'man'으로 표기; 속성 지명의 의미역 vs. 음차역 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의 경우는 'Suncheonman Bay'로 음차역+의미역 형태로 표기
국토해양부		일관성 결여	불국사	Bulguksa	관광공사와 서울시의 표기법인 Bulguksa Temple과 달라 일관성이 결여됨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부정확한 번역	경복궁 자경전	Jagyeongjeon Hall of Gyeongbokgung Palace	자경전은 경복궁의 내전이며 대비가 거처하던 침전이므로, 다른 집무를 보던 전각과는 그 성격이 다름. 따라서 문화재청의 표기 'Hall'보다는 관광공사의 침실을 뜻하는 'Chamber' 가 더 적절한 표현임.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부정확한 번역	칠곡노석리마애불상군	Noseok-dong Rock-carved Buddhas of Seongju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지명인 'Noseok-dong'과 ' Seongju'라는 지명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사용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상위어/하위어 번역	중원고구려비	Jungwon Goguryeo Monument	관광공사의 경우, 석판, 묘비, 경계석 등을 의미하는 'Stele'를 사용하는 반면, 문화재청은 기념비, 기념물을 총칭하는 상위어인 'Monument' 로 표기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상위어/하위어 번역	도산서원	Dosanseowon Confucian School	문화재청'은 일반적인 학교를 총칭하는 상위어인 'School'을 '서원'의 의미역으로 택함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수용성 부족	초지진	Chojijin Garrison	바다에 위치한 요새의 경우 'Fort'를 사용함. 초지진의 경우는 강화도에 위치한 해안 요새라는 점에서 'Fort'가 더 적합한 표현임. 'Garrison'은 해안이 아닌 일반 부대, 주둔지 등을 통칭하는 표현임.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일관성 결여	삼국유사	Samn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삼국유사 전체를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로마자 표기를 하되, '삼국'과 '유서'를 두 개의 의미 단위로 파악, 띄어쓰기 함. 음차역을 제시하고 의미역을 괄호안에 부가 정보로 처리
	영문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일관성 결여	조선왕조실록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Joseon Dynasty)	조선', '왕조', '실록'을 각각 별개의 고유명사로 간주 'Joseon Wangjo Sillok'으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의미역 정보는 괄호 안에 제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일관성 결여	동해안별신굿	Donghaean Byeolsingut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동해안이라는 지명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동해안별신굿'을 두 개의 별개의 고유명사가 합해진 형태로 이해, '동해안'을 하나의 개별 고유명사로 간주, 대문자로 시작해 'Donghaean'으로 '별신굿'을 또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해 대문자로 시작해 'Byeolsingut'으로 별도로 로마자 표기를 하였음.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일관성 결여	화천수력발전소	Hwacheon Hydropower Plant	고유한 명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행정구역명은 이름에 포함된 형태로 표기; 고유명칭으로 간주할지, 행정구역명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일관성 결여	화천꺼먹다리	Kkeomeokdari Bridge in Hwacheon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이 부가된 경우는 '문화재명+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표기; 동일한 화천을 이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으로 간주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일관성 결여	남산	Namsan Mountain Namsan (도로 표지판 등 공간제약이 있는 경우)	음차역과 의미역 병기를 원칙으로 하되, 공간제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음차역만 표기하는 것을 허용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일관성 결여	군위삼존석굴	Gunwi Buddha Triad Cave Temple	'석굴'을 'Cave Temple'로 표기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일관성 결여	금동약사여래입상	Standing Gilt-bronze Bhaisajyaguru Buddha	'약사여래'를 산스크리트어 표기인 'Bhaisajyaguru Buddha'로 표기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일관성 결여	천마총	Cheonmachong Tomb	천마총' 전체를 고유명사로 간주 음차역 표기하고 무덤을 의미하는 'Tomb'을 의미역으로 병기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일관성 결여	수원화성	Suwonhwaseong Fortress	Suwonhwaseong'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처리, 띄어쓰지 않음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일관성 결여	소쇄원	Soswaewon Garden	문화재청은 '소쇄원' 전체를 고유명사화해 음차역으로 표기하되 '정원'을 뜻하는 의미역인 'Garden'을 병기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일관성 결여	도산서원	Dosanseowon Confucian School	문화재청'은 일반적인 학교를 총칭하는 상위어인 'School'을 '서원'의 의미역으로 택함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일관성 결여	강릉향교	Gangreung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관광공사와 달리 문화재청은 '서원'은 'Confucian School' '향교'는 'Local Confucian School'로 표기하고 있음
	영문 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일관성 결여	초지진	Chojijin Garrison	'진'에 대한 의미역으로 'Garrison'을 병기.
	영문홈페이지 문화재명 검색	일관성 결여	갑곶돈대	Gapgotdon Fortification	'갑곶돈'을 고유명사화, '대'를 의미역 표기. 문화재청 표기 지침에 위배됨. 문화재청 표기지침에 따르면 '갑곶돈대' 전체를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음차역을 제시하고 이어 '돈대'의 의미역인 'Fortigication'을 병기 "Gapgotdondae Fortificatio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음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회화	부정확한 번역	연회도	painting of social gathering of retired high ranking officials	연회는 은퇴한 관리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전달됨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회화	부적절한 번역	파초도	painting of banana leaf	바나나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Banana tree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부정확한 번역	창덕궁 흥인지문	Changdeokgung Heunginjimun	궁'을 의미하는 'Palace'와 '문'을 의미하는 'Gate'라는 설명어 누락; 음차역 정보만 제시됨으로써 의미 전달에 실패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부정확한 번역	양천향교터	Site of Yangcheon Hyanggyo	'양천향교'를 고유명사로 간주, 두 개의 단어로 음차역만 제시하고 의미역을 병기하지 않음. 양천향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음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수용성 부족	봉현봉수대	Bonghyeon Fire Signal Station Site	봉수대'를 뜻하는 'Fire Signal Station'은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님
	외국어표기사전	일관성 결여	남산	Namsan (Mountain)	음차역을 제시하고 의미역은 괄호안에 부가 정보로 병기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일관성 결여	창덕궁 흥인지문	Changdeokgung Heunginjimun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의 문화재명 표기 방식인 '고유명사+설명어'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표기 방식 '궁'을 의미하는 'Palace'와 '문'을 의미하는 'Gate'라는 설명어 누락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일관성 결여	화의군 이영 묘역	Graveyard of Prince Hwaeui	화의군' 전체를 고유명사로 간주하지 않고 '화의'만 고유명사로 간주 음역하고 '군'은 의미역인 'Prince'로 표기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일관성 결여	광해군묘	Tomb of King Gwanghaegun	광해군'의 경우는 전체를 고유명사화하고 지위를 나타내는 King 을 의미역으로 병기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일관성 결여	사육신묘	Sayuksinmyo (Tombs)	의미역을 병기하되 괄호안에 처리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일관성 결여	사직단	Sajikdan (Sajik Altar)	서울시는 관광공사, 문화재청과는 달리 의미역을 병기하지 않거나 의미역을 병기할 경우는 '사직' 만 고유명사로 음차역 표기하고 '단'은 의미역 표기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일관성 결여	종묘	Jongmyo Shirne	서울시는 고유명사로 음역 표기만 제시한 '사직단'의 경우와는 달리 '종묘'의 경우에는 '종묘' 전체를 고유명사화하고 뒤에 사당을 뜻하는 'Shrine'이라는 의미역을 병기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일관성 결여	양천향교터	Site of Yangcheon Hyanggyo	'양천향교'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양천' 과 ' 향교' 의 두 개의 고유명사로 간주, 두 단어로 표기하는 한편, 의미역을 병기하지 않음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철자오류 (띄어쓰기 오류)	강감찬 생가	Birth Place of General Kang Gam-Chan	Birth Place' 두 단어로 표기-> 'Birthplace'가 정확한 표기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일관성 결여	남산봉수대터	Smoke-signal Station site on Namsan	서울시는 '봉현봉수대'의 경우는 'Fire Sinal Station'으로 표기한데 반해, 남산봉수대는 'Smoke-signal Station'으로 일관되지 않은 표기. 남산 역시 서울시는 문화재명의 일부가 아니라 지명으로 간주 문화재명의 뒤에 음차역으로 병기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철자오류 (대/소문자 표기)	남산봉수대터	Smoke-signal Station site on Namsan	Smoke-signal'은 한 단어로 간주 'signal'을 소문자 표기하였으나, 'site'는 독립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다른 단어들처럼 대문자 표기하여 'Site'로 표기하는 것이 일관성 있음
	외국어표기사전	부정확한 번역	쌀 떡볶이	ssal topokki (Spicy Rice Cake)	의미 번역인 Spicy Rice Cake는 '떡볶이'에 대한 번역과 동일함. 밀가루 떡이 거의 사라진 지금, 쌀 떡볶이라는 표제어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외국어표기사전	부정확한 번역	사골떡볶이	sagol topokki (Spicy Rice Cake)	의미 번역인 Spicy Rice Cake는 '떡볶이'에 대한 번역과 동일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외국어표기사전	일관성 결여	함경도	Hamgyeongdo	전라도 'Jeolla-do' 등과 음차 방식이 다름. 동일한 행정구역 명칭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외국어표기사전	일관성 결여	황해도	Hwanghaedo	전라도 'Jeolla-do' 등과 음차 방식이 다름. 동일한 행정구역 명칭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외국어표기사전	부정확한 번역	괴목	Goemok	음차 번역으로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못함
	외국어표기사전	편집과 체계 문제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영동선, 경부선)	Express Bus Terminal (Honam Line,Yeongdong Line,Gyeongbu Line)	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 고속버스터미널(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 영동선), 고속버스터미널(호남선, 영동선)이 각각 따로 표제어로 설정되어 있음. 하나로 합치든지 선별로 하나씩 넣으면 충분할 것임
	외국어표기사전	부정확한 번역	고려학원	Goryeo Academy	입시학원이라는 정보가 번역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움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일관성 결여	대학로	Daehangno Daehak-ro	음차 번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일반적인 지명인 경우는 Daehangno로 제시하고 행정구역명에서는 Daehak-ro로 표기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부정확한 번역	최참판	Choe Champan	'참판'을 음차 번역함으로써 이것이 직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음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부정확한 번역	보리암	Broiam Hermitage	암자를 뜻하는 '암'을 Hermitage 로 통일해 표기. 하지만 보리암의 경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두산백과의 경우 그 성격을 암자가 아닌 사찰, 절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번역은 'Boriam Temple'이 되어야 할 듯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동남리사지 vs. 왕흥사지	Dongnamni Temple Site vs. Wangheungsa Temple Site	사찰터를 의미하는 '사지'가 들어가는 문화재 명칭의 경우, '왕흥사지'처럼 해당 사찰의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와 '동남리사지'처럼 해당 소재지의 지명이 들어가는 경우로 나뉘는데, 현재 영문 표기상에서는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할 수 없음. 'Donanamni'는 사찰명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음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부정확한 번역	중원미륵리사지	Jungwon Mireungni Temple Site	관광공사 영문 표기의 경우, 중원미륵리에 소재한 사찰 유적을 가리키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음. 'Mireungni'를 사찰명으로 오해할 수 있음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중원미륵리사지	Jungwon Mireungni Temple Site	문화재 명칭에 '미륵리'라는 행정 구역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로 관광공사는 행정 구역 명칭을 소리나는대로 음역하여 고유명사화하여 표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부정확한 번역	덕봉강당	Deokbong Lecture Hall	덕봉강당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일종의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어휘인 강당의 대응어인 Lecture Hall 로 번역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생략/첨가	신전동 고가	Sinjeondong House	'고가'에서 오래되었다는 정보를 누락, 그냥 'House'로 표기함으로써 '고가'라는 정보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함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생략/첨가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Hwajeonlli Stone Buddhas of Yesan	'사면' 이라는 내용 누락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생략/첨가	군위위성리 석조약사여래입상	Wiseongni Standing Stone Buddha in Gunwi	약사여래'의 '약사'라는 정보 생략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조선왕조실록	Joseonwangjosillok: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고서 제목 번역시 음차역과 의미역을 함께 병기.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 음차역하고 ':' 뒤에 의미역을 추가
영문홈페이지>Food>What to eat>Popular Snacks	일관성 결여	떡볶이	tteokbokki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발음표기 채택. 한식재단의 표기법과 관광공사 표기법간에 어떤 표기를 표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승정원 일기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승정원'과 '일기'를 두 개의 고유명사로 간주, 각각 음차역으로 'Seungjeongwon' Ilgi' 두 단어로 표기하고 덧붙여 의미역을 쉼표(,) 다음에 이어서 병기. 반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ilgi'로 소문자 표기함.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해미읍성	Haemieupseong Fortress	해미읍성 전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 로마자 표기하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성'을 뜻하는 의미역인 Fortress를 병기함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남목마성	Nammok Horse Ranch Wall	'남목마성'은 한글 표기에서 붙여쓰기 한 하나의 단일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남목마성'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남목' 부분만을 고유명사로 간주 'Nammok'으로 로마자 표기를 하고 '마성'은 의미역으로 표기.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일관성 결여	최치원	Choe Chi-won	인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의 음절 사이에는 하이폰(-)을 사용.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신전동 고가	Sinjeondong House	신전동이라는 지명을 고유명사화해 붙임표 없이 하나의 단어로 표기; 신전동을 지명으로 간주 'Old House in Sinjeon-dong'이라고 표기해야 할지 '신전동'을 문화재명의 일부로 간주, 고유명사화해 'Sinjeondong Old House'라고 해야 할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일관성 결여	금관가야 대가야	Geumgwan Gaya Dae Gaya	국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고 한 단어로 씀. 단 가야연맹에 속하는 나라들의 경우 '가야'를 구분해서 쓰기 위해 두 단어로 나눠서 표기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일관성 결여	대가야왕릉전시관	Daegaya Royal Tomb Pavillion	'대가야'의 영문 표기는 국가명인 경우 'Dae Gaya'로 표기하지만 기관명에 'Daegaya'로 표기된 기존 방식을 존중한다는 입장. 하지만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면서 표기방식이 이처럼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혼선을 초래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요석궁지	Princess Yoseok's Palace Site	요석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공주라는 직위도 함께 명시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견훤왕궁지	Gyeonhwon's Palace Site	견훤의 직위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이름만 제시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경희궁 숭정전	Sungjeongjeon Hall in Gyeonghuigung Palace	고궁이나 사찰의 부속 건물을 나타낼 때는 '부속건물+in+고궁/사찰' 형태로 표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창덕궁 휘정당	Huijeongdang Hall of Changdeokgung Palace	'부속건물+of+고궁' 형태로 표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군위삼존석굴	Gunwi Buddha Triad Grotto	'석굴' 을 'Grotto'로 표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칠곡노석리마애불상군	Noseongni Rock-carved Buddhas of Chilgok	지명이 포함된 유적이나 유물의 경우 그 지명을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지명이 중복되는 경우, 하위지명을 우선 표기한다'는 관광공사 외국어 표기 원칙에 위배; 이 원칙에 따를 경우 'Rock-carved Buddhas in Noseok-ri, Chilgok'으로 표기되어야 함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Hwajeonlli Stone Buddhas of Yesan	예산'과 '화전리'라는 행정 구역 정보 중 '화전리'만 고유명사로 간주하고 '예산'은 행정 구역 정보로 간주, 문화재명 뒤에 표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Yeoju Gyesilli Standing Rock-carved Buddha	'여주' 와 '계신리'라는 행정 구역 정보를 모두 고유명사로 간주 문화재명 앞에 표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Hwajeonlli Stone Buddhas of Yesan	예산'과 '화전리'라는 행정 구역 정보 중 '화전리'만 고유명사로 간주하고 '예산'은 행정 구역 정보로 간주, 문화재명 뒤에 표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백천사약사와불	Recumbent Medicine Buddhas of Baekcheonsa Temple	약사를 'Medicine Buddha'로 표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천마총	Cheonmachong Ancient Tomb	천마총' 전체를 고유명사화 하되 오래된 무덤이라는 의미의 'Ancient'를 추가 정보로 제공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사육신묘	Sayuksinmyo Shrine	사육신묘는 사육신을 모신 사당이 함께 있으므로 이를 다른 묘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Shrine'이라는 의미역 병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좌수영무주망령천도비	Memorial Stone for Victims of Japanese Invasion in 1952	역사적 배경까지도 제공하는 완전한 의미역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의견비	Uigyeonbi Monument	완전한 고유명사화 및 음역. '의견'은 '의로운 개'를 뜻하는 말로 'Memorial Stone for Faithful Dog'이라는 의미이지만 이를 하나의 고유명사화해 표기함으로써, 의미 전달이 전혀 불가능함; 의미역과 음차역 간의 구분이 모호함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수원화성	Suwon Hwaseong Fortress	'Suwon' 과 'Hwaseong' 을 개별 단어로 처리하여 띄어쓰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남도석성	Namdo Stone Fortress	돌로 만든 성이라는 의미역을 병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몽촌토성	Mongchontoseong Fortress	토성이라는 의미 병기를 하지 않고 '몽촌토성'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처리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사직단	Sajikdan Altar	'사직단' 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하되, 제단이라는 뜻의 'Altar'를 병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소쇄원 광풍각	Soswaewon Gwangpunggak Pavillion	소쇄원의 부속건물이므로 관광공사의 표기지침에 따라 'Gwangpunggak Pavilion in Soswaewon Garden'으로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쇄원을 지명으로 간주, 고유명사화하였음.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도산서원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서원'의 의미역으로 관광공사는 특수분야의 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의미하는 'Academy'를 택함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강릉향교	Gangreunghyanggyo Confucian School	관광공사는사립학교의 성격이 강했던 '서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립교육기관인 '향교'는 'Confucian School'로 표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남산봉수대	Namsan Beacon Fire Station	서울시는 남산을 지명으로 간주하여 문화재명 뒤에 별도의 음차역으로 표기한데 반해, 관광공사는 남산을 문화재명의 일부로 간주, 음차역으로 문화재명 앞에 표기하고 이어 '봉수대'는 의미역으로 병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초지진	Chojijin Fort	초지진' 전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 음차역으로 표기하고 '진'에 대한 의미정보 'Fort' 병기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갑곶돈대	Gapgot Fortification	'갑곶'을 고유명사화, '돈대'를 의미역 표기

	외국어관광안내표기용례집	부정확한 번역	금산인삼약령시장	Geumsan Ginseng Yaknyeong Market	약령'의 긴 음차 번역은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못함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일관성 결여	남산	Namsan Mountain	남산의 음차역과 '산'이라는 의미역을 병기
한식재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밥	부정확한 번역	밥	cooked grains(bap refers to grains, such as rice, barley, and beans)	밥'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됨==> 콩을 조리한 것을 '밥'으로 보기 어려움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국	생략/첨가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고기나 채소로 만든 소를 넣고 빚은 만두를 육수에 넣어 끓인 음식이다.	Minced meat and vegetables wrapped in thin flour shells and boiled in beef broth. Oval shaped rice pasta may be added.	떡을 넣을 수도 있다는 뒷 문장이 첨가됨. 만둣국의 바로 다음 항목이 떡만둣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내용 첨가로 정보 전달을 복잡하게만 만들고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볶이	일관성 결여	떡볶이	topokki	로마자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편하도록 최근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발음표기 채택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전	일관성 결여	김치전	kimchi jeon	김치전'을 재료인 '김치'와 조리 유형을 나타내는 '전'의 두 개의 개별 고유명사로 간주, 띄어쓰기 하였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전	일관성 결여	파전	pajeon	파'와 '전'의 두 개 고유명사가 아니라 'pajeon'을 하나의 고유명사화하여 표기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밥	부정확한 번역	밥	cooked grains(bap refers to grains, such as rice, barley, and beans)	밥'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됨==> 콩을 조리한 것은 '밥'으로 보기 어려움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설렁탕	부정확한 번역	설렁탕	ox bone soup	소뼈만 우려서 끓인 국으로 보이나 설명을 보면 '소머리, 쇠족, 쇠고기, 뼈, 내장 등을 함께 넣었다'고 되어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불고기쌈	일관성 결여	밥	steamed rice	cooked rice, cooked grain, steamed rice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김치	부적절한 번역	보쌈	napa wraps with pork	napa cabbage라고 써주지 않아 오해의 여지가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젓갈	상위어/하위어 번역	젓갈(명란젓, 오징어젓, 굴젓)	salted pallack roe, squid, and oysters	젓갈'이라는 용어에 대한 대응어 없이 염장처리한 명란, 오징어 등으로 번역하였음
	한식메뉴외국어표기 길라잡이>만둣국	생략/첨가	밀가루 반죽을 곱게 밀어 고기나 채소로 만든 소를 넣고 빚은 만두를 육수에 넣어 끓인 음식이다	Minced meat and vegetables weapped in thin flour shells and boiled in beef broth. Oval shaped rice pasta may be added	떡을 넣을 수도 있다는 뒷문장은 불필요한 첨가임. 더욱이 바로 다음 항목이 떡만둣국으로 떡에 대한 설명이 있음
안전행정부	정보화마을 인빌 웹사이트	일관성 결여	중원미륵리사지	Jungwon Mireuk-ri Temple Site	문화재 명칭에 '미륵리'라는 행정 구역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 관광공사는 행정 구역 명칭을 소리나는대로 음역하여 고유명사화하여 표기하였으나, 행안부의 경우는 행정 구역 명칭을 그대로 살려 표기함

번역 결과물 분석 – 영어 –공공기관 웹사이트

기관	출처	오류유형	출발어	도착어	오류 내역 설명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engMain.jsp#L3B1YnMvcG90L0lyb3NFbmdJbnRyb0luc3R0JEBeMTAx	문법오류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Data Portal helps by providing a variety of services to support people's lives more convenient, wealthy, and take advantage of the country has a variety of public information.	문법 오류가 포함된 비문이 빈번히 등장, 이해 불가한 문장들이 연이어 등장, 심각한 오류 수준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279&layoutMenuNo=21002	문법오류		This homepage hosts a variety of menu such as "Guide to the customs administration", "Customs policy", "Introduction to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News/notices" and the "Customers' voice" to provides diverse and useful information for each field	To 부정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원형으로 표기하는 영어 문법 규칙에 위배. 'to provide'로 표기해 주어야 함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340&layoutMenuNo=21061	수용성 부족	실제 동물이나 식물과 비교, 확인함으로써	Also by contrasting and confirming them with the actual animals or plants	contrasting을 서로 대비디는 것을 대조한다는 의미이므로 'comparing'이 더 일반적이고 적합한 표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286&layoutMenuNo=20972	철자 오류 (대/소문자)	실무그룹	Working group	조직/부서의 명칭명 개별 단어들을 모두 대문자로 표기해 주어야 함
국립고궁박물관	http://www.gogung.go.kr/fgn/jsp/en/html/introduction/introduction2.jsp	문법 오류	3개 부서	The Museum has three Division and thirty-five government officials	three Divisions'가 문법적으로 맞는 표기
	http://www.gogung.go.kr/fgn/encommunity.do?cmd=communityMain&bbs_code=CADM05	일관성 결여	박물관 카페	FAQ 에서는 Gogungddrak, the cafe on the first floor, facilities 에서는 museum café로 표기	동일 시설물(박물관 카페)을 달리 표기
	http://www.gogung.go.kr/fgn/jsp/en/html/gallery/gallery1.jsp	일관성 결여	덕수궁	Deoksugung	문화재청과 관광공사는 '음역+의미역'의 형태로 'Deoksugung Palace'로 표기하는 데 반해, 국립고궁박물관은 음역 표기만 제시
	http://www.gogung.go.kr/fgn/encommunity.do?cmd=communityMain&bbs_code=CADM05	일관성 결여	박물관 카페	FAQ 에서는 Gogungddrak, the cafe on the first floor, facilities에서는 museum café로 표기	동일 시설물(박물관 카페)을 달리 표기하였음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9001/eng/index.jsp	부정확한 번역	국악	Gugak, gugak	핵심 단어인 '국악'에 대해 음차 번역만 제시, 부연/보충 설명 누락
	http://www.gugak.go.kr:9001/eng/regional/busa_idx.j	부정확한 번역	영남지방	South Western area	의미역만 제시 => '영남'이라는 고유명사화된 지명 정보 누락
	http://www.gugak.go.kr:9001/eng/regional/busa_idx.jsp	부정확한 번역	영남지방	South Western area	South Western-> Southwestern이 바른 철자 표기
	http://www.gugak.go.kr:9001/eng/about_national/muse_idx.jp	일관성 결여	세종대왕	Sejong the Great King Sejong the Great	세종의 직위가 생략됨. 임금의 이름에는 직위를 뜻하는 'King'을 병기해야 함. 한국어에서 '이름+직위'는 영어에서 '직위+이름'의 형태로 표기
	http://www.gugak.go.kr:9001/eng/about_nation	일관성 결여	조선왕조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이탤릭)*	각기 다른 대소문자 및 이탤릭체 표기 방식이 혼용; 과거 왕조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의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해야 함
	http://www.gugak.go.kr:9001/eng/performance/perf_viw.jsp?boardId=30009045&year=2013&month=10	일관성 결여	태평무 살풀이	Taepyungmu Salpurichum(Dance of Exorcism)	동일한 페이지에서도 '태평무'의 경우는 음차역만을 제시하는 반면, '살풀이춤'의 경우는 추가 정보인 의미역을 괄호 안에 제시

	http://www.gugak.go.kr:9001/eng/about_national/gree_idx.jsp	철자 오류 (대/소문자)	국립국악원	The 6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문장 중간에 등장하는 'the'는 소문자 표기해야 함
국립극장	http://www.ntok.go.kr/english/jsp/board/education.jsp?cate1=B0007&cate2=B71	부정확한 번역	강강술래	Gang Gang Sul Le	의미역을 병기하지 않음으로써 영문 표기만을 보면 이것이 춤의 명칭이라는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음
	http://www.ntok.go.kr/english/jsp/board/education.jsp?cate1=B0007&cate2=B71&idx=491&searchType=&searchKeyword=&searchCTGR=&searchECSV=&searchMSTT=	부정확한 번역	소고춤	So-Go-Chum	음차역만 제시하므로 소고춤이 춤의 일종이라는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http://www.ntok.go.kr/english/jsp/board/education.jsp?cate1=B0007&cate2=B71	일관성 결여	강강술래	Gang Gang Sul Le	관광공사 표기법에서는 '강강술래'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 'Ganggangsullae'로 표기한 반면 국립극장은 각 음절을 띄어쓰기 하고 각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
	http://www.ntok.go.kr/english/jsp/board/education.jsp?cate1=B0007&cate2=B71&idx=491&searchType=&searchKeyword=&searchCTGR=&searchECSV=&searchMSTT=	일관성 결여	강강술래	Gang-Gang-Sul-Rae	동일한 기관의 영문 홈페이지 내에서도 동일한 한국어 명칭에 대해 각기 다른 음차역 표기 방식을 혼용
	http://www.ntok.go.kr/english/jsp/eh/eh03_1ht02i.jsp	일관성 결여	남산	located on Namsan	남산에 대해 의미역만 제시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language/english/htm/info3_conven.htm	철자 오류 (대/소문자)	휠체어와 유모차	Wheelchairs and Strollers are available at the Museum's Lobby with free of charge.	문장 중간에 등장하는 단어이 첫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해야 함. 'strollers' 'lobby'
	http://www.nfm.go.kr/language/english/htm/mu	일관성 결여	귀밝이술	정월대보름행사 안내 표에서 'Gwibalgisul(ear-sharpening wine)과 Ear-quickening wine 혼용	동일 대상(귀밝이술)에 대한 음차 번역과 의미 번역을 혼용하였음
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eng/09_pro/pro_esc.asp	생략/첨가	강연료	The program assistance includes honorarium amounts for professors,	honorarium' 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직역식으로 honorarium amount를 넣어줌
	http://www.kf.or.kr/eng/05_abo/abo_org_aoa.asp	생략/첨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들	The Foundation operates an advisory committee consisting of Korean and overseas specialists who provide specialized advice and opinions.	불필요한 보충 설명 제공 (specialists who provide speicalized advice and opinions)
	http://www.kf.or.kr/eng/01_sks/sks_wor_swa02.asp	실적	실적	Results	부적절한 어역의 단어를 취함. 'Past records', 'Past achievements'가 적절한 번역
	http://www.kf.or.kr/eng/09_pro/pro_sem_01.asp	일관성 결여	이동성 김병국	Lee Dong Sung, Byung-Kook Kim	이름 표기 방식 일관성 결여
	http://www.kf.or.kr/eng/09_pro/pro_int.asp	철자 오류 (대/소문자)	1. 신청서 2. 자기소개서	① Application form (attachment) ② Statement of Purpose: a one page personal statement	대/소문자 표기 일관성 결여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kiks/main.do?m=01z05	편집과 체계 문제		Directions - Map	찾아오는 길 소개에서 한국어 교내 지도가 나와 있어 외국인에게는 해독 불가능함
	http://e-kyujanggak.snu.ac.kr/kiks/board.do?m=03z03z01&method=view	부적절한 번역	소장자료 현황	Breakdown of Holdings	소장자료의 종류를 항목별로 구분해 보여주는 표의 제목임. Breakdown of Holdings는 주로 자산 보유 상태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용어로 적절치 않음
	http://e-kyujanggak.snu.ac.kr/kiks/board.do?m	발음표기법 오류	고려왕조	Koryeo Dynasty Goryeo Dynasty	로마자 표기법의 두음에 나오는 'ㄱ' 소리는 'G'로 표기한다는 원칙에 위배,

	http://e-kyujanggak.snu.ac.kr/kiks/board.do?m=05_01&p=01&method=view&boardNum=165	부정확한 번역	퇴계학파	Toegye School	Toegye에 대한 음역만 제공, 부연 설명 누락
	http://e-kyujanggak.snu.ac.kr/kiks/board.do?m=07_01&method=view&boardNum=125	부정확한 번역	사기	Sagi	사기'의 음차역인 'Sagi'만 제시. 역사서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역은 누락
	http://e-kyujanggak.snu.ac.kr/kiks/board.do?m=03z03z02&method=view	일관성 결여	삼국유사	Samguk yusa (History of the Three Nations),	삼국유사'의 음차역은 문화재청의 표기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의미역에서 '삼국'을 'Three Nations'로 표기
	http://e-kyujanggak.snu.ac.kr/kiks/board.do?m=03z03z02&method=view	일관성 결여	조선왕조실록	Joseon wangjo sillok (Formal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관광공사, 문화재청 표기와 일치하지 않음
	http://e-kyujanggak.snu.ac.kr/kiks/board.do?m	일관성 결여	고려왕조	Koryeo Dynasty The Eminent Koryŏ Monk Goryeo Dynasty	'Koryeo', 'Goryeo', 'Koryŏ'를 혼용
기상청	http://web.kma.go.kr/eng/aboutkma/mission.j네	철자 오류	국민 복지를 위한 기상 서비그 개선	upgrade weather service for the wel-being of people	'well-being'이 올바른 표기
대한민국예술원	http://www.naa.go.kr/eng/business/business01.asp	관용성 위배	자격 및 분야	qualificaiton and department	분야는 'areas'로 번역해주어야 함
	http://www.naa.go.kr/eng/business/business01.asp	관용성 위배	일반심사위원회	General judgement committee	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Screening Committee'라고 표현.
	http://www.naa.go.kr/eng/info/info01.asp	문법오류	해외 및 국내 거주 예술인	artists living in foreign or Korea	foreign 다음에 'countries'가 누락되어 비문이 됨
	http://www.naa.go.kr/eng/business/business04.asp	생략/첨가	강연회	Lecture meeting	강연회는 'Lecture'라고만 표현해도 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meeting'을 첨가함으로써 어색한 번역이 됨
	http://www.naa.go.kr/eng/info/info03.asp	수용성 부족	조직 개편	rearrangement of office organization	organizational restructuring'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
	http://www.naa.go.kr/eng/info/info07.asp	수용성 부족	위치	Map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는 '위치' 혹은 '찾아오시는 길'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영문 번역은 'Location' 혹은 'Direction'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
	http://www.naa.go.kr/eng/member/member03.asp	수용성 부족	역대 회장	President History	Past Presidents' 혹은 'List of Former Presidents'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영어식 표현
	http://www.naa.go.kr/eng/business/business01.asp	수용성 부족	추천서	a paper of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letter'가 일반적인 표현임
	http://www.naa.go.kr/eng/info/info01.asp	철자 오류 (대/소문자)	대한민국예술원은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문장 중간에 등장하는 'the'는 소문자 표기해야 함
	http://www.naa.go.kr/eng/business/business01.asp	철자 오류 (대/소문자)	일반심사위원회	General judgement committee	조직 내 부서나 기관의 명칭은 각각의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
문화재청	http://jikimi.cha.go.kr/english/search/search_new.jsp	문법오류	동학농민운동	Donghak Farmer's Movement	농민을 소유격으로 표기할 경우 복수로 표기해야 함 'Donghak Farmers' Movement'가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
	http://jikimi.cha.go.kr/english/search/search_new.jsp	일관성 결여	동학농민운동	Donghak Farmer's Movement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는 'Donghak Peasant Revolution'으로 표기

	http://jikimi.cha.go.kr/english/about_new/missi	부정확한 번역		Seogureung Tomb	서구릉'이라는 곳은 없으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 서오릉 혹은 서삼릉의 오기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english/aboutus/history.j네	발음표기 오류	국립국악원의 국악 정책,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운영단 설치	Establish the Planning and Operation Group to enhance policy and planning functions of the National Gukak Institute.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국립국악원'의 올바른 명칭은 'National Gugak Center'; 국립국악원의 주무부처 홈페이지에서 발음표기 오류가 발생
	http://www.mcst.go.kr/english/aboutus/history.jsp	부정확한 번역	육아휴직	pregnancy leave	출산휴가가 'pregnancy leave'이고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maternity leave'가 정확한 번역
	http://www.mcst.go.kr/english/issue/issueView.jsp?pSeq=2840	일관성 결여	건훤	Gyeon Hwon	건훤'을 두 음절의 띄어쓰기 표기; 반면 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에서는 'Gyeonhwon' 하나의 음절로 표기
법무부	http://www.moj.go.kr/HP/ENG/eng_01/eng_1010.j네	관용성 위배	법무부 장관 황교안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Hwang Kyo-ahn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름+직위'의 순으로 표기함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98&strOrgGbnCd=104080&strWrtNo=31&strRtnURL=ENG_4010&strAnsNo=A	일관성 결여	을지로입구역	Euljiro Ipgu Station Eulji-ro Stn.	을지로입구역'의 '을지로'를 하나의 고유명사화하여 'Euljiro'로 표기하는 방식과 행정 구역명인 'Eulji-ro'로 표기하는 방식을 혼용
	http://www.hikorea.go.kr/pt/FaqListR_en.pt?bsGbCd=&langCd=&bbsSeq=&bbsNm=&apndFileCnt=&maxApndFileSize=&writAuthCd=&local=en#	철자 오류 (대/소문자)	근로자의 임금, 지불일	The Business head should regularly pay the Worker's Wage by setting a fixed monthly Payment Date (once or more).	대/소문자 표기 오류
부산광역시	http://etour.busan.go.kr/index.busan?menuCd=DOM_000000201005000000	일관성 결여	범어사	Beomeo Temple	사찰명 전체를 음차역하고 사찰을 뜻하는 의미역을 추가하여 'Beomeosa Temple'로 표기하는 문화재청, 관광공사 표기와 충돌
	http://english.busan.go.kr/01about/01_05.jsp	철자오류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바다의 도시인 부산은 중요한 문화도시이다.	Busan, a city of beautiful mountains, rivers and the sea, is also a important cultural city	an important'로 표기해야 바른 표기
	http://english.busan.go.kr/01about/01_01.jsp	철자 오류 (대/소문자)	한반도	Korean peninsula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해야 함. 'Korean Peninsula'가 바른 표기
	http://etour.busan.go.kr/images/en_sub/c02_m	편집과 체계 문제		해운대 지도에서 신세계 스파, 아이스링크, 백화점에 14, 8, 22로 각기 다른 번호가 부여됨	동일 지점에 위치하는 관광시설들이 마치 떨어져있는 듯 오해하게 만듦. 비효율적 정보 전달
	http://etour.busan.go.kr/board/list.busan?board	일관성 결여	달맞이길	Moontan Road, Dalmajigil Road	동일 대상(달맞이길)에 대한 음차 번역과 의미 번역을 혼용하였음. 다른 곳 (http://stadium.busan.go.kr/english/02sportinfo/03_01.j네)에는 Dalmajigil(Moonlit Road)로 표기되기도 함
서울메트로	http://dmzap1.seoulmetro.co.kr/station/eng/linemap.action	일관성 결여	을지로입구	Euljiro 1(il)-ga	을지로입구역을 'Euljiro 1(il)-ga'로 표기
서울시	http://english.seoul.go.kr/cav/att/de_list.php	일관성 결여	대학로	설명문 제목에서는 Daehangno, 설명 내용에서는 Daehak-ro로 불일치함	동일 지명(대학로)의 서로 다른 표기법이 혼용됨
서울예술단	http://www.spac.or.kr/eng/eng_repert.asp	발음표기법 오류	고려왕조	Koryo Dynasty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면 'Goryeo'가 맞는 표기법
	http://www.spac.or.kr/eng/eng_repert.asp	철자 오류	젊은이들의	Young Peoples Favorite Theatrical Series	Peoples' 소유격으로 표기해야 함
	http://www.spac.or.kr/eng/eng_history.asp	철자 오류	서울	eoul Performing Arts Company	Seoul'의 철자 오류

	http://www.spac.or.kr/eng/eng_repert.asp	철자 오류	초대받았다	Invted to the Beijing International Drama Festival	Invited'가 정확한 표기
	http://www.spac.or.kr/eng/eng_history.asp	철자 오류 (대/소문자)	북한	north Korea	북한은 'North Korea'
	http://www.spac.or.kr/eng/eng_intro.asp	편집 오류			줄이 바뀔 때 한 단어를 두 줄로 나뉘어 분리되면서 가독성을 현저히 떨어뜨림
예술의전당	http://www.sac.or.kr/eng/about/patrons.jsp	문법오류	개인회원등급	Membership grades of Personal	Personal Membership Grades'가 문법적으로 맞는 표기
	http://www.sac.or.kr/eng/about/org.jsp	일관성 결여	개관 재개관	IBK Chamber Hall Opened Music Hall re-opened	동일한 형태의 구문에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일관성 없이 표기됨
	http://www.sac.or.kr/eng/about/org.jsp	철자 오류	세계음악분수	World Music fountain completed	세계음악분수'라는 인공조형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해야 함. 'Fountain'으로 표기
	http://www.sac.or.kr/eng/space/space.jsp	수용성 부족	공간별 소개	Information by Place	과도한 직역으로 어색한 번역. 'About the Complex' 정도로 번역가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eng.unesco.or.kr/wp/staff-information/	관용성 위배	전화번호	Main number	부적절한 관용 표현 (전화 번호를 이야기할 때 main number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어색)
	http://eng.unesco.or.kr/wp/location/	발음표기법 오류	명동	Myong-dong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Myeongdong'으로 표기해야 함
	http://eng.unesco.or.kr/wp/location/	부정확한 번역	남대문	Namdae-moon	음차표기만을 제시함으로써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함; 문화재청 문화재명 표기 규정에 위배되는 번역
	http://www.unesco.org/mabdb/br/brdir/directory/biores.asp?mode=gen&code=ROK+03	부정확한 번역	신안 다도해	Sinan Dadohae	음차 표기만이 제시되어 있어 신안다도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전달하지 못함
	http://eng.unesco.or.kr/wp/location/	일관성 결여	명동 2가 명동성당	Myong-dong 2-ga Myeongdong Catholic Catherdral	명동'을 고유명사화해 'Myeongdong'으로 표기해야 함에도 주소와 건물명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를 다르게 표기함
제주도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utJeju/intro/intro	문장부호 오류		In addition, with the touch of fingertips one can find information about restaurants, night life, shopping and transportation?	평서문으로 끝나는 문장의 끝에 '물음표' 부호를 잘못 표기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utJeju/Beauty/video-attractions/jeju-city?act=view&seq=1099&bd_bcid=en_jeju_video&page=1	부정확한 번역	결국 호종단이 돌아가지 못한 곳이라 하여 차귀도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Since they could not get back to their homeland, the island nearby was named Chagwi Island.	차귀도' 섬의 명칭이 생긴 유래에 대한 설명이지만, 의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 '차귀도'에 대한 음차번역 이외에 뜻풀이 추가제공 필요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utJeju/intro/intro	일관성 결여	한라산	Mt. Halla	문화재청, 관광공사의 자연지명 '산' 표기 방식은 'Hallasan Mountain'. Mt. Halla'와 'Hallasan Mountain'을 혼용하고 있음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utJeju/Beauty/video-attractions/jeju-city?bd_bcid=en_jeju_video&page=2	철자 오류 (대/소문자)	제주국립박물관	Jeju national museum	기관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해야 함. 'Jeju National Museum'이 바른 표기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utJeju/info/jeju-city/history	철자 오류		1105 (King Sukjong, Goryeo) Tamna-gun establis ed (pa t of Goryeo)	띄어쓰기 오류(establis ed), 탈자 (pa t of Goryeo)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utJeju/info/jeju-city/history	편집과 체계 문제		Oct. 1, 1983 ???	제주시 역사를 표로 정리한 부분에서 날짜 옆에 아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	편집과 체계 문제			서귀포 시 역사를 표로만 제시하고 텍스트로 설명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움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	부정확한 번역		Sambyeolcho is incorporated into Jejudo	삼별초'를 음차 번역만 해두어 아무 정보도 전달되지 않음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	부정확한 번역		There are 14 hyeonchons excluding Daechon	현천'과 '대천'을 음차 번역하여 아무 정보도 전달되지 않음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	부정확한 번역	제주목에 정의·대정현 설치	Jejumok, Jeongeui, and Daejeonghyeon established	제주목', '제주의', '대정현'을 음차 번역하여 아무 정보도 전달되지 않음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	부정확한 번역		Garae Banghoso is moved to Donghae	가래 방호소'를 음차 번역하여 아무 정보도 전달되지 않음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	부정확한 번역	군제 폐지, 도제(島制)로 개편	Gunje is abolished and Doje implemented	군제'와 '도제'를 음차 번역하여 아무 정보도 전달되지 않음
청와대	http://english.president.go.kr/tours/place_buildings/place07.php	문법오류	1층은 기자들이 사용하는 기자실과 자료실 겸 작은 브리핑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대통령 기자회견 및 각종 브리핑 등을 하는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The first and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has a pressroom and briefing room, respectively.	1층과 2층 두 개층이므로 'floor'가 아니라 'floors'로 표기해야 하며 동사도 'has'가 아니라 'have'로 표기; 단수/복수 표기 오류
	http://english.president.go.kr/main.php	일관성 결여	독도	Dokdo	의미역 없이 음차 표기만을 제시
	http://english.president.go.kr/tours/place_buildings/place01.php	일관성 결여	영빈관	Youngbin-gwan	청와대 부속건물의 하나인 '영빈관'은 붙임표(-)를 넣어서 표기
	http://english.president.go.kr/tours/place_buildings/place03.php	일관성 결여	경무대	Gyeongmudae	같은 부속건물임에도 '경무대'의 경우는 붙임표(-) 없이 표기
	http://english.president.go.kr/tours/place_buildings/place03.php	일관성 결여	경복궁	Gyeongbok palace	문화재청, 관광공사의 표기 방식인 '음차역+의미역' 방식이 아니라 '경복'만 음차역으로 'Gyeongbok'으로 표기하고 '궁'은 의미역으로 따로 표기하되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표기함
	http://english.president.go.kr/tours/sarangchae/sarangchae.php	철자 오류	서울홍보관 카페 기념품 판매점	On the ground floor, you will find Republic of Korea Hall, Public Relation Center of Seoul, Cateteria, and Souvenir shop.	1. '홍보를 의미하는 'Public Relations Center of Seoul'이 정확한 표기, 2. 카페는 'cafeteria'가 정확한 표기(철자 및 데/소문자 표기 오류), 3.기념품판매점은 'souvenir shop'으로 소문자 표기해야 함.
	http://english.president.go.kr/president/presidents/her_story.php	철자 오류		From then on, she won a total of five consecutive general elections in thedistrict.	띄어쓰기 오류(thedistrict.)
한국관광공사	http://english.visitkorea.or.kr/mapInfo.kto?func_name=main&md=enu	일관성 결여	독도	Dokdo Island	관광공사의 자연지명 표기 지침에 따라 '독도'를 고유명사화하여 음차역으로 표기하고 섬을 나타내는 'Island'를 병기
한국문학번역원	http://eng.klti.or.kr/ke_01_04_011.do	부정확한 번역	문고리 모양	the door knob symbol	door knob'은 서양 건축물의 문손잡이를 연상시킴. 한옥의 문고리는 'ring-shaed door handle'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문고리의 모양을 더 쉽게 연상할 수 있음

	http://eng.klti.or.kr/ke_04_03_011.do	일관성 결여	금수회의록	A Record of the Meeting among Birds and Beasts (Geumsu hoeuirok)	책이름 번역시 의미를 풀어서 번역. 음차역을 괄호안에 제시 혹은 제시하지 않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사정보통합 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eng/intro/viewHomeInfo.jsp	일관성 결여	동학농민운동	Donghak Peasant Revolution	문화재청은 'Donghak Farmer's Movement'로 표기
	http://glossary.aks.ac.kr/SearchList.aspx?skey=동학&type=title	부정확한 번역	동학운동	Eastern Learning religious movement	영문의미 정보를 추가 정보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Eastern Learning religious movement'라고 '동학'을 그대로 직역한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http://glossary.aks.ac.kr/SearchList.aspx?skey=동학&type=title	일관성 결여	동학운동	Donhak Undong	동학운동을 '동학'과 '운동' 두 개의 공유명사로 이루어진 음차역으로 표기. '운동'도 음차역으로 표기
	http://glossary.aks.ac.kr/SearchList.aspx?skey=강강술래&type=title	일관성 결여	강강술래	Ganggang Sullae	강강술래'를 음차역으로 표기하고는 있지만 띄어쓰기에서 '강강'과 '술래' 두 개의 개별 단어가 합해진 형태로 표기
	http://glossary.aks.ac.kr/SearchList.aspx?skey=종묘&type=title	일관성 결여	종묘	Jongmyo	종묘'에 대한 음차역만 제시. 관광공사와 문화재청은 'Jongmyo Shrine'으로 음차역+의미역 병기 형태를 취함
	http://glossary.aks.ac.kr/SearchList.aspx?skey=경복궁&type=title	일관성 결여	경복궁	Gyeongbokgung	경복궁'에 대해 음차역만 제시. 한국학영문용어용례사전의 경우 영문 의미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영문 의미의 오류가 빈번함. '경복궁'에 대한 영문 의미로 'Kyŏngbok Palace'를 제시함으로써 MR 방식을 영문 의미에 반영하고 '궁'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보가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음

번역 결과물 분석 – 일어 –공공기관 웹사이트					
기관	출처	오류유형	출발어	도착어	오류 설명
국립고궁박물관	http://www.gogung.go.kr/fgn/jsp/jn/html/introduction/introduction2.jsp	생략/첨가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時間や空間の制約なく、情報のやり取りができる場となれば幸甚に存じます	다시 만들어 선보이다'의 의미인 '作り直してお目見えします'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문화재청	http://jpn.cha.go.kr/japanese/html/sub1/sub1.jsp	부정확한 번역	물질적육체적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얻은 지혜의 정수들을 기반으로 이제 문화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その解決の道程の中で得られた智恵の真髄に基づき	넘어가는 길'이라는 뜻을 '도정'으로 표현하였으나, 일본어에 좀처럼 쓰이지 않는 표현으로 '해결하는 중'이라는 표현인 '解決しつつある'정도 번역할 수 있음
	http://jpn.cha.go.kr/japanese/html/sub1/sub1.jsp	부정확한 번역	공유할 소중한 보물	共有すべき至宝	보물'은 통상 '宝物'로 표현함
	http://jpn.cha.go.kr/japanese/html/sub1/sub1.jsp	문법 오류	문화가 생활이고 생활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文化が生活でかつ生活が文化になれるよう、誠心誠意尽力してまいりします。	진력하다'와 겸양어의 복합동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尽力してまいります'가 옳은 표현
	http://jpn.cha.go.kr/japanese/html/sub1/sub3.jsp	수용성 부족	하고 있는 일	行っている任務	일'을 '임무'로 표현하였으나 원문의 내용상 '업무'가 적절하다. '業務内容'로 번역함
	http://jpn.cha.go.kr/japanese/html/sub1/sub3.jsp	수용성 부족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国民の文化的な向上を図ることを基本任務としています	원문의 '문화적 향상'이라는 표현도 어색하지만 일본어에서 문화는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 이 맞다. '文化の発展'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다.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japanese/index.jsp	한자 오류	대한민국	大韓民國	한국한자를 사용하였음. '大韓民国'이 일본한자임
	http://www.mcst.go.kr/japanese/index.jsp	철자 오류	구루메	ブルメ	단순한 철자오류. '부루메'로 잘못 표기되었음. 'グルメ'로 고쳐야 함
	http://www.mcst.go.kr/japanese/vision/vision2.jsp	수용성 부족, 한자오류	문화융성'의 토대 구축	国民の生活と現場で「文化隆盛」を実踐	문화융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므로 이와 유사한 뜻인 '문화입국'으로 표현하고, 한국한자인 '실천을 일본한자로 고쳐야함. '文化立国を実践'
	http://japanese.korea.net/AboutKorea/Korea-at-a-Glance/Facts-about-Korea	수용성 부족	한국의 모든 것	韓国のすべて	모든 것'을 축어역하여 부자연스럽다. '한국 알기' 등의 관용표현인 '韓国丸分かり'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http://japanese.korea.net/AboutKorea/Korea-at-a-Glance/Facts-about-Korea	문법 오류		などでしたあると調査されました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などと調査されました'로 고쳐야 함
	http://japanese.korea.net/AboutKorea/Korea-at-a-Glance/Facts-about-Korea	한자 오류	신앙의 자유	信教の自由	신앙의 자유'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추정. '信仰の自由'
	http://japanese.korea.net/AboutKorea/Korea-at-a-Glance/Facts-about-Korea	부정확한 번역		人当たり	한 사람당, 일인당'은 '一人当たり'이다. 본문은 '사람당'으로 해석되므로 잘못된 번역
	http://japanese.korea.net/AboutKorea/Korea-at-a-Glance/Facts-about-Korea	생략/첨가		形成するうえでの決定的な要素として要素です。	결정적인 요소로서 요소입니다'로 번역되어 있음. '形成するにおける決定的な要素です'로 고침
	http://www.mcst.go.kr/japanese/bureauofOffice/deptIntro01.jsp	관용성 위배		真正・不正事項の調査・処理	원문의 단어인 '민원'은 일본어로 '苦情'가 일반적임
	http://www.mcst.go.kr/japanese/bureauofOffice/deptIntro01.jsp	관용성 위배	민원일반 및 민원상담	請願一般・請願相談	한국어 '민원'을 적절한 일본어로 바꾸면 역시 '苦情' 정도일 것임
	http://www.mcst.go.kr/japanese/bureauofOffice/deptIntro01.jsp	수용성 부족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진흥 정책의 수립	国民の文化芸術享受権の伸張のための芸術振興政策の樹立	문화향유권의 '신장' 이라는 어휘가 어색

법무부	http://www.moj.go.kr/HP/JPN/	수용성 부족		国民のよい隣人	원문 확인이 안되지만 '이웃'을 한자어로 표현하니 어색. 파트너, 동반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음. 'パートナー'
	http://www.moj.go.kr/HP/JPN/10.htm	수용성 부족	행정을 하겠습니다	行政をします	행정을 하다'라는 한국어표현도 어색하지만 이를 한자어로 축어역하여 어색. '행정으로서 노력하다'의 의미인 '行政として取り組みます'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www.moj.go.kr/HP/JPN/20.htm	수용성 부족	참여 확대	参与の拡大	참여'라는 한자어는 일본어에서 잘 사용하지 않음. '참가'로 번역하여 '参加拡大' 나 '参画拡大'가 자연스러움
	http://www.moj.go.kr/HP/JPN/30.htm	수용성 부족	구현	具現	구현'이라는 한자어는 잘 쓰이지 않는다. '실현'으로 번역하여야 함. '実現'
	http://www.moj.go.kr/HP/JPN/20.htm	문법 오류		高品質な法務サービスの提供	고품질'은 명사인데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高品質の'로 고쳐야 한다.
부산광역시	http://japanese.busan.go.kr/02government/01_01.jsp	철자오류, 문장부호 오류	허남식	フォ　ナムシキ	인명 표기법이 틀렸고, 성과 이름 사이에 가운데점을 찍어야 함. 'ホ・ナムシク'가 옳은 표기
	http://japanese.busan.go.kr/02government/01_01.jsp	부정확한 번역	모두의 소망과 꿈이 모여	諸々の希望と夢が融和すれば	모두의'가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로 번역되었음. 또한 '모여'가 '융화'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어색. 모두의 희망과 꿈이 하나가 되어'의 의미인 '皆の希望と夢が一つになり'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02government/01_01.jsp	수용성 부족	꿈 너머의 꿈을 이루는데	夢また夢を成し遂げる	夢の向こうにある更なる夢をかなえる
	http://japanese.busan.go.kr/01about/01_01.jsp	수용성 부족		天恵の自然環境を抱いています。	천혜의' 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 이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여 '自然環境に恵まれています'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01about/01_01.jsp	수용성 부족	부산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位相を加一層高めています	위상'이라는 한자어는 어색하다. 이에 해당하는 '位置づけをさらに高める'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01about/01_01.jsp	문법 오류		釜山新港開発を2015年に完工する目標にして推進中である	문법 오류. 이 문장을 해석하면 '완공하는 목표로서'가 됨. '観光することを目標にして'(완공하는 것을 목표로하여)로 수정해야 함
	http://japanese.busan.go.kr/01about/01_01.jsp	수용성 부족		前途洋々たる都市	전도양양한'을 그대로 한자어로 번역하여 어색. '발전성이 있는' 등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음. '発展性のある都市'
	http://japanese.busan.go.kr/01about/01_02.jsp	부정확한 번역	상징합니다	表徴しています	한자어가 틀렸음. '象徴しています;가 맞는 표현임
	http://japanese.busan.go.kr/01about/01_02.jsp	문법 오류	잘 드러내기 때문에	代弁して余りあります。	잘'을 번역하려다 통사구조도 오류가 발생. '드러내다'의 뜻인 'よく表れている'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01about/01_03.jsp	수용성 부족	중엽까지	中葉まで	시대 구분 시 '중엽'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음. '半ばまで' 등으로 번역함
	http://japanese.busan.go.kr/01about/01_04.jsp	수용성 부족	신라의 숨결 속에	新羅のいぶきがに活きる	숨결', '살다' 의 표현이 어색. '新羅の息遣いが感じられる'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01about/01_04.jsp	수용성 부족	진취적 기상으로	進取的気象で	진취적'이라는 한자어는 잘 쓰지 않음. 같은 뜻으로 '前向きな気性で' 등으로 번역해야 함
	http://japanese.busan.go.kr/01about/01_04.jsp	수용성 부족	이바지할 것이다	専心全力を傾注する。	이바지하다'를 '전심전력을 경주하다'로 번역하여 어색. '資する、全力を尽くします'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02government/02_01.jsp	수용성 부족		第6代の出帆を迎え、	정권, 또는 새로운 기수가 발족, 출범할 때는 일본어 한자로 '발족'을 많이 사용함. '第６代も発足を迎え'로 번역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02government/02_01.jsp	철자 오류	22척	22船席	단위표현이 잘못되었음. '척'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22隻'임

http://japanese.busan.go.kr/02government/02_01.jsp	문법 오류		釜山は1990年代までだけしても、繊維などを中心とした低付加価値の産業構造の下で製造業の輸出不振などで低成長を持続したが	釜山は1990年代までだけしても' 부분이 문법적으로 오류. '까지'와 '~만 해도'가 결합된 부분인데. 'だけ'가 없어야 문장이 성립함
http://japanese.busan.go.kr/02government/02_01.jsp	문장부호 오류		観光。MICE産業育成を通じた北東アジア観光コンベンション産業の中心地として	관광, MICE 산업 육성'인데 마침표에 해당하는 '。'가 사용되었음
http://japanese.busan.go.kr/02government/02_01.jsp	일관성 결여		再編作業 / 5大産業に改編	동일한 페이지 내에 한국어 표현인'개편'을 재편이나 개편으로 다르게 번역하였음. 보통 '조직 개편'의 경우에 일본어는 '再編'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음
http://japanese.busan.go.kr/02government/02_01.jsp	철자 오류		センチュリービルには地域ソフトフェア産業の基他役割を標榜して2000年にオープンした。	기타 역할'의 원문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를 한자음이 같은 한자로 변환하였음
http://japanese.busan.go.kr/02government/02_01.jsp	생략/첨가		東北亜地	동북아'를 뜻하는 단어는 '北東アジア'임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2.jsp	수용성 부족		面貌が一気に変貌します	면모가 완전히 변모한다'의 의미인데, 한자어가 어색함. '보습이 완전히 바뀐다'의 의미인 '姿が完全に変わります' 등으로 쉽게 표현함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2.jsp	한자 오류		生まれ代わります。	한자 표기가 틀렸음. '生まれ変わります'가 맞는 표현임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6.jsp	문법 오류		釜山をしてアジアにおける	조사 사용이 틀렸음. '釜山をアジアにおける' 로 고쳐야 함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5.jsp	수용성 부족		セカンドベクスコ(BEXCO) 建立ます。	건립'이라는 동사는 잘 사용하지 않음. 건설하다 등으로 바꾸어주여야 함. 'セカンド・ベクスコを建設します'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4.jsp	부정확한 번역	사랑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人間と自然が相生する生命の空間に変貌します	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어에서는 어색하여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음. '공생' 등으로 바꾸는 것이 나음. '人間と自然が共生する '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4.jsp	철자 오류, 수용성 부족		自然の文化、美麗が一団となって「釜山市民公園」を創生します	하나가 되어' 등의 뜻으로 추정되는데 '함께' 라는 뜻으로 '文化や未来がともに'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4.jsp	수용성 부족	넓은 잔디밭,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広闊な芝生、清冽に流れる河川、各種公演と家族連れが施設と相俟ったきれいな都市公団造成します	광활'이라는 한자어는 잘 사용하지 않음. '매우 넓은'이라는 뜻으로 '広々とした芝生'로 표현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4.jsp	부정확한 번역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清冽に流れる河川	본문의 한자어는 의미불명. '清水の流れる河川' 등으로 고쳐야 함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4.jsp	부정확한 번역	시설이 어우러진	施設と相俟った	어우러진'의 사전적 뜻으로 단어를 선택하여 의미가 불분명. '조화를 이룬 '이라는 뜻이 '어울리다'에 더 적합. '施設と調和した'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8.jsp	수용성 부족	부산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커집니다	釜山の位相と役割が従って広大になります。	위상'이라는 한자어는 잘 사용하지 않고, '광대해지다'라는 단어가 어색함. 부산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의 의미인 '釜山の位置づけや役割がさらに重要になります'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9.jsp	한자 오류		航空を連係する	연계'에 해당하는 한자어인 '航空と連携する'로 고쳐야 함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09.jsp	수용성 부족		名実相伴う	명실상부한'을 한자어로 직역했지만 '名実ともに'가 더 자연스러움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10.jsp	한자 오류		転換点に成ります	되다'의 동사는 '한자어로 표기하지 않음. '転換点になります'로 번역함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10.jsp	철자 오류	꿈의 스포츠 무대	夢のスポーツ檜舞台	한자 변화 오류. '夢のスポーツの舞台 '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10.jsp	한자 오류		名稱	일본한자 아님. '名称'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10.jsp	한자 오류		防재	중국한자 사용 '防災'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10.jsp	한자 오류		發令	한국 한자표기임. '発令'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10.jsp	한자 오류		醫療	한국 한자표기임. '医療'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10.jsp	한자 오류		地區	한국 한자표기임. '地'区'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10.jsp	한자 오류		経濟	한국 한자표기임. '経済'
	http://japanese.busan.go.kr/vision/sub/10.jsp	한자 오류		誘發	한국 한자표기임. '誘発'
서울특별시	http://japanese.seoul.go.kr/gtk/cg/major.php	수용성 부족	(한국어사이트와 불일치)	風情たっぷりの生きている都市	풍류' 내지는 '멋'' 등이 넘치는 의 의미라 추정되는데 일본어로 '듬뿍' 이라는 뜻의 'たっぷり'는 어울리지 않음. '풍류가 살아있는 도시'라는 뜻의. '風情の生きている都市'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음
	http://japanese.seoul.go.kr/gtk/cg/major.php	수용성 부족	천혜의 자연	天恵の自然を誇ります	일본어에서 '천혜의'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음. 대신 '은혜를 입은'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뜻을 나타냄. '綺麗な自然環境に恵まれた'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http://japanese.seoul.go.kr/gtk/cg/major.php	수용성 부족	성장일변도의 도시	成長一辺倒の都市	일변도'라는 한자어는 거의 쓰지 않음. '계속성장해가는'의 의미인 '成長し続ける都市' 등으로 번역함
	http://japanese.seoul.go.kr/gtk/cg/policies.php	수용성 부족	박원순이라면 다릅니다	朴元淳だと違います。	원문의 '다르다'는 이전과는 다르다, 차별화가 된다라는 뜻임. 그런데 번역은 단순히 '같지 않다'의 동사이므로 어색함. '박원순이 바꿀수 있다'라는 의미로 '朴元淳が変えます ' 등으로 표현하는 편이 나음
	http://japanese.seoul.go.kr/gtk/cg/policies.php	문법 오류		良質な雇用創出	양질'은 명사인데 형용사로 쓰인 문법오류. '질 높은'이라는 뜻으로 '質の高い雇用創出'로 바꾸어줌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1.php	수용성 부족		立地利点	입지조건이 좋다'라는 뜻인데 '이점'과 입지가 어울리지 않아 어색함. 입지적인 메리트'라고 번역하여 '立地上のメリット'로 표현하는 것이 나음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1.php	수용성 부족	약동적인 세계경제	躍動的な世界経済	약동적'의 한자어 표현이 어색하다. 외래어인 '다이나믹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ダイナミックな世界経済'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1.php	한자 오류	전세계 GDP의 약 1/4를	全世界ＧＤＰ医薬1/４を	한국어가 '~의 약~ '이라고 추정되는데 단순한 한자변환 오류. 일본어 조사 'の'를 넣어 수정함. '世界ＧＤＰの１/４を'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2.php	수용성 부족		躍動的なビジネスハブの核心因子	약동적'은 한자어보다는 외래어인 '다이나믹'을 선호함. 또한 '인자'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요인' 또는 '요소'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음. 따라서 'ダイナミックなビジネス・ハブの核心要因' 등으로 번역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2.php	문법 오류		手軽で早い	원문을 추정하면 '간편하고 빠른'일텐데 우선 간편하다'의 뜻인 簡単でスピーディーな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2.php	문장부호 오류		光ファイバネットワーク	외래어 표기법 오류이다. 단어 사이에 가운데점을 찍어야 함. '光ファイバ・ネットワーク'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2.php	수용성 부족		そんな韓国の科学と	한국어 원문에 '그러한 '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어에서 굳이 ' 그러한'을 넣으면 문장이 어색하고 촌스러움. 그 단어는 생략하는 편이 낫다. '韓国の科学と' 로 번역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2.php	수용성 부족		最も躍動的な経済強国	약동적'은 한자어로 표기하는 것 보다 외래어인 '다이나믹한'이 더 자연스러움. '最もダイナミックな経済大国'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2.php	관용성 위배		訪れる未来に向けて	다가올' 등의 한국어 표현은 일본어에서 사용하지 않음. 未来に向けて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2.php	부정확한 번역		ソウルは~持つ国家です。	문법상 주술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서울'이 '국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서울은 ~한 도시이다'의 뜻인 'ソウルは~という都市です'로 번역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3.php	수용성 부족		急激な経済発展	일본어에서 '급격한'과 '경제발전'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거의 쓰지 않음. '경제발전'에 어울리는 수식어인 ''눈부신'의 뜻인 '目覚しい経済発展'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음
http://japanese.seoul.go.kr/db/kcp/vision3.php	수용성 부족	정부 수립 당시	政府樹立当時	정부 수립, 출범' 등은 통상 '발족'이 무난한 표현. '政府発足'이 무난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1.php	문장부호 오류	디지털 콘텐츠	デジタルコンテンツ	가운데점을 찍어야 함. 'デジタル・コンテンツ'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2.php	문장부호 오류	네트워크 인프라	ネットワークインフラ	가운데점을 찍어야 함. 'ネットワーク・インフラ'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2.php	수용성 부족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コンテンツ産業に従事する	종사하는'이라는 단어를 축어역했지만 일본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동사임. 그 뜻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여 'コンテンツ産業に携わる'로 고침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2.php	수용성 부족		一段階と成長させる。	한단계' 또는 '더욱'이라는 뜻을 그대로 한자어로 직역하면 어색. '더욱'이라는 뜻을 부사어로 처리하여 'さらに成長させる'로 번역할 수 있음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3.php	부정확한 번역		複数の者の間の技術結合を基盤に	원문이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어만으로 의미가 불분명. 통상 '여러' '복수의' 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다양한 분야'의 '様々な分野の'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3.php	부적절한 번역	IT 강국	ＩＴ強国	일본어에서 '강국'은 특히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뜻함. 따라서 'ＩＴ大国'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음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3.php	문법 오류		これは~変わったことにあります。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이것은~ 변했기 때문입니다'의 문장으로 번역해야 함. '変わったためです'로 번역함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4.php	수용성 부족	이 분야의 종사자는	この分野の従事者は	종사자'라는 한자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대신 '이 분야에 종사하는'의 뜻인 'この分野に携わる方は' 로 번역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4.php	문법 오류	발전된	発展された	일본어의 '발전하다'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형 표현은 잘못. '発展した'로 번역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4.php	생략/첨가	관련산업의 발전	関連他産業の発展	타산업'이라는 일본어는 어색. 생략하는 것이 나음. '関連産業の発展'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4.php	수용성 부족	1백억 달러에 달하는	１百億ドルにいたるものと	수치에 달한다'의 뜻은 '１百億ドルに達する'의 동사를 쓰는 것이 나음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4.php	문법 오류		国の2012年までに~という目標を	문장의 결속구조가 틀림. '２０１２年までに~という国の目標を'로 번역하는 것이 나음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5.php	관용성 위배	아시아국가들의 존재가	アジアの諸国の存在が	일본어는 무생물의 복수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거의 없음.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를 복수형으로 해야하니 'アジア諸国の存在が'로 고침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5.php	부정확한 번역		メリットを開発する	장점을 개발하다, 발굴하다' 등의 의미라 추정되는데 '메리트와 한자어 '개발'은 호응이 되지 않음. 'メリットを掘り起こす・見つける' 등의 동사를 써서 메리트를 새로이 발견하다의 의미를 나타냄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5.php	부적절한 번역	실물경제	実物経済	일본어로 '실물경제'는 '실체 '로 번역. / 実体経済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5.php	문법 오류		クラスターの造成を勧めする予定	추진하다'의 한자어도 잘못 되었고 동사활용도 틀렸음. 'クラスターの造成を進める予定'로 번역하여야 함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6.php	생략/첨가		ＩＴ産業間が協力し合う	IT산업간이'이 또 '서로 협력하다'가 반복되어 어색하다. IT산업의 협력'을 뜻하는 'ＩＴ産業における連携'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6.php	부정확한 번역		努力を試み続けています	한자어 선택이 부정확. '계속 노력하고 있다'의 뜻으로 '努力しつつあります' 등으로 번역
	http://japanese.seoul.go.kr/db/kcp/6nge6.php	문법 오류		カンファレンスの拠点としていくための	거점으로 삼기위해'의 뜻을 나타내려면 'カンファレンスの拠点にしていくための'로 번역해야 함
예술의 전당	http://www.sac.or.kr/jp/about/greeting.jsp	수용성 부족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芸術の香りが満ちる芸術の殿堂のホームページへようこそ	향기'에 어울리려면'가득하다'를 직역한 동사보다 '향기가 떠도는'의 의미로 번역하여야 함. '芸術の香りが漂う'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음
	http://www.sac.or.kr/jp/about/greeting.jsp	수용성 부족	예술향유 기회	芸術の享有への	향유'라는 한자어는 적절하지 않음. '芸術の享受に'로 해야 함
	http://www.sac.or.kr/jp/about/greeting.jsp	문법 오류	2013년 올해로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3年になって開館25周年を向かいました	동사선택이 틀렸음. '맞이하다'의 뜻으로 '25周年を迎えました'로 번역하여야 함
	http://www.sac.or.kr/jp/about/greeting.jsp	관용성 위배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文化芸術の貧土だった	빈토'라는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고 또한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임. '문화예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등으로 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나음. '文化技術の発展しなかった'
	http://www.sac.or.kr/jp/about/greeting.jsp	부적절한 번역	문화강국	文化強国	강국'은 '문화'와 어울리지 않음. '文化大国'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음
	http://www.sac.or.kr/jp/about/greeting.jsp	부정확한 번역	4천만여명	略４千万名の	약'의 한자어 변환이 틀린 것으로 추정. '約4千万人の'로 고쳐야 함
	http://www.sac.or.kr/jp/about/greeting.jsp	부정확한 번역	명실상부한	名実に	한국어 '명실상부한'의 일본어는 '名実ともに' 임
	http://www.sac.or.kr/jp/about/greeting.jsp	문법 오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中心地で生まれ変わる	조사 선택이 잘못되었다. 또한 '중심지'라는 단어가 어색하므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인 '中心に生まれ変わる'로 번역해야 함
	http://www.sac.or.kr/jp/about/greeting.jsp	부정확한 번역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본분에	提供の文化芸術機関の本分	文化芸術機関本来の
	http://www.sac.or.kr/jp/about/social.jsp	수용성 부족	왕성하게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旺盛に力を入れている	왕성하게'라는 한국어를 일본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추진'과 어울리지 않아 어색. '힘차게, 힘있게'의 의미로'力強く取り組んでいる'로 번역하는 것이 좋음
	http://www.sac.or.kr/jp/about/greeting.jsp	생략/첨가, 수용성 부족	관객들에게는 잊지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융성의 본산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観客には生涯忘れぬ感動を差し上げる文化の隆盛を成します	선사하다'의 뜻으로 쓴 일본어는 존경어로 '드리다'의 뜻인데, 감동이라는 단어와 잘 호응되지 않아 어색. 감동을 전달하다의 의미로 感動を与える、送り届ける'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원문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함. 원문의 '문화융성의 본산'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도록 '文化発展をリードしていきます'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www.sac.or.kr/jp/about/social.jsp	수용성 부족	가정환경이 열악한	家庭環境に恵まれない	열악한'은 이 문장에서 '家庭環境の厳しい・不遇の'(환경이 열악한, 불우한)의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듯
	http://www.sac.or.kr/jp/about/social.jsp	관용성 위배	독거노인 어르신	一人暮らしの老人、低所得層の老人	한국에서 기피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음. 원문에도 있듯이 '어르신'의 의미와 일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お年寄り'로 바꾸어야 함

	http://www.sac.or.kr/jp/space/space.jsp#2	수용성 부족	정통콘서트연주장	正統コンサート会場	정통'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면 역사적으로 인정된으로 해석되므로 그 용도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미로 '本格的なコンサート場'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www.sac.or.kr/jp/space/space.jsp#2	문법 오류	소규모	小規模な	소규모'는 명사인데 형용사로 사용. '小規模の'로 고쳐야 함
	http://www.sac.or.kr/jp/space/space.jsp#2	문법 오류	최고의	最高な	최고'도 명사인데 형용사로 사용. '最高の'로 고쳐야 함
	http://www.sac.or.kr/jp/space/space.jsp#2	상위어/하위어 번역	갓머리를 상징하는 모양의	昔の学者がかぶっていた笠をイメージした	삿갓'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갓'을 음차하여 설명을 병기하거나 관직에 있는 자가 쓰는 모자라는 상위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음. 'かぶっている冠をイメージした'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www.sac.or.kr/jp/space/space.jsp#2	문법 오류	독특한	独特な	명사인데 형용사로 사용. '独特の'로 고쳐야 함
	http://www.sac.or.kr/jp/space/space.jsp#2	수용성 부족	무대예술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舞台芸術とは何かを示してくれる	한국어 원문을 그대로 축어역하여 일본어가 상당히 촌스럽게 느껴짐. '무대예술이란~' '무대예술의 진정한, 이상적인 모습' 등의 의미가 담기도록 '舞台芸術のあり方を示している'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www.sac.or.kr/jp/space/space.jsp#2	수용성 부족	모임을 즐길 수 있는	集いが楽しめる	모임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축어역하여 일본어가 어색. '다양한 약속장소로 사용되다', 또는 '만남을 즐기다' 등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約束場所にも最適の、打ち合わせにもうってつけの'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문법 오류		文化芸術の中心地で生まれ変わることができました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인데번역된 문장의 뜻은 '문화예술의 중심지에서 탈바꿈하는'임. '中心地に'로 수정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http://web.wordia.co.kr:7001/etgi/	부정확한 번역	집권	集権	집권'은 '執権'으로 표기해야 함
	http://web.wordia.co.kr:7001/etgi/	관용성 위배	여부로	可否で	여부'에 대한 올바른 일본어 표현이 아님. 'かどうか' 등으로 번역해야 함
	http://web.wordia.co.kr:7001/etgi/	한자 오류	그이 미래계획을	彼氏未来計画を	한국어 원문이 틀렸음. '그의 미래계획'이어야 함. 따라서 일본어도 'その人の計画を' 등으로 번역해야 함
	http://web.wordia.co.kr:7001/etgi/	관용성 위배	약속이행여부	約束移行可否	여부'라는 단어를 '가부'로 번역할 수 없음. 이행할 수 있는지 어떤지'의 뜻인 '約束を履行できるかどうか'로 번역해야 함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신고센터	申告センター	신고'라는 한자어가 매우 딱딱한 느낌을 줌. お問い合わせ
	http://web.wordia.co.kr:7002/etgi/	수용성 부족	도정이 한 일	道政がした事	한국어원문에 맞긴 하지만 일본어 표현으로서는 어색. '도정의 발걸음'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음. '道政の歩み'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하고 있는 일	している事	하고 있는 일'이라는 원문 자체가 어색하지만 '업무내용'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業務内容'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궁금하세요?	知りたいですか	지나치게 직설적이어서 어색. 알고싶다'의 '知りたい' 등으로 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음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작은 소리도 듣겠습니다	小さい音も聞きます	사람의 소리, 의견'이므로 '皆さんの声を聞かせてください'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人を先に思います	생각하다'의 일본어 어휘 선택이 잘못되었음. 'まず人を考えます'으로 번역할 수 있음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생활불편신고, 위법사례, 도정시책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접수창구이며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生活不便申告、違法事例、道政施策改善事項などに関しての受付窓口で実名うんえいされます	한국어의 '신고'는 일본어에서 다양한 어휘로 구분해서 사용함. 공공기관에 면허, 자격요건 등을 취득하기 위한 신고로 오해받을 수 있음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근거없는 비방문, 광고문, 선거 관련내용 등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체 게재를 금지하고 게재시는 예고없이 삭제되면	選挙関連内容などは新に真偽可否を別にして一切の掲載を禁止して	한국어의 '가부'나 '여부'는 일본어에서 한자로 표현하지 않음. 'するかしないか、するかどうか '로 표현해야 함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公職者が職務と関連して金品・供応・便宜提供などお要求するとか	향응에 대한 일본어로 供応라는 잘못된 어휘를 선택. '接待'로 바꿔주어야 함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신고센터 버튼을 클릭하시어 글을 올려주시면	申告センターボタンをクリックして文を載せてくだされば	글을 올리다라는 표현을 축어역으로 '文を載せる'로 하였으나, '書き込み' 등으로 바꿔주어야 함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금품・향응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金品・饗応・便宜提供などを要求するとか	饗応'라는 어휘는 잘 쓰이지 않음. ;接待'로 수정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우리는 전통문화의 토대 위에 향기로운 새문화를 꽃피우기 위하여 정성을 다한다	私たちは伝統文化の土台に香ばしい新しい文化の花を咲かせるために真心をつくす。	향기롭다' 라는 뜻의 '香ばしい'는 문화를 수식하는 데 어울리지 않음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우리는 자립정신으로 공익우선의 사회를 지향하고 제주인의 자존을 지켜나간다	私たちは自立精神で公益優先の社会を志向して済州人の自尊を守って行く。	自尊を守る'라는 표현이 어색. プライド
	http://web.wordia.co.kr:7001/etgi/	수용성 부족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불타는 의욕과 응결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済州特別自治道民の熱い意欲と凝結された意志を現している。	수식어가 어색한 경우. '熱い意欲、凝結された意志'는 '強い意思' 정도로 바꾸어도 좋겠음
한국관광공사	http://www.kto.visitkorea.or.kr/jpn/Divisions.kto	수용성 부족		1980年に入り国民の観光欲求の増加に従い	欲求라는 단어는 이런 경우에는' ニーズ'로 바꾸어야 함
	http://www.kto.visitkorea.or.kr/jpn/Divisions/Resources/promotion	수용성 부족		国内観光レジャー産業の後進性と経費の高さにより多くの観光需要が海外に移っており	経費の高さ'라는 명사형 표현을 한 한단어 '高;'コスト'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음
	http://www.kto.visitkorea.or.kr/jpn/Recruitment.kto	수용성 부족		変化を追求する進取の精神を備えた人材	進取の精神이라는 표현이 어색. '前向きな性格'로 바꿀 수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jpn/about/map/sangam/index.html	수용성 부족	오시는 길	道案内	길 안내로 축어역되어 촌스럽게 느껴짐. '交通案内・アクセス' 등으로 표현해야 함
	http://www.kocca.kr/jpn/about/greeting/index.html	수용성 부족	동반성장효과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同伴成長効果を成し	동반성장'이라는 한자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相乗効果をもたらし' 등, '상승효과' 등으로 바꾸어 표현해야 함
	http://www.kocca.kr/jpn/about/greeting/index.html	관용성 위배	범국가적 노력을	汎国家的な努力	범국자적, 범사회적'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아님. '国上げての努力'가 맞는 표현
	http://www.kocca.kr/jpn/contact/country/us/office/index.html	수용성 부족	한국어 사이트 개편으로 원문 없어짐	尖兵の皆さん	첨병'을 축어역하여 어색. '선두의 여러분' 등의 뜻인 '先頭の皆様'로 표현할 수 있음
	http://www.kocca.kr/jpn/contact/country/us/office/index.html	수용성 부족	한국어 사이트 개편으로 원문 없어짐	布陣している国家	포진'이라는 단어가 어색. '리드하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음. リードする国家
	http://www.kocca.kr/jpn/contact/country/us/office/index.html	수용성 부족	한국어 사이트 개편으로 원문 없어짐	要求に応える	요구에 부응하다'에서 '요구'가 지나치게 직설적. 'ニーズに応える' 로 번역하는 것이 나음
	http://www.kocca.kr/jpn/contact/country/eu/office/index.html	수용성 부족	한국어 사이트 개편으로 원문 없어짐	この潜在力を目覚めさせるために	이 잠재력을 깨우다 등의 의미인 'この潜在力を掘り起こす・刺激するために'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음

번역 결과물 분석 - 중국어 -지침 및 용어집

출처기관명	세부출처	오류유형	출발어	도착어	오류 내역 설명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갈치조림	红烧带鱼	한식재단→辣炖带鱼/酱炖刀鱼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강정	江米块	한식재단→江米糕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겉절이	即食鲜白菜泡菜	한식재단→凉拌菜/拌菜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경단	琼团(糯米团)	한식재단→琼团糕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고등어조림	红烧青花鱼	한식재단→炖青花鱼/酱炖鲭鱼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고추장	辣椒酱	한식재단→辣酱/辣椒酱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국수전골	面条火锅	한식재단→牛肉火锅面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궁중떡볶이	宫廷辣炒年糕	한식재단→宫廷炒年糕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김밥	紫菜包饭	한식재단→紫菜饭卷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단무지	腌萝卜	한식재단→泡萝卜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닭백숙	清炖鸡	한식재단→药膳炖鸡/白斩鸡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된장국	大酱汤	한식재단→大酱清汤/酱汤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두부조림	红烧豆腐	한식재단→炖豆腐/酱炖豆腐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등심편채	白切里脊肉	한식재단→背脊肉卷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매운탕	辣味鱼汤	한식재단→鲜辣鱼汤(辣味汤)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무생채	凉拌萝卜	한식재단→拌萝卜丝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바지락칼국수	蛤仔刀切面	한식재단→蛤蜊刀削面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불낙전골	烤肉章鱼火锅	한식재단→牛肉章鱼火锅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설렁탕	牛骨炖汤	한식재단→先农汤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순대	血肠	한식재단→糯米肠/米肠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순두부찌개	嫩豆腐锅	한식재단→嫩豆腐汤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안심편채	里脊蔬菜卷	한식재단→里脊肉卷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육포	牛肉脯	한식재단→肉脯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은대구조림	红烧鳕鱼	한식재단→炖鳕鱼 /酱炖鳕鱼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잡곡밥	杂粮饭	한식재단→杂谷饭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잡채	什锦炒菜	한식재단→炒杂菜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잣죽	松仁粥	한식재단→松籽粥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청국장찌개	清麴酱(黄豆酱)锅	한식재단→清麴酱汤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총각김치	小萝卜泡菜	한식재단→嫩萝卜泡菜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춘천닭갈비	春川烤鸡排	한식재단→春川鸡胸肉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콩국수	豆浆面	한식재단→豆汁面/拌冷面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해물찜	辣蒸海鲜	한식재단→蒸炖海鲜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일관성 결여	해물파전	海鲜葱煎饼	한식재단→海鲜煎饼
	http://www.smrt.co.kr/program/cyberStation/main2.jsp?lang=c1	일관성 결여	뚝섬역	纛岛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堤岛站
	http://www.smrt.co.kr/program/cyberStation/main2.jsp?lang=c1	일관성 결여	독바위역	瓮岩	서울메트로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独岩
	http://www.smrt.co.kr/program/cyberStation/main2.jsp?lang=c1	일관성 결여	까치울역	鹊洞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喜鹊屋站
	http://www.smrt.co.kr/program/cyberStation/main2.jsp?lang=c1	일관성 결여	보라매역	波拉梅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波拉美站
	http://www.smrt.co.kr/program/cyberStation/main2.jsp?lang=c1	일관성 결여	구파발역	舊摆撥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旧把拨站
	http://www.smrt.co.kr/program/cyberStation/main2.jsp?lang=c1	일관성 결여	샛강역	汊流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赛江站
	http://www.smrt.co.kr/program/cyberStation/main2.jsp?lang=c1	일관성 결여	구성역	驹城	서울메트로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構成
	http://www.smrt.co.kr/program/cyberStation/main2.jsp?lang=c1	일관성 결여	한티역	汉堤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汉提站
한식재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비빔밥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잔치국수	부정확한 번역	고명	装饰菜	'装饰菜'는 '고명'의 뜻이 아니라 말그대로 요리를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재료를 일컫는 말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불고기쌈	부정확한 번역	저민 마늘	蒜头	'蒜头'는 '통마늘'의 의미고 '저민 마늘'은 '蒜片'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칼국수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된장찌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모듬전	부정확한 번역	애호박	葫芦	중국어 '葫芦'는 '조롱박'을 가리키는 말임. '애호박'은 '西葫芦'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비빔국수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탕평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오이선	부정확한 번역	달걀지단	鸡蛋	중국어 '鸡蛋'은 단지 '계란'을 의미함. '달걀지단'은 '黄白蛋丝'라고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물냉면	부정확한 번역	쇠고기 육수	牛肉汁	중국어 '牛肉汁'은 '소고기 육즙'의 뜻이기 때문에 '쇠고기 육수'는 '牛肉高汤'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국	부정확한 번역	해물육수	海鲜汤	海鲜汤'으로 번역하면 '해물탕'으로 오해할 수 있음. →海鲜高汤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곰탕	부정확한 번역	도가니	牛筋	중국어 '牛筋'은 '소의 힘줄'의 뜻이기 때문에 '도가니'는 '牛膝骨'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삼계탕	부정확한 번역	밤	米饭	밤'을 '밥'으로 잘못 보고 번역한 듯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수육	부정확한 번역	초간장	醋泡酱油	醋泡酱油'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간장'을 '酱油醋'라고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파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파전	부정확한 번역	초간장	酱汁	초간장'을 '酱汁(소스)'로 잘못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죽순채	부정확한 번역	초간장 양념	醋和酱油	초간장 양념'을 '醋和酱油(초와 간장)'으로 번역했는데 '酱油醋调味汁'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갈비찜	부정확한 번역	갈비찜	蒸炖排骨	찜'은 다 '蒸炖'로 처리했음. 그러나 중국어의 '蒸(뜨거운 김으로 익히거나 데우다)'과 '炖(고기 등을 푹 고다. 푹 삶다.)'은 다른 요리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炖'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닭매운찜	부정확한 번역	닭매운찜	蒸炖辣子鸡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찜	부정확한 번역	해물찜	蒸炖海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닭매운찜	부정확한 번역	냄비	蒸锅	중국어 '蒸锅'는 '찜통'을 가리킴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닭백숙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족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두부조림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장조림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나박김치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깍두기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오이소박이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장아찌	부정확한 번역	마늘	蒜头	중국어 '蒜头'는 '통마늘'의 뜻임. 여기서 '大蒜'이나 '蒜'으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족발	부정확한 번역	족발	韩国酱猪肘(酱肘子)	족발'은 중국어로 '猪蹄'임. '猪肘'와 '肘子'는 돼지 허벅지고기를 가리킴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아홉 가지 나물	부정확한 번역	호박고지	南瓜脯	중국어 '脯'는 '저며서 말린 고기'와 '꿀에 재워 말린 과일'을 의미함. 따라서 '호박고지'와 '박고지'의 '고지'는 '干儿'로 번역해야 함. →'南瓜干儿'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아홉 가지 나물	부정확한 번역	박고지	葫芦脯	'葫芦干儿'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갈치조림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고등어조림	부정확한 번역	매운 간장 양념장	辣味调味酱	辣味调味酱'로 번역하면 '간장'이 들어간 양념장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서 '辣酱油调味汁'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은대구조림	부정확한 번역	간장 양념장	酱油	酱油'는 '간장'의 뜻이며 '간장 양념장'은 '간장이 들어간 양념장'의 뜻이기 때문에 '간장 양념장'을 '酱油调味汁'라고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소갈비구이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돼지갈비구이	부정확한 번역	간장 양념장	调味汁	간장 양념장'을 그냥 '调味汁(소스)'로 번역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은대구조림	부정확한 번역	은대구	炖鳕鱼(酱炖鳕鱼)	은대구'와 '대구'가 다른 생선이듯이 '은대구'를 또한 중국어로 '银鳕鱼'라고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홍어회무침	부정확한 번역	초고추장	辣酱	초고추장'을 '고추장'과 같은 용어로 처리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겉절이	부정확한 번역	겉절이	凉拌菜(拌菜)	'拌菜'를 보면 '나물 무침'이라는 의미가 연상되기 때문에 등가를 이룬다고 할 수 없음. 중국 사이트에서 '生泡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동치미	부정확한 번역	동치미	水萝卜泡菜(整泡萝卜)	'整泡萝卜'는 중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명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고추장	부정확한 번역	찹쌀풀	糯米饭	찹쌀풀'은 '糯米饭(찹쌀밥)'이 아니라 '糯米糊'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간장게장	부정확한 번역	양념 간장	酱油	양념 간장'을 '간장'과 같은 용어로 번역. →调味酱油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장아찌	부정확한 번역	마늘쫑	蒜苗	마늘쫑은 '蒜苗'가 아니고 '蒜薹'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다식	부정확한 번역	과자	糖果	糖果'는 '사탕, 캔디'의 뜻이어서 여기서 '点心'으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약과	부정확한 번역	약과	韩国蜜油饼(蜜饯)	蜜饯'은 당액이나 꿀에 절인 과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蜜饯'으로 번역하면 오해할 수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오징어덮밥	부정확한 번역	손질한 오징어	洗净的鱿鱼	洗净的鱿鱼'는 '깨끗이 씻은 오징어'의 이미로 '손질한 오징어'와 등가를 이루지 않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만둣국	부정확한 번역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고기나 채소로 만든 소를 넣고 빚은 만두를 육수에 넣어 끓인 음식이다.	在擀好的面皮上包入肉或蔬菜馅料，煮熟或蒸熟即可，有时还可以油炸或油煎。	빚은 만두를 육수에 넣어 끓인 음식이다'의 내용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구절판	부정확한 번역	아홉 칸으로 나눠	在隔成九节的……	아홉 칸'의 '칸'을 '节'로 잘못 번역했음. '节'는 '마디'의 뜻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굴비구이	부정확한 번역	굴비는 조기에 소금을 뿌려 말린 것으로 석쇠나 팬에 기름을 두르고 그 위에 올려 구운 음식이다.	干黄花鱼是将新鲜黄花鱼用盐腌渍晾晒而成。烤干黄花鱼时，在鱼身涂抹一层食用油，在烤架或煎锅中烤制即可。	원문은 '석쇠나 팬에 기름을 두르고 그 위에 올려 구운 음식이다'라고 했는데 번역문은 '굴비에 기름을 바르고 석쇠나 팬에 구우면 된다'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 원문과 등가를 이루지 않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고추장	부정확한 번역	붉은 빛깔을 띠며	色泽光亮	붉은 빛깔을 띠며'와 '色泽光亮(색깔이 밝다)'가 등가를 이루지 않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오미자화채	부정확한 번역	꽃 모양으로 만든 배를 띄운 음료이다.	再加入切成花纹模样的梨片饮用。	花纹'은 '꽃 모양'의 뜻이 아니고 '무늬'의 뜻임. 여기서 '花瓣'으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찻상(녹차, 다식, 약과)	부정확한 번역	차와 이에 어울리는 다식을 함께 내는 것을 찻상이라고 한다.	茶桌上备有茶杯和茶具，	茶桌上备有茶杯和茶具(찻상에는 찻잔과 다기가 준비돼 있다)'와 '차와 이에 어울리는 다식을 함께 내는 것을 찻상이라고 한다'는 내용과 전혀 등가를 이루지 않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젓갈	부정확한 번역	명태의 알을 막이 터지지 않게 소금에 삭혀 양념한 명란젓과	明太鱼籽酱是将包在膜中明太鱼籽盐渍以后拌入调味酱而成，	'包在膜中明太鱼籽'라는 문장이 비문법적이고 '막이 터지지 않게'와 등가를 이루지 않음. →小心不要弄破明太鱼籽的皮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꿀떡	부정확한 번역	찹쌀가루에 꿀을 섞어 체에 내린 뒤 밤, 대추, 잣 등을 켜켜이 넣고 찌거나	糯米粉中加入蜂蜜，边用筛子筛下，边加入板栗、大枣、松籽等蒸熟食用，	원문은 분명히 '체에 내린 뒤'라고 했는데 번역문은 '...면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边.....边.....'로 잘못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잔치국수	부적절한 번역	잔치국수	韩国婚庆面（韩国宴席面）	잔치국수'를 '韩国婚庆面'으로 번역하면 결혼잔치 때만 먹는 음식으로 오해할 수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된장국	부적절한 번역	된장국	大酱清汤（酱汤）	중국어 '清汤'은 '기름기나 건더기가 없는 멀건 국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된장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이미 중국에서 '韩国大酱汤'이나 '韩式酱汤'이 널리 쓰이고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부대찌개	부적절한 번역	퓨전요리	混合型料理	퓨전요리'는 최근에 중국어로 대부분 '融合菜'라고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버섯전골	부적절한 번역	느타리	糙皮侧耳蘑菇	糙皮侧耳蘑菇'는 '느타리'의 의미지만 일상생활에서 '平菇'가 더 많이 쓰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족발	부적절한 번역	젤라틴	骨胶	젤라틴'을 '骨胶'로 번역할 수 있지만 원문에서 말하는 '젤라틴'은 보통 중국어로 '胶原蛋白'라고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순대	부적절한 번역	순대	糯米肠(米肠)	순대'를 '糯米肠(米肠)'로 번역하면 '찹쌀소시지'나 '쌀소시지'로 생각할 수 있음. 사실 독일이나 다른 나라도 '순대'와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다만 한국 순대는 당면이나 채소, 찹쌀도 들어가는 것은 특징임. 따라서 중국어로 '韩式血肠(한국식순대)'로 번역하는 것은 더 순대의 특징을 살린 것 같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춘천닭갈비	부적절한 번역	향토 음식	乡土饮食	향토 음식'은 그냥 직역을 했음. → '地方风味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뚝배기불고기	부적절한 번역	뚝배기불고기	砂锅烤牛肉(砂锅烤肉)	砂锅烤牛肉(砂锅烤肉)'로 번역하면 뚝배기로 고기를 굽는다의 의미로 오해할 수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간장게장	부적절한 번역	간장게장	酱蟹	酱蟹'로 번역하면 '게간장조림'으로 이해할 수 있음. 중국 사이트에서 '酱油腌蟹'나 '酱油腌生蟹'가 많이 쓰이고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새우젓	부적절한 번역	돼지고기 수육	熟猪肉	熟猪肉'으로 번역하면 단지 '익은 돼지고기'로 이해할 수 있음. '수육'을 이미 '白切肉'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白切猪肉'으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경단	부적절한 번역	고물	豆沙	중국어 '豆沙'는 보통 '팥고물'을 가리킴. 중국어에 '고물'과 딱 대응되는 말이 없지만 '裹料'로 할 수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수정과	부적절한 번역	수정과	水正果	수정과'를 한자어 그대로 '水正果'로 번역하면 외국인은 전혀 무슨 음식인지 유추할 수 없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볶이	부적절한 번역	고추장 양념	辣味调味酱	고추장 양념'의 의미가 '매운 간장 양념장'과 다른데 같은 용어로 처리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제육볶음	부적절한 번역	고추장 양념	辣酱	고추장 양념'의 의미가 '고추장(辣酱)'과 다른데 같은 용어로 처리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춘천닭갈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더덕구이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황태구이	부적절한 번역	고추장 양념장	辣酱	고추장 양념장'의 의미가 '고추장(辣酱)'과 다른데 같은 용어로 처리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찻상(녹차, 다식, 약과)	부적절한 번역	찻상(녹차, 다식, 약과)	茶套餐(绿茶, 茶食, 蜜饯) （茶桌）	茶桌'은 단지 '차 테이블'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번역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술상(청주,육포,어란,은행)	부적절한 번역	술상(청주,육포,어란,은행)	酒套餐(清酒, 肉脯, 鱼籽, 银杏) （酒桌）	酒桌'도 단지 '술을 올리는 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번역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국	부적절한 번역	쇠고기를 넣고 끓인 육수를 주고 쓰고, 닭고기나 해물육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汤汁多采用牛肉汤，有时也采用鸡汤或海鲜汤。	여기서 '采用'를 쓰는 게 어색하고 적절하지 않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탕	부적절한 번역	얼큰하게 끓인 탕이다	口感略辣	얼큰하다'를 '略辣(약간 맵다)'로 번역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불낙전골	부적절한 번역	불고기와 낙지, 채소를 한데 담고 육수를 부어	是将牛肉与章鱼及蔬菜加入高汤，	이렇게 번역하면 마치 '불고기와 낙지, 채소를 육수에 넣어'의 의미가 된 듯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파전	부적절한 번역	길쭉길쭉하게 썬 쪽파	小葱段	길쭉길쭉하게 썬 쪽파'를 '小葱段(짧은 쪽파 토막)'으로 번역해 적절하지 않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모듬전	부적절한 번역	부친 전을 색깔 맞춰 보기 좋게 담아낸 음식이다.	然后根据颜色装盘。	여기서 '根据'를 쓰는 게 아주 어색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오이소박이	부적절한 번역	연한 오이를 토막 내 칼집을 넣어	将黄瓜切成段切上刀口	칼집을 넣어'를 '切上刀口'로 번역하면 굉장히 어색함. →'每段划几刀'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비빔밥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돌솥비빔밥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아홉 가지 나물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비빔밥상	상위어/하위어 번역	나물	山野菜	山野菜'는 '산나물'의 뜻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된장찌개	상위어/하위어 번역	조개류	鱼贝类	鱼贝类'는 '어패류'의 뜻임. '조개류'는 '贝类'로 번역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삼색나물	상위어/하위어 번역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세 가지 나물을	由桔梗、菠菜、蕨菜三种山野菜组成	나물'을 '山野菜(산나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콩국수	상위어/하위어 번역	열무김치	泡菜	김치'를 다 '泡菜'로 번역했는데 '열무김치'는 '萝卜缨泡菜'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어란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술상	상위어/하위어 번역	어란	鱼籽	鱼籽'는 단지 '생선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鱼子干'이나 '鱼卵干'으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식혜	상위어/하위어 번역	엿기름물	麦芽	중국어 '麦芽'는 단지 '맥아'의 뜻이기 때문에 '麦芽酵母水'가 더 명확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잡채	상위어/하위어 번역	간장 양념	调味料	调味料'는 '조미료, 양념, 소스'를 가리킴. '간장 양념'은 '酱油调味汁'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흑임자죽	내용 생략	쌉쌀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있다	口感醇香	쌉쌀하다'의 의미가 번역문에 빠져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비빔국수	내용 생략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이나 간장 양념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酸甜口味的辣酱搅拌而成。	간장 양념장'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비빔냉면	내용 생략	메밀로 만든 면을 삶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 다음 쇠고기나 홍어회무침, 무, 오이, 삶은 달걀 등을 얹고 고추장 양념장에 비벼 차갑게 먹는 음식이	煮熟的荞麦面滤掉水分，与肉丝、生拌魟鱼、萝卜、黄瓜、辣酱拌匀即可。	찬물에 헹궈... 삶은 달걀... 차갑게 먹는 음식이다'의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순두부찌개	내용 생략	얼큰하게 또는 맑게 즐긴다	享用辛辣口味	맑게'의 의미가 빠짐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부대찌개	내용 생략	햄, 소시지를 주재료로 하여	以火腿肠为主食材	햄'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국수전골	내용 생략	얇게 썬 쇠고기와 채소를 육수에 넣고 끓인 뒤 생면을 넣어 한 번 더 끓인 음식이다.	牛肉火锅面是在高汤中放入牛肉与蔬菜以及生面熬煮而成。	얇게 썬 쇠고기'는 그냥 '牛肉(쇠고기)'로 처리했고 '한 번 더 끓인 음식이다'의 의미가 번역문에 빠져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불낙전골	내용 생략	달콤하고 부드러운 불고기와 매콤하고 쫄깃쫄깃한 낙지가 잘 어우러진다	柔嫩的牛肉和鲜辣的章鱼混合在一起，相得益彰。	달콤하고'와 '쫄깃쫄깃한'의 의미가 번역문에 빠져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아귀찜	내용 생략	아귀에 콩나물과 미나리 등 채소를 넣고 매운 양념장을 넣어 걸쭉하게 익힌 음식으로, 아귀의 쫄깃한 육질과 아삭한 채소 맛이 어우러진 별미다.	是鮟鱇鱼与各种调味料及蔬菜一起蒸炖的饮食。鮟鱇鱼和辣味水芹味融合，口感鲜美。	... 콩나물과 미나리... 매운... 걸쭉하게...쫄깃한 육질과 아삭한 채소 맛이...'등의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순대	내용 생략	오징어순대, 찹쌀순대, 병천순대, 아바이순대 등 종류가 다양하다.	米肠种类有鱿鱼米肠、糯米肠等，各地区米肠有各自独特的制作方法和口味。	병천순대, 아바이순대'의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아홉 가지 나물	내용 생략	아홉 가지 묵은 나물을 볶아 먹는다		아홉 가지 묵은 나물을 볶아 먹는다'의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파리냉채	내용 생략	데친 해파리에 배와 오이채를 넣고, 겨자마늘초장에 버무려 먹는 음식이다. 꼬들꼬들한 식감과 새콤달콤하면서 톡 쏘는 맛이 일품이다.	海蜇用开水焯好，与黄瓜丝、芥末醋酱、蒜蓉醋酱搅拌而成，口感脆嫩，酸甜适口。	배'와 '톡 쏘는 맛이 일품이다'의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갈치조림	내용 생략	고루 간이 배도록 조린 음식이다	炖煮而成	고루 간이 배도록'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은대구조림	내용 생략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원문의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다'의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볶이	내용 생략	한입 크기로 썬 가래떡이나 가늘게 뽑은 떡볶이용 떡에	将年糕段	한입 크기로 썬 가래떡이나 가늘게 뽑은 떡볶이용 떡에'을 그냥 '年糕段(떡토막)' 으로 번역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두부김치	내용 생략	잘 익은 김치에 돼지고기 목살이나 삼겹살을 얇게 썰어 넣고	将泡菜和五花肉	'돼지고기 목살이나 삼겹살을 얇게 썰어 넣고'의 내용을 그냥 '삼겹살(五花肉)'로 처리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소갈비구이	내용 생략	소갈비 살을 얇게 펴서 손질한 뒤	将牛排肉	얇게 펴서 손질한다'는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돼지갈비구이	내용 생략	돼지갈비 살을 얇게 펴서 손질한 뒤	将猪排肉	얇게 펴서 손질한다'는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곱창구이	내용 생략	소의 내장인 양과 곱창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손질한 뒤	将牛内脏洗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손질한 뒤'의 내용이 번역문에 빠져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삼겹살	내용 생략	소금이나 쌈장을 찍어 먹고	沾盐食用	쌈장'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고등어구이	내용 생략	미리 소금을 뿌려 꾸덕꾸덕하게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구워 먹기도 한다.		미리 소금을 뿌려 꾸덕꾸덕하게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구워 먹기도 한다'의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감자전	내용 생략	감자를 강판에 간 다음 건더기와 가라앉힌 앙금에	土豆饼是把土豆绞碎	건더기와 가라앉힌 앙금에'의 내용이 누락. '감자를 강판에 간 다음'이 '把土豆绞碎'와 등가를 이루지 않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모듬전	내용 생략	고기,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재료에 밀가루나 달걀옷을 입혀	把肉、鱼、蔬菜等多种食材裹上蛋清	밀가루 입힌다'의 내용이 누락했고 '달걀옷'은 '蛋清(달걀 흰자위)'이 아니라 '鸡蛋浆'으로 번역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나박김치	내용 생략	배추를 적당히 썰어 섞거나 사과, 배를 넣어 단맛을 내기도 한다	还可以加入白菜和梨，以增加甜味。	사과'가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무생채	내용 생략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반찬이다.	拌匀即可	새콤달콤하게'의 의미가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오이소박이	내용 생략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腌黄瓜口感鲜爽	아삭하다'는 의미가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간장	내용 생략	콩을 삶아 만든 메주를 발효시켜 소금물에 담가	把酱曲泡在盐水中	콩을 삶아 만든'과 '발효시켜'의 내용이 번역문에 빠져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된장	내용 생략	콩을 삶아 만든 메주를 발효시켜 간장을 담갔다가, 장물을 떠내고	把酱曲泡在盐水中，滤出的盐水熬制成酱油，	把酱曲泡在盐水中，滤出的盐水熬制成酱油(메주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거른 소금물을 달여서 간장으로 만든다)'의 번역문 내용이 원문 의미와 다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백설기	내용 생략	고물 없이 시루에 안쳐 쪄낸 흰떡.	直接蒸熟即可。	고물 없이 시루에 안쳐'의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약과	내용 생략	계핏가루를 넣은 조청이나 꿀에 담갔다가	在加有桂皮粉的蜂蜜中浸泡一下	조청'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유자차	내용 생략	유자를 껍질째 얇게 저며 설탕이나 꿀에 재운 다음	将柚子切薄片用砂糖腌制以后	꿀'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매실차	내용 생략	제철에 딴 매실에 같은 양의 설탕을 섞어 서늘한 곳에서 발효시킨 다음	将梅子用与其等量的砂糖混合进行发酵，	제철에 딴'과 '서늘한 곳에서'의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녹차	내용 생략	차나무의 잎을 푸른빛이 그대로 나도록 말린 것으로	将茶叶晾干以后，	푸른빛이 그대로 나도록'의 내용이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비빔밥상	내용 생략	비빔밥상에는 목이 메지 않도록 쇠고기뭇국과 나박김치를 올리고	拌饭套餐包括萝卜牛肉汤和萝卜片水泡菜，	목이 메지 않도록'의 의미가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찻상(녹차, 다식, 약과)	내용 생략	녹차를 마실 때는 녹차 특유의 쌉쌀한 맛과 어울리는 달콤한 맛의 다식과 약과를 곁들인다.	喝绿茶时，一般提供甜味茶食和蜜饯。	녹차 특유의 쌉쌀한 맛과 어울리는'의 의미가 누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김치볶음밥	내용 첨가	함께 볶은 뒤	用小火炒制	用小火炒制'는 '작은 불로 볶는다'의 의미임. 원문에 없는 내용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갈비찜	내용 첨가	푹 찐 음식이다	蒸炖而成	푹 찐다'를 '蒸炖'로 처리했음. 그러나 중국어의 '蒸(뜨거운 김으로 익히거나 데우다)'과 '炖(고기 등을 푹 고다. 푹 삶다.)'은 서로 다른 요리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炖'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닭매운찜	내용 첨가	물을 붓고 끓인 음식이다	加水蒸炖	끓인다'를 '蒸炖'로 번역했음. 여기서 '蒸(뜨거운 김으로 익히거나 데우다)'의 의미가 없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파리냉채	내용 첨가	데친 해파리에 배와 오이채를 넣고, 겨자마늘초장에 버무려 먹는 음식이다. 꼬들꼬들한 식감과 새콤달콤하면서 톡 쏘는 맛이 일품이다.	海蜇用开水焯好，与黄瓜丝、芥末醋酱、蒜蓉醋酱搅拌而成，口感脆嫩，酸甜适口。	겨자마늘초장'을 '芥末醋酱(겨자초장)、蒜蓉醋酱(마늘초장)' 두 가지의 초장으로 번역했는데 원문대로 '蒜蓉芥末醋酱' 하나로 번역하면 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대하냉채	내용 첨가	대하를 쪄서	蒸煮后的大虾	원문에 '煮(끓이다/삶다)'의 의미가 없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밥(쌀밥)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잡곡밥	일관성 결여	멥쌀	014 멥쌀→大米 015 멥쌀→粳米	같은 '멥쌀'인데 용어가 다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쌈밥	일관성 결여	쌈밥	蔬菜包饭(饭团) 饭团包	요리명을 '蔬菜包饭','饭团'으로 번역하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饭团包'를 사용. 일관성이 없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만둣국	일관성 결여	육수	046 肉汁 048 高汤	다른 부분에서 '육수'를 다 '高汤'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만 '肉汁(고기즙)'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감자탕	일관성 결여	①감자탕 ②등뼈	①脊骨土豆汤 ②猪腔骨	감자탕'은 '등뼈'를 사용하기 때문에 '脊骨土豆汤'으로 번역했지만 설명하는 부분에서 '등뼈'를 또 '猪腔骨'으로 번역했음. 용어의 일관성이 없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매운탕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탕	일관성 결여	매운 고춧가루 양념장	059 辣椒粉和辣酱 060 辣酱	같은 '매운 고춧가루 양념장'인데 용어의 일관성이 없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청국장찌개	일관성 결여	①청국장찌개 ②청국장	①清麴酱汤 ②豆瓣酱	청국장찌개'의 '청국장'을 '清麴酱'으로 처리했다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豆瓣酱'으로 번역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순두부찌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찜	일관성 결여	조개류	蛤蜊 贝类	중국어 '蛤蜊'는 단지 '조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개류'는 '贝类'로 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순두부찌개	일관성 결여	①해물순두부찌개 ②순두부	①海鲜嫩豆腐汤 ②豆腐脑	해물순두부찌개'의 '순두부'를 '嫩豆腐'로 처리했다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豆腐脑'로 번역해 일관성이 없음. '순두부'는 '豆腐脑'로 번역하는 게 적절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보쌈	일관성 결여	절인 배추, 배추김치, 보쌈김치	泡白菜	배추김치'와 '보쌈김치'도 전부 '절인 배추' 의미를 나타내는 '泡白菜'로 번역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춘천닭갈비	일관성 결여	춘천닭갈비	春川鸡胸肉/春川烤鸡肉	제목은 '春川鸡胸肉'로 번역했다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春川烤鸡肉'를 썼음. 그러나 '鸡胸肉'는 '닭가슴살'의 의미라 오역임. 중국에서 이미 '春川铁板鸡'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황태구이	일관성 결여	황태구이	烤干明太鱼(烤黄鱼)	황태'를 '干明太鱼'와 '黄鱼'로 번역했음. 용어가 일관성이 없고 '黄鱼'는 또한 황태를 가리킨 용어가 아님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고등어구이	일관성 결여	고등어구이	烤青花鱼(青花鱼)	도착어 요리명인 '(青花鱼)'를 왜 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青花鱼'는 단지 '고등어'의 뜻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홍어회무침	일관성 결여	홍어회무침	生拌斑鳐/鲃鱼	요리명 중의 '홍어'를 '斑鳐'로 번역했는데 설명하는 부분에서 '鲃鱼'로 번역해 용어의 일관성이 없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고추장	일관성 결여	고추장	辣椒酱	고추장'을 계속 '辣酱'로 번역했다가 여기서만 '辣椒酱'로 번역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식혜	관용성 위배	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만든 음료로 차갑게 즐긴다.	然后加入砂糖制成的甜味饮料，多**以冷饮食用**。	'多以冷饮食用'이 굉장히 어색한 구문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만둣국	수용성 부족	떡국과 만둣국은 별개의 음식이었으나 한데 섞여 하나의 음식이 되었다.	年糕汤和饺子汤虽是不同的饮食，这里却合成一种饮食。	한데 섞여 하나의 음식이 되었다'를 '这里却合成一种饮食'으로 번역하는 것이 직역한 듯이 굉장히 어색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우거지갈비탕	수용성 부족	우거지는 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 놓은 겉대를 말한다.	菜帮是青菜的外表层菜叶	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 놓은 겉대'를 '青菜的外表层菜叶'으로 번역하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색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김치찌개	수용성 부족	반찬으로 즐겨 먹는 대표적인 찌개다.	是佐餐用代表性炖汤	중국어를 그대로 직역한 듯이 어색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닭백숙	수용성 부족	냄비에 닭을 통째로 담고 물을 부은 뒤 인삼, 마늘, 대추를 넣고 푹 삶은 음식이다. 삶은 고기는 소금을 곁들이고 국물은 찹쌀을 넣고 죽을 쑤어 먹는다.	将整鸡与蒜头放入水中炖煮，鸡肉沾盐食用，汤中加入糯米煮成粥食用。除蒜头以外，还可以加入人参和大枣。	한국어 원문은 요리 순서대로 되어있지만 중국어 번역문은 뒤죽박죽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산채비빔밥	문법 오류	산에서 나는 각종 나물을 밥 위에 올리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山菜拌饭是用辣酱拌上各种煮熟或炒熟山野菜而成，	各种煮熟或炒熟'과 '山野菜' 사이에 '的'가 있어야 맞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미역국	문법 오류	쇠고기나 홍합, 멸치 국물에 미역을 넣고 끓인 국이다.	海带汤用牛肉、海虹、鲽鱼汤中加入海带熬制而成。	여기서 '用'를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是在'를 써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돼지갈비구이	문법 오류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넣어 맵게 양념하기도 한다.	可在调味汁中可加入辣椒粉和辣酱。	可'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이 비문법적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오리구이	문법 오류	채소 쌈을 싸먹기도 한다.	可也用蔬菜包起来食用	可也'는 비문법적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청국장찌개	철자 오류	청국장찌개	清麴酱汤	중국어 간자체에서 쓰지 않는 '麴'자를 사용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수육	철자 오류	돼지고기수육은 새우젓국을 찍어	猪肉熟肉沾虾酱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보쌈	철자 오류	새우젓을 찍어	沾虾酱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닭백숙	철자 오류	소금을 곁들이고	鸡肉沾盐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구절판	철자 오류	겨자초장을 찍어	沾芥末醋酱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소고기편채	철자 오류	겨자소스에 찍어	沾芥末汁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오리구이	철자 오류	된장소스, 겨자소스 등을 찍어 먹고	沾黄酱或芥末汁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곱창구이	철자 오류	양념장을 찍어 먹거나	沾调味酱食用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삼겹살	철자 오류	소금이나 쌈장을 찍어 먹고	沾盐食用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파전	철자 오류	초간장을 찍어 먹는다	沾酱汁食用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파전	철자 오류	초간장을 곁들여 찍어 먹는다	沾酱汁食用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생선회	철자 오류	초고추장이나 간장, 된장 등을 찍어 먹는다	沾酸辣酱或酱油、黄酱等食用	'찍는다'의 의미는 '沾'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蘸'자를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아귀찜	철자 오류	아귀찜	辣炖安康鱼(蒸炖鮟鱇鱼)	鮟鱇'은 번체자이기 때문에 '安康'을 사용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모듬전	철자 오류	쇠고기전	剪牛肉	'剪'아닌 '煎'임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꿀떡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약식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수정과	철자 오류	잣	松籽	중국어사전에 잣은 '松籽'가 아니라 '松子'로 되어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강정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약과	철자 오류	잣가루	松籽粉	→松子粉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불고기쌈	문장 부호 오류	밥을 함께 싸 먹거나 저민 마늘, 고추 등을 얹어 먹기도 한다.	包入米饭、蒜头辣椒等	蒜头'와 '辣椒' 사이에 '、'를 표시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CHINESE INDEX	편집 오류			중국어 색인표가 중국어 발음 표기법에 따른 배열 순서대로 정리되어있지 않는데다 엉뚱한 데에 들어간 메뉴가 많아 중국인이 활용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번역 결과물 분석 - 중국어 -공공기관 웹사이트

출처기관명	세부출처	오류유형	출발어	도착어	오류 내역 설명
검찰청	http://www.spo.go.kr/chn/about/welcome.jsp	문법 오류		对国民以正义和关怀，执行正确检察任务	문법적으로 결속할 수 없는 구조를 사용. 문장 전체가 비문
	http://www.spo.go.kr/chn/about/sic.jsp	문법 오류 부정확한 번역		①该部门拥有许多专家阵容，他们已引进尖端检察技术，改变检察新型的特殊检察的局势。 ②该中心开发技术泄密有关犯罪检察技术，并制作检察手册，普及技术泄密的系统性分析及最佳侦查案，致力防止经济间谍犯罪和随时造成的国家损失。 ③国际侦查合作中心基于上述努力，构筑各国的侦查有关信息库，大幅扩大国际侦查力量，努力有效应对跨国犯罪。	비문법적인 구문을 사용.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 '改变检察新型的特殊检察的局势',致力防止经济间谍犯罪和随时造成的国家损失', '构筑各国的侦查有关信息库'는 다 중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어색한 문장
	http://www.spo.go.kr/chn/service/cicm.jsp	문법 오류 부정확한 번역		剑和天平 检察制定新的形象，象征着追求信念和价值，此正是更加靠近国民的一系列努力。 通过竹子的传统象征主题，表达忠于国民的特征。并列布局的直线象征将检察厅的中立性和独立性，以上端的曲线表达天平的底部，体现检察的公正性。 表达剑的形象的中间的橘色线，强调敏锐的判断的重要性。 最后安排的五个蓝色直线分别象正义、真实、人权、公正、清廉，蓝色意味着合理性。	검찰청 로고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비문법적인 구문과 자연스럽지 않은 중국어 표현. 중앙에 칼을 형상화하는 직선을 '주황색'으로 설명. '检察制定新的形象', '此正是更加靠近国民的一系列努力', '并列布局的直线象征将检察厅的中立性和独立性'은 중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번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PageLink.do?page=/html/cn/personal01.jsp&layoutMenuNo=21211	부정확한 번역		旅客&**邮编**	불정확한 용어 사용. '邮编'은 우편번호의 뜻이어서 내용상 '邮件'(우편물)로 바꿔야 함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PageLink.do?page=/html/cn/intro04.jsp&layoutMenuNo=21205	부적절한 번역		1999.01.14 运营**无文件**的(Paperless)进口申请制度	불적절한 용어 사용 중국어로 'Paperless' 표현할 때 대부분 '无纸'나 '无纸化'를 사용. →实行无纸化进口通关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PageLink.do?page=/html/cn/customs0202.jsp&layoutMenuNo=21228	부적절한 번역		**AEO公认**	불적절한 용어 사용 중국어로 보통 'AEO公认'을 사용하지 않고 'AEO认证'을 사용함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PageLink.do?page=/html/cn/customs0701.jsp&layoutMenuNo=21254	부적절한 번역		把1079克**非洛芃**平平放在了犹如文件包大小的透明塑料袋中，用白色胶带牢牢沾上之后，隐秘放在文件包下面，伪装成文件包的一部分。	불적절한 용어 사용 '필로폰'을 나타태는 '非洛芃'은 중국어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아님. '甲基苯丙胺/甲基安非他明/去氧麻黄素'라는 용어도 쓰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冰毒'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PageLink.do?page=/html/cn/customs0701.jsp&layoutMenuNo=21253	부적절한 번역		①11年3月把通过海关信息分析选择出的罗马尼亚人指定为审查对象，在精密审查的过程中发现了**隐瞒藏在**携带的书包下面的毒品类。 ②把1079克非洛芃平平放在了犹如文件包大小的透明塑料袋中，用白色胶带牢牢沾上之后，**隐秘放在**文件包下面，伪装成文件包的一部分。	부적절한 표현 중국어로 '은닉하다'의 뜻을 표현할 때 '隐藏在/隐匿在'를 사용해야 함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PageLink.do?page=/html/cn/intro04.jsp&layoutMenuNo=21206	철자 오류		2001.03.27 新设仁川**进场**海关	찰자 오류 '进场'이 아니라 '机场'(공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PageLink.do?page=/html/cn/customs0206.jsp&layoutMenuNo=21232	웹페이지 편집 오류		相互认证协定(MRA)	웹페이지 오류 '相互认证协定(MRA)'(상호인정협정)과 'AEO公认企业现状'(AEO인증기업 현황)의 중국어 웹페이지 내용이 중복
국립고궁박물관	http://www.gogung.go.kr/fgn/jsp/cn/html/introduction/introduction1.jsp	문법 오류		国立古宫博物馆开馆已经有了8年长的时间。 此后我们为了在两年之内把全部开馆做成目标而不断的作出努力。 在筹备其间，古宫博物馆对整个展览环境和设施进行改造，目的是为提高展览水平价值与具备拥有历史价值的王室文物。 我真诚希望来访国立古宫博物馆网站的各位客户切身感受宝贵的王室文物，并对此予以热情关注。谢谢！	문법오류 '有了8年长的时间'은 중국어 문법에 맞지 않음. '把全部开馆做成目标', '目的是为提高展览水平价值与具备拥有历史价值的王室文物'은 다 비문 불정확한 용어 사용 '관람객'을 중국어의 '비즈니스 거래처 고객'을 의미하는 '客户'로 옮겼음
	http://www.gogung.go.kr/fgn/jsp/cn/html/guide/guide2-3.jsp	수용성 부족	고궁뜨락이 그 예스럽고 정갈한 멋의 시간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古宫庭院**招请**您来享受整洁与**具有传统性的**时间旅行**里**。	문법오류 '초청'을 의미하는 한자어를 '招请'으로 그대로 옮김. '里'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어 문법에 맞지 않음. 과도한 직역으로 인해 의미전달이 잘 안됨
	http://www.gogung.go.kr/fgn/jsp/cn/html/academic/academic4-1.jsp	문법 오류	태조 4년(1395년)에 창건된 조선 제일의 으뜸 궁궐로서, '경복'은 "하늘이 내린 큰 복"이라는 뜻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터만 남아 있던 것을 1867년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 330여동의 웅장한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作为朝鲜的第一法宫，建立于太祖4年(1395年)，'景福'的意思是'上天赐予的大福气'。"壬辰倭乱"时大部分建筑物**被消失**，到1867年在高宗的父亲兴宣大院君的主持下才重建成现在雄壮的330栋。	소실되어'를 그대로 '被消失'로 직역해 의미 전달이 안됨. 중국어 문법에 맞지 않음
	http://www.gogung.go.kr/fgn/cngallery.do?cmd=galleryAroundForm&menu=15	철자 오류	중요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重要民俗文化**才** 登**陆**文化**才**	중국어로 잘못 표기. 重要民俗文化财产 登录文化财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language/chinese/htm/muse3_organization.htm	부적절한 번역		针对**疏远阶层**、残疾人、多文化家庭儿童的教育项目	소외계층'은 보통 '边缘群体/弱势群体'로 번역함
	http://www.nfm.go.kr/language/chinese/htm/muse4_organization.htm	문법 오류		本库将所收集的资料进行数据处理后提供**于**参观游客，是游客接触韩国及世界传统文化信息的最佳平台。	문법 오류 '提供于参观游客'에서 '于'를 사용하면 중국어 문법규칙에 위배. '给'를 사용해야 함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main/publish/view.jsp?menuID=003005003	내용 누락		从下往上展开的三条线象征韩民族的悠久历史和文化的积累,横向连接的三条线中,左边的短线意味着过去的历史及文化,右边的长线意味着未来文化的发展以及民族文化的飞跃,中央的短线	박물관 로고에 대한 소개를 하다 말았음
	http://www.museum.go.kr/main/publish/view.jsp?menuID=003002001	문장 부호 오류 철자 오류 수용성 부족		展馆以历史通道为中心左右各**设三个层**,根据**陈 文物**的特点细分为 史前 · 古代馆,中世 · 近世馆,书画馆,捐赠馆,雕刻 · 工艺馆,亚洲馆 及 亚洲 **个域**.为使参观者**更加容**,愉快地进行参观.本馆使用了各种各样的展览方法,建立起一个高科技导览系统.	구두점 오류: 중국어 문장의 마치표는 '.' 아닌 '。'임 글자 누락: '陈 文物', '亚洲 个 域', '更加容' '设三个层'은 비문. 수용성 부족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문장 중간중간 빠진 글자로 인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
	http://www.museum.go.kr/main/publish/view.jsp?menuID=003005002	철자 오류		**館長** 国立**慶**州博物**館** 国立夫**餘**博物**館** 国立**濟**州博物**館**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 혼용
	http://www.museum.go.kr/main/publish/view.jsp?menuID=003004001	철자 오류		学校**連携**教育 学校**相關**教育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 혼용 부적절한 번역 한자어를 중국어로 그대로 옮김
기상청	http://web.kma.go.kr/chn/biz/aviation_01.jsp	부정확한 번역		**龙泉风暴**警报 观测到或预计发生地面1600ft(500m)以下飞机靠近跑道、离陆滑道、正在旋回靠近的飞机带来恶劣影响的**龙泉风暴**时发表 ※ **龙泉风暴**：因为不规则的空气流，风向·风速急剧变化的局地性狂风	부정확한 용어 사용 '토네이도'를 중국어로 '龙卷风'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龙泉风暴'으로 표기
	http://web.kma.go.kr/chn/aboutkma/greeting.jsp	부적절한 번역		最近**地球温暖化**带来的气候变化成为对全世界的挑战。我们与更加频繁、不规则的气候而不安的人们同舟共济。这些不规则威胁着我们的生命与财产。	지구온난화'는 중국어로 그대로 직역. '全球变暖'을 사용해야 함. 문법적 결속구조
	http://web.kma.go.kr/chn/biz/observation_01.jsp	수용성 부족		气象厅为了生产关于气象现象的信息，建设观测网进行观测。气象观测是气象业务为基础，在天、地、海利用各种观测装备和人力，严密观测大气和海洋的状态并管理其资料。气象观测不仅具备传统的装备和方法，还需要如雷达或卫星、气象观测船等高尖端科学技术制作的装备以及运营、管理用电算系统。通过此流程制成的的观测资料将迅速转达给使用者,特别是气象厅观测信息将与全世界共享，对掌握天气预报气象现象和数值预报的原始资料重点使用。	관측망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문법적으로 결속할 수 없는 구조와 적절하지 않은 중국어 표현. '生产关于气象现象的信息'중의 '生产'과 '信息'은 결속할 수 없는 구조. '天、地、海'는 부적적한 용어, '天空、陆地、海洋'로 해야 자연스러움. '对掌握天气预报气象现象和数值预报的原始资料重点使用'는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듬
	http://web.kma.go.kr/chn/weather/images/satellite.jsp	철자 오류			철자 오류 '날씨영상' 섹션의 메뉴 제목이 일본어 한자로 표시되어 있음
	http://web.kma.go.kr/chn/weather/asiandust/intro.jsp	웹페이지 편집 오류			웹페이지 오류 '황사의 발원지'에 대한 소개가 일본어로 되어있음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foreign/cn/message.jsp	수용성 부족		厅长致词	청장 인사말인데 과도한 직역으로 인해 메시지 전달이 안됨
	http://www.rda.go.kr/foreign/cn/responsibility.jsp	수용성 부족 부적절한 번역		①肥料、农药、**农机器**等**农业材料的品质管理** ②**专门农业家**的培养以及农村生活**改善的指导**	과도한 직역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비문법적인 구문 ①化肥、农药、农业机械等农用物资的质量管理 ②培养农业专家，改善农村生活
문화재청	http://chn.cha.go.kr/chinese/html/sub1/sub2.jsp	부정확한 번역 편집 오류		2004. 03. 11《政府组织法》修订，文化财厅**升格级**次官厅 宫中文物展览馆改组为国立故宫博物馆和德寿宫管理所**；在国立文化遗产**	'승격하다'의 의미를 중국어 '升格级'으로 잘못 번역했음. 문화재청의 연혁 관련 내용인데 오류로 인해 문장이 툭 끊겨서 의미 파악이 안됨
	http://chn.cha.go.kr/chinese/html/sub1/index.jsp			韩国的世界记录遗产	불정확한 용어 사용 '세계기록유산'과 대응되는 한자를 그대로 중국어로 옮기고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 世界记忆遗产（Memory of the World）or 世界记忆工程 or 世界档案遗产
	http://chn.cha.go.kr/chinese/html/sub2/index.jsp			韩国的世界无形遗产	불정확한 용어 사용 '인류무형유산'과 대응되는 한자를 그대로 중국어로 옮기고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 非物质文化遗产（Intangible Cultural Heritage）or 无形文化遗产
	http://chn.cha.go.kr/chinese/html/sub1/sub3.jsp	내용 첨가		**文化财厅负责将特别重要的文化遗产评定文化财厅负责将特别重要的文化遗产评定**列入为指定文化遗产，并对这些指定文化遗产进行管理。国宝、宝物等国家指定文化遗产的认定和管理工作由文化财厅直接负责；**各市，道指定文化遗产的确定和管理工作则由地方自治团体负责道指定文化遗产的认定和管理工作则由地方自治团体负责**，由文化财厅提供各种支援。另外，对部分未列入指定文化遗产名单而亟需采取相应保护措施的文物，文化财厅以"登录文化遗产"的形式予以登记并进行保护。	한 문장내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사용. 의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文化财厅负责将特别重要的文化遗产评定'이 두 번 반복, '道指定文化遗产的确定和管理工作则由地方自治团体负责'도 두 번 반복
	http://chn.cha.go.kr/chinese/html/sub1/sub1.jsp	수용성 부족	청장 인사말 차원을 달리하는 새 시대 새 개념에 눈을 떠야합니다. 우리 모두 '문화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아 새로운 견해를 지니도록 꾸준히 노력해갈 때, 비로소 수준 높은 문화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바른 방향이 보이고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겠지요.	...必须对层次不同的新时代新概念产生认识。只有当我们全部将"文化是什么"作为话题，坚持不懈地为拥有新的见解而努力时，才能看见开启高水平文化时代的正确方向，同时接受新时代的力量也一定会壮大。...'	과도한 직역 청장 인사말은 한국어를 중국어로 직역한 듯한 강한 번역투로 일관. 중국어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아 의미전달이 잘 안됨. '产生认识'은 결속할 수 없는 구조이며, '바른 방향이 보이고'를 '看见.....正确方向'으로 그대로 직역하고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새 시대를 받아들이는 힘'으로 직역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chinese/aboutus/history.jsp	부정확한 번역	①9월 5일 **부서**명칭 변경 ②3월 6일 **부서**신설 및 명칭변경 ③성과전략팀, 공간문화과, 문화기술인력과, 대외협력팀 등 4개 **부서** 신설	①9月 5日 **部署**更名 ②3月 6日 **部署**新设及更名 ③新设成果战略组、空间文化科、文化技术人力科、对外协力组等四个**部署部门**	불정확한 용어 사용 '部署'는 중국어에서 '부대의 임무나 성질에 따른 배치, 안배'의 뜻임. 용어를 잘못 사용

	http://www.mcst.go.kr/chinese/aboutus/history.jsp	부적절한 번역	①국민소통실의 매체협력과 폐지, 기능은 정책여론과 및 홍보협력과로 **이관** ②국정홍보처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및 한국정책방송원(KTV)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⑤박물관, 도서관 일부기능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관**	①废除国民沟通室的媒体合作科，把其功能**转到**政策舆论科和宣传合作科 ②将国情宣传处所属机关—海外文化宣传院及韩国政策放送院（KTV）**移管至**文化体育观光部 ⑤博物馆和图书馆的部分功能**转让给**国立中央博物馆和国立中央图书馆	불적절한 용어 사용 '이관'을 '转到/移管至/转让给'로 옮기는 것이 다 적절하지 않은 번역임. '移交至/移交/移至'로 할 수 있음. 그리고 '기능'을 또한 '职能'으로 번역해야 함.
	http://www.mcst.go.kr/chinese/aboutus/minister.jsp	관용성 위배	인사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文化体育观光部为了实现"**富于**文化的生活"，	중국어에서 '**富于**'는 뒤의 내용과 연결할 수 없는 구조. 富有文化魅力/气息/内涵的生活
	http://www.mcst.go.kr/chinese/aboutus/history.jsp	관용성 위배	기능직공무원 2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근거 마련**	**备好**将23名技术公务员特殊录用为普通公务员的**依据**	이 문맥에서 '근거 마련'을 '制定……依据'로 번역해야 맞음
	http://www.mcst.go.kr/chinese/index.jsp	철자 오류		介绍文化**體**育观光部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 혼용 介绍文化**体**育观光部 사이트에서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를 혼용하는 문제 다수 발견
	http://www.mcst.go.kr/chinese/aboutus/organizationchart.jsp	철자 오류	정책보좌관	政策**輔**佐官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 혼용 政策**辅**佐官
	http://www.mcst.go.kr/chinese/useful/usefulList.jsp	철자 오류		**機關**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 혼용 **机关**
	http://www.mcst.go.kr/chinese/aboutus/history.jsp	철자 오류	비상, 재난 대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명칭 변경	为了加强应对紧急情况和灾难的能力把**进及**对策官的名称改为紧急安全企划官	为了加强应对紧急情况和灾难的能力把**紧急**对策官的名称改为紧急安全企划官 오타로 인해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음
	http://www.mcst.go.kr/chinese/bureauofOffice/deptIntro01.jsp	철자 오류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运营和缝隙政策顾客管理服务	缝隙'는 '分析'로 표기해야 함
	http://www.mcst.go.kr/chinese/bureauofOffice/deptIntro01.jsp	문장 부호 오류	대변인 :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등 업무 수행	**发言人** ： 制定和调整文化体育观光部主要政策的国民宣传计划并对此进行协商及给予支持、管理与文化旅游政策相关的各种信息和情况、确认报道内容及支持采访、管理政策报道监视系统、运营和缝隙政策顾客管理服务、管理文化体育观光部业务的对外政策发表及支持简报的发表、运营和支持电子简报、指定和运营网上发言人等负责在社交媒体上的政策沟通及执行检查和评价等业务。	구두점 오류 부호 '、'를 잘못 사용. 중국어에서 병렬되는 문장을 '；'로 연결시킴. 구주점의 오용으로 인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듬. 찰자 오류 '缝隙'는 '分析'로 표기해야 함
법무부	http://www.moj.go.kr/HP/CHI/70.htm	부정확한 번역	남북한 통일 대비 관계법령정비를 위하여 법무실에 특수법령과 신설	为了**迎合**南北统一，在法务室新设特殊法令科	남북한 통일 대비'를 '남북 통일 영합하기 위해'로 오역
	http://www.moj.go.kr/HP/CHI/50.htm	수용성 부족	대국민활동	对国民活动	과도한 직역 메뉴 제목인 '대국민활동'을 그대로 직역 → 亲民活动/爱民活动

	http://www.moj.go.kr/HP/CHI/20.htm	수용성 부족		①现在我们的双手**捧着鲜明的地图**开始迈出了坚定的脚步。 ②法务部的任务就是为坚守这个约定**仔细观察内外的事**, ③但似乎在我们身边有围绕执法的两点误会，那就是法律和人权容易对立的偏见和**源于权力之门的被动的法文化**。	문장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음. '捧着鲜明的地图(선명한 지도를 받들고)', '仔细观察内外的事(안팎의 일을 자세히 관찰한다)', '源于权力之门的被动的法文化(권력의 문에서 나온 피동적 법문화)'등 이해할 수 없는 번역
	http://www.moj.go.kr/HP/CHI/60.htm	웹페이지 편집 오류	그림 참조		법무부 조직도가 일본어로 되어 있음 법무부의 현재 조직현황과 다름
산림청	http://chinese.forest.go.kr/html/kor/intro/intro_010_010.html	일관성 결여	산림청	山林厅 林业厅	용어사용의 일관성 결여 산림청을 소개하는 중국어 메뉴 제목은 '林业厅'으로 되어 있지만 청장 중국어 인사말에서 '山林厅'을 사용. 용어가 일치하지 않음
	http://chinese.forest.go.kr/html/kor/intro/intro_010_011.html	문법 오류 수용성 부족		过去一度荒芜的山地如今已变得十分繁茂，**要论森林管理的发展，韩国相当与其他OECD国家比肩**。	수용성 부족 문법적 결속구조 오류 '相当与其他OECD国家比肩'은 문법적으로 결속할 수 없는 구조. 문장 자체가 비문
	http://chinese.forest.go.kr/html/kor/intro/intro_020_010.html	부적절한 번역		韩国以未来60年的国家远景，提示"**低碳素绿色成长**"，将现今高能耗、大量排放温室煤气的结构转化为**低碳素**高效率的社会经济结构。即，"**低碳素绿色成长**"解决全球变暖等环境问题，实现可持续增长的新的国家发展模式。	불적절한 용어 사용 '저탄소 녹색성장'은 중국어로 '低碳绿色发展'로 표기함
	http://chinese.forest.go.kr/html/kor/policy/policy_010_010.html	문법 오류 수용성 부족		①第5次山林基本计划是通过第4次基本计划构筑可持续山林经营基础，为了应对气候变化等多样山林机能的最佳发挥，履行可持续山林经营的传播。 ②为了达到这个目标，首先，将山林建成经济性，环境性，社会性的主要国家资源，奠立可持续福利国家的基础，通过有价值的山林资源的产业化，贡献于国家经济，开创战略性未来蓝图。 ③如此将相当于全国国土面积64%的山林利用为发展国家经济，国土保全和提高国民生活质量的核心资源及空间，设定长期的‘实现可持绿色福利国家’的规划。	문법적 결속구조 오류 수용성 부족 한국산림정책 관련 내용인데 문법적으로 결속할 수 없는 구조를 사용. 정확하지 않은 용어와 적절하지 않은 중국어 표현. 거의 비문으로 일관. '为了应对气候变化等多样山林机能的最佳发挥', '履行可持续山林经营的传播', '开创战略性未来蓝图', '如此将相当于全国国土面积64%的山林利用为发展国家经济'등 전부다 비문
	http://chinese.forest.go.kr/chtml/index.html	웹페이지 편집 오류			표기 오류 중국어 웹페이지 하단의 산림청 주소가 일본어 한자로 표시되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language/chn/about/history.jsp	관용성 위배		作为实物经济的总管部门，解放后藉着商工部的成立，知识经济部一直**向导了**我国经济产业的发展。	문장 속에 '向导'는 뒤의 '发展'과 호응하여 사용할 수 없음. '引领着/主导着'를 사용할 수 있음.

	http://www.motie.go.kr/language/chn/invest/AboutIK.jsp	문법 오류		韩国投资促进局由于即使企业完成投资、成立后，也提供扶持服务，因此能帮助外资企业在最大范围内应用韩国投资环境，并在最短的十日内适应韩国市场和生活。	문법 오류 '由于即使'는 문법 오류. '应用'과 뒤의 '环境'은 결속할 수 없음
	http://www.motie.go.kr/language/chn/invest/AboutIK.jsp	웹페이지 편집 오류			Invest Korea'에 관한 각 웹페이지의 오른쪽 끝에 나오는 단어가 잘려서 읽을 때 불편함 초래
예술의 전당	http://www.sac.or.kr/cn/program/ticket_info.jsp	부정확한 번역		1. 点击订票网页**左上边**上的'ENGLISH'。 2. 点击**右上边**上的'Programs'。	왼쪽과 오른쪽을 반대로 번역. 1. 点击订票网页右上角的'ENGLISH'。 2. 点击左上角的'Programs'。
	http://www.sac.or.kr/cn/space/space.jsp	부정확한 번역	2층 객석의 600석 규모의 IBK챔버홀은 실내악 전용 연주홀입니다. 실내악 연주에 최적화된 무대와 연주자의 호흡까지 느낄 수 있는 오디토리움으로, 음향과 시야 모든 면에서 무대위의 아티스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IBK室内乐厅(IBK Chamber Hall) **在二层客座有600座**的IBK室内乐厅**是**室内乐专用**的**。 这是为了室内乐演奏的最佳舞台，而且会感觉到**音乐员**的呼吸的会堂。在音响，视野等所有方面，**集中于音乐员的最佳空间**。	오역 '2층 객석의 600석 규모'를 '2층에 600개의 객석이 있다'는 뜻으로 오역. IBK室内音乐厅分上下两层，设有600个座席，是一个专门演奏室内乐的演奏厅。 불정확한 용어 사용 '연주자'를 전혀 대응되지 않는 '音乐员'로 번역. '演奏者/演奏家'로 번역해야 함. 과도한 직역
	http://www.sac.or.kr/cn/about/social.jsp	부적절한 번역	사회공헌사업	社会奉献活动	부적절한 용어 사용 '사회공헌사업'이나 '사회봉사활동'을 '社会奉献活动'로 번역하는 경우 종종 보이나 해당 의미는 중국어로 '社会公益活动'이 더 많이 쓰임.
	http://www.sac.or.kr/cn/about/greeting.jsp	부적절한 번역 관용성 위배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자리잡은 지난 25년 동안 4천만여 명의 방문객이 예술의전당을 찾아주시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의 문화예술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애기업개의 말도 잘 들어봐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객의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부지런히 소통하는 예술의전당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더욱 좋은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韩国从过去的**艺术盲**到现在的文化强国，在这长达25年的岁月里艺术殿堂访客达四千万人左右。有了这么多的访客艺术殿堂**在韩国代表文化艺术中心领域站稳了脚跟**。 济州岛有句俗话"保姆(泛指babysitter)的话也要侧耳倾听"。**应了这句话**，我们将洗耳恭听每一位访客的意见，不断地和访客进行沟通。本艺术殿堂将致力于提供更优秀的文化节目和服务进一步飞跃为代表亚洲的文化艺术机构。	부적절한 관용표현 '艺术盲'은 '예술맹'의 뜻이기 때문에 '불모지'와 의미등가를 이룰 수 없음. 이 문맥에서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를 '韩国从艺术贫瘠的土地'로 번역하면 좋음. 불필요한 보충 설명 제공 '애기업개'를 '保姆'로 번역하면 충분히 의미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泛指babysitter)'라는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족. '应了这句话'도 필요없는 삽입어. 과도한 직역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를 그대로 직역. 그러나 '飞跃为'는 뒤의 '机构'와 결속할 수 없음
	http://www.sac.or.kr/cn/about/org.jsp	일관성 결여	사장 고학찬	社长 高鹤灿	인사말에서 사장의 이름을 번체자 '高鶴燦'로 표기했다가 조직도에서 간체자 '高鹤灿'로 표기
	http://www.sac.or.kr/cn/about/co_re.jsp	철자 오류		国立**當**代舞蹈**團**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 혼용 国立当代舞蹈团
	http://www.sac.or.kr/cn/program/daily.jsp	철자 오류		售票**網**址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 혼용 售票网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intl.aks.ac.kr/chinese/viewforum.php?f=1	부정확한 번역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본받고 싶은 나라, 품격을 지닌 좋은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화된 가치 기준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韩国要不仅仅停留在冷冰冰的"富裕国家"，要发展成为"世界的典范"，必需以韩国文化认同为基础，确立先进文化的价值标准。	이해할 수 없는 오역 중역: 한국은 차가운 '부유한 나라'에 머물러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델'로 발전해야 하며 한국문화의 인정을 기반으로 선진문화의 가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http://intl.aks.ac.kr/chinese/viewforum.php?f=21	웹페이지 편집 오류		学制与奖学金优惠	장학금 관련 내용이 일본어로 되어 있음

번역 결과물 분석 – 불어 –지침 및 용어집

기관	출처	오류유형	출발어	도착어	오류 내역 설명
한식재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밥(쌀밥)	생략, 단순화	멥쌀을 씻어 솥에 안치고 물을 알맞게 붓고 끓여 익힌 것으로 한국인의 주식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며 여러 반찬과 두루 어울린다.	Riz cuit à la vapeur, facile à digérer, qui accompagne à merveille tous les repas. Aliment de base de la cuisine coréenne.	멥쌀, 솥에 안치다, 물을 알맞게 붓고 끓여 익히다 등이 생략되어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잡곡밥	일관성 부족	잡곡밥	Bap aux céréales	쌀밥은 riz, 잡곡밥은 bap aux céréales. 표기법 통일성 부족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잡곡밥	부정확한 번역	멥쌀에 통, 수수, 팥 등 잡곡을 섞거나 잡곡만으로 지은 밥이다.	Riz nature accompagné d'orge, de millet et de haricots noirs cuits à la vapeur.	accompagné de라는 표현을 쓰면 곁들인 음식이라는 느낌이 강해 잡곡이 섞여 있다고 이해하지 못할 듯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잡곡밥	일관성 부족, 관용성 위배	찹쌀에 기장, 찰수수, 검정콩, 붉은팥의 다섯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오곡밥도 잡곡밥의 일종이다.	L'Ogok bap(Bap aux cinq céréales: riz gluant, millet, sorgho glutineux, haricots rouges et haricots noirs) est un type de Japgokbap.	오곡밥은 Ogok bap이라고 음차한 후, 괄호 안에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 'est un type de'라는 표현이 부적절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비빔밥	부정확한 번역	쌀밥에 고기볶음, 갖은 나물 등 반찬과 고명을 올리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다양한 제철 재료와 참기름을 첨가하면 더욱 맛있다.	Riz nature recouvert de légumes, viande et de diffé rents ingrédients de saison. Plat au goût relevé, grâce à la pâte de piment rouge et à l'huile de sésame.	고기 볶음은 단순히 '고기'로 번역되었으며 재철재료와 참기름을 첨가하면 맛있다는 내용은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풍미가 좋아진다'고 번역되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돌솥비빔밥	어휘통일성 부족	뜨거운 돌솥에 밥을 담고 갖은 나물과 고기볶음을 얹은 뒤 고추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Riz servi dans une marmite en pierre chaude, recouvert de divers légumes et de viande sautée, à mélanger avec la pâte de piment rouge.	고기 볶음이 비빔밥에서는 '고기'로 돌솥비빔밥에서는 '고기볶음'으로 번역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영양돌솥밥	부정확한 번역	돌솥에 멥쌀과 잡곡을 섞어 담고 밤, 대추, 은행, 콩 등을 넣어 즉석에서 지은 밥이다.	Riz nature, céréales et fruits secs(marrons, fruits de ginkgo, et pignons) cuits à la vapeur dans une marmite en pierre.	콩을 '잣(pignon)'으로 번역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영양돌솥밥	부정확한 번역	다 먹고 나면 바닥에 눌어붙은 밥에 물을 부어 눌은밥을 만들어 먹는다.	Une fois ce plat consommé, on verse de l'eau au fond de la marmite pour obtenir le nureungjibap, soupe ré alisée à partir du riz restant.	바닥에 눌어 붙은 밥에 물을 붓는다는 표현을 '솥 바닥에 물을 붓는다'라고 표현해서 어색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누룽지밥이라는 ST에 없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 뒤, 이를 '스프'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여 부정확하게 번역되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김치볶음밥	첨가, 생략	김치를 잘게 썰어 밥과 함께 볶은 뒤 달걀프라이를 얹은 음식이다.	Riz sauté à la poêle à feu doux avec du kimchi(chou fermenté) haché.	약한 불에' 볶는다는 표현은 첨가되고 '달걀프라이를 얹는다'는 생략되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불고기덮밥	부정확한 번역, 생략	간장 양념장에 재운 불고기를 익힌 후 밥 위에 얹어 먹는 음식이다.	Riz nappé de Bulbobi(boeuf mariné à la sauce de soja).	nappé'는 '(잼을) 바르다'와 같이 얇에 펴바른다는 느낌인데 과연 밥위에 얹은 불고기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님. 불고기를 익혀서 얹는다는 설명이 생략되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불고기덮밥	부정확한 번역	불고기에 채소를 넉넉히 넣고 국물이 자작하게 익혀서 밥을 비벼 먹기에 좋다.	On y ajoute des légumes, qui rendent leur jus, ce qui permet de mélanger le tout facilement.	불고기 야채에서 국물이 나와서 비벼 먹기 좋은 것처럼 번역되어 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콩나물국밥	부정확한 번역	해산물을 우린 국물을 사용하면 맛이 더욱 개운하다.	Ce plat est encore plus savoureux lorsqu'il est réalisé à base de bouillon de fruits de mer.	개운하다는 표현이 '풍미가 좋다'로 번역되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김밥	관용성 위배	김밥	Riz servi enroulé dans une feuille d'algue	과연 'servi'와 'enroulé'가 동시에 사용되 어색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김밥	생략	흰밥을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한 뒤 살짝 구운 김 위에 얇게 펼쳐 놓고 시금치, 당근, 단무지, 고기볶음 등을 넣어 둘둘 말아 알맞은 크기로 썰어 먹는 음식이다.	Riz nature assaisonné, roulé dans une feuille d'algue avec des épinards, des carottes et du radis vinaigré. Au moment de le servir, on coupe le Gimbap en rondelles.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한다는 내용이 생략되었고, '살짝 구운' 김, '밥을 얇게 펴다', '고기 볶음' 등이 생략되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쌈밥	부정확한 번역	쌈밥	Riz enveloppé dans une feuille de légume	쌈밥을 단순히 '채소잎으로 싼 밥'으로 번역했음. 해조류쌈밥도 쌈밥의 일종인데 해조류는 채소잎이 아님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쌈밥	생략, 문법 오류	푸성귀와 해조류를 깨끗이 씻어 넓게 편 다음 밥과 양념장을 올려 싸 먹는 음식이다. 상추, 깻잎, 배춧잎, 호박잎, 양배추, 김, 미역, 다시마 등이 주요 쌈 재료다.	Bouchées de riz, accompagnées d'une sauce épaisse, enveloppées dans une feuille d'algue, de laitue, sésame, chou coréen, potiron, chou blanc etc.	쌈장은 '진한 소스'로 번역. 김, 미역, 다시마는 단순히 '해조류'로 통합. 잎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나열하면서 전치사 'de'가 생략되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전복죽	문법 오류	잘게 썬 전복과 쌀을 참기름으로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인 보양죽이다. 전복의 쫄깃한 식감과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Potage fortifiant à base de riz connu pour son goût savoureux et sa texture épaisse, grâce aux ormeaux hachés, revenus dans de l'huile de sésame, avant d'avoir longuement mijoté.	avant de mijoter longuement이 되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부정확한 번역	소화가 잘 되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병후 회복식으로 좋다.	Riche en enzyme digestive, ce plat est recommandé pour les personnes en convalescence car il est bénéfique pour le foie et les reins.	소화가 잘 되고'를 '소화 효소가 풍부해'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부정확한 번역	밀가루를 반죽해 납작하게 떼어 맑은 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이다. 멸치 국물을 주로 사용하며 기호에 따라 감자나 김치, 미역 등을 넣어 끓이기도 한다.	Bouillon à base d'anchois, de poulet ou de fruit de mer, contenant de la pâte de blé pétrie, aplatie et découpée à la main.	멸치 국물을 닭국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잔치국수	상위어 번역	삶은 국수에 고명을 얹고 멸치장국을 부어낸 국수로 예로부터 결혼식, 생일, 환갑 등 잔치 때 손님을 대접하는 대표 음식이다.	Sur des nouilles cuites, on verse un bouillon à base d'anchois et ajoute une garniture. C'est un plat traditionnellement servi aux invités les jours de fêtes.	결혼식, 생일, 환갑을 잔칫날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콩국수	부정확한 번역	콩을 삶아 곱게 간 다음 체에 거른 국물에 국수를 말고 소금으로 간한 뒤 얼음을 띄워 열무김치와 함께 먹는 여름철 음식이다.	Sur un lit de nouilles cuites, on verse du jus de soja cuit, finement broyé, filtré et salé. Ce plat estival se mange froid avec le yeolmu kimchi.	얼음을 띄워를 단순히 차게 먹는다고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물냉면	생략, 상위어 번역	메밀로 만든 면을 삶아 동치미 국물과 쇠고기 육수 섞은 국물에 차갑게 말아 먹는 음식이다. 무, 배, 등을 얹고 겨자와 식초로 양념한다.	Nouilles de sarrasin servies dans un bouillon froid avec des tranches de radis ou de poire coréenne et assaisonnées de moutarde et vinaigre.	동치미 국물과 쇠고기 육수 섞은 국물을 '차가운 국물'로 번역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국	상위어 번역	쌀로 만든 가래떡을 얇게 썰어 육수에 넣고 끓인 음식으로 설날에 즐겨 먹는다. 쇠고기를 넣고 끓인 육수를 주로 쓰고, 닭고기나 해물육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Le Tteokguk, plat traditionnel du nouvel an, est préparé avec du Tteok, une pâte de riz découpée en rondelles que l'on fait mijoter dans un bouillon de viande de boeuf, de poulet ou de fruits de mer.	가래떡을 떡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떡만두국	상위어 번역, 부정확한 번역	만두와 얇게 썬 가래떡을 육수에 함께 넣어 끓여 먹는 음식이다. 떡국과 만둣국은 별개의 음식이었으나 한데 섞여 하나의 음식이 되었다.	Bouillon de viande aux raviolis et aux Tteok découpés en rondelles, et portés à ébullition. Une recettes à mi-chemin entre le Tteokguk et le Mandutguk.	가래떡을 떡으로 번역, 두 번째 문장은 출발어 텍스트와 전혀 다른 의미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된장국	하위어 번역, 생략	마른 멸치, 다시마를 우린 국물이나 쌀뜨물에 된장을 풀고 푸른 잎 채소나 시래기, 두부, 조개, 생선, 고기 등을 넣고 끓인 음식이다.	Soupe à base de pâte de soja fermentée, que l'on dilue dans un bouillon d'algues et d'anchois séchés porté à ébullition avec des feuilles de choux, de la chair de coquillages, du poisson ou de la viande.	푸른 잎 채소를 배춧잎으로 번역. 시래기, 두부는 생략. 조개를 조개살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갈비탕	첨가, 생략	소갈비를 토막 내어 무와 함께 푹 삶은 음식으로 맑은 국물이 구수하고 갈비를 뜯어 먹는 맛이 쏠쏠하다.	Soupe claire, consistante et savoureuse, à base de morceaux de côtes de boeurf et de radis. On peut y ajouter des vermicelles. Et prendre plaisir à manger les morceaux de côtes de boeuf avec les doights!	푹 삶은'이 생략, 당면을 넣어 먹을 수 있다와 손가락으로 뜯어 먹는 이 첨가.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우거지갈비탕	하위어 번역, 부정확한 번역, 발음 표기법 오류	갈비뼈를 오랫동안 끓인 국물에 우거지와 된장을 넣어 만든 탕이다. 우거지는 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 놓은 겉대를 말한다.	Soupe de boeuf aux ugeogi(feuilles de chou coréen situées le plus à l'extérieur du légume). Plat assaisonné de pâte de soja fermenté.	갈비뼈-소고기, 우거지(불어의 g는 e와 결합할 때 'ㅈ'발음이 난다), 첫번째 문장 부정확하게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곰탕	부정확한 번역, 첨가	쇠고기나 사골, 도가니 등을 솥에 넣고 오랜 시간 푹 고아 만든 음식으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산모나 노약자에게 좋다.	Soupe à base de boeuf et d'os de moelle, que l'on fait longuement bouillir à feu doux. Riche en protéines et en calcium, elle est conseillée aux femmes enceintes et aux personnes âgées.	약한 불에' 첨가, 사골, 도가니를 '골이 든 뼈'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설렁탕	생략, 첨가	소머리, 쇠족, 쇠고기, 뼈, 내장 등을 함께 넣고 오랜 시간 푹 고아 만든 탕으로 국물이 뽀얗고 맛이 진하다.	Soupe épaisse et riche, à base de boeuf, de tête de veau, d'os à moelle, d'abats et de pied de boeuf, longuement mijotés.	국물이 뽀얗다 생략, 뼈를 '골이 든 뼈'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삼계탕	수용성 부족	어린 닭의 배 속에 인삼, 대추, 밤, 찹쌀, 마늘 등을 넣고 축고아 만든 음식이다.	Soupe de jeune poulet farci de ginseng, jujube, marrons, riz glant, ail, le tout longuement mijoté.	poulet가 영계라는 의미 내포하므로 굳이 jeune를 덧붙일 필요 없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감자탕	부정확한 번역, 첨가	돼지 등뼈와 감자, 우거지, 들깨가루, 깻잎, 파, 마늘 등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 탕으로 깊고 구수한 맛을 낸다.	Ragoût épicé et savoureux, à base de morceaux de porc avec les os, de pommes de terre, feuilles de choux, graines de sésame sauvage, feuilles de sésame, poireaux et ail.	돼지고기 첨가, 깊고 구수한 맛은 '맛있는'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육개장	상위어 번역, 첨가	소 양지머리와 무 등을 푹 삶은 뒤 대파, 토란대, 고사리 등의 채소를 넣고 고춧가루로 매콤하게 양념해 끓인 음식이다.	Soupe épicée à base de viande de boeuf, abats et navets, à laquelle on ajoute des poireaux, tiges de taro et fougères avant d'assaisonner avec de la poudre de piment.	양지머리는 소고기로 '내장'을 첨가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매운탕	생략, 부정확한 번역	생선을 주재료로 하여 채소, 두부 등을 넣고 매운 고춧가루 양념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인 탕이다. 대구, 우럭, 명태 등으로 끓인 매운탕을 즐겨 먹는다.	Soupe de poisson(merlan, morue etc.) épicée, composée de légumes, tofu et poudre ou pâte de piment.	우럭이 생략되었음. 고춧가루 양념장을 고춧가루와 고추장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탕	첨가	생선, 꽃게, 낙지, 새우 등의 각종 해산물에 매운 고춧가루 양념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인 탕이다.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Soupe de fruits de mer(poisson, crabe, poulpe ou crevettes) relevée à la sauce de piment. Epicé et savoureux, ce plat laisse intact la saveur délicate de chacun des ingrédients.	각 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내용 첨가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김치찌개	생략, 부정확한 번역	잘 익은 김치에 돼지고기나 어패류, 두부와 굵게 썬 파 등을 함께 넣어 얼큰하게 끓인 음식이다. 반찬으로 즐겨 먹는 대표적인 찌게다.	Ragoût épicé au kimchi(chou fermenté), tofu, poireaux et la viande de porc(ou fruits de mer). C'est un ragoût qui, traditionnellement, accompagne le riz presque à tous les repas.	잘 익은' 생략, '굵게 썬' 생략, 거의 매 식사마다 먹는다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청국장찌개	생략	청국장은 푹 삶은 콩을 따뜻한 곳에서 단시간에 발효시켜 만든 장이다. 육수에 고기, 김치, 두부, 고추 등을 넣고 청국장을 풀어 찌개를 끓여 먹는다.	Ragoût à base de Cheonggukjang(pâte de graines de soja cuites, brièvement fermenté à température chaude), composé de kimchi(chou fermenté), viande, tofu et piments.	육수에'가 생략되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순두부찌개	생략	순두부에 굴이나 모시조개, 새우 등 각종 해물을 넣고 육수를 부어 끓인 음식으로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Ragoût de sundubu aux fruits de mer: huîtres, coquillages, crevettes etc. Plat épicé et savoureux grâce au goût délicat des fruits de mer.	육수를 부어'가 생략됨,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생략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부대찌개	부정확한 번역	부대찌개	Ragoût du chef(littralement: ragoût de l'armée)	군대찌개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부대찌개	생략	햄, 소시지를 주재료로 하여 김치, 돼지고기, 두부 등을 한데 넣고 육수를 부어 얼큰하게 끓인 퓨전 요리.	Ragoût épicé à base de jambon et de saucisses; on y ajoute ensuite du kimchi(chou fermenté), du porc et du tofu.	육수를 부어'가 생략됨. 퓨전 요리 생략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국수전골	생략	얇게 썬 쇠고기와 채소를 육수에 넣고 끓인 뒤 생면을 넣어 한 번 더 끓인 음식이다.	Cassolette à base de viande et de légumes bouillis; on y ajoute des nouilles fraîches puis on laisse reprendre l'ébullition.	육수에 넣고' 생략되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두부전골	부적절한 번역	두부와 양파, 당근, 미나리, 쇠고기 등을 보기 좋게 둘러 담고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 끓여가며 먹는 음식이다. 맛이 순하고 담백하다.	Cassolette de tofu avec des oignons, des catottes, du persil coréen et du boeuf. On y ajoute du bouillon et on porte à ébullition. Ce plat n'est pas relevé.	맛이 순하고 담백하다를 '고급 음식이 아니다'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만두전골	첨가	쇠고기, 버섯, 당근 등의 재료를 둘러 담고 만두를 얹어 끓인 음식이다.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진 국물 맛과 함께 만두까지 즐길 수 있다.	Cassolette de raviolis, boeuf, champignons et carottes: on dispose tous ces ingrédients dans une sauteuse, et on y verse le bouillon avant de porter à ébullition.	재료를 프라이팬에 담는다고 단어를 첨가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갈비찜	문법 오류	소나 돼지 갈비의 지방을 제거하고 당근과 밤, 은행 등을 섞어 갖은 양념을 한 다음 간장으로 간을 하여 푹 찐 음식이다.	Plat à base de côtes de porc ou de boeuf dégraissées et braisées. La viande, les carottes, les marrons et les fruits de ginki mijotent longuement dans une marinade.	mijotent가 아니라 mijotés가 되어야 함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물찜	첨가, 문법 오류	새우, 오징어, 꽃게, 조개류 등 싱싱한 제철 해물에 콩나물, 미나리 등을 얹고 매운 양념장을 넣어 걸쭉하게 익힌 음식이다.	Fruits de mer de saions(crevettes, calamars, crabes, coquillages etc.), germes de graines de soja et persil coréen cuits à l'étouffé avec de la sauce piquante. Ce plat rend une sauce épaisse.	숨이 죽을 때까지(à l'étouffé)' 첨가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닭백숙	생략, 발음 표기법 오류, 문법 오류	냄비에 닭을 통째로 담고 물을 부은 뒤 인삼, 마늘, 대추를 넣고 푹 삶은 음식이다. 삶은 고기는 소금을 곁들이고 국물은 찹쌀을 넣고 죽을 쑤어 먹는다.	Poulet entier bouilli garni d'ail, de gingeng et de jujube. Après avoir mangé la viande, le riz gluant plongé dans le bouillon restant mijote pour donner le guk.	냄비에', '물을 부은 뒤', '소금을 곁들이고'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도토리묵	생략	도토리녹말을 물에 풀어 끓인 다음 굳힌 음식이다. 당근, 쑥갓, 오이, 풋고추 등을 넣고 양념장에 버무려 먹는다.	Gelée à base de poudre de gland de chêne que l'on mélange avec des carottes, des concombres, du piment vert et de la sauce.	물에 풀어 끓인 다음굳힌'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탕평채	생략, 첨가	녹두녹말을 물에 풀어 끓인 다음 굳힌 청포묵을 가늘게 채썰고, 고기볶음, 미나리, 달걀지단, 김 등 다섯 가지 색깔의 재료를 섞어 만든 음식이다.	Mélange de tranches de gelée de haricots verts et d'ingrédients de cinq couleurs: viande, lamelles de blanc et de jaune d'oeuf, persil coréen et algues séchées. Egalement appelé chungpomuk muchim.	물에 풀어 끓인 다음굳힌'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해파리 냉채	생략, 부정확한 번역	데친 해파리에 배와 오이채를 넣고, 겨자마늘초장에 버무려 먹는 음식이다. 꼬들꼬들한 식감과 새콤달콤하면서 톡 쏘는 맛이 일품이다.	Salade de méduse et comcombre râpé. A accompagner de sauce moutarde vinaigrée. Le goût sucré et acidulé de la sauce accompagne à merveille la texture ferme de la méduse.	데친' 생략, '마늘'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잡채	생략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어 잔치 때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르는 음식이다.	Le plat des jours de fête par excellence.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어'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고등어조림	부정확한 번역	우거지나 김치를 넣기도 한다.	On peut y ajouter les feuilles extérieures de chou ou de kimchi(chou fermenté).	우거지를 '배추 겉잎'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은대구조림	부정확한 번역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Poisson à texture moelleuse, très goûteux.	담백한을 '맛있는'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제육볶음	부정확한 번역	돼지고기를 얇게 저며 생강즙을 넣은 고추장 양념에 재웠다가 볶은 음식이다. 기호에 따라 양파, 당근, 깻잎, 양배추를 넣기도 한다.	Tranches de porc, marinées dans une sauce à base de pâte de piment et de jus de gingembre; elles sont ensuite sautées avec des oignons, carottes, feuilles de sésames ou du chou blanc selon les goûts.	양배추를 chou blanc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오징어 볶음	부정확한 번역	살짝 데친 오징어에 양파, 당근, 양배추 등을 넣고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은 매운 양념장에 볶은 음식이다.	Morceaux de calamar, légèrement blanchis, sautés à la sauce piquante à base de poudre et pâte de piment avec des oignons, des carottes et du chou blanc.	양배추를 chou blanc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뚝배기 불고기	부정확한 번역	당면을 함께 익혀 건져 먹기도 한다.	Selon les goûts, on peut y ajouter des vermicelles.	기호에 따라 당면을 넣어 먹을 수 있다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춘천닭갈비	생략, 부정확한 번역	닭고기를 토막 내 고추장 양념장에 재었다가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배추, 고구마, 당근, 떡 등과 함께 볶아 먹는 강원도 춘천의 향토 음식이다.	Plat typique de la région de Chuncheon. Morceaux de poulet marinés à la sauce de pâte de piment, sautés avec du chou blanc, des patates douces, des carottes et du ttoek(pâte de riz).	양배추를 chou blanc으로 번역, 강원도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곱창구이	생략	소의 내장인 양과 곱창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손질한 뒤 불에 구워 양념장을 찍어 먹거나 갖은 양념해서 구운 음식이다.	Abats de boeuf, préalablement mettoyés pour ôter l'odeur, ensuite marinés et grillés. On peut également faire une grillade simple, sans marinade.	양념장을 찍어 먹거나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삼겹살	생략	양념을 하지 않고 구워 소금이나 쌈장을 찍어 먹고 채소에 쌈을 싸 먹기도 한다.	A accompagner de sauce ou à envelopper dans une feuille de salade.	소금을 찍어 먹고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더덕구이	부정확한 번역	인삼 못지않은 약효와 특유의 삽쌀한 맛과 향을 지닌 뿌리채소 더덕에 매콤 달콤한 고추장 양념장을 발라 구운 음식이다.	Grillade de Deodeok(racine de Codonopsis lanceolata) à la sauce sucrée -salée à base de pâte de piment. Cette racine est connue pour ses propriétés médicinales semblables à celles du gingeng, et pour son goût caractéristique.	독특한 맛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굴비구이	부적절한 번역	씨알이 굵고 기름기가 적은 영광 지방 굴비를 최고로 친다.	C'est dans la région Younggwang, que ce poisson est réputé être le meilleur car sa chair est épaisse et pauvre en graisses.	맛있는 어감이 아님. 살이 두껍고 기름이 적다.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고등어구이	생략	미리 소금을 뿌려 꾸덕꾸덕하게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구워 먹기도 한다.	Le maquereau peut être salé et séché bien à l'avance ou juste avant la cuisson.	꾸덕꾸덕하게, 소금에 절여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녹두전	일관성 결여	녹두를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긴 뒤 곱게 갈아 쇠고기나 돼지고기, 숙주, 고사리, 배추김치 등을 넣고 지진 음식이다.	Galette à base de nokdu(haricot mungo) écossés dans de l'eau et finement broyés.	탕평채에는 녹두를 haricot vert로 녹두전에서는 haricot mungo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송이산적	부정확한 번역, 생략	송이버섯은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하고 쇠고기는 송이버섯과 비슷한 길이로 썰어 양념한 다음 꼬치에 번갈아 꿰어 구운 음식이다.	Brochettes de tranches de Songi(champignon des pins) et de boeuf mariné. Les ingrédients sont pré alablement salés et assaisonnés d'huile de sésame.	송이버섯만 소금, 참기름 간하는 것인데 모든 재료를 소금, 참기름 간하는 것처럼 번역, 비슷한 길이로 썰어를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배추김치	생략	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 잎 사이사이에 무채, 고춧가루, 다진 마늘, 젓갈 등을 버무린 소를 넣어 담근 김치다. 밥과 함께 밥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반찬이다.	Accompagnement de base de la cuisine coréenne: les choux, macérés dans du sel sont assaisonnés de poudre de piment, d'ail haché et de saumure de poisson.	무채 생략, 밥과 함께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백김치	첨가, 생략	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 잎 사이사이에 무채, 배, 미나리, 밤 등을 버무린 소를 넣고 국물이 자작하게 담근 김치다.	Choux coréens fermentés sans piment: on farcit des choux macérés dans du sel de radis, de persil coréen, de la poire, des marrons et de la saumure de poisson.	젓갈을 첨가, 국물을 자작하게 담근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깍두기	부정확한 번역	무를 한입 크기로 팔모썰기 하여 소금에 절인 뒤 고춧가루에 버무리고 파, 마늘, 생강, 새우젓 등으로 양념하여 담근 김치다.	Radis coupés en cube, macérés dans du sel et assaisonnés de poudre de piment, de poireaux, d'ail, de gimgembre et de saumure de poisson.	새우젓을 생선젓갈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총각김치	부정확한 번역	총각무를 무청째 다듬어 씻은 뒤 큰 것은 적당히 쪼개고 작은 것은 그대로 소금에 절였다가 고춧가루와 갖은 양념에 버무려 담근 김치다.	Petits radis entiers avec leurs tiges, rincés et macérés; on y ajoute divers condiments ainsi que de la poudre de piment avant de laisser fermenter.	작은 총각무를 무청째 그대로 씻어 절인다고 번역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고추장	생략	붉은 빛깔을 띠며 매운맛을 낸다.		문장 전체가 생략되었음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간장	부정확한 번역	음식의 간을 맞추는 양념으로 짠맛이 나며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다.	C'est l'un des principaux condiments salés, caractérisé par son goût particulier.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다가 특유의 맛을 가지고 있다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된장	생략	구수하고 짭잘한 맛으로 국, 찌개, 쌈장 등을 만들 때 쓴다.	Condiment servant à assaisonner les soupes ou les ragoûts.	구수하고 짭잘한 맛으로, 쌈장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젓갈	생략	명란의 알을 막이 터지지 않게 소금에 삭혀 양념한 명란젓과 싱싱한 오징어를 채 썰어 소금에 삭힌 뒤 매콤하게 양념한 오징어 젓갈, 생굴을 소금에 삭혀 양념한 굴젓은 한국의 대표적인 젓갈 반찬이다.	Il existe trois Jeotgal principaux: myongranjeot(oeuf de merlan), ojingeojeot(calamars coupé en bâtonnets), gulgeot(huîtres).	막이 터지지 않게 소금에 삭혀 양념한, 소금에 삭힌 뒤 매콤하게 양념한, 소금에 삭혀 양념한, 한국의, 생략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황석어젓	생략	잘게 썰거나 살을 발라 양념에 무쳐 반찬으로 먹거나 김치를 담글 때 넣는다.	le poisson fermenté peut être servi après assaisonnement ou utilisé pour préparer le kimchi.	잘게 썰거나 살을 발라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경단	생략	찹쌀이나 찰수수 가루를 반죽해 밤톨만 한 크기로 둥글게 빚어 끓는 물에 삶은 다음 여러 가지 고물을 묻여 만든 떡이다.	Boulettes à base de riz ou de millet gluant, bouillies et enrobées de diverses poudres;	밤톨만한 크기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녹차	생략, 부정확한 번역	대표적인 명산지인 보성의 녹차는 감칠맛이 뛰어나고 하동의 녹차는 맑고 풋풋한 맛이 난다.	Le thé vert de la région de Boseong est connu pour son goût puissant et celui de Hadong pour son parfum simple et délicat.	대표적인 명산지 생략, 강렬한 맛, 심플하고 섬세한 맛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한정식	부정확한 번역, 생략, 첨가, 문법 오류	한국의 전통 반상차림을 서양의 정찬처럼 순서대로 격식을 갖춰 차려내는 현대적인 상차림이다. 전통적인 한식 식단을 바탕으로 전식, 곡물 위주의 주식과 부식 및 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trairement au dîner coréen traditionnel où tous les plats sont servis en même temps, lors du hanjeonsik, le dîner gastronomique, on sert à les plats dans un ordre prédéfini: entrée, plat, dessert. Le plat principal est composé d'un bol de riz et de ses accompagnements.	on sert les plats라고 번역해야 함. 주식과 부식 및 후식을 밥과 반찬으로 번역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죽상	생략	목이 메지 않도록 나박김치를 올리고 소화를 돕는 매실장아찌를 곁들인다.	… est servi avec des accompagnements simples, comme le Nabak kimchi et Jjangajji aux mirabelles pour faciliter la digestion.	목이 메지 않도록 생략

번역 결과물 분석 – 불어 –공공기관 웹사이트

기관	출처	오류유형	출발어	도착어	오류 내역 설명
한국관광공사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1.jsp	발음 표기법, 어휘 통일성 부족, 어휘 설명 통일성 부족		Il existe différentes sortes de baps, suivant les ingrédients utilisés, comme le huinbap (riz nature), le japgokbap (riz à l'orge, au millet et aux haricots), le byeolmibap (riz aux légumes, aux fruits de mer et à la viande) et le bibimbap (riz mélangé aux namuls et à la viande de bœuf).	huinbap(흰밥) vs riz nature(쌀밥), 흰밥의 불어 표기법에서 h는 묵음이므로 '흰'이라는 발음이 불가능함, 비빔밥의 설명이 한식재단과 다름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1.jsp	어휘 설명 통일성 부족 (한식재단의 설명이 부적절함)		Juk (Bouillies)	한국관광공사의 bouillie가 한식재단의 potage보다 죽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어휘임. Potage는 스프를 지칭하는 총칭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1.jsp	발음 표기법 통일성 부족		Le Hoe est un plat de viande ou de poisson crus ou de légumes assaisonnés avec de la sauce de soja vinaigrée, de la pâte de piment vinaigrée ou de la moutarde.	회를 hoe(한국관광공사), hwe(한식재단)으로 달리 표기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1.jsp	부적절한 번역		Saengchae (Salade fraîche)	생채를 'salade(샐러드)'로 설명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1.jsp	부적절한 번역		Jangajji (Condiments)	장아찌를 'condiment(양념, 조미료)'로 설명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1.jsp	어휘 통일성 부족		Jeotggal	jeotggal(한국관광공사) vs jeotgal(한식재단)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2.jsp	어휘 통일성 부족		les crêpes de kimchi	녹두전은 galette, 김치전은 crêpe/ 한식재단에는 galette de kimchi …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2.jsp	어휘 통일성 부족		Tongbaechu kimchi (Kimchi de chou entier)	통배추 김치와 배추 김치의 차이는? ST 용어 선택의 부적절성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2.jsp	어휘 통일성 부족		Oisobaegi (kimchi de concombre)	관광공사(Oisobaegi) vs 한식재단(oi sobagi)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2.jsp	부적절한 번역		C'est un kimchi populaire en été qui n'est pas épicé.	열무김치에 대한 설명. 열무김치는 안 매운가?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2.jsp	부적절한 번역, 어휘 통일성 부족		Chonggak kimchi (kimchi de radis, dit « kimchi des vieux garçons »)	총각이 '노총각(vieux garçons)'으로 번역됨, 한식재단에는 'Kimchi de petits radis coréens et leurs tiges'로 번역되어 있음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2.jsp	부적절한 번역, 어휘 통일성 부족		Dongchimi (kimchi radis dans de l'eau)	동치미는 '물에 담긴 무우 김치'가 아니며, 한식 재단에는 'kimchi de radis entier dans le jus'라고 번역되어 있음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1.jsp	어휘통일성 부족		Juk (Bouillies)	한국관광공사의 bouillie가 한식재단의 potage보다 죽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어휘임. Potage는 스프를 지칭하는 총칭
	http://french.visitkorea.or.kr/fre/FO/FO_FR_5_1_1.jsp	어휘 통일성 부족		Le Hoe est un plat de viande ou de poisson crus ou de légumes assaisonnés avec de la sauce de soja vinaigrée, de la pâte de piment vinaigrée ou de la moutarde.	회를 hoe(한국관광공사), hwe(한식재단)으로 달리 표기
	http://french.visitkorea.or.kr/fre/SI/SI_FR_4_4_1.jsp?cid=1170608	철자 오류		Du terminal de Seoul-nambu, prendre le bu local en direction de Goryeong	버스(bus)를 bu로 표기
	http://french.visitkorea.or.kr/fre/SI/SI_FR_4_4_1.jsp?cid=1170608	미번역		(Korean, English, Japanese, Chinese)	괄호 안 내용이 번역되지 않았음
	http://french.visitkorea.or.kr/fre/SI/SI_FR_4_4_1.jsp?cid=701549	고유명사 번역 기준		Festival des Lanternes Yudeung Namgang à Jinju	유등 = 기름불, 기름으로 켜는 등불/ 유등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등에 해당되는 lanterne 또 표기. 등이 두 번 반복되었음
	http://french.visitkorea.or.kr/fre/SI/SI_FR_4_4_1.jsp?cid=1170608	부정확한 번역		Festival des Lanternes Yudeung Namgang à Jinj…	지명 표기가 완벽하지 않음

	http://french.visitkorea.or.kr/fre/SI/SI_FR_4_4_1.jsp?cid=1170608	부적절한 번역		Les yudeung (lanternes) qui flottent le long de la rivière Namgang à Jinju, commémorent l'anniversaire de la bataille de Jinjuseong qui s'est déroulée durant les plus violents moments du Imjinwaeran (L'invasion japonaise de la Coree débute en 1592).	임진왜란 = 조선 선조 25년(1592)부터 31년(1598)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 번역문에는 1592년 일본의 한국 침략이라고 번역
	http://french.visitkorea.or.kr/fre/SI/SI_FR_4_4_1.jsp?cid=1170608	부적절한 번역		La Jinjudaecheop (la grande victoire de Jinju) à très largement augmenté la fierté de la nation coréenne et est devenue une partie très célèbre de l'histoire du pays, marquée annuellement par le festival Jinju Namgang Yudeung.	진주대첩 = 진주성 대첩, 임진왜란 때에 진주성에서 우리 군사가 왜군과 싸워서 크게 이긴 전투. 번역문에는 진주에서의 대승리로 번역. 번역문의 설명 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듬
	http://french.visitkorea.or.kr/fre/SI/SI_FR_4_4_1.jsp?cid=1170608	어휘 통일성 부족		la bataille de Jinjuseong à servis de témoignage de la force	외국인 사용자는 부연 설명이 없이는 진주대첩과 진주성 대첩이 같은 사건인지 알기 힘듬
	http://french.visitkorea.or.kr/fre/SI/SI_FR_4_4_1.jsp?cid=1170608	문법 오류		la bataille de Jinjuseong à servis de témoignage de la force, la détermination et l'esprit patriotique des coréens.	servir de의 de가 두 군데 생략되었고 a servi로 표기해야 함
	http://french.visitkorea.or.kr/fre/AK/AK_FR_1_1_2.jsp	문장부호오류		De mars à mai le temps est principalement clément.	쉼표가 빠졌음
	http://french.visitkorea.or.kr/fre/SI/SI_FR_4_4_1.jsp?cid=1170608	부적절한 번역		L'été se divise en deux périodes; jangma, la saison des pluies qui se produit pendant les mois de juin-juillet et le hanyorum, période humide et chaude.	여름을 장마철과 한여름으로 구분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http://french.visitkorea.or.kr/fre/AK/AK_FR_1_4.jsp	부적절한 번역		Lee Myung-Bak, 17ème Président de la Corée du Sud, est au pouvoir depuis le 25 février 2008.	정보 업데이트 필요성.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듯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음
서울시	http://french.seoul.go.kr/mayor/message.php	수용성 부족		Chers citoyens du monde, En tant que Maire de Séoul, je vous souhaite de tout cœur la bienvenue dans cette ville imprégnée d'histoire et de culture, une ville respirant la chaleur humaine…	시장 인사말 전체가 불어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 빈번하게 발견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철자 오류		A partir de 2013, le pretium doloris sera accordé aux personnes qui sont blessées ou qui ont péri essaynant de sauver les autres et protéger les biens des autres pour commémorer leur volonté.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essaynant이 아니라 essayant이라고 번역해야 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구두점 오류		«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plus vous connaissez, plus cela vous rend heureux » le 26 décembre.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글을 올린 날자 앞에 구두점이 생략되었음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문법 오류		De plus, l'hôpital de Séoul sera doté sufisamment des infirmières et des aides-soignant pour que 180 lits qui fait plus d'un quart de 623 lits soient gérés sans les proches.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suffisamment de는 단수와 사용해야 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부적절한 번역		Dans les 25 quartiers de Séoul, le système de payeur-jetteur de rejets alimentaires sera mis en application totale, ce qui vous obligera de payer pour les rejet alimentaires en fonction de qualité que vous rejetez.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양이 아닌 질이라는 단어 선택

	문법 오류		Dans les 25 quartiers de Séoul, le système de payeur-jetteur de rejets alimentaires sera mis en application totale, ce qui vous obligera de payer pour les rejet alimentaires en fonction de qualité que vous rejetez. Le livre sera fourni aux mairies de quartier, maisons communes, bibliothèques et vous êtes libres de le consulter en accédant au site Internet http://ebook.seoul.go.kr.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un livre라고 썼어야 함
	부적절한 번역		Si les médecins considèrent qu'un patient n'a pas besoin de ses proches, il bénéficiera du service d'aide-soignant gratuitement.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만일 의료진이 환자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무료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용성 부족		Si vous désirez enregistrer votre chien, vous pouvez remettre une demande à la société désignée par le maire de quartier et puis pour le mode d'enregistrement, vous pouvez choisir entre micropuce ou plaque d'identification.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et puis로 연결되는 구절이 문장 앞 부분과 호응되지 않음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관용성 위배		La ville de Séoul a rendu grauit les dix vaccins pour les enfant agés moins de 12 ans et à partir de 2013, la ville de Séoul envisage d'ajouter méningite cérébrale des enfant et pneumonie des personnes agées plus de 65 ans à la liste de vaccinations gratuites.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붙어는 한 문장에 동일한 반복을 기피하는데 la ville de Séoul이 반복적으로 사용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관용성 위배		Pretium doloris pour les personnes qui sont blessés ou ont péri essayant de sauver les autres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제목에는 동사를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음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문법 오류		50 personnes décédées et 68 blessées bénéficieront de pretium doloris.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et로 연결된 어휘 간의 불균형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문법 오류, 철자 오류		Paiement différentié de grade de 1 à 9 pour les blessés.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Paiement différentié selon les grades, de 1 à 9로 번역해야 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수용성 부족		Elargissement du système de la marque d'origine	시스템 적용 확대를 설명하려면 élargissement이 아니라 élargissement de l'application으로 번역해야 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부정확한 번역		Mouton (y compris chèvre), merlan, marquereau, sabre ajoutés à la liste des douze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무엇에 대한 목록인지 번역문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듬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문법 오류		La catégorie d'articles sera élargie de douze à quartoze en y ajoutant mouton (y compris chèvre), merlan, marquereau, sabre.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나열의 마지막에는 et가 사용된다.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어휘 통일성 부족		Le système de marque d'orgine sera appliqué non seulement au poulet à être livré mais aussi porc à être livré comme pieds de porc, bossam.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족발은 불어로 설명하고 보쌈은 발음나는대로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표기법 일관성이 결여됨
		문법 오류		Soutien aux foyer composés d'une seule femme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어휘는 단수로, 형용사는 복수로 표기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철자 오류		La politique de tous azimuths sera mise en place pour subvenir à leur besoin de résidence, sécurité, santé, emploi, communauté et des solutions pour les inconvénients.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tout azimut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수용성 부족		Les maisons en sécurité pour les femmes seront construites et les consignes pour les livraisons à domiciles seront installées pour la prévention des crimes.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여성들을 위한 안전 가옥이라는 번역문에 사용된 불어 표현이 이상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수용성 부족		De plus, les services immobiliers non-stop seront fournis pour les femmes locataire qui éprouvent les difficultés de contracter.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듬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문법 오류		Augmentation de 12.3% de frais de gestion des installations, trois cent mille won pour achat des uniformes des entrants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전체 비용이 12.3% 증가하면 이 중 300 000원을 교복 구입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불어만 봐서는 명확하지 않음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20907&cPage=7&	어휘 통일성 부족		Le coût de gestion des installations pour chaque enfant sera augmenté de 12.3% de 105131 à 118157 won. Il sera fourni trois cent millle won pour acheter les uniformes. (L'administration municipale de la ville de Séoul qui change en 2013 à votre service)	숫자 표기법의 일관성 부족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6161&cPage=76&	수용성 부족		Notre site d'informations en français vient d'ouvrir. Il vous tiendra au courant sur toute l'actualité principale touchant la capitale.	touchant이 아니라 concernant이라고 써야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6172&cPage=76	문법오류		Ce prix, créé en 1995 conjointement par les quotidiens coréen et japonais Chosunilbo et Mainichi, est attribué chaque année à des individus ou organismes ayant contribué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n Asie orientale.	à des가 아니라 aux. organismes 앞에도 aux 가 들어가야 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6215&cPage=76	철자 오류		Le gros oeuvre debutera au plus tot en avril de l'annee prochaine et devrait etre termine en avril 2009.	tôt라고 써야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6238&cPage=76	문법오류		La ville de Séoul a tenu, le 17 janvier, une cérémonie de remise de don à l'Association des collectes de fonds pour le bien-être social, don issu des pièces de monnaie lancées par les promeneurs dans le Palseokdam, fontaine située en amont du ruisseau Cheonggyecheon.	두번째 don은 dont이라고 써야함
	http://french.seoul.go.kr/news/news_view.php?idx=6241&cPage=76	문장부호오류		L'article, dont le titre s'intitule Les rêves verts, consacre en tout 5 pages à la capitale sud-coréenne, avec diverses photos.	제목에 꺾쇠가 안 들어감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문법 오류		Informe au sujet des galeries permanentes du musée (1F-3F) et du musée pour enfants. (홈피 첫 페이지)	Informations au sujet des galeries permanentes du musée (1F-3F) et du musée pour enfants. (홈피 첫 페이지)
	www.museum.go.kr	철자 오류		Mardi ・Jeudi ・Vendredi : 9h - 18hr (Guide de visite)	Mardi ・Jeudi ・Vendredi : 9h - 18h (Guide de visite)
	www.museum.go.kr	관용성 위배		Cependant, si le lundi tombe un jour férié, le musée sera ouvert comme un jour normal et sera fermé le jour suivant (Guide de visite)	Cependant, si le lundi tombe sur un jour férié, le musée sera ouvert comme un jour normal et sera fermé le jour suivant (Guide de visite)
	www.museum.go.kr	수용성 부족		Afin de préserver l'ordre public, un "billet gratuit" pour le musée des enfants est émis, veuillez prendre ce billet gratuit à la borne. (Guide de visite)	Afin de préserver l'ordre public, un "billet gratuit" est émis pour le musée des enfants, veuillez prendre ce billet gratuit à la borne. (Guide de visite)
	www.museum.go.kr	수용성 부족		Pour un groupe de 10 personnes ou plus, veuillez réserver au moins une semaine avant (Guide de visite)	Pour un groupe de 10 personnes ou plus, veuillez réserver au moins une semaine avant la visite(Guide de visite)
	www.museum.go.kr	문법 오류		Programme des visites guides de chaque galerie (Guide de visite)	Programme des visites guidées de chaque galerie (Guide de visite)
	www.museum.go.kr	문장부호오류		Japonais Mardi - Vendredi 09h30~10h30 / Samedi 10h30~11h30, 14h30~15h30 (Guide de visite)	Japonais : Mardi - Vendredi 09h30~10h30 / Samedi 10h30~11h30, 14h30~15h30 (Guide de visite)
	www.museum.go.kr	문장부호오류		Vous trouverez également un ascenseur juste en face de Sadang Station Au premier sous-sol, vous trouverez un ascenseur menant au rez-de-chaussée, à gauche de la sortie 2. (Comment s'y rendre)	Vous trouverez également un ascenseur juste en face de Sadang Station. Au premier sous-sol, vous trouverez un ascenseur menant au rez-de-chaussée, à gauche de la sortie 2. (Comment s'y rendre)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수용성 부족		Voeux (Introduction)	Message de bienvenue (Introduction)
	www.nfm.go.kr	문법 오류		Bienvenue surle site Web du Musée national folklorique. (Introduction)	Bienvenue sur le site Web du Musée national folklorique. (Introduction)
	www.nfm.go.kr	수용성 부족		Afin de réaliser cette vision, nous œuvrons à organiser des expositions thématiques favorisant la visite, à mettre en place un réseau des musées qui aidera à la compréhension mutuelle et à la coopération culturelle dans le monde, à créer un musée voué à l'éducation créative tout au long de la vie, à construire un centre dédié à la conservation et à la préservation des traditions et de la culture de la vie quotidienne moderne et contemporaine. (Introduction)	문장이 전체적으로 비문임
	www.nfm.go.kr	문법 오류		Dans cette salle sont exposés les aspects de la vie quotidienne du peuple à l'époque de Joseon (1392-1910), vivant des activités agricoles au rythme des quatre saisons. (Expositions)	문장의 앞과 뒤과 호응을 이루지 않음

	www.nfm.go.kr	문법 오류		On peut y apercevoir la vie du peuple en passant du printemps à l'hiver, ainsi que les marchés, lieux d'échanges et de rencontres entre villages, habitants et objets. (Expositions)	나열 간의 층위가 맞지 않음
	www.nfm.go.kr	문법 오류		Cette salle expose le parcours de vie considéré comme idéal d' un homme noble né à l'époque de Joseon (1392~1910). (Expositions)	Cette salle expose le parcours de vie considéré comme idéal pour un homme noble né à l'époque de Joseon (1392~1910). (Expositions)
	www.nfm.go.kr	수용성 부족		On remarque notamment une préférence pour un garçon qui assurerait la descendance. (Expositions)	On remarque 이하로 문장을 기술하지 않음
	www.nfm.go.kr	수용성 부족		Grâce à ces efforts, le Musée national folklorique détient actuellement en mai 2012 une vaste collection de 102,393 piè ces relative à la vie de tous les jours des Coréens. (Collections)	한국어 구조의 불어 문장
	www.nfm.go.kr	수용성 부족		Content (Classes)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설명하는 부분에 사용된 헤딩
	www.nfm.go.kr	수용성 부족		Le concours oral coréen est organisé afin d'encourager les é trangers dans leurs apprentissages de la langue et de la culture coréennes. (Classes)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Le concours oral en coréen이라고 해야 함
	www.nfm.go.kr	수용성 부족		Pour participer aux programmes de réalisation, une participation aux frais du matériel sera demandée.	만들기는 réalisation이 아니라 bricolage라고 해야함
국립국악원	www.gugak.go.kr	문법 오류, 철자 오류		le musée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de Corée propose des ressources précieuses en termes d'histoire musicale dans ses anciennes salles de sculptures, salles des maîtres et sales des instruments tandis qu'une galerie d'animations 3D ainsi que la galerie sur l'expérience de la gugak offrent au public une expé rience pédagogique virtuelle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coré enne. (A propos)	문장 대문자로 시작 안했음
	www.gugak.go.kr	철자 오류		lMétro (Comment s'y rendre)	lMétro가 아니라 Métro
	www.gugak.go.kr	철자 오류		Programme pour l'expérience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coré enne Afin d'élargir les horizons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coré enne et de son usage dans la vie de tous les jours, nous proposons tout un éventail de programmes éducatifs de tous niveaux et de tous intérêts. (Recherches pédagogiques)	Afin이 아니라 afin이 되어야 함

	www.gugak.go.kr	문장부호오류		Dans le but d'améliorer la qualité de la musique traditionnelle coréenne, nous offrons une "expérience et des opportunités d'apprentissage sur mesure", dont "un programme pour la formation des enseignants" destiné aux enseignement du primaire et du secondaire., le programme « apprentissage de la gugak Famille » pour toute la famille, « Ecole de musique et de culture traditionnelle coréenne » pour les étrangers vivant en Corée, des cours pour les enfants et les jeunes handicapés, etc., ainsi nous proposons un plus grand accès à la musique traditionnelle coréenne. (Recherches pédagogiques)	dont다음에 "가 들어가면 안됨
	www.gugak.go.kr	문법 오류		En outre, nous offrons un « e-cours de musique traditionnelle coréenne » permettant aux personnes d'apprendre la musique traditionnelle coréenne en ligne, gratuitement, et les aidant à assister facilement à des conférences professionnelles et de qualité de musique traditionnelle coréenne. (Recherches pé dagogiques)	en les aidant으로 번역해야 함
	www.gugak.go.kr	문법 오류		Par ailleurs, dans l'intention de globaliser la gugak et de ré hausser le statut culturel de la Corée, nous regardons au-delà de nos frontières et nous produisons diverses activités dont la participation à des festivals d'art internationaux et en organisant (Recherches pédagogiques)	dans l'intention de가 아니라 afin de로 번역해야 함

연구 책임자: 정 호 정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 회장)
공동 연구원: 이 상 원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 연구원)
연구 보조원: 조 상 은
임 순 정
왕 기 맹
박 현 주
임 현 경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 연구원)

담당 연구원: 김 선 철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발 행 인 민 현 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21 전송: 02-2669-9727

인 쇄 일 2013년 11월 1일

발 행 일 2013년 11월 1일